

심 치 열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계모형 고소설 연구

- 계모설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200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 윤 경

논문 개요

가정과 가족이라는 문제는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한 것이며,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도 퇴색되지 않는 영속성을 지닌 주제이다. 특히 한 가정에 어머니로 들어왔으나, 가족갈등과 가정의 해체를 유발하고 끊임없이 가정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계모라는 존재는 오늘날까지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계모형 고소설에 대한 개념과 범주 설정에서부터, 소설사적인 맥락에서 계모형 고소설의 전개에 대한 고찰 및 구체적인 작품의 의미 고찰이 이루어졌다. 선행 논의를 통하여 의미 있는 성과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한 한계 또한 드러난다. 계모형 고소설의 전개와 변모 양상을 서사구조의 측면에 집중하여 설명하려 하거나, 계모형 고소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던 조선후기라는 시대적·사회적 배경에 의존하여 계모형 고소설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려는 방식 등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계모형 고소설의 구체적인 작품론도 일부 작품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계모형 고소설에 대한 보다 온전한 이해는 계모 이야기에 대한 종적·횡적인 두 축을 함께 고려할 때 가능하다. 더불어 작품에 대한 시야를 넓힐 때, 계모형 고소설 작품세계의 다채로운 의미와 문학적 존재 의의가 드러날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계모형 고소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계모설화와 계모형 고소설의 영향관계에 주목하였다. 계모설화의 관련성 아래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계모형 고소설로는 <연당전>, <황월선전>, <콩쥐팥쥐전>, <조생원전(필사본)> 등이 있다. 이들은 <장화홍련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이 작품들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을 통해 일부 작품에 집중되었던 논의의 편향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계모설화와 계모형 고소설의 관련성을 전제로 하였을 때, 이는 계모형 고소설의 종적인 영향관계를 살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설화 각편에 따라 소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계모설화가 계모형 고소설의 형

성에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추정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계모설화 중에는 세계적인 유형의 것으로서 그 연원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는 유형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모설화와 계모형 고소설의 영향관계에 주목하였을 때, 계모 이야기가 시대와 장르를 달리하면서 겪는 변모의 양상을 의미 있게 살필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작품들은 계모설화와의 영향관계 속에서 장르를 달리하면서도 변모되지 않는 본질적인 의미를 드러내는가 하면, 소설적 변모를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계모설화와 서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서사 엮어가기를 통해 새로운 작품을 형성하여 작품세계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웅소설이나 가문소설과 같은 다른 고소설 유형과의 횡적인 영향관계를 통해 계모형 고소설 작품세계의 변모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연당전>, <황월선전>, <콩쥐팍쥐전>, <조생원전(필사본)> 등을 대상으로 계모형 고소설을 논의하는 것은, 계모형 고소설이 계모설화와의 종적인 영향관계 및 다른 고소설 유형과의 횡적인 영향관계를 통하여 작품세계의 지평을 넓혀가는 과정과 그 의미의 변모를 살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은 목적 아래 II장에서는 계모 이야기의 보편적인 서사구조 및 갈등구도의 전개와 계모 이야기의 전반적인 존재양상을 전제적인 조건으로 살폈다. 계모 이야기는 설화(민담), 서사무가, 고소설, 신소설 등의 다양한 장르로 존재하면서 서로 영향관계를 맺고 있다. 계모 이야기가 장르와 하위유형을 넘나들며 상호 관련을 맺는 양상을 통해 계모 이야기의 지형도를 그려볼 수 있는데, 이는 계모설화와 계모형 고소설의 상관성에 대한 이해 및 계모 이야기의 서사문학적 존재감을 가늠하는데 유효하다.

계모 이야기에는 다양한 장르와 하위유형을 가로지르는 공통적 틀로서의 서사구조가 존재하며, 그것은 친모의 죽음으로 인한 계모의 영입과 그로 인한 가족구성원 - 특히 전실자식 - 과의 갈등으로부터 출발한다. 계모와 주로 갈등을 빚는 것은 전실자식으로서, 계모는 끊임없이 전실자식을 가정으로부터 소외시키려 한다. 죽음을 맞이하거나 가정으로부터 축출된 전실자식은 원조자나 배우자를 만나 시련을 극복하고 가정으로 귀환한다. 전실자식의 귀환으로 계모는 그 악행이 드러

나 응징되고, 서두에서 제시되었던 가정의 갈등은 마무리된다.

계모 이야기의 위와 같은 서사구조는 각 단계마다 경우의 수로서 동원되는 모티프의 실현으로 구체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그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계모 이야기의 하위유형이 갈라지는데, 하위유형의 독자성을 드러내주는 특정 모티프는 인물갈등 구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물 간의 갈등구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동원되는 모티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동일한 서사구조 안에서도 하위유형마다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계모 이야기의 인물갈등 구도는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을 기본으로 하되 가장이 중개자적인 갈등을 겪는 삼각구도를 이룬다. 이 삼각구도가 전이되어 또 하나의 갈등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데, 전실자식의 배우자나 계모소생 등이 등장하게 되면 계모와 전실자식 및 가장의 갈등구도가 이들에게 전이됨으로써 또 다른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중의 삼각구도를 형성하는 계모 이야기의 갈등구도는 하위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삼각구도가 온전히 유지되기도 하고 유지되지 못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서사구조와 갈등구도를 바탕으로 계모 이야기의 존재양상과 그 상호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때, 계모설화는 여덟 가지의 하위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손 없는 색시>, <황화일엽(黃花一葉)>, <콩쥐팥쥐>, <연이와 버들도령>, <접동새>,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 <우목낭상(寓目囊箱)>이 그것이다. 전자의 다섯 유형은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으로 기본으로 하며, 후자의 세 유형은 계모와 전실아들의 갈등을 문제 삼는다.

특히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는 서사무가 <칠성풀이>, <문전본풀이>, <성신굿>, <살풀이>와 일정 부분의 서사를 공유한다. <칠성풀이>와 <문전본풀이>는 전반부에 다른 서사가 덧붙여 있고, 후반부에서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와 유사한 서사전개를 보인다. <성신굿>과 <살풀이>는 다른 서사와의 결합 없이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와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성신굿>은 더욱 설화와 밀접하여 <성신굿>이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를 서사무가로 수용하였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한편 <허웅애기본풀이>는 <콩쥐팥쥐> 및 <콩쥐팥쥐전>과 서사를 공유한다. <허웅애기본풀이>에서는 허웅애기가 계모로, 콩애기가 진실딸로 나타나면서 후반부에 다른 서사가 덧붙는다. 후반부 서사는 민담 <허웅아기>와 유사한데, 콩애기가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살림을 하다가 이웃할미의 의심을 사고, 결국 저승차사에게 넋을 빼앗긴다는 전개를 보인다.

계모형 고소설은 세 가지의 양상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계모설화와 밀접한 관련 속에 작품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바다. <연당전>, <황월선전>, <콩쥐팥쥐전>, <조생원전(필사본)>가 그것으로, 각각 <손 없는 색시>, <황화일엽>, <콩쥐팥쥐>,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와 영향관계를 맺는다.

<장화홍련전>은 계모형 고소설의 초기적 양상을 보이는 작품으로 논의되었으며, 많은 연구성과가 있었다. 계모설화에서도 2편 정도 <장화홍련전>과 유사한 것이 보이나, <장화홍련전>은 전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원형 송사설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룡전>이나 <효열지> 등은 계모형 고소설이 영웅소설이나 가문소설과의 영향 아래 형성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진실자식이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군담 모티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크게 변모된 모습이다. 작품세계의 의미 또한 계모와 가정갈등보다는, 진실자식 중심의 영웅적 삶과 그로 인한 가문의 존속과 영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변모되었다.

신소설은 <구의산>처럼 전대의 계모 이야기 -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를 비롯한 <조생원전(필사본)> 및 <김씨열행록> 등 - 를 수용하여 형성된 것과, <치악산>과 같이 계모 이야기의 보편적인 서사구조와 인물형상 등을 수용한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Ⅲ장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장르와 유형으로 존재하면서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는 계모 이야기들 중, 계모설화와 계모형 고소설의 관계에 주목하여 그 존재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당전>은 <손 없는 색시>와의 영향관계 속에서 형성된 작품으로, <손 없는

색시> 설화 각편에 나타나는 모티프들을 종합적으로 동일하여 작품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손 없는 색시>의 각편 일부는 <황화일엽>과 착종되어 있는데, <연당전>의 이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순금전>은 그러한 착종 속에서 형성된 소설이다.

<황월선전>은 <황화일엽>과 관련이 있다. <황화일엽>과 <황월선전>의 영향 관계에 주목한 논의가 없었기에, <장화홍련전>이나 <콩쥐팍쥐전>을 설화적 전통과 관련된 계모형 고소설의 초기적인 형태로 간주하면서 <황월선전>은 후기 유형구조의 작품으로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황월선전>은 <황화일엽>과 영향관계 속에 있으면서 <선연전>, <양소저전> 같은 여성영웅소설과 교섭한 작품까지 형성해내고 있어, 계모형 고소설의 판도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작품이다. 즉 <황월선전>만으로도 계모형 고소설의 종적이고 횡적인 전개와 변모를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콩쥐팍쥐전>은 주지하다시피 <콩쥐팍쥐>라는 설화적 전통과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동화화의 과정을 거쳐 계모 이야기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조생원전>은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와 서사전개가 유사하다. 이 설화 각편 중에는 가장이 사명당으로 나타나면서, <사명당 출가유래담>으로도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나머지 각편은 <조생원전>의 서사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사명당 출가유래담>으로 귀결된 각편들은 <사명당전>의 전반부와 관련을 맺는다.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의 큰 특징은 계모와 전실아들의 갈등을 내세웠지만, 초점은 가장과 전실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에게 있다는 점이다. 가장에게 보다 주목한 것이 <사명당 출가유래담>이고, 며느리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나머지 각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생원전>은 며느리 중심의 각편과 서사가 동일하지만, 가장과 며느리가 서사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본인 <성부인전>과 변이작인 <김씨열행록>을 통해서 보다 며느리 중심의 서사로 이행해 가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특히 <김씨열행록>은 후반부의 서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김씨열행

록>과 개화기 소설 <구의산>의 영향관계를 고찰하였거니와, 정확하게 말하면 <구의산>은 <조생원전>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상의 계모형 고소설들은 계모와 가족갈등이라는 동일한 주제 속에서도 작품마다 그 주제를 구현하는 방식 및 계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낸다. 작품간의 변별성을 밝혀주는 것은 동시에 작품별 독자성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또한 이들 작품을 통해 계모형 고소설의 다채로운 작품세계를 살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IV장에서는 <연당전> 등의 계모형 고소설에 대한 의미 고찰과 더불어 계모형 고소설의 구체적 작품들이 드러내는 독자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당전>은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을 주축으로 삼으면서, 전실딸의 혼인담을 통해 전실딸의 어머니 되기와 가정 이루기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전실딸의 손목 절단과 재생 모티프는 전실딸의 모성성 획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전실딸 배우자의 아내와 자식 탐색은 온전한 가정 이루기라는 의미를 지닌다.

<황월선전>에서는 선한 계모 소생(이복남동생)이 등장하여 중요한 의미를 형성한다. <황월선전>에서 서사의 전면에 부각되는 선한 계모 소생은, 계모로 인해 와해된 가정의 복원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 계모와 그 소생까지 처참하게 응징되는 일반적 결말과 달리, <황월선전>에서는 대부분 계모가 용서되고 어머니로서 인정된다. 비록 천상계의 별을 받아 계모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가족과의 화합은 이미 이룬 상태이며 또한 가족에 의해 선산에 안장된다. 따라서 <황월선전>의 의의는 계모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인식과 가족화합에 대한 모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콩쥐팥쥐전>은 전실딸의 혼인담과 더불어 가정 내 여성갈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이 계모딸과 전실딸의 대립으로 전이되면서, 계모와 전실딸 갈등이 본래는 처-처 갈등이라는 가정 내 여성갈등의 변형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죽은 친모와 계모의 암시적 대립이 계모와 전실딸로 변형되었다가, 계모딸과 전실딸의 대립으로 다시 전이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콩쥐팥쥐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조생원전>은 계모와 전실아들의 갈등을 표면에 내세웠으나, 가장과 며느리를 서사의 주체로 삼는다. 며느리의 노력으로 아들의 비극적 죽음이 계모의 흥계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된 가장은, 계모와 그 소생까지 불태워 죽인 후 가산을 며느리에게 맡기고 방랑길에 나선다. 이는 가정의 상징적 존재인 가장을 통해 계모 영입으로 인한 가정의 비극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며느리가 유복자를 낳아 시아버지를 모셔오고 와해된 가정을 복원한다는 것에는 열 윤리가 개입되어 있다.

V장에서는 계모형 고소설을 비롯한 계모 이야기에서 대부분 계모와 기존 가족구성원들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으로 끝나고 계모가 악인으로 전형화된 것에 대한 의미 고찰을 통해, 계모형 고소설 및 계모 이야기의 문학적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늠하였다.

계모를 들여 겪는 가정갈등은 기존 가족구성원과 새로운 구성원이 만나 융화된 가족양태를 이루는 과정의 부산물이며, 계모 이야기에서 핵심이 되는 갈등은 가족구성원 간의 서로 다른 가족양태에 대한 욕망의 대립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대립의 이면에는 갈등을 조율하고 융화된 가족양태를 지향해야 할 가장이 처가의 도리를 제대로 못하여, 가장권의 약화 및 나아가 가부장제의 위기를 초래한 것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계모 이야기에서는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가부장제가 약화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부장제의 약화라는 위기를 계모에게 전가하여 봉합하고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고 있는데, 계모를 가정에서 소외시키는 결말과 계모를 악인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으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 인해 악인으로 전형화된 계모는 계모형 고소설을 비롯한 계모 이야기의 문학적 통속화를 통해 그 악인형상에 공고해져 갔다.

계모형 고소설을 고찰함에 있어 <장화홍련전>을 비롯한 일부 작품에 집중된 논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계모형 고소설의 실상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계모형 고소설의 또 다른 작품세계를 <연당전>, <황월선전>, <콩쥐팥쥐전>, <조생원전> 등을 통하여 밝혀보고

자 하였다. 특히 이들은 계모설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장르를 달리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향유된 계모 이야기를 살필 수 있다는 의의가 있었다. 본고의 논의를 통하여 계모형 고소설 작품세계의 지평이 보다 온전히 드러날 수 있었기를 바라며, 미처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다양한 계모 이야기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과제로 남긴다.

핵심어 : 계모설화, 계모형 고소설, 상호 관련성, 서사구조, 갈등구조, 계모 이야기의 지형도, <손 없는 색시>, <연당전>, <황화일엽>, <황월선전>, <콩쥐팥쥐>, <콩쥐팥쥐전>,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조생원전(필사본)>, 가족형태, 가부장제, 계모, 부정적 전형화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 방법	9
II. 계모 이야기의 구조와 존재양상	15
1. 계모 이야기의 구조와 전개	16
2. 계모 이야기의 존재양상과 상호관련성	24
III. 계모설화와 계모형 고소설의 상관성 및 전개양상	37
1. <손 없는 색시>와 <연당전>	39
1) <손 없는 색시>의 각편별 특징	39
2) <연당전>의 존재양상과 전개	47
2. <황화일엽>과 <황월선전>	55
1) <황화일엽>의 각편별 특징	55
2) <황월선전>의 존재양상과 전개	62
3. <콩쥐팥쥐>와 <콩쥐팥쥐전>	74
1) <콩쥐팥쥐>의 각편별 특징	74
2) <콩쥐팥쥐전>의 존재양상과 전개	83
4.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와 <조생원전(필사본)>	88
1)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의 각편별 특징	88
2) <조생원전>의 존재양상과 전개	96

IV. 계모설화와의 비교를 통한 계모형 고소설 작품세계의 다면적 의미 106

1. 전실딸의 어머니 되기와 가정 이루기의 상징적 형상화 : <연당전> 107

 1) 손목 절단 및 재생 모티프와 모성성의 획득 107

 2) 아내 탐색담을 통한 전실딸 가정의 복원 115

2. 전실딸의 주체적 삶의 획득과 가정갈등에 대한 모색 : <황월선전> 120

 1) 부녀갈등과 전실딸의 주체적 자기인식 120

 2) 선한 계모소생의 등장과 가정갈등에 대한 인식의 변모 127

3. 전실딸의 혼인담과 여성갈등의 상징적 형상화 : <콩쥐팍쥐전> 135

 1) 난제부과 및 신발 모티프와 혼인담 135

 2) 뒤바뀐 아내 모티프와 계모담에 내재된 여성갈등 140

4. 계모 영입으로 인한 가정갈등의 비극적 인식과 가정복원의 의지
 : <조생원전(필사본)> 145

 1)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정갈등의 비극적 인식 145

 2) 며느리의 열 윤리를 통한 가정의 복원 151

V. 계모 존재의 부정적 전형화와 계모형 고소설의 문학적 본질 159

1. 가족형태의 변화와 가장권의 위기에 대한 우려의 표출 161

2.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통한 위기의 불식과 계모 존재의 부정적 전형화 .. 167

VI. 결 론 174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계모 이야기의 존재양상과 상호 관련성	36
<표 2> ‘손 없는 색시’의 모티프 출입양상	45
<표 3> ‘황화일엽’의 모티프 출입양상	60
<표 4> ‘황화일엽’과 ‘황월선전’의 모티프 비교	66
<표 5> ‘콩쥐팥쥐’의 모티프 출입양상	78
<표 6>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의 모티프 출입양상	94
<표 7> ‘온달’·‘내 복에 산다’·‘황화일엽’의 비교	123

I. 서론

1. 연구 목적

가족과 가정이라는 문제는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한 것이며,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도 퇴색되지 않는 영속성을 지닌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가족구성원이 되 끊임없이 가정에서 소외되어 온 계모라는 존재는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계모에 대한 이야기가 민담이나 무가 및 소설, 나아가 개화기 소설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제기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계모라는 존재의 본질적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에 본 연구의 출발이 있다.

계모 이야기는 특히 18세기 후반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소설이라는 장르에 이르러 부각된다. 선행연구에서는 그러한 점에 주목하여 <장화홍련전>과 같은 작품의 고찰을 통해 계모라는 존재와 계모의 영입으로 인한 가족갈등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이 무엇인가를 밝히려 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의미 있는 성과는 인정되나, 계모에 대한 이야기가 다양한 장르와 유형으로 존재함에도 그에 대한 고찰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그 온전한 실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다.

<장화홍련전>은 출현시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작품으로서 계모형 고소설의 초기작으로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그 외의 작품에 대해서는 자세한 고찰 없이 <장화홍련전>의 영향을 받아 출현했다는 논의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작품에 대한 시야를 넓혀 다른 계모형 고소설, 나아가 다양한 장르와 유형으로 존재하는 계모 이야기들을 거시적 차원에서 다루었을 때 선행논의의 한계는 더욱 분명해진다. 그리고 다른 작품에 대한 적극적인 고찰은 오히려 <장화홍련전>의 위치와 의미를 다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계모형 고소설에 대한 개념과 범주 설정에서부터, 소설사적

인 맥락에서 계모형 고소설의 전개에 대한 고찰 및 구체적인 작품의 의미 고찰이 이루어졌다. 선행 논의를 통하여 의미 있는 성과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한 한계 또한 드러난다. 계모형 고소설의 전개와 변모 양상을 서사구조의 측면에 집중하여 설명하려 하거나, 계모형 고소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던 조선후기라는 시대적·사회적 배경에 의존하여 계모형 고소설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려는 방식 등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계모형 고소설의 구체적인 작품론도 일부 작품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계모형 고소설에 대한 보다 온전한 이해는 계모 이야기에 대한 종적·횡적인 두 축을 함께 고려할 때 가능하다. 더불어 작품에 대한 시야를 넓힐 때, 계모형 고소설 작품세계의 다채로운 의미와 문학적 존재 의의가 드러날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계모형 고소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계모설화와 계모형 고소설의 영향관계에 주목하였다. 계모설화의 관련성 아래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계모형 고소설로는 <연당전>, <황월선전>, <콩쥐팥쥐전>, <조생원전(필사본)> 등이 있다. 이들은 <장화홍련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이 작품들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을 통해 일부 작품에 집중되었던 논의의 편향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계모설화와 계모형 고소설의 관련성을 전제로 하였을 때, 이는 계모형 고소설의 종적인 영향관계를 살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설화 각편에 따라 소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계모설화가 계모형 고소설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추정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계모설화 중에는 세계적인 유형의 것으로서 그 연원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는 유형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모설화와 계모형 고소설의 영향관계에 주목하였을 때, 계모 이야기가 시대와 장르를 달리하면서 겪는 변모의 양상을 의미 있게 살필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작품들은 계모설화와 영향관계 속에서 장르를 달리하면서도 변모되지 않는 본질적인 의미를 드러내는가 하면, 소설적 변모를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계모설화와 서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서사 엮어가기를 통해 새로운 작품을 형성하여 작품세계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웅소설이나 가문소설과 같은 다른 고소설 유형과의 횡적인 영향관계를 통해 계모형 고소설 작품세계의 변모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연당전>, <황월선전>, <콩쥐팥쥐전>, <조생원전(필사본)> 등을 대상으로 계모형 고소설을 논의하는 것은, 계모형 고소설이 계모설화와의 종적인 영향관계 및 다른 고소설 유형과의 횡적인 영향관계를 통하여 작품세계의 지평을 넓혀가는 과정과 그 의미의 변모를 살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이들 작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손 없는 색시>, <황화일엽>, <콩쥐팥쥐>,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등은 그 자체로도 논의할 점이 많다.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장르와 유형으로 존재하는 계모 이야기들 또한 그간의 논의가 미진하여 적극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더불어 장르별 고찰 혹은 동일 장르 안에서의 유형별 고찰이 이루어진 후에는, 장르와 유형을 넘나드는 연계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를 위한 대안으로 계모설화와 서사를 공유하면서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계모형 고소설에 주목한 것인데, 본고에서 미처 고찰 대상으로 삼지 못한 것들은 후속 논의로 남긴다.

2. 선행연구 검토

민담, 무가, 소설, 신소설 등 다양한 장르와 유형으로 존재하는 계모 이야기에 대한 고찰은 무엇보다도 민담과 소설 부분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면서도 장르와 유형 간의 연계적인 고찰은 미흡하였는데, 우선 동일 장르 안에서의 고찰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계모설화에 대한 연구는 유형 분류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운식의 연구성과를 시작으로 하여 유형분류를 통한 계모설화의 의미 탐색이 이루어졌다.¹⁾ 계모설화의

1) 崔雲植, 『韓國說話研究』, 집문당, 1994.

-----, 『繼母說話의 研究』, 『한국의 민속』 제3호, 경희대민속학연구소, 1986.

전용신, “韓國繼母說話研究,”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하위유형 분류에 있어서는, 계모의 악행 행태를 기준으로 삼거나 계모의 악행에 대한 전실자식의 대응 양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관성 있고 타당한 분류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계모설화의 하위유형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물은 <콩쥐팥쥐> 및 <손 없는 색시> 설화에서 보다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다. 대부분 통과제의 구조 속에서 이 설화 유형을 바라보고 전실딸의 혼인담에 중요한 의미를 부과하여, 전실딸 중심의 이니시에이션 과정의 형상화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²⁾. 또한 통과제의적 시각을 기준으로 계모설화 대부분의 하위유형을 고찰한 연구도 있는데,³⁾ 이처럼 계모설화의 의미 고찰에 있어서는 신화적인 통과제의 구조를 언급하는 것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성과를 통하여 계모설화에 나타난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관계는 현실적인 맥락보다 상징적 차원에서 해석되었다. 이는 ‘고대의 통과제의를 아마도 가장 잘 반영하며, 따라서 그 자체에 진정한 통과제의적 의미를 실고 있다고 생각되는 텍스트는 민간설화’라는 비에른느의 언술⁴⁾이 유효하게 작용한 결과라 보여진다.

신상운, “계모설화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2) 권순균, 「<콩쥐팥쥐전>과 고소설의 동화화 경향」, 『성대문학』 25, 성균관대 출판부, 1987.
 김중균, 「<콩쥐팥쥐전>의 서사구조 연구」, 『한국학보』 87, 일지사, 1997.
 이원수, 「<콩쥐팥쥐>와 <신데렐라>의 비교연구 - 북미 인디언 <신데렐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어문학』 77, 한국어문학회, 2000.
 조희용, 「<손 없는 색시>(AT706)고」, 『수여 성기열 박사 환갑기념논총』, 동간행위원회, 1989.
 주종연, 「<손 없는 색시>와 <Das Mädchen ohne Hände>」, 『한독민담비교연구』, 집문당, 1999.
 신연우, 「<손 없는 색시> 설화와 여성 성의식의 성장」,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제5차 학술대회 발표요지, 이화여대, 2001.4.
 이인경, 「<손 없는 색시> 설화의 신화적 성격과 심리학적 접근」, 『구비문학과 인접학문(2)』, 한국구비문학회, 2001. 11.
 강은경, “<손 없는 색시>담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윤경, 「<손 없는 색시>설화의 소설화와 그 의미」, 『돈암어문학 14집』, 돈암어문학회, 박이정, 2001.9.
 김혜정, “<손 없는 색시> 설화의 유형체계-유형, 하위유형, 상위유형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3) 손혜옥, “통과제의 시각으로 본 계모설화 속 계모 악인 형상의 의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4) 시몬느 비에른느, 『통과제의와 문학』, 이재실 역, 문학동네, 1996, 148쪽 참조.

계모설화가 통과제의적 구조 속에서 전설자식 중심의 이니시에이션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논의는 다소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타당성 있는 논의이다. 다만 동일한 통과제의적 구조 속에서 전설자식의 이니시에이션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설자식이 획득하게 되는 자질의 성격은 하위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그러한 변별성에 주목하지 못하여 일정한 한계를 드러낸다 하겠다.

계모설화의 하위유형과 서사를 공유하는 일련의 서사무가들 - <살풀이>, <성신굿>, <칠성풀이>, <문전본풀이> 등 - 은 서대석의 논의 속에서 가정신화로서 고찰되었다. 서대석은 관서지방의 <성신굿>, 관북지방의 <살풀이>, 호남의 <칠성풀이>, <제주의 <문전본풀이>를 하나의 서사유형으로 파악하고, 전처소생의 아들들이 후처의 모해를 받아 죽게 되었으나 천우신조로 후처의 악행이 드러나 후처를 응징하고 위기를 모면하는 계모담이 주축을 이룬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 계열의 것들을 가정신화로 규정하면서 <칠성풀이>와 계모형 서사문학 및 <제석본풀이>와의 관계를 조망하고 있다.⁵⁾ 이러한 서대석의 고찰을 시작으로 박종성, 홍나래, 정주혜의 논의가 이어지면서 <칠성풀이>를 비롯한 서사무가의 계모담으로서의 성격이 주목되었다.⁶⁾ 그러나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들 서사무가에 대해, 설화와의 적극적인 비교고찰이 미흡한 점이 아쉽다.

한편 계모형 고소설에 대한 고찰은 전반적인 흐름과 더불어 개별 작품론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계모형 고소설의 경우 안확과 정주동에 이르기까지는 가정소설에 대한 논의 속에서 함께 다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개념규정과 하위유형에 대한 성격 규명에 치중하였고, 이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가정소설이 고소설의 한 유형으로서 인식되는 계기를 가져왔다.⁷⁾

5) 서대석, 「칠성풀이 연구 - 신화적 성격과 서사시적 서술구조」, 『진단학보』 제65집, 진단학회, 1988.

6) 박종성, 「‘바리공주’와 ‘칠성풀이’의 同異性」, 『한국서사문학의 연구』 5, 중앙문화사, 1995.

홍나래, “<칠성풀이>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정주혜, “<칠성풀이>와 <문전본풀이>의 대비 연구 - 가족관을 중심으로 -”,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7) 安廓,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한편 김일렬은 가족간의 갈등을 포괄적으로 문제 삼아 그 심층적 의미를 고찰하여 가정소설 연구의 질적 심화를 가져왔고,⁸⁾ 이원수는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를 논의함으로써 가정소설의 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해 내었다.⁹⁾ 또한 우쾌제는 가정소설의 형성배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함께 가정소설의 하위유형 분류를 시도함으로써 그 범주를 확대·심화하였다.¹⁰⁾

이러한 연구성과를 통하여 보다 세분화된 가정소설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 크게 쟁총형과 계모형 고소설이라는 두 방향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계모형 고소설의 경우 ‘계모’라는 반동인물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가족갈등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이러한 문제는 주로 17-18세기라는 특정한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가부장제 의식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였다.¹¹⁾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계모형 고소설을 가정소설의 하위유형으로 인식하고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서사구조와 전개과정 및 향유층이 다른 계모형과 쟁총형을 한 범주에 넣어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계모형 고소설의 후대적인 양상에 있어서는 계모형 과 쟁총형 뿐만 아니라, 영웅소설이나 가문소설 혹은 애정소설 등과도 혼효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서는 가정소설을 가문소설의 변용형으로 보아 계모형 고소설을 포함한 가정소설을 가문소설의 하위유형으로 설정하기도 하였다.¹²⁾ 그러나 가문소설 안에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 및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조윤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79.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1.
 정주동, 『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70.

8) 김일렬, 「고전소설에 나타난 가족의식」, 『동양문화연구』 제1집, 경북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1974.
 9) 이원수, “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0) 우쾌제, “조선시대 가정소설의 형성요인 연구 - 열녀전의 전래와 수용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11) 정경자, 「고대소설에 나타난 계모형 소설연구」, 『국어국문학연구』 제12집, 부산대학교, 1962.
 우쾌제, “계모형 소설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6.
 유시순, “계모형 소설에 나타난 갈등의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정혜심, “계모계 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12) 이수봉(『가문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78, 23쪽, 219쪽, 933-935쪽 참조.)은 가정소설이 확대되어 가문소설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가정소설을 가문소설의 변용형으로 보아 가정소설을 가문소

처첩간의 갈등이 드러난다고 해도, 그것은 후대적인 변모의 과정에서 혼효되는 양상이지 본래적인 모습이 아니다.

후대적 양상이라는 것은 이미 본질적이고 본격적인 시기를 지났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모형 고소설을 본질적으로 인식하려면 가정소설이나 가문소설의 하위유형이 아닌 독자적인 서사유형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김재용은 위와 같은 인식 아래 ‘계모형 고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러한 인식은 타당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는 또한 구조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계모형 고소설을 초기 유형구조의 작품군과 후기 유형구조의 작품군으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계모형 고소설의 변모양상과 그에 담긴 의미를 고찰하였다.¹³⁾ 계모형 고소설이 서사구조의 변이와 맞물려 작품세계의 의미 변모가 드러난다는 점과, 그러한 작품세계의 변모 속에 계모와 가족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변질되어 간다는 관점은 계모형 고소설 전반의 해석에도 유용한 것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초기 유형구조와 후기 유형구조에 속하는 작품을 선정한 과정에 문제점이 보인다. 그러한 분류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히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장화홍련전>과 <콩쥐팥쥐전>이 설화적 전통과 연계되어 있으면서 설화적 의미를 계승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초기 유형구조의 작품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황월선전>이나 <조생원전> 같은 작품 또한 계모설화의 전통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한 발상이다. 그가 후기 유형구조로 본 <어룡전>과 <난학몽>, <효열지> 등은 <황월선전>과 분명히 작품세계가 다른데도 같은 맥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황월선전>을 비롯한 <조생원전> 등

설의 하위유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가정소설은 단순한 가정 비극을 그린 작품이나 가문소설은 당대형의 것일지라도 이야기의 전개에 있어서는 항상 가문이라는 전통성과 우월성 등을 의식하면서 전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정소설과 가문소설은 그 성격을 달리하며, 가정소설은 양반들의 호색적 풍류와 다처주의가 빚은 가화(家禍)에 대한 고발이 창작의 동기이고 가정소설의 성행으로 양반사회에 대한 각성의 소리가 높아지자 다처주의라는 이상향을 버릴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문소설이 후대에 출현하였다고 밝혔다. 반면 김광순(『韓國古小說史와 論』, 새문사, 1990, 488-490쪽)은 가문소설을 넓은 의미의 가정소설에 포함시켜 정반대의 의견을 내세웠다. 가정소설을 가문소설의 변용형이라 하여 가문소설의 하위유형으로 설정하면서도 두 유형의 소설이 성격을 달리한다는 언급이나, 가문소설의 변용형인 가정소설이 가문소설보다 먼저 출현하였다는 언급에 드러나는 모순에 대해서는 이승복(『고전소설과 가문의식』, 월인, 2000, 14-15쪽.)이 지적한 바 있다.

13) 김재용,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 집문당, 1996.

을 후대적인 작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계모설화와 계모형 고소설의 영향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오류이다.

또한 계모형 고소설의 작품에 대한 편중된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오류가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계모형 고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론은 단연 <장화홍련전>에서 많은 성과를 볼 수 있다. <장화홍련전>의 이본 고찰만으로도 계모형 고소설의 본질적인 면모와 그것의 변모 과정을 충분히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작품이라 하겠다. 그러나 계모형 고소설의 보다 온전한 모습은 특정 작품에 치우친 연구보다는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는 개별 작품의 의미를 오롯이 살려주었을 때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최근 <장화홍련전> 외의 다른 작품들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소기의 성과는 그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¹⁴⁾

특히 계모 이야기라 지칭할 수 있는 계모 이야기에 대한 연계적이고 통합적인 이해는, 계모형 고소설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다른 유형의 서사문학의 이해에도 의미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즉 계모형 고소설이 그 의미망을 넓혀 가면서 다른 장르나 유형과 교섭하는 양상을 고찰하는 것은, 계모형 고소설에 대한 이해에서 나아가 다른 장르나 유형에 속하는 계모 이야기의 의미 고찰에도 의의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인식 아래 계모형 고소설과 (계모)설화의 영향관계에 주목한 연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장화홍련전>은 활발한 논의 아래, 신원형 송사설화 및 실사와의 관련성이 깊이 있게 고찰되었다.¹⁵⁾ 그러나 다른

14) 많은 편수는 아니나, 최근 이본 고찰에서부터 작품론에 이르기까지 <황월선전>에 대한 단독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황화일엽>설화와와의 관련성 및 여성영웅소설과 결합한 <선연전>, <양소저전>에 대한 논의까지는 나아가지 못 하였다. 즉 계모설화에서 계모형 고소설, 그리고 계모형 고소설이 영웅소설과 교섭한 양상을 한 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는 <황월선전>의 의의가 제대로 고찰되지 못한 것이다.

鄭相珍, 「계모형 고소설의 후대적 변모와 <황월선전>」, 『한국고전소설연구』, 삼지원, 2000, 262-295쪽.

김민조, 「<황월선전> 이본 연구」, 『고소설연구제1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6.

박연미, “<황월선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5) <장화홍련전>의 형성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전성탁의 논의를 들 수 있다. 전성탁(“<장화홍련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은 『청구야담』 소재 <설신원완산윤검옥(雪伸完山尹檢獄)> 설화와 같이 신원설화의 양상을 띤 다수의 문헌설화들이 <장화홍련전>의 형성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논의를 하였다. 특히 계모와 전설자식의 갈등을 다룬 것보다는 <아랑형>과 같은 신원설

계모형 고소설 작품들의 경우, 단독 연구성과가 적은 만큼 작품 형성의 문제를 비롯하여 작품세계의 의미 또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콩쥐팍쥐전>은 <장화홍련전>과 더불어 계모형 고소설의 초기적이고 전형적인 면모를 지닌 작품으로 인식되었지만, 계모형 고소설로서의 온전한 평가보다는 동화화된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연당전>, <황월선전>, <조생원전> 등도 계모형 고소설 안에서 의미를 지니는 작품들이나,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고 그 의미를 부여해 주는 작업이 미흡했던 탓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특히 이들 작품은 계모설화와의 연계 속에 고찰할 때 작품의 의미가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 계모형 고소설로서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계모형 고소설을 고찰함에 있어 미처 주목받지 못한 작품에 의미 부여를 하는 작업과 계모 이야기의 장르 간 연계성을 중요하게 다루어, 계모형 고소설 작품세계의 보다 온전한 의미를 고찰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앞서 계모형 고소설이 여타의 고소설 유형과 교섭하여 작품세계의 변모를 보인다고 한 바 있는데, 그러한 변모의 과정에 있는 작품들을 계모형 고소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유형으로 귀속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계모형 고소설로 모든 영웅소설이나 가문소설로 이해하든지 간에, 계모형 고소설이 횡적인 연계를 통해 작품세계의 변모를 보이고 있는 그 자체에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계모형 고소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계모설화와 계모형 고소설의 영향관계에 주목하였다. 계모설화의 관련성 아래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계모형 고소설로는 <연당전>, <황월선전>, <콩쥐팍쥐전>, <조생원전(필사본)> 등이 있다. 이들은 <장화홍련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이 작품들에 대한 본격

화가 더욱 보편적임을 들어, <장화홍련전>이 <아랑형>과 맞닿아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적인 고찰을 통해 일부 작품에 집중되었던 논의의 편향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목적 아래 II장에서는 계모 이야기의 보편적인 서사구조 및 갈등구도의 전개와 계모 이야기의 전반적인 존재양상을 전제적인 조건으로 살피고자 한다. 계모 이야기는 설화(민담), 서사무가, 고소설, 신소설 등의 다양한 장르로 존재하면서 서로 영향관계를 맺고 있다. 계모 이야기가 장르와 하위유형을 넘나들며 상호 관련을 맺는 양상을 통해 계모 이야기의 지형도를 그려볼 수 있는데, 이는 계모설화와 계모형 고소설의 상관성에 대한 이해 및 계모 이야기의 서사문학적 존재감을 가늠하는데 유효하다.

계모 이야기에는 다양한 장르와 하위유형을 가로지르는 공통적 틀로서의 서사구조가 존재하며, 그것은 친모의 죽음으로 인한 계모의 영입과 그로 인한 가족구성원 - 특히 전실자식 - 과의 갈등으로부터 출발한다. 계모와 주로 갈등을 빚는 것은 전실자식으로서, 계모는 끊임없이 전실자식을 가정으로부터 소외시키려 한다. 죽음을 맞이하거나 가정으로부터 축출된 전실자식은 원조자나 배우자를 만나 시련을 극복하고 가정으로 귀환한다. 전실자식의 귀환으로 계모는 그 악행이 드러나 응징되고, 서두에서 제시되었던 가정의 갈등은 마무리된다.

계모 이야기의 위와 같은 서사구조는 각 단계마다 경우의 수로서 동원되는 모티프의 실현으로 구체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그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계모 이야기의 하위유형이 갈라지는데, 하위유형의 독자성을 드러내주는 특정 모티프는 인물갈등 구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물 간의 갈등구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동원되는 모티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동일한 서사구조 안에서도 하위유형마다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계모 이야기의 인물갈등 구도는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을 기본으로 하되 가장이 중개자적인 갈등을 겪는 삼각구도를 이룬다. 이 삼각구도가 전이되어 또 하나의 갈등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데, 전실자식의 배우자나 계모소생 등이 등장하게 되면 계모와 전실자식 및 가장의 갈등구도가 이들에게 전이됨으로써 또 다른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종의 삼각구도를 형성하는 계모 이야기의 갈등구도는 하위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삼각구도가 온전히 유지되기도 하고 유지되지

못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서사구조와 갈등구도를 바탕으로 계모 이야기의 존재양상과 그 상호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때, 계모설화는 여덟 가지의 하위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손 없는 색시>, <황화일엽(黃花一葉)>, <콩쥐팥쥐>, <연이와 버들도령>, <접동새>,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 <우목낭상(寓目囊箱)>이 그것이다. 전자의 다섯 유형은 계모와 전설딸의 갈등으로 기본으로 하며, 후자의 세 유형은 계모와 전설아들의 갈등을 문제 삼는다.

특히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는 서사무가 <칠성풀이>, <문전본풀이>, <성신굿>, <살풀이>와 일정 부분의 서사를 공유한다. <칠성풀이>와 <문전본풀이>는 전반부에 다른 서사가 덧붙여 있고, 후반부에서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와 유사한 서사전개를 보인다. <성신굿>과 <살풀이>는 다른 서사와의 결합 없이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와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성신굿>은 더욱 설화와 밀접하여 <성신굿>이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를 서사무가로 수용하였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한편 <허웅애기본풀이>는 <콩쥐팥쥐> 및 <콩쥐팥쥐전>과 서사를 공유한다. <허웅애기본풀이>에서는 허웅애기가 계모로, 콩애기가 전설딸로 나타나면서 후반부에 다른 서사가 덧붙는다. 후반부 서사는 민담 <허웅아기>와 유사한데, 콩애기가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살림을 하다가 이웃할미의 의심을 사고, 결국 저승차사에게 넋을 빼앗긴다는 전개를 보인다.

계모형 고소설은 세 가지의 양상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계모설화와 밀접한 관련 속에 작품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바다. <연당전>, <황월선전>, <콩쥐팥쥐전>, <조생월전(필사본)>가 그것으로, 각각 <손 없는 색시>, <황화일엽>, <콩쥐팥쥐>,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와 영향관계를 맺는다.

<장화홍련전>은 계모형 고소설의 초기적 양상을 보이는 작품으로 논의되었으며, 많은 연구성과가 있었다. 계모설화에서도 2편 정도 <장화홍련전>과 유사한 것이 보이나, <장화홍련전>은 전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원형 송사설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룡전>이나 <효열지> 등은 계모형 고소설이 영웅소설이나 가문소설과의 영향 아래 형성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설자식이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군담 모티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크게 변모된 모습이다. 작품세계의 의미 또한 계모와 가정갈등보다는, 전설자식 중심의 영웅적 삶과 그로 인한 가문의 존속과 영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변모되었다.

신소설은 <구의산>처럼 전대의 계모 이야기 -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를 비롯한 <조생원전(필사본)> 및 <김씨열행록> 등 - 를 수용하여 형성된 것과, <치악산>과 같이 계모 이야기의 보편적인 서사구조와 인물형상 등을 수용한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Ⅲ장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장르와 유형으로 존재하면서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는 계모 이야기들 중, 계모설화와 계모형 고소설의 관계에 주목하여 그 존재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연당전>은 <손 없는 색시>와의 영향관계 속에서 형성된 작품으로, <손 없는 색시> 설화 각편에 나타나는 모티프들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 작품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손 없는 색시>의 각편 일부는 <황화일엽>과 착종되어 있는데, <연당전>의 이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순금전>은 그러한 착종 속에서 형성된 소설이다.

<황월선전>은 <황화일엽>과 관련이 있다. <황화일엽>과 <황월선전>의 영향관계에 주목한 논의가 없었기에, <장화홍련전>이나 <콩쥐팍쥐전>을 설화적 전통과 관련된 계모형 고소설의 초기적인 형태로 간주하면서 <황월선전>은 후기 유형구조의 작품으로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황월선전>은 <황화일엽>과 영향관계 속에 있으면서 <선연전>, <양소저전> 같은 여성영웅소설과 교섭한 작품까지 형성해내고 있어, 계모형 고소설의 판도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작품이다. 즉 <황월선전>만으로도 계모형 고소설의 종적이고 횡적인 전개와 변모를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콩쥐팍쥐전>은 주지하다시피 <콩쥐팍쥐>라는 설화적 전통과 영향을 주고받

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동화화의 과정을 거쳐 계모 이야기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조생원전>은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와 서사전개가 유사하다. 이 설화 각편 중에는 가장이 사명당으로 나타나면서, <사명당 출가유래담>으로도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나머지 각편은 <조생원전>의 서사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사명당 출가유래담>으로 귀결된 각편들은 <사명당전>의 전반부와 관련을 맺는다.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의 큰 특징은 계모와 전실아들의 갈등을 내세웠지만, 초점은 가장과 전실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에게 있다는 점이다. 가장에게 보다 주목한 것이 <사명당 출가유래담>이고, 며느리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나머지 각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생원전>은 며느리 중심의 각편과 서사가 동일하지만, 가장과 며느리가 서사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본인 <성부인전>과 변이작인 <김씨열행록>을 통해서 보다 며느리 중심의 서사로 이행해 가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특히 <김씨열행록>은 후반부의 서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김씨열행록>과 개화기 소설 <구의산>의 영향관계를 고찰하였거니와, 정확하게 말하면 <구의산>은 <조생원전>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상의 계모형 고소설들은 계모와 가족갈등이라는 동일한 주제 속에서도 작품마다 그 주제를 구현하는 방식 및 계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낸다. 작품간의 변별성을 밝혀주는 것은 동시에 작품별 독자성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또한 이들 작품을 통해 계모형 고소설의 다채로운 작품세계를 살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IV장에서는 <연당전> 등의 계모형 고소설에 대한 의미 고찰과 더불어 계모형 고소설의 구체적 작품들이 드러내는 독자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계모설화가 신화적인 통과제의 구조 속에서 전실자식의 이니시에이션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선행논의는, 계모설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연당전> 등의 계모형 고소설 작품에도 적용 가능하다. 특히 <연당전>이나 <콩쥐팥쥐전>처럼 설화와 커다란 변별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소설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다만 작품에 따라 전설자식이 이니시에이션 과정을 통하여 획득하게 되는 자질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설화와 소설이라는 장르를 넘나들면서 드러나는 차이로 인해, 작품 세계의 의미 또한 달라진다. <황월선전>은 <황화일엽>과 기본적인 서사전개가 같으면서도, 결정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그에 따라 작품이 의미하는 바가 설화와 소설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또한 <조생원전>은 며느리를 서사 주체로 한 이본이 형성되기도 하며, 판소리적 문체를 수용함으로써 설화와는 또 다른 면모를 드러내기도 한다. V장에서는 계모형 고소설을 비롯한 계모 이야기에서 대부분 계모와 기존 가족구성원들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으로 끝나고 계모가 악인으로 전형화된 것에 대한 의미 고찰을 통해, 계모형 고소설 및 계모 이야기의 문학적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늠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가부장제와 같은 사회적 제도를 계모형 고소설의 의미 해석에 있어 중요한 잣대로 삼고 있다. 가부장제가 강화되던 시기에 계모형 고소설이 본격적으로 출현하였다는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요인을 근거로 삼아, 계모 영입으로 인한 가정갈등 및 계모의 악인형상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본고에서도 계모형 고소설이 가부장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관련양상에 대해서는 선행논의와 견해를 달리하는 점이 있다. 또한 가부장제가 강화되던 특정 시기와 상관없이, 계모라는 신참자를 들여 가정갈등이 일어나는 양상은 보다 보편성을 지닌 것이라 본다.

이상과 같은 논의의 진행을 위해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는 자료는 계모설화에 있어서는 <손 없는 색시>, <콩쥐팥쥐>, <황화일엽>,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등이다. 계모형 고소설로는 이들 설화와 관련이 있는 <연당전>, <콩쥐팥쥐전>, <황월선전>, <조생원전> 등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 밖에 논의의 진행 중에 필요한 계모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언급할 것이며,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본문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Ⅱ. 계모 이야기의 구조와 존재양상

계모가 등장하는 서사물은 설화(민담)와 서사무가, 고소설, 신소설 등 다양한 장르로 존재한다. 계모라는 인물을 모티프 차원에서 차용하였을 뿐 계기적 인과성을 지니는 서사구조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것들을 제외한다면, 계모가 등장하는 일련의 서사물에는 다양한 장르를 가로지르는 보편적인 서사구조가 있다. 이러한 고유한 서사구조는 계모 이야기를 하나의 독자적인 유형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계모 이야기는 가정 내적인 문제를 서사의 발단으로 삼고 있으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과 그것의 해소를 다루고 있다.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양상은 계모와 전설자식의 갈등이 주축이 되는 가운데 가장이 중개자적인 갈등을 겪는 삼각갈등 구도가 보편적이다. 이러한 삼각갈등 구도는 전이되어 다채로운 갈등구도를 형성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서사구조와 갈등구도는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유형화된 서사구조 안에서 갈등구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서사의 방향이나 의미가 달라지고, 그러한 차이는 계모 이야기의 하위유형을 형성하는 동인이 된다.

본 장에서는 서사구조와 갈등구도를 통해 다양한 장르로 존재하는 계모 이야기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계모 이야기는 여러 장르로 존재하면서도 서로 서사를 공유하는 등의 영향관계에 있다. 설화와 소설, 설화와 서사무가 등 계모 이야기가 장르를 넘나들며 관련을 맺는 양상은 다양하다. 무엇보다도 계모설화와 계모형 고소설이 가장 활발한 관련성을 맺으면서 계모 이야기의 판도를 다채롭게 하고 있다. 이처럼 계모 이야기의 전반적인 고찰을 통하여, 계모 이야기가 장르를 달리하며 작품세계를 변주시켜가는 양상 및 계모 이야기의 지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계모 이야기의 구조와 전개

계모 이야기가 하나의 독자적인 서사유형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근거 중의 하나는 고유한 서사구조가 있다는 것이다. 설화와 서사무가, 고소설, 신소설 등 다양한 장르로 존재하는 계모 이야기를 가로지르는 보편적인 틀로서의 서사구조는 계기적 인과성을 지니고 전개된다.

계모 이야기의 출발은 하나의 가정을 제시하되, 곧 친모가 죽음으로써 온전한 가정에 결핍이 생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가장은 온전한 가정의 유지를 위해 친모의 자리를 대신할 계모를 들여오고 이때부터 가족갈등의 단초가 마련된다.

가족갈등은 서사전개의 동인으로 작용하는데, 계모와 전실자식 사이에서 갈등이 진행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계모자 간의 갈등은 계모가 주체가 되어 발전·진행시킨다. 즉 계모는 전실자식을 모해하여 가정 밖으로 축출하거나 혹은 전실자식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등, 끊임없이 전실자식을 가정으로부터 소외시키려 한다.

계모에 의해 가정에서 소외된 전실자식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가정 밖으로 나온 전실자식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극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련 극복은 가정으로의 귀환과 맞물린다. 이때 계모와의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계모와의 갈등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은 채 전실자식 중심의 서사가 전개된다.

가정으로 귀환한 전실자식은 계모와의 갈등을 마무리 지으며, 서사의 전반부와는 대조적으로 계모가 가정으로부터 소외되기에 이른다. 계모가 가정으로부터 소외되는 양상은 계모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서사전개에 따라 계모 이야기는 서사의 출발에서 보여주었던 결핍상황, 즉 친모가 부재하는 상태에서 가장과 그 자식으로 구성된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혹 또 다른 계모를 들여 온전한 가정을 구성하는 경우라도, 더 이상의 갈등상황은 진행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서사전개는 다음과 같이 구조화할 수 있다.

- 가. 친모가 죽고 계모가 들어오다.
- 나. 계모와 전실자식이 갈등하다.
- 다. 계모가 전실자식을 가정으로부터 소외시키다.
- 라. 전실자식이 시련을 극복하다.
- 마. 전실자식이 가족과 재회하고 계모를 처리하다.

계모 이야기의 전반적인 서사전개를 비롯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한 서사구조는 순차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합적인 성격 또한 있다. 이는 위에 제시한 서사구조를 순서대로 구현할 수도 있지만, 서사구조를 반복하거나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서사구조 속에서 경우의 수로서의 다양한 모티프 출입이 일어난다.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모티프가 동원되어 서사구조를 형성하는지에 따라 계모 이야기의 하위유형이 갈라진다.

‘친모가 죽고 계모가 들어오는’ 상황은 계모가 가정 내에서 문제적 인물로 등장하여 가족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예비단계이다. 특별한 모티프가 동원되지 않지만, 새로운 가족구성원인 계모의 등장은 기존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을 예고한다. 이는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으로 드러나며, ‘계모와 전실자식이 갈등하’는 구체적인 양상은 계모가 전실자식을 일방적으로 미워하거나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계모가 전실자식을 미워하고 학대하게 되는 계기는 서사 내에서 여러 가지로 드러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처음부터 일방적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많다. 그럴 경우 계모의 선천적인 심성 탓으로 돌려지는데, 이 부분에서의 갈등은 표면화되지 않은 심리적인 양상에 머무른다.¹⁶⁾

‘계모가 전실자식을 가정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은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이

16) <콩쥐팥쥐(전)>처럼 계모가 끊임없이 난제를 부과하여 전실딸을 학대하는 등 갈등이 과장적으로 표면화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보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콩쥐팥쥐(전)> 유형의 특징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다.

표면화되고 구체화된 것이다. 계모와 전실자식이 가족구성원으로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심각한 갈등국면으로, 계모에 의해 전실자식이 가정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는다. 계모가 전실자식을 가정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는 방법은 다양한 모티프로 나타난다. 전실딸일 경우 낙태모해나 간부부정을 꾸미는 방법을 동원하여 '부정한 딸'의 오명(汚名)을 씌움으로써 가장인 아버지의 이름 아래 축출되게 한다. 쥐와 음식물을 이용한 낙태형상과 임신형상의 조작, 하수인을 매수하여 거짓으로 간부의 존재 및 간부와 주고받은 편지를 꾸미는 등의 모티프는 전실딸을 축출하기 위한 계모의 흉계로서 일반화되어 있다.

반면 계모와 전실아들의 갈등이 나타날 때는 주로 계모의 전실아들에 대한 살해나 살해의도를 드러내는 모티프가 동원된다. '신방의 아들 살해하기' 모티프는 독자적 하위유형을 이룰 만큼 특징적인 모티프이며,¹⁷⁾ 전실자식의 간을 요구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갖은 방법으로 전실아들을 죽이려는 계모의 행위 등은 전실아들에 대한 계모의 살해의도를 드러내는 것들이다.¹⁸⁾

그러나 위와 같은 모티프가 혼용되는 경우도 많아서 전실딸을 낙태모해하고 또 다시 간부부정의 누명을 씌워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낙태모해 후 신체를 훼손하여 축출하기도 한다. 신체훼손 모티프는 하위유형에 따라 전실딸의 손목을 자르거나 전실아들의 눈을 빼는 양상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¹⁹⁾ 또한 전실자식이 복수(複數)로 나타나는 경우 - 남매일 경우 - 에는 각각 전실딸과 전실아들에게 행해졌던 보편적인 모해 방법들이 동시에 동원되기도 한다.

'전실자식이 시련을 극복하'는 부분은 계모의 존재가 서사의 전면에서 물러나고 온전히 전실자식이 서사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났던

17) 첫날밤 신방에 든 아들의 목을 잘라 살해하는 이 모티프는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 및 이 설화와 영향관계를 맺고 있는 <조생원전(필사본)>, 신소설 <구의산> 등에서 나타난다.

18)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 설화 및 이 설화와 영향관계에 있는 <칠성풀이>·<문전본풀이> 등의 무가에서도 계모가 전실아들의 간을 요구함으로써 살해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19) 전실자식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손 없는 색시> 및 이 설화와 영향관계에 있는 <연당전> 그리고 <우목낭상> 설화에서 볼 수 있는데, 전자는 전실딸의 손목을 잘라 축출하고 후자에서는 전실아들의 눈을 빼어 축출한다. 전실자식의 신체를 훼손하는 이러한 모티프는 <손 없는 색시>나 <우목낭상>이 다른 하위유형과 변별되는 독자성을 갖게 한다.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은 전실자식이 가정을 벗어나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다. 일부 유형에 따라서는 계모가 가정 외적인 공간에서까지 전실자식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지만,²⁰⁾ 이는 계모 이야기의 판도 안에서 보편적인 양상은 아니다.

이 부분에서의 초점은 타의에 의해 가정이라는 공간을 떠나게 된 전실자식의 여정이다. 그 과정에서 원조자를 만나 위기를 넘기고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며, 개인적인 성취를 이루기도 한다. 원조자는 신이한 인물 혹은 신성한 동물일 경우나 - 이들은 대부분 죽은 친모와 관련이 깊다 -, 하인이나 이웃노파 등 일상적인 인물로 나타나기도 하며, 관리신분의 원조자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신이한 인물이나 일상적인 인물로서의 원조자는 전실자식의 시련에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정도에서 그치지만, 관리신분의 원조자일 경우 송사(訟事)를 통해 공적으로 계모의 흉계를 밝혀내므로 전자의 원조자들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²¹⁾

한편 배우자를 만나 혼인을 하는 것은 전실딸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며, ‘글방도령 만나기’, ‘신성한 배우자 만나기’, ‘우부현녀(愚夫賢女)형 배우자 만나기’, ‘관리신분의 배우자 만나기’²²⁾ 등의 모티프는 전실딸을 전체로 했을 때의 배우자 양상이다.

원조자의 도움과 배우자와의 혼인 외에 전실자식이 개인적인 성취를 이루기도 하는데, 특히 계모형 고소설의 일부 작품군에서는 전실자식(주로 전실아들)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천자의 은혜를 입어 시련을 극복하는 양상이 빈번히 나타난다.²³⁾

20) <손 없는 색시>나 <콩쥐팥쥐> 및 이 설화들과 영향관계를 주고받는 <연당전>이나 <콩쥐팥쥐전> 등의 소설에서는 혼인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룬 전실딸을 계모가 모해함으로써, 가정(친정) 외적인 공간에서도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21) 뒤에서 살펴볼 인물갈등 구도에 따르면, 전실자식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어 계모를 징치하는 원님은 단순한 원조자가 아니라 가장이 전이된 인물로 볼 수 있다. 즉 가장이 전실자식의 귀환으로 계모의 모해를 알아차리고 계모를 징치함으로써 가정을 온전히 세워야 하는데, 가장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원님이 이를 대신하여 가정의 기강을 세운다. <장화홍련전>에서 이러한 예를 볼 수 있다.

22) <손 없는 색시>나 <연당전>에서는 글방도령이나 숲 굽는 총각이 전실딸의 배우자로 등장하며, <황화일엽>과 <황월선전>에서는 전실딸보다 능력면에서 뒤쳐지는 배우자가 등장한다. <연이와 버들도령> 설화의 버들도령은 신성한 배우자라고 할 수 있으며, <콩쥐팥쥐> 혹은 <콩쥐팥쥐전>에서 전실딸이 만나는 배우자의 신분은 원님이 대부분이다.

23) 이러한 모티프는 영웅소설과의 영향관계에 있는 작품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계모형 고소설보다는 영웅소설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모티프가 수용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실자식이 가족과 재회하고 계모를 처리’할 때에는 계모와 심지어 그 소생까지 잔인하게 징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실자식을 모해한 것은 계모이지만 가장인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실자식을 가정으로부터 소외시켰듯이, 계모의 응징 역시 가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전실아들일 경우에는 가장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전실아들이 직접 계모를 징치하는 양상이 더욱 우세하게 나타난다.

한편 계모의 징치에 전실자식의 시련극복에 도움을 주었던 원조자들이 합세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원조자가 계모 응징의 전면에 나서기도 한다. 특별히 원님의 도움을 받아 송사형식으로 계모를 징치할 때는 원님의 명으로 계모가 응징된다.

그러나 계모가 용서되거나 특별히 계모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도 있다. 전자는 이례적으로 선한 계모 소생이 등장하여 계모의 악행에 선처를 호소하거나,²⁴⁾ 계모의 뉘우침에 전실자식이 가장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은 다양한 모티프의 실현으로 이루어지는 서사구조에서 보다 중핵적인 부분은, 계모가 들어오게 되는 친모 부재의 상황과 새로운 인물이 가족구성원으로 영입되면서 빚게 되는 갈등에 있다. ‘친모가 죽고 계모가 들어와서 가족구성원과 갈등을 빚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사구조 ‘가’와 ‘나’가 계모 이야기의 핵심적 명제이자 화두(話頭)라고 할 수 있다.

계모를 들여 겪게 되는 가족갈등이 구체화되고 표면화되는 부분이 서사구조 ‘다’라면, 서사구조 ‘라 - 마’는 서사구조 ‘가 - 나’에서 화두로 제시된 계모의 영입과 가족갈등이라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나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부분은 계모 이야기 향유층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계모의 영입으로 인한 가족갈등을 인식하고 해결해나가는 다양한 양상은, 작품 외적으로는 향유층들이 몸 담고 있는 사회적·시대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작품내적으로는 그들이 접하고 있는 또 다른 서사문학의 전통과 관련을 맺고 있다. 전자는 계모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깊으며, 계모가 가족갈등을 일으키고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원인을 제시하는 부분이나 계모의 악행이 드러난 후 그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부분 등을 통해 드러난다.

24) <황월선전>에서 두드러지게 볼 수 있다.

한편 후자는 이야기를 엮어가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이는 계모의 영입과 가족 갈등이라는 명제를 어떻게 서사화해 나가느냐 하는 것으로, 향유층들은 계모 이야기의 하위유형을 파생시킬 수 있는 모티프들을 다양한 서사문학에서 차용하기도 한다. 즉 서사구조 '다 - 마'가 하위유형에 따라 독자성을 지니면서 다르게 전개되는 것은, 향유층들이 이야기를 엮어가면서 동원하는 모티프에서 기인한다.²⁵⁾

계모 이야기의 서사구조 '가 - 나'를 명제로 삼아, 하위유형과 구체적 작품의 실상 속에서 보다 본질적인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 그에 알맞은 모티프들이 동원되고, 그러한 차별적 모티프의 실현이 하위유형의 독자성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차별적 모티프 실현의 동인은 무엇보다도 가족구성원 간의 대립에 따른 인물갈등 구도라고 할 수 있다.

계모 이야기는 계모와 전실자식, 특히 전실딸과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것이 많다. 때문에 계모 이야기에 대한 주요 관심은 계모와 전실딸 혹은 전실자식의 갈등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계모와 전실자식의 관계망 속에는 수많은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가 내재되어 있으며, 계모라는 새로운 가족구성원과 기존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계모가 영입되어 일어날 수 있는 가족갈등, 그리고 실제로 계모 이야기의 판도 안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을 보면 우선은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이 보편적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적 관계에는 대부분 가장이 중개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가장 또한 그들과 갈등을 겪는다. 계모의 모해로 전실자식이 가정으로부터 소외될 때,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인 가장이 전실자식을 가정으로부터 축출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다. 마찬가지로 전실자식이 계모의 흉계를 폭로하지만 계모의 행위에 대한 응징은 가장이 맡는다. 가장의 존재가 서사문면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 혹은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가장을 대신할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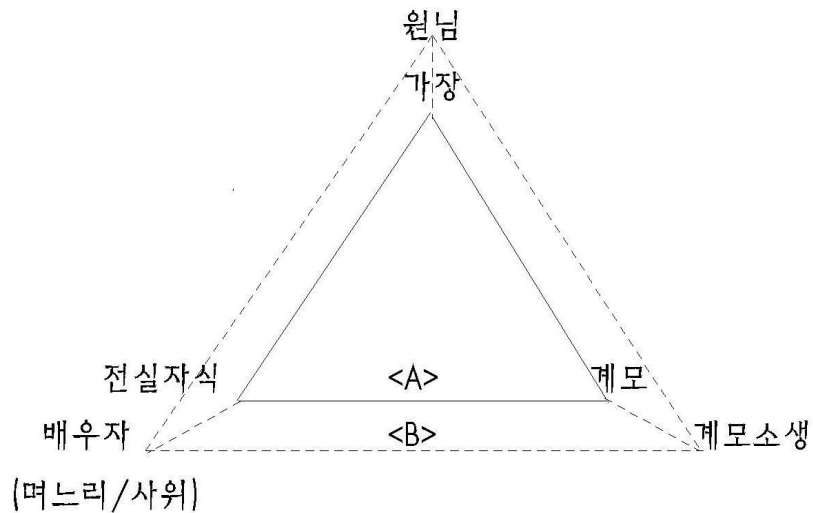
25) 이러한 과정에서 제시된 명제의 의미가 희석되기도 하는데, 서사구조 '다 - 마'(특히 '라 - 마')가 다채롭게 전개되면서 계모와 가족구성원의 갈등과 이로 인한 가정의 위기라는 문제의식이 둔화되기도 한다. 즉 주로 가정 외적 공간에서 서사가 전개되는 후반부 구조가 부각되어 계모 이야기의 범주를 벗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한 예로 계모형 고소설의 경우 영웅소설 등과 영향관계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사구조 '라'에 군담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전실자식 중심의 영웅적 삶을 구현하는 것으로 작품의 의미가 변모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계모 이야기 작품세계의 지평을 넓히는 긍정적 의미로 수렴될 수 있으며, 계모 이야기가 다른 서사문학과 만나 어우러지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 사이에서 가장 또한 중개자적인 갈등을 겪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즉 계모와 전실자식, 그리고 가장 사이에 삼각구도의 갈등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여기에 전실자식의 배우자가 설정되어 계모와 사위 혹은 계모와 며느리의 갈등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계모와 전실자식보다 계모 소생과 전실자식의 갈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전실자식의 원조자와 계모(더불어 계모의 동조자와 하수인) 사이에도 간접적인 갈등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 사이의 갈등은 서사전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하위유형을 파생시킬 만큼의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양상에 머문다. 다만 원님이 등장하여 송사형식으로 계모와 전실자식 사이의 왜곡된 갈등 해결²⁶⁾을 바로잡고 계모를 응징하는데 관여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차원의 갈등관계가 형성된다.

이처럼 계모 이야기의 하위유형을 파생시킬 수 있는 동인으로서, 가족구성원 간의 대립에 따른 인물갈등 구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A> : 1차 삼각갈등 구도 — : 갈등관계
 : 2차 삼각갈등 구도 - - - : 갈등의 전이관계

26) '왜곡된 갈등 해결'이란 계모가 전실자식을 일방적으로 모해하여 가정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계모가 영입되어 기존 가족구성원과 갈등을 빚을 때 그것은 주로 전실자식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갈등이 가정갈등이라는 점에서, 가권을 지닌 가장의 위치상 이러한 가족구성원 간의 마찰에 관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모 이야기의 기본적 갈등은 계모와 전실자식 및 가장이 이루는 삼각구도 안에서 출발한다. <A>는 그러한 기본갈등 양상을 드러내는 삼각구도를 의미한다.

한편 계모가 자신의 소생을 낳거나 혹은 데리고 들어온 자식이 있을 때, 그들 또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전실자식과 관계를 맺는다. 부정적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보편적이어서, 계모소생은 계모와 더불어 전실자식과 대립한다. 또한 전실자식이 혼인을 하여 배우자를 맞이할 경우 계모는 전실자식과의 갈등을 이들에게까지 전이한다.

한편 가장이 치가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가정이 온전히 유지되지 못할 때, 원님이 송사를 통하여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는 경우가 있다. 가정내적 갈등이 가권을 지닌 가장에 의해 가정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원님을 통하여 가정의 질서가 확립되기에 이른 양상이다. 이때에는 원님 또한 가정문제에 개입하게 되어, 계모와 갈등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계모소생이나 전실자식의 배우자들이 등장하거나 가장의 역할을 원님이 대신하게 되면, <A>라는 기본갈등을 전제로 하되 그것이 전이되는 양상을 보인다. 는 이러한 기본갈등이 전이된 구도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삼각갈등 구도는 계모 이야기의 하위유형과 구체적인 작품의 실상 속에서 온전히 유지되거나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 삼각구도의 긴장관계가 균형을 이루면서 유지되지 않고,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전실자식과 가장, 혹은 계모와 가장의 갈등관계가 더욱 문제적으로 부각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을 기본축으로 하면서, 그러한 갈등관계가 전실자식의 축으로 전이되어 그 배우자가 계모와 직·간접적으로 갈등축을 형성하기도 한다. 반대로 계모의 축으로 갈등이 전이될 때에는 계모소생과 전실자식이 갈등관계를 맺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관계의 전이 속에서 삼각구도는 온전히 유지되기도 하지만, 삼각구도가 유지되지 못한 채 갈등구도가 횡

적으로 확장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계모 이야기의 서사구조와 갈등구도는 긴밀한 연계 속에서 계모 이야기의 다채로운 작품세계를 형성한다. 다음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계모 이야기의 존재양상과 상호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계모 이야기의 존재양상과 상호관련성

계모 이야기가 설화, 서사무가, 소설, 신소설 등의 다양한 장르로 존재함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이 중에서 설화와 소설이 계모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때문에 계모설화와 계모형 고소설이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면서도 계모설화와 계모형 고소설의 관련성은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였고, 계모 이야기의 장르 간 영향관계 또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계모 이야기의 장르 간 영향관계를 살피는 것은 계모 이야기의 하위유형이나 구체적 작품의 실상 및 의미 파악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더불어 계모 이야기가 장르 간 연계를 통하여 지평을 넓히는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이점 또한 있다. 따라서 계모 이야기의 존재양상을 살피되, 그 영향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자 한다.

계모설화는 여덟 가지의 하위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²⁷⁾ 여기서 여덟 가지의 하위유형이라 함은 특별한 분류의 기준에 따라 나눈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이 하위유형들은 각기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일한 계모설화의 범주 안에서 서로 변별성을 지닌다.

그 구체적인 양상을 보면 <손 없는 색시>, <황화일엽(黃花一葉)>, <콩쥐팍쥐>, <연이와 버들도령>, <접동새>,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 <우목낭상(寓目囊箱)>²⁸⁾ 등이다. 앞의 다섯 유형은 주로 계모와

27)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자들마다의 분류 기준에 따라 하위유형을 분류하고 명칭을 부여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본고에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계모설화의 양상을 살피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하위유형 분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 다만 그 명칭에 있어서는 각 하위유형의 특징을 잘 드러내면서도 널리 통용되는 것을 택한다.

전실딸의 관계가 문제되는 것이고, 뒤의 세 유형은 계모와 전실아들의 갈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손 없는 색시>는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을 전제로 서사가 전개되며, 전실딸의 손목 절단과 재생이 중요한 모티프로 부각된다. 즉 계모와 전실딸의 구체적 갈등 상황에서, 계모가 전실딸을 낙태모해하여 가정 밖으로 축출하되 손목을 끊어 내쫓는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전실딸은 배우자를 만나 혼인함으로써 시련을 극복하고 가정으로 귀환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우물에 빠질 위기에 처한 자식을 구하려는 모성애의 발로로 손목이 재생된다.

일부 각편에서는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관계가 가정(친정) 밖에서도 형성되어 전실딸 부부의 분리를 야기한다. 즉 계모가 편지조작을 통하여 전실딸과 그 자식이 또 다른 가정(시댁)으로부터 축출되게 하는데, 이에 남편의 아내와 자식 탐색 모티프가 덧붙여 서사가 확장되는 것이다.

<황화일엽>은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관계를 기본으로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주목된다. 전실딸이 가정으로부터 축출되는 것은 계모의 낙태모해 때문이며, 전실딸은 배우자를 만나 혼인을 하고 남편을 과거급제 시키거나 혹은 자신 또한 과거에 급제하여 시련을 극복한다.

<황화일엽>에서 특징적인 것은 전실딸과 그 배우자의 관계가 ‘우부현녀형’이라는 점, 전실딸이 아버지와 재회하기 위해 친정에 시를 남긴다는 점이다. ‘黃花一葉

28) <손 없는 색시>와 <황화일엽(黃花一葉)>은 조희웅에 의해 명명된 것이다. (조희웅, 「<손 없는 색시>(AT706)고」, 『수여 성기열 박사 환갑기념논총』, 동간행위원회, 1989.) 전자는 계모의 흥계로 전실딸의 손목이 잘리고 다시 재생되는 모티프가 특징적이기 때문에 특정 모티프를 유형의 명칭으로 삼은 것이다. 후자는 전실딸이 아버지에게 남기는 시구를 조합하여 만든 명칭인데, 이 설화 유형에서 부녀의 재회가 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부각하여 그것을 명칭으로 삼은 것이다.

<접동새>는 전실딸이 죽어 접동새가 되었다는 기원담으로서의 특징을 부각하여 명칭으로 삼은 것이며, <우목낭상(寓目囊箱)>은 <황화일엽>처럼 설화 속에 나타나는 글귀에서 명칭을 따온 것이다.

한편 <콩쥐팥쥐>는 서사 속에서 대립하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명칭으로 삼은 것이며, <연이와 버들도령>은 남녀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와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는 최운식의 유형 분류 명칭에서 나온 것으로, 계모와 전실아들의 갈등상황을 부각시키되 계모가 전실아들을 모해하는 방법을 명칭으로 끌어온 것이다. (崔雲植, 『韓國說話研究』, 집문당, 1994.)

이상과 같이 명칭 부여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된 것은 아니나, 유형의 특징을 잘 부각시켰다는 것과 이미 관습적으로 굳어져 통용되는 명칭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이 지칭하기로 한다.

風飄飄/飛去海南接李枝/慾見父主小女兒/明朝乘鶴來楊州'로 구성되는 시²⁹⁾를 통해 부녀가 재회하는 것은 다른 유형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유형만의 특징이다.

한편 <콩쥐팥쥐>에서는 계모와 전실딸의 관계가 계모소생과 전실딸의 갈등으로 전이된다. <손 없는 색시>나 <황화일엽>에서는 가장의 존재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계모와 전실딸 및 가장의 삼각갈등 구도가 온전히 성립되는 반면, <콩쥐팥쥐>에서는 가장의 존재가 미약하다. 그러면서 계모와 전실딸 및 계모소생과 전실딸의 갈등구도가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콩쥐팥쥐>에서는 계모가 전실딸에게 여러 가지 난제를 부과하여 확대하는 양상이 전반부 서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손 없는 색시>의 일부 각편과 유사하게, 계모 및 계모소생과 전실딸의 갈등이 가정 밖에서도 전개되면서 서사가 확장된다. 즉 혼인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룬 전실딸을 계모와 계모소생이 죽음에 이르게 하여, 전실딸 부부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이 그렇다. 다만 <콩쥐팥쥐>에서는 계모소생이 거짓으로 전실딸의 행세를 한다는 점, 전실딸이 죽었다가 신원을 통하여 다시 재생한다는 점이 다르다.

<연이와 버들도령>은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관계로 출발하며, 계모가 전실딸의 배우자를 살해하여 전실딸과 배우자의 관계에 일시적인 단절을 야기한다. 계모가 전실딸과갈등을 빚는 양상은 <콩쥐팥쥐>처럼 난제부과 모티프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각편에 따라서는 <콩쥐팥쥐> 유형에서 볼 수 있는 난제들이 혼용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³⁰⁾ <연이와 버들도령>에서 계모가 전실딸에게 부과하는 난제는 한 겨울에 미나리나 상추 등을 구해오라는 '계절에 맞지 않는 채소 구하기' 모티프로 구체화된다. 계모가 부과한 난제는 신성한 배우자를 통해 해결되며, 전실딸의 배우자가 신성한 존재인 것은 이 유형만의 특징이다.

29) 앞서 <황화일엽> 설화의 명칭은 조희웅에 의해 처음 명명된 것임을 밝혔는데, 그는 이 설화들에 나타나는 한시를 가장 합당하게 재구성하고 그 첫구절을 따서 명칭으로 삼았다. 본고에서 제시한 한시 구절은 그가 재구성한 것이다. (조희웅, 앞의 논문, 297쪽.)

30) <연이와 버들도령>의 각편 중에는 <콩쥐팥쥐>와 <손 없는 색시>의 특징적인 모티프들이 착종된 것이 있는데, <전처딸을 몹시한 계모의 최후> (『한국구비문학대계』 7-10, 890-894쪽.)가 그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연이와 버들도령>의 전개를 따르면서, 전반부에는 <콩쥐팥쥐> 유형의 난제부과 모티프가 나타나고 후반부에 <손 없는 색시>의 특징적 모티프인 전실딸의 손목 절단과 재생이 나타난다.

<연이와 버들도령>의 핵심적 갈등구도는 계모와 전실딸 및 그 배우자로 이루어지는 관계이며, 이는 후반부의 서사를 구성한다. 계모가 전실딸의 배우자를 살해하지만 전실딸이 신이한 꽃 등을 구하여 배우자를 살려내어 혼인하는 것으로 서사가 마무리되는데, 계모의 최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또한 특징적인 면모이다.

<접동새>는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을 문제 삼는데, 전실딸의 여러 오라비(일곱이나 아홉)가 존재하여 계모를 징치한다는 특징이 있다. 계모가 전실딸을 살해하는 것으로 그 갈등양상이 구체화되며, 계모가 전실딸을 살해하는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전실딸의 혼인을 앞두고 그 혼수홍정을 탐내어 죽인 것임이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오라비들이 계모를 전실딸의 혼수홍정과 함께 불태워 죽임으로써 갈등이 마무리되지만, 전실딸은 접동새가 되고 계모는 까마귀되었다는 전설화의 과정을 밟아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과 긴장관계는 서사가 마무리되어도 소거되지 않는다. 전실딸이 계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시련을 겪게 되었을 때, 그것을 혼인 등을 통하여 극복하고 가정으로 복귀하여 계모를 응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접동새>는 동물기원담으로 서사를 마무리하여, 계모의 영입으로 인한 가정갈등의 비극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이상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계모설화의 다섯 가지 하위유형을 살펴보았다. <손 없는 색시>와 <황화일엽>은 계모와 전실딸 및 가장의 삼각갈등 구도가 온전히 유지되면서 서사가 전개되는 반면, <콩쥐팥쥐>와 <연이와 버들도령> 및 <접동새>의 경우 가장의 존재가 명확하게 부각되지 않아 삼각갈등 구도가 유지되지 못하면서도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관계가 전이되어 새로운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전실딸이 계모와의 갈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을 때 대부분 혼인을 통하여 시련을 극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접동새> 유형은 전실딸이 등장하는 계모 이야기의 보편적 전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전실딸이 재생의 과정을 통하여 시련을 극복하지 않고 접동새로 환생함으로써, 동물기원담으로

전설화하여 비극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한편 계모와 전실아들 및 가장의 삼각갈등 구도를 드러내는 것으로는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와 <우목낭상>,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를 들 수 있다.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에서는 계모가 피병을 앓아 전실아들의 간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갈등이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계모가 전실아들의 간을 요구하는 이 모티프는 이 유형의 특징적인 면모이다.

전실아들은 오히려 계모가 매수한 하수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고, 그의 보살핌 아래 과거에 급제하여 시련을 극복한다. 혹은 각편에 따라 하수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고 정승 대감집의 은혜를 입어 그 딸과 혼인한 후, 역시 과거에 급제한다. 계모의 장치에 있어서는 전실딸 등장 of 계모 이야기와 달리 전실아들이 가장의 역할을 대신하여 직접 응징하고 있다.

<우목낭상>은 계모가 가장의 병을 핑계로 전실아들의 눈을 요구한다. 전실자식의 신체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손 없는 색시>와 유사하지만, 자식의 부모에 대한 희생효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와 가깝다.

무엇보다도 극진한 부자관계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이 유형의 특징이며, 일면 부녀관계가 강조되었던 <황화일엽>과도 비견된다. 전실아들의 통소소리로 부자가 상봉하는 과정이나, 계모의 장치 이후 자식의 눈을 희생시키기 위한 가장의 노력이 극진하게 서사화되고 있는 부분이 주목된다.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의 경우는 서사의 초반에 전실아들이 계모에 의해 살해되고 그 누명을 며느리가 쓰게 되기 때문에, 계모와 전실아들의 갈등관계가 계모와 며느리의 것으로 전이된다. 각편에 따라서는 가장이 사명당으로 나타남으로써, 사명당이 출가하게 된 원인을 계모와 전실아들의 갈등으로 인한 가정의 비극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는 계모와 전실아들의 갈등을 기본으로 하되, 계모와 며느리 및 계모와 가장의 문제적 관계라는 두 축을 형성하게 된다.

전실아들의 신원을 며느리가 나서서 함으로써 계모의 악행이 드러나고, 가장은 계모와 그 소생을 불태워 죽여 응징한다. 비극적 가정사로 인해 가산을 며느리에

게 맡기고 출가하는 것으로 서사가 마무리되는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명당 출가유래담>으로 전설화한다. 이는 접동새와 까마귀 유래담으로 전설화한 <접동새> 유형과 비견되며, 계모의 영입으로 인한 가정의 비극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통한다. 여기에 서사를 덧붙여 후반부를 구성한 각편에서는, 며느리가 유복자를 낳아 키워 시아버지를 찾아 모셔와서는 다시금 온전한 가정을 이룬다.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의 특징적인 면모는 이처럼 계모와 전설아들의 갈등으로 출발하였으나, 계모와 가장 및 계모와 며느리라는 갈등의 두 축을 형성하여 서사를 전개하고 동시에 이들의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다시 서사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서사무가 중 <칠성풀이>, <문전본풀이>, <살풀이>, <성신굿>³¹⁾은 앞서 살펴본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 설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은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와 일정 부분의 서사를 공유하면서도, 또 다른 서사가 덧붙는다면 인물관계의 변화를 보인다든가 하는 차이를 드러낸다.

<칠성풀이>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반부가 <제석본풀이>와 유사하게 전개된다면 후반부는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의 전개와 상통한다. 매화부인과 칠성님이 만나 부부가 되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과 칠성님의 부재로 인한 가정문제의 발생 및 아들들의 부친탐색과 만남, 그리고 칠성님을 찾은 아들들이 친자확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부자계승이 이루어지는 결말까지를 통해 볼 때, <칠성풀이>의 전반부는 <제석본풀이>와 단군 및 주몽 이야기와 같

31) 서대석은 관서지방의 <성신굿>, 관북지방의 <살풀이>, 호남의 <칠성풀이>, 제주의 <문전본풀이>를 하나의 서사유형으로 파악하고, 전처소생의 아들이 후처의 모해를 받아 죽게 되었으나 천우신조로 후처의 악행이 드러나 후처를 응징하고 위기를 모면하는 계모담이 주축을 이룬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 계열의 것들을 가정신화로 규정하면서 <칠성풀이>와 계모형 서사문학 및 <제석본풀이>와의 관계를 조망하고 있다. (서대석, 「칠성풀이 연구 - 신화적 성격과 서사시적 서술구조」, 『진단학보』 제65집, 진단학회, 1988 참조.)

이러한 서대석의 고찰을 시작으로 박종성, 홍나래, 정주혜의 논의가 이어지면서 <칠성풀이>를 비롯한 서사무가의 계모담으로서의 성격이 주목되었다. (박종성, 「‘바리공주’와 ‘칠성풀이’의 同異性」, 『한국서사문학의 연구』 5, 중앙문화사, 1995 ; 홍나래, “<칠성풀이>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정주혜, “<칠성풀이>와 <문전본풀이>의 대비 연구 - 가족관을 중심으로 -”,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은 국조신화의 맥락에 맞닿아 있다.³²⁾

후반부는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와 유사한 서사전개 속에, 일곱의 전실아들과 계모인 옥너부인의 대립을 기본으로 하는 가정갈등이 드러난다. 다만 설화에서 전실아들이 원조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고 혼인과 과거급제를 통하여 시련을 극복했던 것과 달리, <칠성풀이>에서는 죽은 매화부인의 현신임이 암시되는 금사슴의 출현으로 위기를 모면한 전실아들이 계모의 피병을 밝혀내고 하늘에 칼심판을 제의함으로써 계모를 응징하고 있다.

<칠성풀이>의 또 다른 특징적인 면모는 죽은 친모를 되살린다는 점, 무가의 특성상 신직의 부여로 서사가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즉 일곱 아들은 칠성님을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와 물에 빠져죽은 매화부인을 살려내며, 일곱 아들은 칠성신이 되고 칠성님과 매화부인은 각각 견우성과 직녀성이 된다.

<문전본풀이> 역시 <칠성풀이>처럼 전반부는 다른 서사로 구성되어 있다. <문전본풀이>의 서두에서는 <칠성풀이>에 나타난 신성혼적인 남녀의 결합이 생략되고, 일곱 아들을 둔 부부의 가난한 삶이 제시된다. 가난 때문에 가장이 무곡장사를 떠나 아버지가 부재하는 상황이 되는데, 아버지가 부재하는 상황으로 전반부 서사가 마무리되는 것은 <칠성풀이>와 동일하다.

그러나 남선비는 노일저대귀일의 딸에게 미혹되어 장사 밑천을 탕진하고 비참한 생활을 영위한다. 이에 여산부인은 일곱 아들이 만들어준 배를 타고 남선비를 찾아가 재회하지만, 노일저대귀일의 꾀임에 빠져 죽고 만다. 그런데 여산부인과 노일저대귀일의 딸의 관계는 <칠성풀이>와 달리 처첩갈등으로 나타나며, 특히 노일저대귀일이 여산부인에게 목욕을 권하며 물에 빠뜨려 죽이고 여산부인 행세를 하는 장면은, <콩쥐팥쥐> 유형에 나타나는 동일한 장면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콩쥐팥쥐>에서는 전실딸과 계모소생 딸의 대결로, <문전본풀이>에서는 처첩간의 대결로 나타나는데, 관계양상은 다르나 본질은 한 가정에서의 여성간의 갈

32) <제석본풀이>는 천신계 남성과 지신계 여성의 결합 과정과 새로운 신의 탄생 과정을 노래한 것이며, 경기도 오산의 <시루말>과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 역시 천부와 지모의 결합으로 시조가 탄생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신화소는 단군신화나 주몽신화 등의 국조신화와 공통되고 있으며, <제석본풀이>의 부친탐색담은 유리의 부친탐색담과 동일하다. (서대석, 위의 논문 참조.)

등임을 알 수 있다.

후반부에서는 주지하다시피 계모인 노일저대귀일의 딸이 피병을 앓아 아들들의 간을 요구하면서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와 동일한 양상이 전개된다. 또한 여산부인의 현몽으로 위기를 벗어난 일곱 아들이 노일저대귀일의 흥계를 밝혀내고, 여산부인을 되살려낸 후 문전신 등으로 좌정한다는 점에서는 <칠성풀이>와 상통한다. 다만 계모의 흥계를 밝혀내는 역할을 막내아들인 녹디생인이 한다는 점과 남선비가 노일저대귀일의 딸과 함께 응징되어 각각 정주복신과 칙도부인이 된다는 점이 다르다 하겠다. 이때 여산부인은 조왕신이 되고 노일저대귀일의 딸은 칙간신이 됨으로써 처첩간의 갈등이 신격으로 좌정한 후에도 지속되는데, 이는 <접동새> 설화에서 전실딸과 계모가 각각 접동새와 까마귀가 되어 대립관계를 지속했던 양상과 비견된다.

한편 <성신굿>과 <살풀이>³³⁾는 다른 서사적 결합 없이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와 유사한 서사전개를 보인다. 특히 <성신굿>은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전실아들이 복수(複數)로 나타난다는 점과 서사무가적인 특성으로서 신직의 부여가 나타난다는 점을 제외하면 더욱 그렇다. 일곱 아들이 산중처사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서울에서 모두 과거급제하여 문무제신이 되어 시련을 극복하는 양상은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의 시련극복 과정과 동일하다. 더구나 전실아들이 명문거족으로 살다가 죽어 신이 되었다는 언급으로 마무리되어 구체적인 신직이 제시되지 않는데, <성신굿>은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 유형을 서사무가에 맞게 변모시킨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33) <성신굿> (임석재 · 장주근, 『관서지방무가』, 1966.)의 전승자료는 큰 굿 중 10째 거리인 ‘성신굿’에서 정운학이 구연한 것이다. 관서지방의 큰 굿은 당굿, 제수굿 등으로서 마을이나 가정의 재수를 비는 기복무제(祈福巫祭)인데, 성신굿은 금천왕굿이라고도 하며 자손의 명복(命福)과 가정의 대평(大平)을 기원하는 굿거리로서 대상신의 성격이 분명히 한정되지 않는다.

한편 <살풀이> (임석재 · 장주근, 위의 책.)는 강춘옥 무녀가 구연한 것으로, 살풀이는 큰 무의(巫儀)의 명칭이 아닌 작은 굿거리로서 인간의 삶에 저해요인인 여러 가지 살을 제거하는 굿이다. (서대석, 앞의 논문, 83-84쪽 참조.)

반면 <살풀이>는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와 유사한 서사전개 속에 다른 서사적 결합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성신굿>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계모의 흥계로 위기에 처한 전실아들들이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이 특징적인데, 친모인 구슬부인이 죽어 하늘에 올라가 물을 길는 사제가 되어 위기에 처한 세 아들들을 옥황의 도움으로 구해내고 옥황이 아버지인 해달왕님과 계모인 매일부인을 각각 귀신정배에 보내거나 살을 먹여 징치한다. 전실아들이 직접 계모를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구슬부인이 옥황의 도움을 받아 해달왕님과 매일부인을 징치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하겠다.

또한 구슬부인과 세 아들들이 해달왕님 및 매일부인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일면 <문전본풀이>와 비견된다. <문전본풀이>에서는 일곱 아들이 죽은 친모를 되살리고 <살풀이>에서는 죽은 친모가 세 아들들을 위기에서 구해내어 하늘로 데려간다는 점이 다르지만, 친모와 아들들의 관계가 부각되고 아버지와 계모는 징치된다는 점이 특별하다 하겠다.

한편 <허웅애기본풀이>는 <콩쥐팥쥐> 및 <콩쥐팥쥐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자에서는 허웅애기가 계모의 역할을 하고 콩애기가 전실딸로 나타나, <콩쥐팥쥐(전)>와 같은 갈등과 서사전개를 드러낸다. 다만 <허웅애기본풀이>의 후반부에는 콩애기가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살림을 하다가 이웃할미의 의심을 사고, 결국 저승차사에게 뉘을 뺏긴다는 서사가 덧붙여 있다. 이러한 서사는 민담 <허웅애기>와 유사하다.³⁴⁾

다음으로 계모형 고소설의 존재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계모설화와 관련성이 있는 작품군과 <장화홍련전>처럼 신원형 송사설화 및 실사의 영향을 받은 작품군, 다른 고소설 유형과의 영향관계 아래 작품세계의 변모를 보이고 있는 작품군으로 대별할 수 있다.

34) <허웅애기본풀이>와 <콩쥐팥쥐(전)>의 비교 고찰은 김현선(「서사무가와 고소설의 서사구조 비교 - <허웅애기본풀이>와 <콩쥐팥쥐전>의 사례를 중심으로 -」, 『경기교육논총』 제4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29-50쪽 참조.)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김현선은 <허웅애기본풀이>와 <콩쥐팥쥐전>의 인물, 삽화, 이계관 등을 비교하고 둘 사이의 공통점은 <허웅애기본풀이>가 <콩쥐팥쥐전>을 수용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용의 근거에 대해서는 제주도 지역의 개방적인 무속적 특징과 <허웅애기본풀이>를 구연한 심방의 창조적 개성을 들었으며, 두 작품의 공통적인 특질로 계모형 가정문학의 서사구조를 들어 논하였다.

<연당전>, <황월선전>, <콩쥐팥쥐전>, <조생원전(필사본)> 등은 각각 앞서 살펴본 <손 없는 색시>, <황화일엽>, <콩쥐팥쥐>,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와 관련이 있다. 이들은 계모설화와 기본적인 서사와 의미를 공유한다. 그러면서도 이본에 따라 변모된 양상을 드러내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장화홍련전>은 신원형 송사설화³⁵⁾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음이 선행연구를 통하여 논의되었다. <장화홍련전>과 유사한 계모설화가 두어 편 정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문헌설화에서 신원형 송사설화의 외피를 쓰고 있으면서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을 다룬 것과 더욱 관련이 깊다. 그러한 설화들은 대부분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과 그 파탄적 해결로 계모의 전실자식 살해가 이루어지고, 이에 전실자식이 원귀로 공청에 출현하여 원념에 의해 계모가 응징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전실자식이 죽음을 극복하고 계모를 응징하는 과정이 송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사구조 중 시련극복 단계에 송사구조가 개입된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김인향전>은 <장화홍련전>의 모방작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정을선전>은 전반부의 서사전개가 <장화홍련전>과 유사하다. <정을선전>은 후반부에서 처첩갈등을 드러냄으로써, 두 가지 유형의 소설을 결합시켜 작품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계모형 고소설이 다른 고소설 유형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작품세계의 지평을 넓혀가는 과정을 짐작케 한다.

계모형 고소설은 특히 영웅소설이나 가문소설 유형과 활발한 영향관계를 형성하였는데, <어룡전>, <석태룡전>, <정해경전> 등은 영웅소설과의 교섭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며 <효열지>, <난학몽>, <쌍선기>, <성현공숙렬기>, <화산기봉>, <하진양문록> 등은 가문소설과의 영향 아래 있는 것들이다.

이들 작품에서는 영웅소설이나 가문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군담 모티프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군담 모티프는 전실자식이 계모와의 갈등으로 가정에서 소외된 후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전실자식이 만나는 원조자는 전란에

35) 이현홍(「송사소설의 소설사적 의의와 맥락」, 『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1993, 909-925쪽.)은 송사설화와 송사소설을 논의하는 가운데, <장화홍련전> 및 <정을선전>과 같은 것을 신원형 송사소설로 분류하고 있다. 즉 송사 의뢰자가 원귀의 형태로 나타나 신원을 호소하는 경우를 지칭한 것이다.

서 공을 세우는데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게 해주며, 전설자식이 배우자를 만나거나 혼인하는 과정보다는 전란에서의 활약을 통하여 높은 관직을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따라서 계모와 전설자식의 갈등보다는 전설자식 중심의 영웅적 삶을 부각시키게 되며, 이러한 가운데 가문의 재건과 창달이라는 목적이 중요하게 대두되기도 한다. 즉 전설자식의 전란에서의 활약은 그의 시련극복과 동시에 가문의 존속과 영달을 가져온다. 이에 따라 계모와 가정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소거되고, 계모와 전설자식의 갈등보다는 가장 및 가문의 적대자인 가정 외적 인물과의 갈등관계가 나타난다. <효열지>처럼 계모가 가정갈등을 일으키는 동시에 요첩 및 간신의 형상과 중첩되어 가문의 적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도 하는데, 이때의 계모는 전설자식을 가정으로부터 소외시키고 가정의 와해를 야기하는 인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인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영웅소설 및 가문소설과 교섭하여 형성된 작품들은 계모형 고소설의 본령에 있다기보다는, 계모형 고소설이 다른 소설 유형과 영향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작품세계의 변모를 보이는 후대적인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계모형 고소설과 영웅소설 및 가문소설의 경계선상에 위치하여, 어떠한 소설 유형으로 귀속시켜 이해할 것인지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은 계모형 고소설이 장르와 유형을 넘나드는 교섭을 통해 작품세계의 지평을 넓혀가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설화와 서사무가, 고소설에 걸쳐 다채로운 양상으로 나타났던 계모 이야기는 신소설에 이르러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구의산>처럼 전대의 계모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수용한 경우와 <치약산>처럼 계모 이야기의 기본갈등과 서사를 수용한 경우가 그것이다.

<구의산>은 <조생원전(필사본)>의 이본인 <김씨열행록>과의 관계가 주목된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와 관련이 있으며, 이 설화의 각편 중에는 <구의산>처럼 전설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아들과 재회하는

내용으로 된 것도 있다.³⁶⁾ <구의산>은 일본인 구원자의 등장 및 계모 이동집과 그 소생 또복을 범소로 보내어 응징하는 등의 부분적인 변개를 제외하고는, 전대 계모 이야기의 한 하위유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반면 <치악산>을 비롯하여, <춘외춘>, <금국화>, <마도의 향불>³⁷⁾ 등은 전대 계모 이야기의 기본적인 서사전개와 갈등을 수용한 것들이다. 전형적인 악인으로서의 계모와 무능력한 가장, 그 사이에서 고난을 겪는 전실자식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들이 전대의 계모 이야기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작품 안에서 신교육 사상의 고취를 비롯한 개화사조와 계몽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사건의 전개와 그 안에서 드러나는 인물간의 갈등과 해결양상, 그리고 인물의 형상화에 있어서 전대의 것을 답습하거나 수용하고 있다.

이상 설화와 서사무가, 고소설, 신소설에 걸쳐 다양한 장르와 양상으로 존재하는 계모 이야기를 상호간의 영향관계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이는 곧 계모 이야기의 지형도라고 할 수 있다.³⁸⁾ 이 지형도를 전제로 다음 장에서는 계모설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계모형 고소설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하고자 한다.

36) 다음 장에서 살펴 볼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의 <각편 16, 22>에서는, 전실아들이 첫날밤 신방에서 살해되지 않고 원조자의 도움으로 살아있어서 가족과 재회하고 있다. 이는 <구의산>의 양상과 동일한 것이다.

37) <춘외춘>은 이해조(李海朝)가 지은 신소설로, 1912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14일까지 58회에 걸쳐 《매일신보(每日申報)》에 이열재(怡悅齋)라는 필명으로 연재·발표되었다. 계모와 전실딸 ‘영진’의 갈등을 서사의 발단으로 하여, 자신을 색주가에 팔아넘기려는 계모의 흥계를 일본인 원조자 등의 도움으로 모면한 영진이 결국 강학수라는 남성과 혼인하게 된다는 전개로 되어 있다.

<금국화>는 작자와 연대 미상의 신소설로 상·하 2권의 활자본이다. 1914년 보급서관(普及書館)에서 간행하였다. 전실아들 해묵과 계모 최씨의 갈등을 내세워, 맹목적으로 해묵을 해하려 드는 계모 최씨와 그에 대해 지극한 효성으로 대응하는 해묵의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마도의 향불>은 방인근(方仁根)이 지은 장편소설로, 1932년 11월 5일부터 1933년 6월 5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다. 애희와 대학생 영철의 애정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계모 숙경과 전실딸 애희의 갈등이 주요 갈등으로 드러난다. 즉 숙경이 애희를 난봉꾼 이달에게 선을 보여 정조를 빼앗게 하고, 영철과의 애정을 방해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38) <표 1 - 계모 이야기의 존재양상과 상호 관련성> 참조.

Ⅲ. 계모설화와 계모형 고소설의 상관성 및 전개양상

본 장에서는 계모설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계모형 고소설의 실상을 설화와의 비교를 통해 자세히 살피고자 한다.

<손 없는 색시>와 <연당전>, <황화일엽>과 <황월선전>, <콩쥐팥쥐>와 <콩쥐팥쥐전>,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와 <조생원전(필사본)>이 주요 고찰 대상으로서 이들은 설화와 소설이라는 장르를 넘나들면서 같으면서도 다른 면모를 보인다.

9편의 각편으로 존재하는 <손 없는 색시>는 전실딸의 손목 절단과 재생 모티프가 특징적인데, 낙태조작 및 편지조작 모티프와 탐색담 모티프의 출입양상에 따라 각편마다 차이를 보인다. 4종의 이본이 있는 <연당전>은 이 설화의 모든 모티프들을 종합하면서도 또 다른 면모를 보인다.

<황화일엽>은 모두 10편의 각편이 존재하며 그 서사전개가 대동소이하다. 특히 부녀상봉을 위한 한시 남기기 모티프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황월선전>은 38종의 이본이 있는데, 역시 서사전개는 대동소이하다. 설화와 비교했을 때 한시 남기기 모티프가 글(편지)로 대체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 외에도 <황화일엽>과 <황월선전>은 부분적인 차이가 여러 면에서 드러난다.

<콩쥐팥쥐>는 16편 정도의 각편이 발견되며 <콩쥐팥쥐전>과 매우 유사한 각편이 있는가 하면,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각편이 있다. <콩쥐팥쥐전>은 유일본으로 설화와 매우 유사하여 커다란 차이점이 없다.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는 23편의 각편이 있으며, 계모가 신방에 든 전실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에게 간부부정의 누명을 씌우는 부분이 특징적이다. 각편의 실상을 보면 <사명당 출가유래담>으로 전설화하는 것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가장이 사명당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며느리에게 초점을 맞추어 후반부 서사를 구성한 각편이 절반 정도이다. <조생원전>은 가장이 사명당으로 나타나지 않는

각편들과 유사한 서사전개를 보이며, 며느리 중심의 서사로 재구성한 이본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계모설화와 계모형 고소설의 비교 고찰은 계모형 고소설의 실상과 의미에 대한 보다 온전한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 또한 계모설화와 계모형 고소설이 밀접한 영향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작품세계를 구현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문학사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조선후기 서사문학사에서 가사, 판소리, 소설의 장르 교섭 양상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입증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특수한 예라기보다는 거대한 문학사적 흐름과 연계된 것으로, 이행기 문학사의 다양하고도 역동적인 움직임 가운데 하나로 보아야 한다.³⁹⁾ 마찬가지로 계모설화와 계모형 고소설이 영향관계를 주고받으며 다양한 작품을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양상들 또한 이행기 문학사의 한 흐름으로 볼 여지가 있다. 본고에서 고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작품들의 필사기를 통해 볼 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필사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계모형 고소설들이 계모설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양상은 조선후기 문학사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한편 계모설화와 계모형 고소설의 선후관계는 보다 명확한 근거에 의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오랜 연원을 가진 계모설화라 할지라도 각편에 따라서는 소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있다. 따라서 설화와 소설의 선후관계를 논하는 일은 보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설화가 소설에 영향을 주었다든지 혹은 그 반대의 경우를 상정하는 일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본고에서는 설화와 소설의 선후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둘의 관련양상에 의미를 둔다.

39) 서인석(「〈조생원전〉(필사본)의 문학사적 성격」, 『국어국문학연구』 제19집,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1, 85-113쪽 참조.)은 본고에서 고찰 대상으로 삼고 있는 〈조생원전〉의 현실적인 성격과 가사체의 율문적 양식 및 판소리적 문체에 주목하여, 이 작품이 조선후기의 이행기 문학적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 즉 〈조생원전〉은 조선후기 서사 양식의 상호교섭에 따른 고전소설의 문체 변이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행기 문학사의 다양한 흐름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때 많은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1. <손 없는 색시>와 <연당전>

1) <손 없는 색시>의 각편별 특징

<연당전>은 <손 없는 색시>와의 연계 속에서 형성된 작품이다. 특히 <손 없는 색시>의 주요 모티프들을 종합적으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손 없는 색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때 <연당전>에 대한 온전한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손 없는 색시>와 <황화일엽>의 착종 속에 형성된 각편들이 <연당전>의 이본인 <순금전>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손 없는 색시>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연당전>의 작품세계 이해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손 없는 색시> 설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서양에서 오래 전부터 널리 전해오는 유형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연구자들이 대상으로 삼았던 채록 자료는 모두 4편인데 평북 1편, 경기 1편, 경북 2편 등으로 비록 그 수는 적지만 비교적 전국적인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⁰⁾ 따라서 세계적인 유형이라는 점과 전국적 분포를 보인다는 점 등에서 비록 채록은 후대에 이루어졌지만 이미 그 전부터 오랫동안 구전되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다가 최근에 5편의 자료가 더 발견됨으로써 모두 9편으로 그 각편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 <손 없는 색시> 설화는 경기도 용인, 평안북도, 경상북도 대구, 달성, 봉화, 경남 의령, 전라북도 정읍, 전라남도 신안, 제주도 등지로 채록지역이 확산되기에 이르렀다.⁴¹⁾

40) 기존의 연구자들이 대상으로 삼았던 설화자료 4편은 다음과 같다.

<각편 1> - <계모가 팔을 자르고 내쫓은 처녀>,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 I, 평민사, 1985. 131-133쪽.

<각편 2> - <전처 딸 모해한 악독한 계모>, 『한국구비문학대계(이하 '대계'라 지칭 함.)』 7-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어문연구실, 1985, 332-347쪽.

<각편 3> - <계모에게 쫓겨난 손 없는 처녀>, 『대계』 7-14, 4-697쪽.

<각편 4> - <손 없는 색시>, 『대계』 1-9, 252-257쪽.

41) 최근에 추가 발견된 <손 없는 색시> 설화 자료 5편은 다음과 같다. (김혜정, “<손 없는 색시> 설화의 유형 체계-유형, 하위유형, 상위유형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참조.)

<각편 5> - <계모와 진실딸>, 『한국구전설화』 전라북도편 II, 평민사, 1991, 56-59쪽.

<각편 6> - <배나무 배주주 딸>, 『제주도민담』, 제주문화, 1996, 58-68쪽.

<각편 7> - <숯굽는 총각과 결혼한 처녀>, 『대계』 8-11, 714-720쪽.

<각편 8> - <수봉이 이야기>, 도서문화 3집 『신안지역의 설화와 민요』, 목포대학교도서관문화연구소,

9편의 지역적 분포로 보아서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등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발견됨을 확인할 수 있고, 경상도에서만 모두 4편이 채록되어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편의 <손 없는 색시> 설화자료는 내용이 비슷한 각편들도 있고 후반부의 전개가 판이한 각편도 있으며, 지역유형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독특한 내용구성을 보이는 각편도 존재한다.⁴²⁾ 먼저 <손 없는 색시> 설화 한편(<각편 1>)의 전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실딸이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가 들어오다.
2. 계모가 아들과 함께 전실딸을 학대하다.
3. 계모와 아들이 전실딸의 양손을 잘라, 집에서 내쫓다.
5. 쫓겨난 전실딸이 나무 위에서 감을 따먹으려 하자, 부잣집 아들이 전실 딸을 발견하고 숨기다.
6. 전실딸이 부잣집 아들과 혼인하다.
7. 남편이 과거보러 상경하다.
8. 전실딸이 득남하고 계모에 의해 편지가 조작되다.
9. 전실딸이 아들과 함께 쫓겨나다.
10. 샘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잡으려다 전실딸의 손이 재생되다.
11. 전실딸이 주막에서 아들과 함께 기식하다.

1996, 119-121쪽에 채수록.

<각편 9> - <전처딸을 몹시한 계모의 최후>, 『대계』 7-10, 889-894쪽.

42) <손 없는 색시> 설화의 각편 중 <각편 9>는 이 설화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 자료는 <연이와 버들도령> 설화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각편 9>는 <연이와 버들도령> 유형에 <콩쥐팍쥐>와 <손 없는 색시>의 몇 가지 모티프가 개입된 양상을 보인다. 즉 전반부에 <콩쥐팍쥐>에서 보이는 난제부와 모티프가 나타나며, 후반부에서 <손 없는 색시>의 손목 절단과 재생 모티프가 개입된다. 버들도령을 되살리고 또 채소를 구해 온 전실딸을 계모가 손목을 자르고 내쫓자 새파란 소(沼) 앞에서 잘린 손목을 들고 울고 있는 전실딸을 도령이 데려가 내외로 몇 해를 살다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 아버지만을 모시고 오고 계모는 벼락을 맞아 죽는다는 결말로 마무리된다.

따라서 <각편 9>는 <손 없는 색시> 설화의 손 절단 모티프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손 절단 모티프와 중요한 대응을 이루는 손 재생의 과정이 불분명하고 전체적인 서사전개가 <손 없는 색시>와는 다르므로, <손 없는 색시> 설화 유형보다는 <연이와 버들도령> 유형으로 봄이 더 타당하다 하겠다.

12. 과거에 급제한 남편이 옛장수가 되어 전실딸을 찾아 나서다.
13. 남편이 아들을 만나고 부부가 재회하다.
14. 전실딸이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가 계모를 죽이다.
15.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다.

위의 같은 <각편 1>과 <각편 2>, <각편 5>는 거의 동일한 전개를 보인다. 다만 <각편 2>의 경우 양손을 작두로 자르자 하늘로 날아올라갔다는 점, 전실딸이 남편감을 만난 장소가 배나무이고 색시가 아들과 함께 기식하는 장소가 마고 할미집이라는 점, 아버지만 모시고 오고 계모는 그냥 두고 오는 정도로 계모에 대한 정치가 미약하다는 것이 다르다. <각편 5>는 전실딸이 배우자를 만날 때 배우자의 꿈에 두 번이나 전실딸이 선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각편 4>, <각편 7>, <각편 8>은 계모에 의한 전실딸의 낙태조작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후반부의 전개가 위의 각편들과 다르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이 중 <각편 7>의 서사전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실딸이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가 들어와 아들과 딸을 낳다.
2. 계모가 자신의 딸에게는 참메밀묵을 주고 전실딸에게는 돌메밀묵을 주는 등 학대하다.
3. 계모가 자신이 키우던 쥐로 낙태형상을 조작하여 전실딸을 모함하다.
4. 이복남동생의 만류로 아버지가 전실딸의 오른손만 끊어 내쫓다
5. 쫓겨나는 전실딸에게 이복여동생과 남동생이 각각 쌀 서 되와 금가락지 하나를 주다.
6. 전실딸이 국시봉[國師奉] 먼당[山頂]에 올라가서 부엌에서 밥하는 할머니에게 하루밤을 청하여, 숯 굽는 떠꺼머리 총각과 만나다.
7. 숯굴로 밥을 나르던 전실딸이 숯 굽는 굴의 두 개 이맛돌이 생금짚임을 알고, 이를 팔아 부자가 되다.

8. 남편이 과거보러 상경하다.
9. 전실딸이 득남하다.
10. 전실딸이 아들을 업고 남편을 마중 나가다.
11. 전실딸이 샘물에 아이를 빠뜨려 울다가, 쌍무지개의 빛으로 손이 재생되다.
12. 과거급제하여 집에 돌아온 남편을 만나고, 전실딸은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석 달 열흘 도문 잔치를 벌여 거지가 되어 온 아버지와 이복남동생을 만나다.
13. 전실딸이 남편과 함께 계모를 죽이다.
14. 전실딸 부부가 아버지, 이복남동생과 잘 살다.

<각편 4>, <각편 7>, <각편 8>은 모두 일정하게 계모가 돌메밀묵이나 비상떡, 쥐를 이용하여 전실딸에게 낙태의 누명을 씌우는 모티프가 나타난다. 후반부의 전개에 있어서도 앞서 언급한 설화 각편들과 판이한 모습을 보이는데, 계모의 편지 조작에 의한 두 번째의 쫓겨남이 없이 전실딸의 친정나들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남편의 아내탐색에 의한 부부상봉이 아니라 부친과의 상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르다. 부친과의 상봉에 있어서는 <각편 4>가 특별한 과정 없이 전실딸이 스스로 찾아가서 만난다면, <각편 7>과 <각편 8>은 ‘석 달 열흘 도문 잔치’나 기둥에 전실딸의 신분을 암시하는 글을 써 놓고 가는 등의 만남의 구체적 예비과정이 보인다.⁴³⁾

특히 배우자의 신분이 <각편 4>의 경우에는 글 읽는 도령이지만, <각편 7>과 <각편 8>의 경우 각각 ‘숯 굽는 시커먼 띠꺼머리 총각’, ‘시커먼 수청이’ 등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이들 두 각편에 있어서는 숯 굽는 배우자의 일터에서 ‘생금짱’ 혹은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는 과정이 삽입된다.⁴⁴⁾ 또한 이 두 각편에서는 이

43) ‘석달 열흘 잔치’는 <삼공본풀이>에서 가문장아기의 잔치 및 <심청전>의 봉사잔치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여인발복설화 유형군에서 쫓겨난 딸이 부친과 재회하는 방법으로도 쓰인다. 그리고 친정집 기둥에 여주인공이 자신의 신분을 암시하는 글(혹은 시)을 써 놓고 가는 부분은 일명 <황화일엽>이라 불리는 유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모티프이다.

북남동생이나 여동생의 존재가 비중을 차지하며 드러나, 전실딸이 이북남동생의 만류로 죽음을 면하고 한 손만을 끊겨 쫓김을 당하게 된다.

계모의 징치에 있어서는 <각편 4>와 <각편 8>이 미약하게 드러나는데, 전자의 경우 계모를 소박하고 다른 계모를 얻는 과정이 두 번에 걸쳐 나타나며 후자의 경우 전실딸이 친정을 찾기 전에 마을 사람들에 의해 계모에 대한 응징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나타난다.

이처럼 <손 없는 색시> 설화의 각편은 몇 가지 모티프의 출입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낙태조작 모티프와 편지조작 모티프 및 탐색담 모티프가 그것인데, 낙태조작과 편지조작 모티프는 동시에 구현되지 않는다. 또한 편지조작 모티프는 탐색담 모티프와 계기적 인과관계를 맺고 있으며, 편지조작 모티프와 탐색담 모티프가 나타나는 각편은 후반부의 양상이 달라진다.

한편 <각편 3>과 <각편 6>은 예외적인 특징들이 나타난다. 먼저 <각편 3>은 돌메밀과 쥐를 사용한 낙태조작이 모티프가 나타나며 따라서 편지조작 모티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편지조작 모티프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전실딸이 그 자식과 함께 시어머니에 의해 축출되어 남편의 아내와 자식 탐색담이 이어진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각편 1, 2, 5>와 유사한 서사전개를 드러낸다.

<각편 3>의 또 다른 특징적인 면은 동북남동생이 등장하여 전실딸이 손목을 잘려 쫓겨날 때 도움을 준다는 점, 전실딸의 아들이 그 어미의 억울함을 갚겠다고 나서서 쥐의 배를 갈라 전실딸의 낙태 누명을 벗겨주고 관가에 고발하여 계모를 징치하는 과정이 있다는 점이다.

<각편 6>은 제주도의 자료로서 앞의 모든 각편들의 특징이 골고루 드러날 뿐만 아니라, 제주도적인 특색을 드러내는 부분들도 다수 보인다.⁴⁵⁾ 제주도의 자료

44) 김대숙(「여인발복설화연구」, 『한국설화문학의 연구』, 집문당, 1994.)에 의하면 여인발복설화군은 <내복에 산다>, <복진 며느리> 혹은 <복많은 백정딸> 등의 유형을 포괄하는 것으로 ‘복문답 - 시부지감(媿父知鑑) - 솥구이 총각과의 결혼’과 같은 모티프를 중심으로 그 서사가 짜여져 있다. 특히 <내복에 산다> 유형은 쫓겨난 딸이 우연히 솥구이 총각을 만나 결혼한 후 금을 발견해 이를 팔아 부자로 살았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데, <손 없는 색시> 설화 <각편 7>과 <각편 8>에 나타나는 솥구이 총각과 수정이는 이러한 유형들과의 영향관계를 짐작케 한다.

45) <각편 6>의 서사전개는 다음과 같다.

1. 배나무 마을에 사는 배조주의 딸이 어머니를 여의고 다슴어명(계모)이 들어오다.

인 <각편 6>은 앞선 각편들의 종합판과도 같다. 낙태조작과 편지조작이 동시에 나타나며, 부자간의 확인을 통한 부부상봉과 잔치를 통한 부친과의 상봉 역시 동시에 드러난다. 또한 배조주 딸이 억울함에 스스로 팔을 자른다는 것은 다른 어느 각편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각편 6>만의 독특성이며,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과 아내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 삼형제가 등장한다는 점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각편6>을 제주도적 특성이 한껏 반영된 지역유형으로까지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도 한다.⁴⁶⁾

이상 <손 없는 색시> 설화의 <각편 9>를 제외한 나머지 8편의 모티프 출입양상⁴⁷⁾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다슴어명은 매일 딸에게 방아를 찧게 하나 그때마다 흰쥐가 나타나 딸에게 흰 구슬을 물어다 주고, 다슴어명에게는 개똥을 물어다준다.
3. 화가 난 다슴어명은 쥐의 껍질을 벗겨 딸의 잠자리에 넣어두고는 거짓임신을 소문낸다.
4. 아방이 화가 나서 딸을 내쫓고, 딸은 억울하다며 스스로 팔을 끊다.
5. 끊어진 팔을 대나무에 묶어 집 처마에 다니, 흰비둘기와 흑비둘기가 날아와 ‘배나무 배조주 딸 불쌍하다’ 며 팔을 물고간다.
6. 배조주 딸이 부잣집의 나무 위에 앉아 있다가 그 집의 세 아들 중 막내와 만나고, 아들은 딸을 숨기다.
7. 딸이 사흘 안에 도포를 만드는 시험을 통과하여 아들과 결혼하다.
8. 아들은 글공부, 활공부 삼년하러 떠나다.
9. 딸이 득남하고 다슴어명에 의해 편지가 조작되다.
10. 배조주 딸이 아이와 함께 쫓겨나다.
11. 생모의 현시로 딸은 아이와 함께 기와집에서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살다.
12. 아방을 찾겠다고 딸이 석달 열흘 잔치를 하여, 찾아온 아방에게 상을 잘 차리고 다슴어명의 방에는 뱀, 쥐, 거미 등을 잡아서 넣다.
13. 집에 돌아온 아들이 두 형과 함께 붓장수가 되어 아내와 자식을 찾아나서다.
14. 아들이 자식을 만나고 배조주 딸과 재회하다.
15.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다.

46) 김현선은 『<손 없는 색시> 설화의 체문체』(경기대, 2001. 11. 미간행.)에서 이 각편을 제주도의 지역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제주도 지역은 신화와 서사시의 전승이 완강하고 어떠한 자료이든 제주도의 서사문법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제주도 서사문법의 미세화소적 특징이 곧잘 반영되고 때로는 전국공통의 화소라 하더라도 변형시켜 형상화하기 일쑤라고 하면서 <배나무 배조주 딸>의 경우 제주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남성 배우자의 과거행에서는 <초공본풀이>의 잣부기 삼형제담이 우선하고, 배조주 딸이 축출되는 과정은 노가단풍 아기씨의 축출담과 유사하다고 하였으며 아울러서 주인공이 자신의 정절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팔을 자르는 것은 <토산알당본풀이>와, 배조주 딸이 석달 열흘 잔치를 벌이는 것은 <삼공본풀이>와 흡사하다고 보았다.

47) 모티프 구현의 유무를 각각 ‘○’와 ‘×’로 표시한다.

<표 2 - '손 없는 색시'의 모티프 출몰양상>

모티프의 전개	각편별 모티프 출몰양상								
	<각편 1>	<각편 2>	<각편 3>	<각편 4>	<각편 5>	<각편 6>	<각편 7>	<각편 8>	
계모형입	○	○	○	○	○	○	○	○	
계모의 학대	○	○	○	○	○	○	○	○	
낙태조작	×	×	○	○	×	○	○	○	
손목절단	○	○	○	○	○	○	○	○	
축출 I	○	○	○	○	○	○	○	○	
배우자 만남	○	○	○	○	○	○	○	○	
혼인	○	○	○	○	○	○	○	○	
과거상경	○	○	○	×	○	○	○	×	
득남	○	○	○	○	○	○	○	○	
편지조작	○	○	×	×	○	○	×	×	
축출 II	○	○	○	×	○	○	×	×	
손목재생	○	○	○	○	○	○	○	○	
기식	○	○	○	×	○	○	×	×	
아내탐색	○	○	○	×	○	○	×	×	
재 회	부부 상봉	○	○	○	×	○	○	×	×
	부친 상봉	×	×	×	○	×	○	○	
계모징치	○		○	○	○	○	○	○	

<손 없는 색시>는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을 중심으로 가장이 중개자적 갈등을 겪는 삼각구도가 온전히 유지되면서, 모티프의 출입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서사구조로 정리된다.⁴⁸⁾

- 가. 친모가 죽고 계모가 들어오다.
- 나. 계모가 전실딸을 학대하다.
- 다. 계모가 전실딸을 낙태모해하여 손목을 잘라 내쫓다.
- 라. 전실딸이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고 자식을 낳은 후, 손목이 재생되다.
- 마. 전실딸이 아버지와 재회하고 계모가 징치되다.

- 가. 친모가 죽고 계모가 들어오다.
- 나. 계모가 전실딸을 학대하다.
- 다. 계모가 전실딸의 손목을 잘라 내쫓다.
- 라. 전실딸이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다.
- 다. 계모가 편지를 조작하여 전실딸 모자가 쫓겨나게 하다.
- 라. 전실딸의 손목이 재생되고, 남편의 탐색으로 부부가 상봉하다.
- 마. 전실딸이 가족과 재회하고 계모가 징치되다.

전자는 <각편 1, 2, 5>의 서사구조이고, 후자는 <각편 4, 7, 8>의 서사구조이다. 특히 후자는 기본적인 서사구조 ‘가 - 마’를 드러내면서도, ‘다 - 라’구조가 반복되어 서사가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각편 3>은 전반적으로 후자의 양상을 띠지만, 낙태조작 모티프가 나타나는 반면 편지조작 모티프는 나타나지 않는다. <각편 6>은 두 가지의 서사구조가 결합된 양상을 보인다.

<손 없는 색시>의 이러한 면모는 다음에서 살펴볼 <연당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설화와 소설이 같으면서도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

48) 이때의 서사구조는 II장에서 제시한 계모 이야기의 서사구조 ‘가 - 마’에 따른 것이다.

2) <연당전>의 존재양상과 전개

<연당전>은 4종49)의 이본이 존재하는데, <황화일엽> 설화 및 <황월선전>과 착종된 <순금전>까지를 포함한다면 모두 5종의 이본이 있는 셈이다. 먼저 <연당전>의 이본 중에서 가장 풍부한 서사를 갖춘 홍윤표본 <연단전>을 중심으로 그 서사전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황판서에게 일점혈육이 없다가, 적강선녀의 태몽으로 황연단이 태어나다.
2. 모친의 병사로 계모가 들어오다.
3. 계모가 자신의 아들을 낳은 후, 가산이 연단에게 갈 것을 염려하여 음모를 꾸미다.
4. 돌메밀 등으로 연단의 임신을 조작하여 황판서에게 고하다.
5. 황판서가 연단을 죽이려하나, 이복남동생의 만류로 손목만 자르다.
6. 쫓겨난 연단은 흰사슴의 인도를 받다.
7. 연단이 배나무 밑에 이르러, 망부(亡父)의 몽중교시를 받은 권형과 만나다.
8. 연단이 권형과 혼인하다.
9. 연단이 임신을 하고, 권형은 과거보러 상경하다.
10. 연단이 옥동자를 낳아 권형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나, 하인이 황판서의 집에 유숙한 사이 계모에 의해 병신 아들

49)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4종의 이본은 다음과 같다.

<연단전>, 홍윤표 소장본. (국문필사본 1권 1책, 31×24cm, 98면.)

<연당전>, 조동일 소장본, 『조동일 소장 국문학연구자료』 16, 박이정, 1999.

(국문 필사본 1권 1책, 23.5×16cm, 92면.)

<황연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 (국문 필사본 1권 1책, 34×19.9cm, 34면.)

<김연단전>, 여승구, 『고서통신』 15, 1999, 9.

(국문 필사본 1권 1책, 29.5×24cm, 35면. <성부인전> 합철.)

한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연당전>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한 자료가 있다. 이 자료는 국문필사본 1권 1책으로 작자와 연대 미상의 계모형 고소설이라는 소개와 함께 간략한 줄거리만이 소개되어 있으나, 서사전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보조적인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연당전>, 김기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317쪽 참조.)

을 낳았다고 편지가 조작되다.

11. 조작된 편지가 몇 차례 왕래되다.
12. 연단 모자가 시댁에서 쫓겨나다.
13. 승려의 도움으로 우물을 찾은 연단은 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잡으려다 손목이 재생되다.
14. 선녀의 인도로 선계로 들어가 죽은 친모와 재회하고, 그 곳에서 아들과 기식하다.
15. 과거급제한 권형이 돌아와 편지의 조작이 밝혀지고, 권형은 아내와 자식을 찾아 떠나다.
16. 권형은 돌부처의 지시를 받아 학을 타고 오작교를 건너 선계로 들어가다.
17. 권형과 아들의 상봉에 이어 연단이 잔치를 열어 부부가 상봉하다.
18. 연단부부가 연단의 친정을 방문하고, 계모가 징치되다.
19. 연단부부가 영화롭게 살다 승천하다.

홍윤표본 <연단전>을 포함한 <연당전>, <황연단> 3종의 서사전개는 대동소이하다. <황연단>의 경우 생략과 축소가 일어나 서사전개는 다소 간략하지만, 사소한 부분의 차이만 있을 뿐 앞의 두 작품과 거의 일치한다.

간략한 줄거리만이 소개되어 있는 <연당전> 역시 위의 3종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부분적으로 특징적인 면이 드러난다. 부친이 명나라 시절의 ‘유환’이며 ‘유연당’이 주인공이며, 특이한 것은 임신조작의 누명을 쓴 연당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두 손목을 자르면 청조가 되어 날아갈 것이니, 그렇게 되면 제가 애매한 줄을 아소서.’라고 말하고는 스스로 자신의 두 손목을 잘라달라고 한다는 점이다.⁵⁰⁾ 이에 두 손목이 청조가 되어 날아가자 유환이 그제야 딸의 억울함을 알았으나, 연단이 스스로 집을 나선다. 이러한 장면의 독특성과 더불어 배우자의 이름이

50) <손 없는 색시>의 제주도 전승 자료인 <각편 6>에서도 동일한 장면이 보인다. 전설딸이 결백을 증명하고자 스스로 손목을 끊고, 그것을 매달아 놓으니 흰비둘기와 흑비둘기가 날아와 물어갔다는 장면의 유사성과 더불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 또한 같다.

‘최귀’로 나타난다는 점, 또 시아버지의 지감(知鑑)에 의해 연단을 머느리로 맞아 들인다는 점이 위의 작품들과 다르며 그 이후의 서사전개는 동일하다.

줄거리 소개만 있는 것까지 포함한 4종의 <연당전>의 서사전개는 <손 없는 색시> 설화 각편에 나타났던 모든 모티프들을 종합한 것과 유사한 양상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손 없는 색시> 설화 <각편 1, 2, 5>의 특징은 계모의 편지조작으로 인한 전실딸의 2차 축출(시댁에서의 축출)이 일어나고, 뒤이어 남편의 아내와 자식 탐색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면 <각편 4, 7, 8>은 계모의 낙태모해로 전실딸이 1차 축출을 당하지만 편지조작에 의한 2차 축출이 없고, 따라서 남편의 아내와 자식 탐색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버지(선한 이복남동생이 나타나는 각편 7, 8의 경우 이복남동생도 포함하여)와의 재회를 위한 잔치를 열거나 친정에 글을 남기고 온다는 점이 특별하였다.

한편 낙태모해와 편지조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각편은 제주도 전승자료인 <각편 6>뿐이고 낙태모해와 편지조작 모티프가 동시에 구현되는 경우는 없으며, 편지조작 모티프는 남편의 아내 탐색 모티프와 맞물려 있다. 그런데 4종의 <연당전>에서는 <각편 6>처럼 모든 모티프가 종합되어 나타나면서,⁵¹⁾ 설화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태몽 모티프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상황의 설정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인물의 설정면에서 선한 이복남동생과 친모의 존재가 부각되는데, <연당전>에서는 <각편 7, 8>에서만 등장했던 선한 계모소생이 고정적으로 등장하면서 연당의 중요한 원조자가 된다. 따라서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에 가장과 선한 계모소생이 개입되는 양상을 보이며, 친모 존재의 부각으로 계모와 친모의 대립 또한 드러나면서 설화보다 다양한 인물관계가 설정된다.

설화에서는 죽은 친모의 존재가 부각되지 않으며 전실딸이 자식과 함께 축출되어 기식하는 장소가 특별히 신성성을 띠지 않았지만, 소설에서는 죽은 친모가 천상계에 있으면서 연당을 도와주며 연당이 자식과 함께 기식하는 장소도 천상계이다.

또한 절단된 손을 친모가 간직하고 있다가 우물가에 다다른 연당에게 붙여주고

51) 그렇다고 4종의 <연당전>이 특별히 <각편 6>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각편 6>은 모티프들을 종합적으로 구현하고 있으면서도, 제주도의 서사문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있으며, 연당이 친모를 만났을 때 그 동안의 조화가 모두 친모의 역할이었음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네가 계모의게 무이보고 도마 위의 업더려 죽이려할 제 큰 비방을을 심각
흐난야 그 비가 너의 눈물이요 빅월 우물의셔 네 자식 빨질 씨의 손목 이여
진 것도 너의 조화라 네야 웃지 알이요 흐시며 셔로 반기난 정희은 비할씨
읍더라 부인왈 인저난 너의 익운이 다지나쓰이 여긔셔 세월을 보너면...(조
동일 소장본, 186쪽.)

설화에서는 하늘로 올라가거나 독수리, 새매가 물어가는 잘린 손이 어떤 이유로
그러했는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각편 8>에서처럼 친모의 녀인 까치가 잘린 손을
물어가고 또 우물가에서 붙여주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도 하며, 또한 다른 각편에
서도 친모의 도움이 계속 있었음을 암시하는 언급이 보이기도 한다.

여전히 손이 달렸더래유. 그거 하늘에서 도와준 거유. 그게 그래서 손이
여전해서 깜짝 놀래가지구서,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붙쌍히 여겨서 이
거를 뚝 잘라질 적에 후루루 날아가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거를 나를 도와줬
구나!' (<각편 4>)

그러나 소설에서는 분명하게 친모의 존재가 드러나는데, 이러한 친모 존재의
강화는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난다. 하나는 앞서 언급했듯이 천상계 설정과 관련이
깊고, 또 다른 하나는 연당의 모성성 획득과 친모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연당 중심의 일대기 구조의 실현과 천상계 원리의 강조는 소설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첫 번째 인용에서도 드러나듯이 연당의 고난은 이미 정해진 것
이며, 그것은 연당의 적강선녀 태몽 및 부귀영화 후 승천과 맞물려 천상계 원리
로 나타난다. 따라서 연당은 '천상계에서의 적강 - 지상계에서의 계모로 인한 고
난 - 혼인 후 자식을 낳고 천상계에 기식하며 고난 극복 - 남편과의 재회 및 지
상계 하강 - 계모 징치 후 부귀영화 누리다가 천상계로 승천'이라는 공간 이동을
통해 자신의 일대기적 삶을 완성하고 있다. 또한 계모의 징치에 일관되게 천상계

가 개입한다는 점도 <연당전>이 천상계 원리에 충실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앞서 제시한 두 번째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설화에서도 전실딸의 손목 재생에 친모가 관여하고 있으며 소설에서는 보다 더 분명하게 친모의 도움임이 드러난다. 전실딸과 연당의 손목 재생은 자식에 대한 자연스러운 모성의 발로에서 기인한 것인데, 그것을 친모가 도와주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연당전>에서는 계모의 역할과 더불어 친모의 비중이 강화되어, 악한 어머니와 선한 어머니의 대비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김연단전>과 <순금전>은 <각편 4, 7, 8>과 보다 관련이 있다. 즉 <황화일엽> 설화와 착종되었던 <각편 4, 7, 8>의 특징적인 면이 두 작품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김연단전>은 특히 이복남동생 칠선과의 관계가 달라지면서 서사의 몇 부분이 변모된다. 계모 정씨의 모해로 손목이 잘려 쫓겨난 연단을 칠선이 따라와 함께 밥을 빌어먹다가 죽음에 이르고, 이것과 인과적으로 맞물려 서사의 후반부에 탐색담이 나타난다. 즉 연단이 칠선을 살리려 서천서역국으로 약물을 구하러 떠나는 장면이 삽입되는 것이다.

연단이 죽은 칠선을 묻고 방황할 때 옥황상제가 명을 내려 금사망을 입게 하며, 연단이 봉화촌 이승상택에 머물 적에 꿈에 선녀가 나타나 연단이 천상득죄한 선녀임을 알려주며 금사망을 벗김과 동시에 손목을 재생시킨다.

시부지감으로 연단은 능력이 모자란 이승상택 아들과 혼인을 하여 그를 공부시켜 과거급제 하도록 돕는다. 그런데 남편이 과거 보러 상경했을 때 계모의 편지조작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다른 이본과 동일하지만, 연단은 자식을 낳지 않으며 시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집을 나가려 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마침 돌아온 남편에 의해 연단에 대한 오해가 풀려 연단의 2차 축출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이복남동생 칠선을 살리기 위한 연단의 서천서역국 여행이 나타나며, 칠선을 살린 연당은 친정에 편지를 보내어 계모의 악행을 아버지께 고한다. 그리하여 계모는 천벌을 받고 연당 부부가 화락을 누리는 것으로

서사가 마무리된다.

이처럼 <김연단전>은 연단이 배우자를 만나는 시점에서 후반부 서사까지 4종의 <연당전>과는 변모된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그러한 변모는 <손 없는 색시> 설화 <각편 4, 7, 8>과 유사하다. 즉 <황화일엽> 설화와 착종된 각편들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손목의 재생이 자식에 대한 모성애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우부현녀형의 부부관계가 설정된다는 점, 글(편지)을 통한 부친상봉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이 그 근거이다.

<순금전> 또한 <김연단전>과 같은 양상인데, 서사전개를 통해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⁵²⁾

1. 재상 황공의 부인 최씨가 딸 순금을 낳고 세상을 떠나다.
2. 순금이 부친에게 권하여 정순옥의 딸 정씨를 재취로 맞아들이다.
3. 정씨는 노비를 인의로 부리고 가사를 정성으로 다스려 조정에게까지 칭찬이 자자하나, 아들 황생을 낳자 마음이 교만방자해지다.
4. 황승상이 순금을 더 귀히 여기자, 정씨는 무녀에게 계책을 물어 들메밀과 축새알로 순금의 임신징후를 조작하다.
5. 유모가 들어와 순금을 보고는 대성통곡하며 나가더니 죽다.
6. 정씨가 쥐를 잡아 튀겨 순금의 이불 밑에 몰래 넣어두고, 황승상에게 순금의 거짓 임신을 고하다.

52) <순금전>, 김광순 소장본, 『김광순 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32, 경인문화사, 1995.

(국문 필사본 1권 1책, 29×18cm, 59면.)

김광순(『순금전 연구』, 국학자료원, 1999.)은 <순금전>의 형성 배경을 살피는 과정에서 이 작품이 <손 없는 색시> 설화의 소설화인지, 아니면 소설의 설화화인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즉 설화가 비교적 후대에 채록되었고, <순금전>의 원형이 기존 계모형 소설과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손 없는 색시> 설화의 모티프가 삽입된 점에서 설화의 소설화와 소설의 설화화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화의 소설화를 전제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먼저 계모로 인한 가정의 비극을 다룬 이야기가 실제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다룬 설화가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순금전>도 이들 설화를 토대로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비록 후대에 채록된 것이기는 하지만 <순금전>의 내용과 유사한 설화가 4편이나 전승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 없는 색시> 설화가 우리나라는 물론 동서양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설화가 구전되어 오다가 <순금전>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손 없는 색시> 설화의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한 소설의 자료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논의였기에 <순금전>이 기존 4편의 <손 없는 색시> 설화의 온전한 소설화라는 논의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7. 황승상이 참토장에게 순금의 목을 베라 하나, 참토장은 간밤의 꿈을 생각하고 거부하다가 황승상의 엄명에 응하다. 황생이 간청하여 순금의 오른 손목만을 자르게 하다.
8. 황생이 잘린 손목을 비단으로 싸서 몰래 집을 빠져 나오고, 순금과 황생은 만남을 기약하고 이별하다.
9. 천보사 화주승이 시주를 권하자 순금은 황금을 내어주고 중은 홍도 세개를 순금에게 주다.
10. 순금이 홍도를 먹고 몸이 가벼워짐을 느끼나, 갑자기 광풍을 맞고 쓰러진 후 한쪽 눈을 뜨지 못하고 한쪽 다리가 잘리우고 온몸이 병신이 되다.
11. 순금이 자면 날짐승이 와서 덮어주고 나물과 과일을 놓고 가니, 순금이 배고픔과 아픔을 잊다.
12. 순금은 경상도 언양의 미천한 장자 목기람의 집에 구걸하러 갔다가 쫓겨나다.
13. 호랑이가 선녀로 변하여 약과 물을 주어 마시니, 다리가 완전해지고 옛 모습이 돌아오다.
14. 순금이 선녀가 준 옷을 입고 목장자의 집에 찾아가 극진한 대접을 받다.
15. 목장자가 바보 천치인 아들과 결혼하길 청하니, 순금은 숙명으로 받아들여 승낙하다.
16. 순금이 남편 목선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한지 수년만에 목선이 천하의 문장이 되다.
17. 목선이 과거에 응시하려 숙소를 황승상댁 근처에 있는, 순금 유모의 남편인 정서원의 집으로 정하다. 목선의 꿈에 한 여인이 나타나 처부모를 찾아보지 않음을 꾸짖자, 주인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순금이 황정승의 딸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하다.
18. 장원급제한 목선과 순금이 황승상댁에 숙소를 정하러 함께 황

생이 황정승을 설득하여 영춘당에 들게 하다.

19. 계모 정씨가 순금을 만나고 크게 놀라나 순금의 손이 완연함을 보고 마음을 놓다.
20. 순금은 본색을 숨기고 꿈에 손목을 잘린 처녀가 안부를 전하라고 말하며, 벽에 글을 지어 붙이고 양주로 떠나다.
21. 황생이 이 글을 보고 급히 양주로 달려가 오누이가 상봉하다.
22. 순금과 목선, 황생이 황송상에게 사건의 전말을 아뢰니, 황송상이 황상에게 표를 올리고 정씨를 불러 문초하자 정씨는 튀긴 쥐를 증거로 내놓다.
23. 쥐의 배를 갈라보니 쥐똥이 나와 정씨의 모략이 드러나, 참토장에게 정씨의 목을 치게 하다.
24. 순금이 아들 옥형제와 딸 삼형제를 낳고 90세까지 누리다가 옥황상제 앞으로 올라가다.

<순금전>의 서사전개를 통해 볼 때 1-8단락은 <연당전>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그 이후의 서사전개는 <황월선전>과 흡사하다. 순금 역시 자식을 낳지 않으며, 배우자와의 관계가 우부현녀형이라는 점, 친정에 들러 글을 남겨 신분을 암시하고, 특히 양주라는 지명이 나온다는 것 등이 착종의 흔적이라 하겠다.

<연당전>과 <김연단전>·<순금전>으로 대별하여 고찰하였을 때의 핵심은, 아들 존재와 남편의 아내탐색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아들의 등장과 남편의 아내탐색은 서사의 후반부에서 나타나는데, <김연단전>과 <순금전>에는 아들이 없고 남편의 아내 탐색도 나타나지 않는다. 자식이 있는 <연당전>의 경우 손목의 재생 장면이 큰 의미를 지니며, 그 의미는 연당의 모성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런데 <김연단전>과 <순금전>에는 자식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손목 재생 역시 다른 모티프와 섞여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 대신 연단과 순금의 친정 가족과의 재회 및 계모를 제외한 다른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주어진다.

즉 <연당전>은 일관되게 천상계의 원리를 따라 서사를 진행하면서, 연당의 손목 절단 및 재생 모티프와 남편의 탐색담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김연단전>과 <순금전>은 여러 층위가 착종되면서 서사가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의미를 제대로 구현해 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손목의 절단과 재생 부분이 인과성을 잃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그리고 <김연단전>보다 <순금전>이 더욱 많은 변모를 보이고 있다. <김연단전>은 착종의 과정 속에서도 편지조작 모티프가 드러나며, 아내 탐색담을 대신하여 칠선을 구하기 위한 약물 탐색담이 나타나고 있어서 <연당전>과 서사전개에 있어 유사성이 있다. 반면 <순금전>은 <황화일엽>을 비롯한 <황월선전>과 더욱 가까운 장면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순금의 손목 재생 이후의 서사전개는 온전히 <황월선전>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김연단전>과 <순금전>은 <연당전>의 이본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후반부가 <황화일엽>을 비롯한 <황월선전>과 착종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작품세계가 일관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손 없는 색시> 설화에서 드러났던 <각편 1, 2, 5>와 <각편 4, 7, 8>의 두 양상이 소설에서는 <연당전>과 <김연단전>·<순금전>의 두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의의가 있다. 즉 <손 없는 색시>와 <황화일엽> 설화가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처럼, 소설에서도 <연당전>과 <황월선전>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

2. <황화일엽>과 <황월선전>

1) <황화일엽>의 각편별 특징

<황화일엽> 설화는 조희웅에 의해 그 명칭과 함께 계모설화의 한 유형으로서 소개되었으며,⁵³⁾ 최운식을 비롯하여 계모설화를 전반적으로 살피는 선행연구자들

53) <황화일엽> 설화의 명칭은 조희웅에 의해 처음 명명된 것이다. 그는 이 설화들에 나타나는 한시를 가장 합당하게 구성하고, 그 첫구절을 따서 명칭으로 삼았다. 조희웅이 재구성한 시는 다음과 같다. '黃花一葉風飄飄/飛去海南接李枝/慾見父主小女兒/明朝乘鶴來揚州' (조희웅, 앞의 논문, 297쪽.)

의 논의 속에서 언급되어 왔다.⁵⁴⁾ 그러나 <황화일엽> 설화를 계모설화의 한 유형으로만 인식하였을 뿐, 이 설화에 대한 본격적인 의미 고찰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손 없는 색시> 설화에 대한 관심 및 계모형 고소설로서의 <황월선전>에 대한 주목과 더불어 <황화일엽> 설화 또한 의미 있게 고찰되어야 할 필연성이 많음에도, 지금까지 <황화일엽> 설화가 본격적인 고찰의 대상이 되지 못함으로써 <손 없는 색시>를 비롯한 <황월선전>의 온전한 의미를 가늠할 수가 없었다.

<황화일엽> 설화는 모두 10편의 각편이 존재하는데⁵⁵⁾ 충북, 강원도,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지에서 채록되었다. 각편 간 서사전개의 큰 차이는 없으며, 비교적 풍부한 서사로 이루어져 있는 <각편 1>의 전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황해도 황주(黃州)의 황진사와 강진(康津) 해남(海南)의 이진사가 자식들의 뱃속 정혼을 하다.
2. 황진사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 내려와 있다가, 딸을 하나 두고 상처를 하다.
3. 계모가 들어와 자기의 자식을 낳고는, 재산이 탐나 전실딸을 낙태모해하다.
4. 강에 띄워질 위기에 처한 전실딸을 하인들이 남복을 입혀 도주

54) 최운식(앞의 논문)과 전용신(앞의 논문)의 논의에서는 모두 ‘딸의 부정을 꾸민 계모형’의 한 양상으로 다루어졌으며, 신상운(앞의 논문)의 경우 계모의 행동유형과 전실자식의 대응양상에 따라 계모설화의 유형을 분류하는 가운데, 각각 ‘모함’과 ‘수난극복’의 유형으로 다루었다. 손혜옥은 통과제의 구조를 전제로 계모설화를 고찰하되, ‘정절 모해’의 양상에서 <황화일엽>을 논의하였다.

55) <각편 1> - <계모의 흥계로 쫓겨난 딸의 상봉>, 『대계』 3-4, 31-41쪽.
 <각편 2> - <모함을 이겨낸 황대감의 딸>, 『대계』 6-4, 450-455쪽.
 <각편 3> - <황대감의 딸>, 『대계』 6-4, 812-814쪽.
 <각편 4> - <이도령과 남자>, 『대계』 6-11, 151-158쪽.
 <각편 5> - <이정승의 며느리>, 『대계』 7-6, 539-553쪽.
 <각편 6> - <못된 계모와 남자>, 『대계』 7-12, 87-95쪽.
 <각편 7> - <한양 황판서의 딸>, 『대계』 8-5, 205-213쪽.
 <각편 8> - <서모에게 구박받은 이야기>, 『대계』 8-5, 1103-1107쪽.
 <각편 9> - <이대의 의붓딸>, 『대계』 9-12, 685-690쪽.
 <각편 10> - <황정승의 딸 이야기>, 『강릉어문학 9집』 . 55-57쪽.

시키다.

5. 남북한 전실딸이 정혼한 이진사댁 동네를 찾아가, 서당에서 정혼자를 만나 함께 공부하다.
6. 전실딸이 이진사댁에 가서 전후사정을 말하고 정혼자와 혼인하다.
7. 전실딸의 남편이 과거를 보러 상경하는 길에 황진사댁에 들렀다가, 과거 급제하여 양주목사를 제수받고 전실딸과 함께 황진사댁을 찾다.
8. 전실딸은 자신이 거쳐하던 별당에 자신의 신분과 그간의 사정 및 아버지 황진사와의 재회를 암시하는 시를 남겨놓고 떠나다.
9. 황진사가 그 시를 보고 딸을 찾아와 재회하고, 집에 불을 질러 계모를 징치하다.
10. 전실딸이 아버지 황진사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다.

<황화일엽> 설화 10편의 각편은 대부분 위와 같은 서사전개로 이루어진다. 두 집안의 정혼으로 서사의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황화일엽> 설화의 특별한 면이라 하겠는데, 정혼 모티프는 서사 전체에 인과성을 부여한다. 즉 전실딸이 정혼자를 찾아가 혼인하고 친정에 남기는 시귀에도 정혼자를 만나 혼인했음을 밝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계모가 전실딸을 낙태모해하여 가정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은 특별할 것이 없지만, 전실딸이 남북을 하고 정혼자와 동문수학한다는 점과 전실딸이 정혼자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정혼자의 과거급제에 도움을 준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가장 주목할 것은 전실딸이 아버지와 재회를 위해 남기는 시라고 할 수 있다. 각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면모는 비슷한데, <각편 1>에 제시된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황화일지풍표표(黃花一枝風飄飄)/비입해남접이지(飛入海南接李枝)
부수종적부욕견(浮水從迹復欲見)/명조승학래양주(明朝昇鶴來楊州)

누런 꽃 한 가지는 바람에 나부끼고 나부껴서/
해남땅에 날아들어가 외가지에 접을 붙였습니다.
물에 띄운 종적을 다시 알고자 하거든/
다음날 아침에 학을 타고 양주골로 내려오십시오.

‘누런 꽃 한 가지’는 전실딸 자신을 암시하고, ‘외가지에 접을 붙였다’는 것은 이진사택에 가서 혼인을 하였다는 의미이다. ‘물에 띄운 종적’은 계모의 모해로 강물에 띄워져 죽을 위기에 처했던 전실딸 자신을 의미하며, 마지막 구절은 아버지와 재회를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황화일엽> 설화에 나타나는 시는 전실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힘과 동시에 정혼자와 혼인하였음을 알리고, 아버지와 재회를 희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다른 각편들을 살펴보면, <각편 1, 2, 3, 5, 6>에서는 정혼 모티프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두 집안의 정혼 장면으로부터 서사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편 4>에서는 정혼 모티프가 나타나지 않지만 이씨 집안과 황정승 집안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두 집안의 관계에 깊은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나머지 각편에서는 계모가 들어와 전실딸을 미워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계모가 전실딸을 미워하는 이유는 계모의 심성이 곱지 못해서, 즉 계모는 원래 전실자식을 미워한다는 통념을 제시하고 있는 각편이 대부분이며, <각편 1, 3>에서는 전실딸에게 재산이 갈 것을 시기해서라고 나타난다. 계모가 전실딸을 모해하는 방법은 낙태모해가 대부분이며, <각편 5>에서는 간부조작을 통해 음해하고 있다. <각편 3, 7>에서는 각각 계모가 단순히 전실딸을 죽이려 한다거나, 독이 든 묵을 먹여 병신을 만들었다는 것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각편 10>의 경우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이 아니라 세 명의 울케와 전실

딸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인 시아버지가 딸을 무척 사랑하는 것을 시기한 올케들이 간부로 변장하여 딸을 모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딸을 위기에서 구하는 것이 오라비들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대부분의 서사전개는 다른 각편들과 동일하다.⁵⁶⁾

전실딸을 죽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원조자는 대부분 전실딸의 아버지에게 전실딸을 물에 띄워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하인이다. <각편 2>에서는 전실딸 스스로 남복을 하고 도주하며, <각편 5>에서는 이복남동생이 도와준다. 그리고 <각편 8>에서는 단순히 계모에게 쫓겨나고 <각편 10>에서는 오라비가 도와준다. 이 과정에서 전실딸은 남복을 하게 되며, <각편 7, 8>에서만 남복 모티프가 나타나지 않는다.

전실딸은 정혼한 댁을 스스로 찾아가거나 혹은 우연히 혼인할 사람을 만나게 되어, 배우자와 동문수학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남복을 한 것이 탄로나 혼인을 하며, 전실딸이 배우자보다 능력이 뛰어나 <각편 4, 5, 6, 7, 9, 10>에서는 전실딸의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한다.

전실딸은 친정에 시를 남겨 아버지와 재회하고 있는데, <각편 5, 8>에서만 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각편 5>에서는 글(편지)로 대체되고,⁵⁷⁾ <각편 8>에서는 아

56) <각편 10>은 계모 대신 올케가 등장하여 딸(시누이)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계모설화로 보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이 변형된 양상으로 판단되며, 계모와 전실딸 갈등의 본질이 결국 한 가정 내의 여성갈등에 있음을 암시하는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57) <각편 5>는 특별히 <황월선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 뒤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설화에서는 시였던 것이 <황월선전>에서는 장문의 글로 대체되어 나타나며, 선한 이복남동생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결말에서 계모와 전실딸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각편 5>는 <황월선전>과 밀접한 면이 있다. 즉 선한 이복남동생이 등장하여 전실딸과 돈독한 우애를 쌓으며 전실딸을 죽을 위기에서 구해준다는 점, 전실딸이 친정에 들러 시를 남기는 대신 편지를 남긴다는 점, 전실딸이 계모의 응징을 만류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각편 5>는 상당히 긴 서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연상황을 보면 구연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긴 이야기를 기억하느냐’고 조사자가 질문하자 ‘전에는 소설을 거의 외다시피 했다, (<각편 5>의 경우) 책 이야기가 아니라서 (구연하기가) 힘이 든다’고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구연자가 소설을 거의 외다시피 했다는 점에서 <황월선전>을 읽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각편 5>가 책 이야기가 아니라서 구연하기 힘들다고 한 점으로 보아 <각편 5>를 <황월선전> 같은 소설을 읽고 구연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설화와 소설의 선후 영향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각편 5>에서 제시된 구연상황은 주목할만 하다.

예 언급이 없다.58)

이상과 같은 10편의 각편을 모티프 출현양상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 '황화일엽'의 모티프 출현양상>

모티프 의 전개	각편별 모티프 출현양상									
	<각편1>	<각편2>	<각편3>	<각편4>	<각편5>	<각편6>	<각편7>	<각편8>	<각편9>	<각편10>
정혼	○	○	○	×	○	○	×	×	×	×
계모 형입 및 학대	○	○	○	○	○	○	○	○	○	○
낙태 조작 및 간부 위장	○	○	×	○	○	○	×	○	○	○
원조자 등장	○	×	○	○	○	○	○	×	○	○
남북 도주	○	×	○	○	○	○	○	×	○	○
정혼자 와의 동문수 학	○	○	○	○	○	○	○	○	○	○
혼인	○	○	○	○	○	○	○	○	○	○
과거 급제	{○}	{○}	{○}	○	○	○	○	{○}	○	○

58) 이에 대해서는 구연자와의 관련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즉 시가 나타나지 않는 2편의 각편은 여성이 구연한 것이며, 시가 나타나는 나머지 8편은 남성구연자가 제보한 것이다.

시 남기기	○	○	○	○	×	○	○	×	○	○
부친 상봉	○	○	○	○	○	○	○	○	○	○
계모 징치	○	○	○	○	○	○	○	○	○	×

모티프 출입양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황화일엽> 설화는 부분적인 모티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각편 간의 큰 변별성이 없다.⁵⁹⁾

<황화일엽>은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을 주축으로 하면서 가장이 중개자적인 갈등을 겪는 삼각구도가 서사전체에 걸쳐 유지되며, 특히 시귀를 통해 부녀가 상봉하는 부분으로 인해 부녀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황화일엽>에 중요하게 나타나는 모티프를 중심으로 그 서사구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실딸과 그 배우자 집안이 정혼하다.)

가. 친모가 죽고 계모가 들어오다.

나. 계모가 전실딸을 학대하다.

다. 계모가 전실딸을 낙태모해하거나 간부위장하여 제거하려 하다.

라. 전실딸이 원조자의 도움으로 남복도주하고, 배우자를 만나 동문 수학한 후 혼인하다.

마. 전실딸이 과거급제한 남편과 함께 친정에 들러 시를 남겨 아버지 지와 재회하고, 계모는 징치되다.

서사구조 ‘가’ 전에 예비상황으로서 전실딸과 그 배우자 집안의 정혼이 이루어지는 양상은 10편 중 절반의 각편에서 나타난다. <각편 4>는 정혼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두 집안에 대한 소개가 서두에 제시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6편의 각편에서 정혼 모티프가 중요하게 부각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실딸이 남기는 시 구절에

59) 이러한 <황화일엽>의 양상은 이 설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황월선전> 또한 이본 간에 큰 차이가 없는 점과 비견된다.

자신이 혼인한 집안에 대한 언급이 항상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황화일엽>에서 전실딸과 그 배우자 집안의 관계를 중요하게 드러내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한편 ‘가 - 다’까지의 상황은 특별할 것이 없으나, ‘라 - 마’의 서사구조에 나타나는 양상들은 <황화일엽>만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다음에 살펴볼 <황월선전>은 <황화일엽>과 여러 면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도, <황화일엽>에서 중요하게 나타났던 모티프들이 사라지거나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2) <황월선전>의 존재양상과 전개

<황월선전>은 계모형 고소설의 후대적 양상을 보이는 작품으로서 언급되어 오다가⁶⁰⁾ 최근 이본연구가 본격화되었고,⁶¹⁾ 단독논문이 나오기도 하였다.⁶²⁾ 그러나 <황월선전>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라 이본의 존재 양상을 밝히는 데에 논의가 집중된 한계가 있다. 더구나 38종의 이본 중 활자본을 제외한 29종의 이본이 결말의 변이 외에는 대동소이한 서사전개를 보이고 있어서,⁶³⁾ <장화홍련전>처럼 이본 간의 변이가 다양한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즉 <장화홍련전>은 50여종의 이본이 다양한 변별성을 드러내고 있어서 이본 간의 대비를 통해 작품의 의미까지 읽어낼 수 있는 효용성이 있다. 그러나 <황월선전>은 이본 간의 변이가 심하지 않기에, 이본 연구의 성과에서 더 나아가 작품 자체에

60) 김재용(앞의 책 참조)은 <황월선전>을 후기 유형구조의 작품으로 다루고 있으며, 정상진(「계모형 고소설의 후대적 변모와 <황월선전>」, 『한국고전소설연구』, 삼지원, 2000, 262-295쪽.)은 <황월선전>이 초기적 작품구조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후대적 변모가 보인다고 하였다.

61) 김민조, 「<황월선전> 이본 연구」, 『고소설연구제1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6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황월선전>의 이본은 현재 필사본 37종과 활자본 1종 등 38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김민조는 이 글을 통하여 <황월선전>의 이본을 활발히 수집하고 살펴, 29종의 이본을 대상으로 <황월선전> 작품 연구의 기초가 되는 이본 연구의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62) 정상진, 위의 책.
박연미, “<황월선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63) 김민조나 정상진 모두 결말에 계모를 징치하느냐 그렇지 않고 용서하느냐가 이본간의 큰 차이라고 하였다.

대한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황월선전>이 계모형 고소설의 판도 안에서, 나아가 계모설화의 작품세계 속에서 특별한 의의를 지닐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계모설화의 지평을 이 유형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살필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황화일엽>과 서사를 공유하기에 설화와 소설이라는 장르간의 차이가 작품세계에 어떠한 변별성을 가져오는지 살필 수 있다. 또한 앞서 <손 없는 색시>와 <황화일엽>의 영향관계, 혹은 각각 이 설화들과 서사를 공유하는 <연당전>과 <황월선전>의 주고받음이 <순금전>이라는 작품을 형성해내는 근거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양소저전>이나 <선연전>과 같이 여성영웅소설 유형과 교섭하여 작품세계의 지평을 넓히는 과정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후술하겠지만 <양소저전>에는 <황화일엽>에서 중요한 모티프였던 시 구절이 나타난다. <황월선전>에서는 시 구절이 편지나 글로 대체되었던 반면, <양소저전>에는 한시 구절의 의미가 그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황화일엽> - <황월선전> - <양소저전>’ 간의 영향관계를 통해, 계모 이야기가 설화와 소설이라는 장르를 넘나들고, 소설 유형 간의 교섭을 통해 변모되는 양상을 확연히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의의를 지닌 <황월선전>의 구체적 작품실상을 고찰하기 위해 전체 이본을 포괄할 수 있는 서사전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⁶⁴⁾

1. 경기도 여주땅의 황공은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에 내려와 농업에 힘써 가산이 풍족하나 늦도록 자식이 없어 걱정하다가, 시주승에게 시주하여 신이한 태몽을 꾸고 월선을 얻다.
2. 월선의 친모가 득병하여 별세하니, 황공이 박씨를 계모로 들이다.

64)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김광순 편, 『김광순 소장 필사본한국고소설전집』 37, 경인문화사, 1993, (국문필사본 1책, 45면.)

월촌문헌연구소 편, 『박순호 소장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51, 오성사, 1986, (국문필사본 1책, 102면.)

전자는 김민조의 <황월선전> 이본 연구를 통하여 잠정적 선본(善本)으로 고찰된 것이며, 후자는 정상진과 박연미가 <황월선전> 이본 중 비교적 내용이 자연스럽게 구성된 선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이본들도 참고자료로 삼는다.

3. 계모가 아들 월생을 낳고, 황궁이 사신으로 집을 떠날 때 가산 분배를 하여주자 이에 불만을 품다.
4. 계모가 월선을 미워하여 분가시키고 농사일을 시켜 학대하나, 월선이 훌륭하게 일을 수행하다.
5. 계모 박씨는 더욱 월선을 시기하여 낙태형상을 꾸며 모해하고 쫓으려 하나, 월생이 박씨를 원망하며 월선을 위로하다.
6. 황궁이 귀가하자 계모가 월선이 낙태하였다 말하나 소용이 없자, 시비를 시켜 간부부정을 꾸미다.
7. 황궁이 월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월선을 물에 빠뜨려 죽이려 지시하다.
8. 월생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월선은 자살을 시도하나 신이한 인물과 친모의 도움으로 장진사의 집을 찾아가다.
9. 옥을 당할까 두려워 소경 병신 흥내를 내며 장진사의 집에 당도한 월선을, 장진사 부부가 범상치 않음을 알아보고 잘 대접하다.
10. 장진사의 아들 장위가 월선의 관상을 통해 귀한 인물이 될 것임을 알아보고, 꿈에 선녀의 계시를 받아 월선과의 혼인을 부모에게 청하다.
11. 월선은 소경 흥내를 그만 두고 장위와 혼인하고, 황궁은 꿈에 월선을 본 후 월생에게 월선을 찾아오라 지시하다. 이 때 황궁이 시비의 자백으로 계모 박씨의 흥계를 알았으나, 월생 때문에 계모를 처벌하지 못하다.
12. 장위가 장원급제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다 월생을 만나고, 월선에게 월생을 만난 일을 알리다.
13. 월선이 장위와 함께 장위의 부임지로 가다가 친정에 들러, 그간의 일을 글로 남기고 오다.
14. 월선은 장위에게 사연을 말하고 친정으로 돌아가 황궁과 재회하고, 계모에게 별주를 권하며 화해한다.

15. 월선은 장위에게 사연을 말하고 친절으로 돌아가 황공과 재회하고, 계모를 위로하며 화해한다.
- 13". 월선은 장위에게 사연을 말하고 친절으로 돌아가 황공과 재회하고, 황공이 계모를 응징하다.
14. 월선과 장위부부가 많은 자녀를 두고 높은 지위에 오르다.
15. 황공의 생일잔치 날 계모 박씨와 그 하수인들이 천벌을 받고, 월선과 월생이 계모를 안장하다.
16. 황공이 별세하고, 월선은 복락을 누리다가 승천하다.

<황월선전>은 계모에 대한 처리 부분에서 이본 간의 차이가 드러날 뿐, 대부분 위와 같은 서사전개를 보인다. 즉 서사단락 13 - 13"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계모를 용서하느냐 징치하느냐에 따라 이본 간에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다. 13, 13'단락처럼 계모가 용서를 받더라도 15단락에서는 천벌을 받아 죽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본에 따라 계모가 천수를 누리다가 평범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계모가 천벌을 받는 시점도 이미 천수를 누린 후로 나타나, 계모가 철저하게 응징되는 계모형 고소설의 일반적인 양상과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⁶⁵⁾

<황화일엽> 또한 각편 간의 큰 차이가 없어서 <황월선전>과 상통한다 하겠으나, 결말은 계모를 응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황월선전>과 꼭 다르다. 이 외에도 <황화일엽>과 <황월선전>은 전반적인 서사전개는 유사하나 부분적인 면에 있어 차이를 드러낸다. 따라서 설화와 소설의 주요 모티프 비교를 통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⁶⁶⁾

65) 정상진(앞의 책)과 김민조(앞의 글) 역시 결말의 차이에 따라 <황월선전>의 선분을 추정하거나, 이본의 계열을 나누고 있다. 다만 정상진은 천벌단락의 유무에 초점을 맞추었고, 김민조는 별주단락과 천벌단락 등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는 차이가 있다.

66) <황화일엽>에서 '낙태조작 및 간부위장' 모티프가 나타나는 부분에 ()처리한 것은, 각편에 따라 둘 중 하나의 모티프만 실현되기 때문이다. 반면 <황월선전>에서는 두 모티프가 동시에 나타난다. 또한 '과거급제' 모티프 부분에서 <황월선전>에 ()처리한 것은, <황화일엽>에서는 대부분의 각편에서 남편의 과거급제에 전설딸의 도움이 크게 작용하지만 <황월선전>에서는 전설딸의 도움 없이 남편이 과거급제를 하기 때문이다.

<표 4 - '황화일엽'과 '황월선전'의 모티프 비교>

비교	모티프의 전개												
	정혼	계모 영입 및 학대	낙태 조작 및 간부 위장	원조자의 등장		배우자 만남		혼인	과거 급제	가족 재회		계모 처리	
				하인 원조 및 남복 도주	이복 남동생 및 신이한 존재의 원조	동문 수학	지인 지감 및 몽조			시 남기기	글 남기기	정치	용서
<황화일엽>	○	○	(○)	○	×	○	×	○	○	○	×	○	×
<황월선전>	×	○	○	×	○	×	○	○	(○)	×	○	○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황화일엽>과 <황월선전>은 전반적인 서사전개가 유사하다. 그러나 원조자의 도움으로 계모의 흥계로 인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상황과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 가족과 재회하고 계모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드러난다. 계모의 모해가 이루어지는 부분과 남편의 과거급제 양상에서도 약간의 변별성이 있으며, <황월선전>에서는 정혼 모티프가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즉 <황월선전>에서는 전실딸이 남복을 하고 도주하는 부분과 배우자와 동문수학하는 부분이 없고, 대신 이복남동생의 도움 및 신이한 원조자들의 도움으로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이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황화일엽> 설화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시 남기기 모티프가 소설에서는 글로 대체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황월선전>에서는 계모를 정치하는 이본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례적으로 계모를 용서한다는 점이 가장 주목된다. <황월선전>에서 계모를 용서하는 결말과 더불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선한 계모소생의 등장이다. 계모를 용서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선한 이복남동생의 존재 때문이기도 하다. 설화에서는 전실딸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는 것이 하인으로 나타나며, 선

한 계모소생은 <각편 5>에서만 등장한다.

설화와 소설의 이러한 차이들은 작품의 의미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황월선전>에서는 남장 모티프 및 정혼자 모티프가 소거되고, 배우자보다 월등한 전실딸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황화일엽>의 전실딸이 지녔던 자신의 삶에 대한 적극성이 희석된다. 월선은 집에서 나온 후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며 그 때마다 신이한 원조자들을 만나 목숨을 유지한다. 배우자 장위와의 만남도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죽은 친모가 현몽하여 지시한 것을 따른 결과다. <황화일엽>의 전실딸이 남장을 하고 스스로 찾아가 동문수학한 것과는 껍 대조적이다.

<황화일엽>의 전실딸과 배우자의 관계도 <황월선전>의 월선과 장위의 그것과 달라지는데 전자가 우부현녀(愚夫賢女)의 양상을 띠는다면, 후자에서는 장위가 월선의 관상을 보고 귀하게 될 것을 안다든가 꿈에 나타난 선녀의 계시를 통해 월선과의 혼인을 결정한다든가 하는 점들로 미루어, 장위는 월선만큼의 비범함을 갖춘 인물이며 월선의 배우자로 선택되어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황화일엽>에서 전실딸이 과거급제의 주체가 되는 것⁶⁷⁾과는 달리, <황월선전>에서는 장위가 과거급제를 하며 월선은 남편의 부임지에 동행할 뿐이다. 월생이 아버지 황공의 명을 받고 월선을 찾아 떠났을 때에도 월선이 아닌 장위를 만나 사연을 전하고 있으며, 장위는 월선의 사연을 알고 부부애로서 월선을 이해하고 돕는다.

또한 <연당전>처럼 <황월선전>에서도 설화에서는 보이지 않던 천상계가 설정되면서, 이원적인 세계관을 드러낸다. <황화일엽>의 전실딸이 보여주었던 적극적인 면모는, 천상계 설정으로 월선의 삶이 운명론적인 양상을 띠면서 희석되기도 한다.⁶⁸⁾ 천상계의 원리에 따라 월선의 고난은 정해진 것이며, 또한 그것은 극복되도록 정해져 있다. 적극적인 삶의 개척이 없어도 천상적 존재를 비롯하여 월선과 인연을 맺는 인물들이 모두 월선 곁에서 그러한 운명의 순행에 일조(一助)한다.

67) 전실딸이 과거급제의 주체가 되지 않더라도, 배우자를 과거급제 하도록 돕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한다. 즉 남장을 하고 남편 대신 과거를 보는 것이나 과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전실딸의 우월한 능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68) 정상진(앞의 책 참조)은 <황월선전>이 영웅의 일생 구조 중 국가적 시련과 극복 부분만 결락한 채 월선 중심의 일대기 구조를 구현하고 있으며,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대립과 '천상계 - 지상계 - 천상계'의 공간순환을 통해 월선의 운명론적인 삶을 그려내고 있다고 하였다.

<황화일엽> 설화와 <황월선전>의 또 다른 차이는 전실딸이 친정에 들러 시를 남기느냐, 아니면 글(편지)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다. 설화에서는 2편의 각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를 남기는데 비해, 소설에서는 그간의 사연을 적은 글을 남기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 때문에 설화에서는 시의 구절을 따서 유형의 명칭이 정해졌으나, 소설에서는 주인공인 전실딸의 이름이 작품의 명칭이 되고 있다.⁶⁹⁾

그런데 <황화일엽>에서 전실딸이 남기는 시의 기능과 <황월선전>의 월선이 남기는 글(편지)의 기능은 그 의미가 다르다. 전실딸이나 월선이 자신의 신분을 암시하여 부녀상봉의 계기를 만든다는 점은 같지만, 구체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황화일엽>의 8편의 각편에 나타나는 한시 구절을 온전하게 재구성하면 ‘黃花一葉風飄飄/飛去海南接李枝/慾見父主小女兒/明朝乘鶴來楊州’이 될 것이다. 즉 ‘(전실)딸이 집을 떠나 바람에 날리듯 고난을 겪다가 해남의 이씨 가문에 접을 붙였으니(혼인을 하였으니), 부친은 딸을 만나고 싶거든 다음날 학을 타고 양주로 오십시오’ 정도로 이해되는데, 이는 딸이 아버지에게 혼인 사실을 알리고 부녀상봉을 희망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전실딸이 혼인한 상대는 주지하다시피 정 혼자이다. 아버지가 맺어준 인연대로 혼인을 하였으니 전실딸로서는 아버지에게 불효한 바 없고, 계모의 모해로 야기된 부녀갈등을 부녀상봉을 통해 푸는 일만 남았던 것이다.

그러나 월선이 남긴 글에는 계모의 모해를 언급하면서 그간의 사정을 서술하거나, 혹은 계모의 모해를 말하지 않을 때에는 부친의 허락 없이 혼인한데 대한 사죄와 불효를 저지른 잘못을 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부친인 황공과의 재회를 원하는 내용이 없는데, 계모의 모해로 인한 부녀갈등 역시 서사의 중간에 시비

69) 이는 전체 서사의 초점과 의미를 다르게 하는데, 시에서 글로 대체된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황화일엽> 설화에서 제시되고 있는 한시는 대부분의 각편에 나타나는데, 한시가 온전히 남아 전승되는 경우는 구연자가 남성이고 글로 대체되거나 한시의 내용 자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는 여성 구연자가 전승하는 각편이었다. 한편 <황월선전> 이본의 필사기를 통해 이 작품이 여성과 남성독자들에게 두루 읽혔으며 지방에까지 널리 읽혔음을 알 수 있다.

한시가 글로 대체되는 경향은 향유층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설화를 통해 보았을 때에는 한시의 삽입이 남성향유층의 기호와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소설에서는 보다 넓은 향유층을 고려하였거나, 소설의 주요 독자층이 여성이라는 일반론에 근거할 때 여성 독자들을 겨냥한 변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설화 역시 여성이 구연한 각편에서는 한시가 글로 대체되거나 결락되고 있었으니,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의 자백을 통해 밝혀졌기에 부친과의 화해 필요성 또한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시를 남기는 전실딸은 부친과의 갈등 해결에 주도적인 면모를 보이거나, 월선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거나 불효의 죄를 청함으로써 보다 소극적인 면모를 견지하고 있다.

<황화일엽>의 전실딸과 <황월선전>의 월선은 모두 계모의 모해를 받아 시련을 겪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방식은 이렇게 같으면서도 다르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바, 서사에서 구현되는 구체적 모티프의 차이를 비롯하여 인물관계 및 그 형상의 변모에서 기인한다.

한편 <황월선전>은 영웅소설적인 요소와 결합한 이본들을 형성하고 있으니, <선연전>과 <양소저전>이 그것이다. <선연전>은 <황월선전>과 상당히 유사한 서사전개를 보이는데,⁷⁰⁾ 후반부가 낙질되었으나 앞부분에 관상쟁이가 선연의 미래를 예언하는 부분이 있어 후반부를 짐작할 수 있다. 즉 '5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에게 누명을 쓰고 쫓겨나 방랑하다가 귀인의 도움으로 17세에 정렬부인이 되고, 20세에 부모 상봉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용문에 올라 임금을 받들어 충신이 된다'는 예언에 따라 후반부가 영웅소설적인 방향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선연전>과 달리 온전한 서사를 지니고 있는 <양소저전>을 통해 <황월선전>이 여성영웅소설 유형과 교섭하는 양상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양소저전>은 계모가 아닌 기생첩과 일점·승학 남매의 갈등으로 설정되어 있고 <선연전>

70) <선연전>에 대해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고소설목록』, 1983. (국문필사본 1책, 22면.)

1. 조선국 안주 땅의 황판서 부부가 늦도록 자식이 없어 한탄하다가 기이한 태몽을 꾸고 선연을 낳다.
2. 우연히 만난 관상쟁이에게 선연의 운명을 듣다.
3. 관상쟁이의 예언대로 선연의 모친이 죽고, 황판서가 계모 안씨를 들이다.
4. 안씨가 성품이 어질지 못해 선연을 박대하다가, 아들 선의를 낳자 선연을 죽일 계획을 세우다.
5. 계모 안씨가 낙태형상을 꾸며 모해하니 황판서가 선연을 죽이려 하나, 선의가 만류하여 집에서 쫓아내다.
6. 친모의 묘에서 울다 지쳐 잠든 선연에게 친모가 현몽하여, 다리 저는 맹인 행색으로 남쪽으로 가라 지시하다.
7. 구걸하는 것을 불쌍히 여긴 장승상 닥 부인이 선연을 거두어 주고, 선연의 정숙한 행실에 반한 아들 장원이 부모에게 선연과의 혼인을 청하다.
8. 혼례일이 다가오자 선연이 자신의 신분과 그간의 사연을 말하고 병신 행세를 그만두니, 마침 장승상과 황판서가 친분이 있는 사이로 밝혀지다.
9. 선연은 과거급제해 난양태수로 가던 남편을 따라 가다가 친정에 들르다.
(이하 후반부 낙질)

에 비해 영웅소설적인 요소의 개입이 더욱 많다.⁷¹⁾ <양소저전>의 서사전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송나라 원풍 말년에 신라국에 양봉이라는 재상이 늦게 승학과 일점이라는 남매를 두었는데, 일찍이 일점의 태몽에 이씨 가문의 원실과 배필이 될 것이 예언되다.
2. 일점 남매의 모친이 우연히 득병하여 죽고, 김해 기생인 양승상의 첩 허연선이 남매를 죽이려 흥계를 꾸미다.
3. 허씨가 이종사촌 몽랑과 모의하여 몽랑이 일점을 겁탈하려다 양승상에게 발각되어 도망가고, 허씨가 일점을 간부부정으로 모해하여 양승상이 일점을 죽이려하다.
4. 승학이 일점을 남장시켜 도망가게 하고, 양승상에게는 사약을 내렸다고 거짓으로 고하다.
5. 허씨가 승학마저 죽이려고 자객 김철과 사통하고, 양승상은 꿈에 불곡사 스님의 교시를 받고 허씨의 침소로 가서 허씨의 간계를 알아내고 처단하다.
6. 시비의 말을 통해 자객 김철과 허씨의 이종사촌 몽랑이 공모자임을 안 양승상이 그들을 잡고자 하였으나 실패하다.
7. 한편 집을 떠나온 일점은 도화춘에 이르러 점쟁이와 중 및 불목하니로부터 겁탈당할 위기를 벗어나고, 신세를 한탄하여 자살하려 하다가 신이한 노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다.
8. 또한 도인의 도움으로 슬법을 익힌 일점은 도인의 지시대로 지리산 이처사를 찾아가 그 아들 원실과 학업과 병법 및 도술을 배우다.
9. 원실과 수학 도중 일점이 남장여인임이 밝혀지고, 일찍이 이처사 부부는 원실의 태몽을 통해 일점이 그 짝임을 알았기에 들을 혼

71) <양소저전>에 대해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국대울곡기념도서관 소장, 『漢籍目錄』, 1994. (국문필사본 1책, 39면.)

인 시키다.

10. 일점은 남장을 하고 일학으로 성명을 바꾼 후, 원실과 시지를 바꾸어 과거를 보다.
11. 원실은 장원급제하여 전라도 순찰사를, 일점은 양주목사를 제수 받다.
12. 일점은 명월루에 올라 지난날을 생각하며 시를 한 수 지어 붙여놓고, 임금에게 여화위남을 밝혀 오라비 승학에게 양주목사 자리를 대신하게 할 것을 간청하다.
13. 일점 부부와 승학은 임금의 은혜를 입고, 어사가 된 원실은 일점의 청으로 자객 김철과 몽랑을 탐문하여 잡아들이고 응징하다.
14. 이처사 부부가 운명하며 세상에 나가지 말고 산중 재상이 되라 유언하고, 일점 부부는 고향에서 지내다.
15. 이 때 남월과 동구에게 중원의 천자가 여러 번 패하여 신라국에 청병하자, 일점과 원실이 출병하다.
16. 일점이 뛰어난 활약을 통해 무공을 세우고, 위기에 빠진 원실을 구하다.
17. 본국에 돌아온 일점 부부를 임금이 환대하며 큰 벼슬을 제수하고, 일점 부부는 슬하에 3남 1녀를 두어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세상을 하직하다.

위와 같이 <양소저전>은 <황월선전> 및 <황화일엽>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으면서, 동시에 변모된 양상 또한 드러난다. 우선 계모가 아닌 첩 허씨와 일점 남매의 갈등이 형성된다. 또한 영웅소설적인 요소의 개입과 군담의 강화가 후반부에 두드러지며, <황월선전>과 같이 이원적 세계관이 나타난다. 따라서 그 면모가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양상이 혼재되어 있으나, 커다란 줄기는 일점을 중심으로 한 일대기적 구성이다.

1-13단락은 <황월선전> 및 <황화일엽>과 깊은 연관을 보이는 부분으로, 비록

계모의 갈등이 아닌 첩 허씨와의 갈등으로 변모되어 있으나 양상은 동일하다. 다만 승학이 이복남동생이 아니라 동복오라비라는 점이 다르고, 때문에 허씨의 계교가 승학에게까지 미친다.

그 후 집을 떠난 일점의 행보는 영웅소설의 관습적인 경로를 밟고 있지만, 원실을 만나 혼인하고 과거급제를 하는 부분까지의 서사전개는 <황화일엽>과 상통한다. 즉 <황화일엽>의 전실딸이 남장을 하고 집을 떠나 정혼자를 만나 혼인하고, 배우자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과거급제를 하거나 배우자를 과거급제 시키는 부분이 <양소저전>의 일점과 원실의 관계와 꼭 닮아 있다. <황화일엽>의 정혼 모티프는 일점과 원실의 태몽에 그들이 서로의 배필임이 예언되는 것으로 대체된다. 일점은 자신의 재물로 시댁을 요부(饒富)하게 한 연후에, 남장을 하고 원실과 함께 과거에 응시하여 시지를 바꾸는 방법으로 남편을 돕고 있다. 특히 일점이 남기는 시는 <황화일엽>의 한시 구절과 내용이 동일하다.⁷²⁾ 다만 전실딸이 친정에 들러 시를 남김으로써 부녀상봉을 희망했던 것과는 달리, 일점은 시련을 극복한 후 지난날을 회상하며 시를 남긴다. 그러나 그 후 임금에게 청하여 오라비 승학에게 양주목사⁷³⁾를 제수케 하고, 어사가 된 원실에게 자객 김철과 몽랑의 응징을 부탁하는 부분은 <황화일엽>의 전실딸이 시를 남긴 후 부녀상봉 하고 계모를 징치했던 과정과 같다.

한편 14-17단락은 여성영웅소설 유형과의 교섭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 <양소저전>은 일점을 서사 주체로 하여 영웅의 일생 구조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이해된다. 즉 ‘일점의 신이한 태몽과 탄생 - 첩 허씨의 계교로 인한 시련 - 원조자와의 만남과 혼인을 통한 시련 극복 - 국가적인 위기에 출병 - 군담적 입공을 통해 국가적 시련 극복 - 부귀영화 - 사망’이라는 일점 중심의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실현되는 것이다.⁷⁴⁾

72) 일점이 시를 남기게 되는 상황과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석사를생각하고일장체읍하다가글한귀를지여문우부쳐수되양화일점표풍거하야우연남제접이화라양화일점을여상견킨던명조승학하양주하고부슬던지고두로배회하다가’ (<황월선전>, 단국대울곡기념도서관 소장, 『漢籍目錄』, 1994, 국문필사본 1책, 56쪽.)

73) <황화일엽>과 <황월선전> 및 <양소저전>에 동일하게 ‘양주’라는 지명과 ‘양주목사’라는 직책이 나오는 것이 주목된다.

이렇게 <양소저전>에 나타난 일점의 영웅적인 면모는 <황월선전>의 월선보다 <황화일엽>의 전실딸과 더욱 흡사하다. 남장 모티프와 정혼자와의 만남, 배우자보다 뛰어난 능력 등은 <양소저전>과 <황화일엽>을 이어주는 주요 특징이면서, 일점과 전실딸이 여성영웅적인 면모와 맞닿을 수 있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황화일엽>에서는 단편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양소저전>에 오면서 일점 중심의 일대기 구조 속에 제 요소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작품세계를 변모시키고 있는 것이다.⁷⁵⁾

이렇듯 <황월선전>은 계모설화 <황화일엽>과 서사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영웅소설 유형 등과 교섭하여 <선연전>이나 <양소저전> 같은 작품들을 형성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양소저전>의 경우 영웅소설의 영향을 크게 받아 계모형 고소설의 본격적인 양상과는 멀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계모형 고소설이 영웅소설을 비롯하여 다른 고소설 유형과 교섭하면서 작품세계가 변모되는 양

74) <양소저전>을 전반부와 후반부 서사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일점의 모습은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웅소설 유형과 교섭하는 계모형 고소설 중의 하나인 <어룡전>과 비교하면 일점의 모습은 전실딸과 전실아들의 삶을 합쳐놓은 양상이다. 즉 <어룡전>에서 전실딸인 월은 혼인을 통하여 시련을 극복하고, 용은 군담적 입공을 통하여 고난을 극복한다. 특히 용의 인생은 영웅의 일대기를 따르고 있어서, 용을 서사의 주제로 보았을 때에는 영웅소설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런데 서사전개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양소저전>의 일점은 월과 용의 모습을 복합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계모로 인한 시련을 혼인을 통하여 극복한다는 점에서는 월의 모습과 같고, 계모와는 상관 없이 여성영웅적인 삶을 구현하는 서사가 부여되는 것은 용과 상통한다.

75) <황화일엽>과 <황월선전>이 계모설화나 계모형 고소설로 온전히 편입되는 반면, <양소저전>은 본격적인 계모형 고소설에서 변모된 모습을 보인다. 우선 계모가 아닌 첩과의 갈등이라는 점 - 물론 친모가 죽고 첩이었던 허연선이 계모의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다. - 과 첩인 허연선의 면모가 계모형 고소설의 보편적인 계모의 형상과 다르다는 것이 주 원인이다. 계모는 보편적으로 전실자식과 가장의 관계를 끊고, 전실자식의 자리에 자신과 자신이 낳은 소생을 채워 넣으려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계모의 이러한 욕망은 전실자식과의 재산다툼이나 가장의 총애 다툼으로 표면화된다. 그러나 이면에는 죽은 전처의 잔영과 전실자식 및 가장으로 이루어지는 가족형태를, 계모 자신과 그 소생 및 가장으로 이루어지는 가족형태로 변모시키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전실자식과 계모소생 모두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계모가 충실히 이행하고, 가장 또한 계모와 그 소생을 전실자식과 차등 없이 가족으로서 대하는 것이 계모를 들인 가정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과정의 갈등과 혼란에 주목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계모형 고소설의 본질일 수 있다. 그런데 <양소저전>의 첩 허씨가 드러내는 욕망은 위와 같은 것이 아니다. 단적으로 양승상을 두고 자객 김철과 사통하는 등의 행위는 허씨의 욕망이 양승상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형태를 이루려는 것과는 거리가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일점과 허씨의 마찰은 본질적으로 가족갈등의 의미이거나 가정문제의 제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허씨는 일점 중심의 일대기 구조 속에 일차적 시련을 부과하는 적대자로서 기능할 뿐이다. 즉 <양소저전>은 <황화일엽> 및 <황월선전>과 서사를 공유하면서도, 시련을 극복하고 영웅적 삶을 구현하는 일점의 일대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상을 살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3. <콩쥐팥쥐>와 <콩쥐팥쥐전>

1) <콩쥐팥쥐>의 각편별 특징

<콩쥐팥쥐>는 계모설화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으며, 신데렐라 유형과 동례의 것으로 세계적인 유형의 설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⁷⁶⁾

<콩쥐팥쥐>의 가장 특징적인 면모는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이 계모소생과 전실딸의 갈등으로 전이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손 없는 색시>와 <황화일엽>에서 선한 계모소생이 등장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악한 계모소생이 등장하여 전실딸과 심각한 대립을 하는데, 전자의 계모소생은 전실딸의 원조자 역할에 머무는 반면 후자의 계모소생인 팥쥐는 계모보다 더욱 부각되어 비중 있게 나타난다. 특히 서사의 후반부에서 팥쥐가 콩쥐를 죽이고, 콩쥐로 가장한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콩쥐팥쥐>의 각편 16편⁷⁷⁾ 중 <각편 8>의

76) <콩쥐팥쥐> 설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원수, 「<콩쥐팥쥐>연구의 성과와 전망」, 『어문학』 61, 한국어문학회, 1997 참조.

77) <콩쥐팥쥐> 설화는 널리 알려진 유형의 설화이기에, 16편 이외의 각편을 더 발견할 여지가 많다. <각편 8>의 말미에는 15명의 체보자를 밝히고 있고 다른 각편에서도 체보자가 2명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콩쥐팥쥐>의 각편은 30여 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각편 1> - <콩쥐팥쥐>, 『대계』 1-4, 786-789쪽.

<각편 2> - <콩쥐팥쥐>, 『대계』 1-9, 447-460쪽.

<각편 3> - <콩쥐팥쥐>, 『대계』 1-9, 460-466쪽.

<각편 4> - <콩쥐팥쥐 - 해와 달의 유래>, 『대계』 5-1, 268-273쪽.

<각편 5> - <콩쥐팥쥐>, 『대계』 5-1, 361-363쪽.

<각편 6> - <콩조지 팥조지>, 『대계』 5-2, 538-543쪽.

<각편 7> - <콩쥐팥쥐>, 『대계』 8-8, 102-111쪽.

<각편 8> - <콩쥐팥쥐>, 『한국구전설화』 1, 133-138쪽.

<각편 9> - <콩쥐팥쥐>, 『한국구전설화』 3, 251-255쪽.

<각편 10> - <콩쥐팥쥐>, 『한국구전설화』 6, 307-309쪽.

<각편 11> - <콩쥐팥쥐>, 『한국구전설화』 7, 263-269쪽.

<각편 12> - <콩쥐와 팥쥐>, 『한국구전설화』 9, 71-72쪽.

<각편 13> - <콩쟁이 폴쟁이>, 『한국구전설화』 9, 261쪽.

<각편 14> - <콩쥐팥쥐>, 『한국구전설화』 10, 298-301쪽.

서사전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콩중이는 계모 및 그녀의 딸 팍중이와 함께 살다.
2. 어느날 계모가 콩중이에게는 나무호미를, 팍중이에게는 쇠호미를 주며 각각 묵은 밭과 매기 쉬운 밭을 갈게 하다.
3. 콩중이가 힘든 밭일에 지쳐 죽은 친모를 생각하며 울자, 하늘에서 암소 두 마리가 내려와 콩중이에게 목욕을 권하고 밑구멍에 손을 넣어 먹을 것을 얻게 하다.
4. 먹을 것을 얻어 집으로 돌아간 콩중이는 계모와 팍중이에게 먹을 것을 다 빼앗기다.
5. 계모가 콩중이가 먹을 것을 얻게 된 내력을 알아내고, 팍중이에게 콩중이가 했던 일을 그대로 행하게 하다.
6. 팍중이는 욕심을 부리다가 암소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상처만 얻어 돌아오고, 이에 계모는 콩중이를 때리다.
7. 또 어느날 계모는 콩중이와 팍중이에게 각각 낡은 볏과 콩, 새 볏과 찰밥을 주어 베를 짜게 하였으나 콩중이가 더 많은 베를 짜자 반대로 하여 시켰지만, 역시 콩중이가 더 많은 베를 짜다.
8. 하루는 계모가 팍중이와 외할머니댁 큰 잔치에 가면서, 콩중이에게 많은 일을 시켜 집에 남게 하다.
9. 콩중이가 집 아홉 간의 설거지를 하고 재를 다 담아내었으나 나머지 일을 못하고 있자, 참새떼가 나타나 강피 아홉 섬을 까놓고 두꺼비가 깨진 물독에 엮드려 물을 가득 채우게 해주다.
10. 또 울고 있는 콩중이 앞에 암소가 나타나 비단옷과 갓신 한 켤레를 주다.
11. 콩중이가 비단옷에 갓신을 신고 잔칫집에 갔다가, 계모를 만날까 두려워 급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 한 짝을 잃어버리다.

<각편 15> - <콩쥐팍쥐>, 『한국구전설화』 10, 301-304쪽.

12. 평양감사가 신 한 짝을 주워, 그 신발 임자와 혼인을 하겠다고 하다.
13. 계모와 팍중이가 신발 임자임을 자처하다가 거짓이 탄로나 매를 맞고, 콩중이 발에 신발이 꼭 맞아 평양감사와 혼인하다.
14. 평양감사가 출타 하면서 계모와 팍중이가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 것을 콩중이에게 당부하다.
15. 팍중이가 팔죽을 쑤어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콩중이의 집으로 들어와서는, 먹 감으러 가자고 하여 콩중이를 물에 빠뜨려 죽이다.
16. 팍중이가 콩중이의 옷을 바꿔 입고 거짓 행세를 하다.
17. 평양감사가 연못에 핀 함박꽃을 꺾어와 집에 두고 감상하니, 평양감사가 드나들 때면 꽃이 활짝 피면서 머리를 쓸어주나 팍중이가 드나들 때면 시들면서 머리를 쥐어뜯다.
18. 화가 난 팍중이가 꽃을 아궁이에 넣어 불에 태우니, 이웃집 노파가 불씨를 얻으러 왔다가 재 속에서 구슬을 발견하고 농 안에 넣어두다.
19. 구슬이 아름다운 색시로 변신함을 노파가 알아내고, 콩중이는 노파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말하다.
20. 콩중이의 청에 따라 노파가 평양감사를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다.
21. 짝이 맞지 않는 젓가락을 통해 평양감사가 비로소 아내가 뒤바뀐 것을 알아차리다.
22. 평양감사가 계모와 팍중이를 죽이고 콩중이와 함께 잘 살다.

위와 같은 <각편 8>의 서사전개는 팔쥐가 암소에게 먹을 것을 얻으려다가 낭패를 당하는 부분과 콩쥐와 팍쥐의 베짜기 내기 부분이 특징적이다. <각편 1, 3, 6, 7, 9, 10, 11, 15> 역시 몇 가지 모티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

나머지 각편들의 특징적인 면모를 짚어보면, <각편 2>는 콩쥐가 잔칫집에 가는 장면에서부터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잔칫집에 가던 콩쥐가 계모 및 팔쥐와 마주치고, 계모와 팔쥐는 집으로 돌아가는 외나무다리에서 콩쥐를 물에 빠뜨려 죽인다. 이에 아버지가 콩쥐를 찾아오라고 야단을 치자, 계모는 콩쥐가 서방질을 하여 개울물에 빠뜨렸다고 거짓을 고한다. 아버지가 콩쥐를 찾기 위해 팔쥐를 데리고 다리 아래로 가니,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어 팔쥐가 이것을 꺾으려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만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각편 4>에서는 계모가 콩쥐에게 밭 갈기를 시키는 부분이 빠져있고, 계모가 잔칫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곳을 보러 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임금님과 혼인한 콩쥐가 팔쥐의 계략으로 죽임을 당한 뒤 함박꽃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며, 특이한 것은 계모나 팔쥐에 대한 징치 없이 콩쥐는 달이 되고 팔쥐는 해가 되었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각편 5>와 <각편 13>은 온전한 서사가 없이 몇 개의 모티프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는 계모가 콩쥐를 학대하려고 밭 빠진 독에 물을 붓도록 시켰으나, 죽은 친모가 두꺼비가 되어 도와주니 이에 계모가 콩쥐를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두었다는 것으로 끝난다. 후자는 계모가 전실딸은 콩만 삶아주고 자신의 딸은 팥만 삶아주어서 콩데기, 팥데기라고 한다는 서두가 특징적이다. 또한 물을 길거나 삼을 삼을 때 콩쥐는 죽은 친모가 도와서 팔쥐보다 잘 해내고 잘 살았다는 짧은 서사를 보인다.

한편 <각편 12>는 콩쥐의 죽음에서 서사가 끝난다. 전반부에서는 계모가 밭 갈기를 시키는 부분이 없다. 후반부에서는 모든 난제를 다 해결하고 서울로 곳 구경 온 콩쥐를 계모와 팔쥐가 시기하여, 목욕을 핑계로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으로 끝난다.

<각편 14>는 <연이와 버들도령>과 착종된 양상이다. 콩쥐와 계모 및 팔쥐가 등장하지만, 전반부는 <연이와 버들도령>과 동일하다. 후반부는 콩쥐가 혼인하여 잘 살자 이를 시기한 계모와 팔쥐가 콩쥐를 물에 빠뜨려 죽이고, 팔쥐가 거짓으로 콩쥐 행세를 하였으나 그것이 들통나 죽임을 당한다는 서사로 되어 있다. 즉 후반

부는 <콩쥐팥쥐>의 보편적인 후반부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상 15편의 각편을 그 모티프의 출입양상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⁷⁸⁾

<표 5 - '콩쥐팥쥐'의 모티프 출입양상>

설화 각편	각편별 모티프 출입양상																	
	계 모 영 입	계모학대 (I)		원 조 자 등 장	잔 치	계모학대 (II)			원 조 자 등 장	신 발 분 실 및 탐 색	혼 인	죽 음	뒤 바 뀐 아 내	재 생			원 조 자 등 장 및 부 부 재 회	계 모 모 녀 정 치
		발 갈 기	베 짜 기			벼 짚 기	물 길 기	기 타						꽃	구 슬	색 시		
<각편 1>	○	○	×	○	○	○	○	×	○	○	○	○	○	○	○	○	○	○
<각편 2>	○	○	×	○	○	○	○	○	○	×	×	○	×	×	×	×	×	(○)
<각편 3>	○	○	×	○	○	○	○	○	○	○	○	○	○	○	○	○	○	○
<각편 4>	○	×	×	×	○	○	○	○	○	○	○	○	○	○	○	×	×	×
<각편 5>	○	×	×	×	×	×	○	×	○	×	×	×	×	×	×	×	×	×
<각편 6>	○	○	×	○	○	○	○	○	○	○	○	○	○	○	○	○	○	○
<각편 7>	○	○	×	○	○	○	×	○	○	○	○	○	○	○	○	○	○	○
<각편 8>	○	○	○	○	○	○	○	○	○	○	○	○	○	○	○	○	○	○
<각편 9>	○	○	○	○	○	○	○	○	○	○	○	○	○	○	○	○	○	○
<각편 10>	○	○	×	○	○	○	○	○	○	○	○	○	○	○	○	○	○	○

78) <각편 2>에서 '계모 모녀의 정치' 부분을 () 처리한 것은, 계모 소생만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각편 14>에서는 원조자의 도움 없이 부부의 재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원조자 등장 및 부부 재회' 부분을 () 처리하였다.

<각편 11>	○	○	○	○	○	○	○	○	○	○	○	○	○	○	○	○	○	○
<각편 12>	○	×	×	×	○	○	○	○	○	○	×	○	×	×	×	×	×	×
<각편 13>	○	×	×	×	×	○	×	○	○	×	×	×	×	×	×	×	×	×
<각편 14>	○	×	×	×	×	×	×	×	×	×	○	○	○	○	○	○	(○)	○
<각편 15>	○	○	×	○	○	○	○	○	○	○	○	○	○	○	○	○	○	○

15편의 각편을 놓고 보았을 때, <콩쥐팥쥐> 설화는 콩쥐의 혼인을 위한 신발의 분실과 탐색 모티프가 나타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에서는 콩쥐와 팥쥐의 베짜기 내기를 비롯하여, 계모와 팥쥐가 잔치에 가면서 콩쥐에게 부과하는 난제의 종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각편 8, 9, 11>에서는 계모가 팥쥐와 콩쥐에게 베짜기 내기를 시키니 콩쥐가 팥쥐보다 많은 베를 짜는 등, 팥쥐보다 콩쥐가 항상 모든 것을 이기고 잘 하니 계모가 콩쥐를 더욱 미워했다는 장면이 나타난다. 특히 다른 난제는 원조자가 등장하여 해결해주는 반면, 베짜기 내기에서는 콩쥐의 지혜로운 면이 돋보이고 있다.

그 후 어느 날 훗오마니는 콩중이한테는 낡은 북과 닳은 콩을 주구팍중이한테는 새 북과 니찰밥을 주구 누구레 베를 더 많이 짜나 내기해 보라구 했다.

콩중이는 낡은 북 개지구두 쉬디 앓구 베를 짰다. 머이 먹구프문 닳은 콩 한 줌 입에 넣고 먹으멘 쉬디 앓구 짰다. 그런데 팍중이는 니찰밥을 먹으며 찰라기에 밥이 손에 부터서 이거 까타나 베짜기가 느리구 또 짠 베가 더러워됐다. (중략)

콩중이는 물을 떠다 놓구 물에 손을 당겨내서 찰밥을 떼어먹으멘 베를 짜느꺼니 손이 찢겨찢겨 하디 앓구 잘 짜구 많이 짰다. 팍중이는 콩알을 한알 한알 집어먹으메 짜 나갈라기에 많이 짜딜 못했다. 훗오마니는 이캐두 팍중

이가 콩주이한테 지구 데캐두 콩중이한테 지구 하느꺼이 중이 나서 콩중이를 더 미워했다.

(<각편 8>, 135-136쪽.)

이러한 베짜기 내기의 삽입은 콩쥐와 팥쥐의 대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각편들에서는 계모가 콩쥐와 팥쥐에게 밭갈기를 시키는 장면에서도 특별한 서사가 덧붙는다. 즉 앞서 제시한 <각편 8>의 서사 전개에서 알 수 있듯이, 콩쥐가 암소의 도움을 받아 밭을 다 갈고 먹을 것을 얻어오자 계모가 팥쥐에게도 같은 일을 시키지만, 팥쥐가 욕심 때문에 상처만 얻어 돌아온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원조자로 등장하는 암소가 콩쥐 친모의 녀이라는 언급이 나온다. 따라서 이 각편들에서는 콩쥐와 팥쥐의 대비적인 면모와 더불어, 친모와 계모의 대립 또한 암시적으로 드러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베짜기 내기는 고정적인 모티프는 아니며, 밭갈기 모티프만 있는 것이 본래적인 양상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밭갈기 부분에서의 원조자는 검은 암소로 등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후 계모와 팥쥐가 잔칫집에 가면서 콩쥐에게 또 한 번의 난제를 부과하는데, 난제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그러나 많은 벼를 찢어놓고, 밀 빠진 독에 물을 부어놓는 난제가 일반적이며, 그 밖의 것은 각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베짜기, 삼 삼기, 집의 아홉 간 설거지를 다 하고 아홉 방의 재를 다 담아내는 등으로 그 모티프가 다양하다. 이러한 난제에 대한 원조자로는 참새떼나 두꺼비가 등장하며, 선녀나 할미가 나타나 잔치에 갈 입성을 마련해 주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처럼 <콩쥐팥쥐> 설화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때, 전반부에서 중요한 모티프는 난제 부과라고 할 수 있다. 계모가 들어와 전실딸인 콩쥐를 학대하는 것이 전반부의 핵심인 것이다. 후반부에서는 콩쥐의 혼인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즉 콩쥐의 혼인으로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 종결되고, 가정 밖 혹은 또 다른 가정을 배경으로 서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콩쥐가 배우자를 만나 혼인을 하게 되는 계기는 신발 한 짝의 분실과 그것의 탐색이다. 잃어버린 신발을 되찾음으로써 콩쥐는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게 된다, 배우자는 왕자, 원님, 감사, 임금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감사로 나타나는 각편이 대부분이다.

콩쥐의 가정은 계모와 팔쥐의 흥계로 또 다시 위기를 맞이한다. 전반부에서는 친모가 죽고 계모가 들어와 콩쥐를 학대함으로써 가정갈등이 빚어지고 콩쥐의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였다면, 후반부에서는 팔쥐가 콩쥐 부부의 분리를 야기하여 콩쥐 가정을 와해시킨다. 속임수로 콩쥐를 연못에 빠뜨려 죽인 팔쥐가 콩쥐의 행세를 하는 것은 후반부 서사의 주요 갈등을 이룬다. 전반부와 달리 콩쥐와 팔쥐의 본격적인 대립이 형성되는 것이다. 팔쥐가 콩쥐를 속여 죽이는 방법은 목욕을 권유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각편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콩쥐가 죽음을 극복하고 남편과 재회하는 양상 또한 각편에 따라 모티프의 뒤바뀐만 있을 뿐 대동소이하다. 꽃으로 환생한 콩쥐가 남편의 눈에 띄이고, 다시 팔쥐에 의해 아궁이 속에 버려져 구슬로 환생하였다가 이웃 할미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할미 앞에 색시로 현신한 콩쥐는 남편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할 것을 할미에게 청하는데, 짝이 맞지 않는 젓가락을 이상히 여긴 남편에게 콩쥐가 나타나 아내가 뒤바뀐 것을 모르는 우둔함을 탓함으로써 비로소 부부가 재회하게 된다. 이 때 짝이 맞지 않는 젓가락으로 아내가 뒤바뀐 것을 깨우쳐주는 장면은, 잃어버린 신발 한 짝으로 배우자를 찾아 혼인을 이루었던 것과 대응된다.

죽었던 콩쥐가 꽃이 되었다가 다시 구슬이 되고 색시가 되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짝이 맞지 않는 젓가락 모티프는 각편에 따라 구슬 환생 다음에 나타나거나 혹은 그 전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구슬 환생 이후에 짝이 맞지 않는 젓가락을 통하여 아내가 뒤바뀐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순서라 하겠다.

계모와 팔쥐에 대한 징치는 다른 어떤 유형의 것보다 잔인하다. 감사가 팔쥐를 죽여 젓을 담가 보내자 계모가 그것을 먹은 후 사실을 알고 놀라 죽거나, 혹은 팔쥐의 시신이 선물인 줄 알았다가 열어보고 놀라 죽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편 2, 4, 5, 12, 13, 14>처럼 서사가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전개를 보이는 것이 <콩쥐팔쥐>의 일반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콩쥐팔쥐> 설화는 난제부와 모티프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계모 학대담과 신

발 분실과 탐색 모티프가 핵심인 혼인담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콩쥐가 혼인을 통하여 계모의 학대로 인한 시련을 극복하고 잘 살았다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뒤바뀐 아내 모티프를 통하여 콩쥐와 팔쥐의 갈등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전반부에서는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을 주축으로 전개되고, 후반부에서는 계모소생과 전실딸의 갈등으로 전이되어 전개되는 것이다.⁷⁹⁾

가정 안과 밖에서 계모와 전실딸의 대립이 반복되는 양상은 <손 없는 색시>도 마찬가지이다.⁸⁰⁾ 후반부의 갈등은 전실딸 부부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손 없는 색시>나 <콩쥐팔쥐>가 동일하다. 다만 <손 없는 색시>가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에 충실하였다면, <콩쥐팔쥐>에서는 그러한 갈등이 전이되어 형성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부부관계의 문제가 전자는 남편의 아내 탐색으로 극복되며, 후자는 전실딸이 환생하여 원조자의 도움으로 남편을 일깨움으로서 극복된다.

<콩쥐팔쥐>에 나타나는 뒤바뀐 아내 모티프는 <문전본풀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문전본풀이>에서 노닐저대귀일의 딸이 여산부인을 속여 연못에 빠뜨려 죽이고 여산부인의 행세를 하나, 남선비는 전혀 그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일곱 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친모가 아님을 인지하는데, <문전본풀이>에서 남선비와 여산부인의 관계는 결국 회복되지 못한다. <콩쥐팔쥐>에서는 콩쥐가 직접 남편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고 있으며, 부부관계가 회복된다. 따라서 <문전본풀이>와 <콩쥐팔쥐>는 각각 친모(전처)와 계모(후처)의 대립, 전실딸과 계모소생의 대립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한 남성을 사이에 둔 두 여성의 대립이

79)이원수(「<콩쥐팔쥐>와 <신데렐라>의 비교연구 - 북미 인디언 <신데렐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어문학』 77, 한국어문학회, 2000, 참조.)는 중국 신데렐라 이야기인 섭한(葉限)이 9세기 경에 최초로 나타났고, 이것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신데렐라>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콩쥐팔쥐>는 계모 모해담을 확장한 반면, 인디언의 <신데렐라>는 계모 모해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콩쥐팔쥐>는 혼인담과 계모 모해담이 거의 대등한 비중을 차지하는 유럽 <신데렐라>과 비교했을 때, 콩쥐의 혼인 이후에 계모 모해담을 추가하여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80) 조희웅(『한국구전설화의 유형』, 일조각, 1996, 279-327쪽 참조.)은 <손 없는 색시>와 <콩쥐팔쥐>가 모두 '계모의 학대 - 행운의 결혼 - 계모에 의한 이별 - 재회 - 계모처벌'이라는 같은 플롯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동계의 설화라고 보았다.

라는 점에서는 상통한다. 더불어 친모의 가정 혹은 전실딸의 가정을 계모나 그 소생이 침범하여 와해시키려 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이러한 <콩쥐팥쥐>의 일반적인 양상을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가. 친모가 죽고 계모가 들어오다.

나. 계모가 전실딸에게 난제를 부과하여 학대하나, 원조자의 등장으로 해결하다.

다. 계모가 잔치에 가면서 전실딸에게 난제를 부과하나, 원조자의 등장으로 해결하다.

라. 전실딸이 신발의 분실과 탐색으로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다.

다. 계모 모녀가 전실딸을 속여 죽이고, 계모소생이 전실딸 행세를 하다.

라. 전실딸이 환생하여 원조자의 도움으로 남편과 재회하다.

마. 계모 모녀가 징치되다.

계모 학대 부분이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보다 확대되어 있고, ‘다 - 라’의 서사구조가 반복되면서 구조상 <손 없는 색시>와 같은 양상임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살펴볼 <콩쥐팥쥐전>은 이와 같은 <콩쥐팥쥐> 설화와 사소한 부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한다.

2) <콩쥐팥쥐전>의 존재양상과 전개

<콩쥐팥쥐전>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설화와 소설의 선후문제를 비롯하여 외국 설화와의 영향관계 등이 언급되었으나, 정작 작품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부족하다.

설화와 소설의 선후문제는 정확한 근거 없이 단정 짓기 어려운 일이다. 다만 설화가 일방적으로 소설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각편에 따라서는 소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임이 짐작되는 예도 있다.

<콩쥐팥쥐전>은 전대의 설화를 수용하여 소설화한 것으로서 설화적인 면모를 그대로 답습하여 문학성이 낮은 작품으로 평가되어 왔다. 또한 <장화홍련전>과 더불어 초기적인 형태의 계모형 고소설로 논의되었으나, 설화와 소설의 선후문제에 대한 고찰이 명확한 근거가 없었던 것처럼 초기적인 형태의 계모형 고소설이라는 논의 또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콩쥐팥쥐전>이 계모형 고소설 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다른 계모형 고소설과의 비교를 통해 제대로 밝혀주는 일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계모형 고소설들이 <콩쥐팥쥐전>처럼 계모설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다른 작품들과의 비교 속에 <콩쥐팥쥐전>의 작품세계가 잘 드러나리라 생각된다.

<콩쥐팥쥐전>은 2종의 이본이 활자본으로 존재하는데, 1919년의 태창서원판과 이것을 바탕으로 제목만 바뀌어서 나온 1928년의 태화서관판이 그것이다. 따라서 1919년의 태창서관판을 중심으로 그 서사전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조 중엽 전라도 전주 서문 밖 30리에 퇴리 최만춘이 슬하에 자식이 없어 명산대찰에 기도하고 불공을 드려 딸 콩쥐를 얻다.
2. 콩쥐가 태어난지 백일 만에 친모를 여의고, 콩쥐 나이 14세 때 계모 배씨가 그 딸 팥쥐와 함께 들어오다.
3. 계모는 콩쥐에게는 나무호미를 주어 산비탈 돌밭을 갈게 하고, 팥쥐에게는 쇠호미를 주어 모래밭을 갈게 하여 콩쥐를 학대하다.
4. 하늘에서 친모의 화신인 검은 소가 내려와 콩쥐의 난제를 해결해주고 여러 가지 맛있는 과실을 주었으나, 계모와 팥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다.
5. 계모가 콩쥐에게 밀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난제를 부과하였으나, 두꺼비의 도움으로 해결하다.
6. 계모와 팥쥐가 외가 잔치에 가면서, 콩쥐에게 여러 가지 난제를 부과하다.

7. 새떼가 나타나 걸피를 까주고, 직녀가 나타나 베를 짜주어 난제를 해결하다.
8. 콩쥐는 직녀가 마련해준 옷과 신을 신고 외가집 잔치에 가는 도중, 감사의 도임행차에 놀라 피하다가 신 한 짝을 개울 속에 빠뜨려 잃어버리다.
9. 감사가 개울 속에서 이상한 서기를 느끼고 신발을 발견하여, 신임자를 찾아 각처에 사람을 보내다.
10. 계모 배씨가 신발 임자를 자처하다가 망신만 당하고, 콩쥐가 신발 주인임이 밝혀져 감사의 재취가 되다.
11. 감사가 출타한 사이 계모와 팔쥐가 찾아와 콩쥐를 꼬여내어 목욕을 핑계로 연못에 빠뜨려 죽이고, 팔쥐가 콩쥐의 행세를 하다.
12. 콩쥐가 연꽃으로 환생하고 그것을 감사가 꺾어 방문에 꽂아 놓고 완상하니, 연꽃이 팔쥐의 머리채를 잡아뜯다.
13. 팔쥐가 연꽃을 부엌 아궁이에 넣자 구슬로 화하고, 불씨를 얻으러 온 이웃 노파가 그것을 발견하여 집으로 가져가 반닫이 속에 넣어두다.
14. 콩쥐가 현신하여 노파에게 사정을 말하고 감사를 초대하여 식사대접 할 것을 부탁하다.
15. 짝이 맞지 않는 젓가락을 괘씸하게 여기는 감사 앞에 콩쥐가 현신하여 전후 사정을 말하다.
16. 감사가 팔쥐를 문초하여 자백을 받아내고, 연못에서 콩쥐의 시신을 찾아내니 콩쥐가 재생하다.
17. 감사가 팔쥐를 수레로 찢어 죽이고 젓을 담가 계모에게 보내니,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 살던 계모가 그것을 받아먹고 기절하여 죽다.
18. 최만춘은 다시 혼인하고, 콩쥐도 자식을 낳고 감사와 행복하게 잘 살다.

전반적인 양상은 앞서 살펴본 <콩쥐팥쥐> 설화와 유사하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조선조 중엽 전라도 전주 서문 밖 30리에 퇴리 최만춘’이 살고 있었다든가,⁸¹⁾ ‘과수택 배씨’를 후처로 얻었다는 표현 및 ‘전라감사로 초임한 종일품의 김씨’ 등으로 배경이나 인물설정이 보다 구체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팥쥐를 문초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장면 등도 설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계모가 콩쥐에게 부과하는 난제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설화에서는 밭갈기 다음에 배짜기 내기가 연결되거나 혹은 밭갈기만으로 최초의 난제부과는 마무리된다. 그런데 소설에서는 밭갈기 다음에 밭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나타나고 있어서, 설화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즉 설화에서는 계모가 잔칫집에 가면서 벼를 찢어놓고 삼을 삼아 놓는 등의 난제와 함께 물건기를 제시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물건기 난제만 따로 설정되어 밭갈기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잔칫집에 가면서 제시하는 난제의 종류가 보다 단순화되어, 벼찢기와 배짜기만이 나타난다.

소설에서는 설화에서 나타났던 다소 난잡한 난제들이 ‘밭갈기 - 물건기 - 벼찢기 - 배짜기’로 정리되면서, 직녀가 벼를 짜주고 잔칫집에 갈 입성을 마련해 주는 등 논리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조자도 검은 소, 두꺼비, 새 때, 선녀(직녀)의 순서로 등장한다.

설화에서는 구렁이가 등장하여 밭 빠진 독을 막아준다든가, 할미나 암소가 등장하여 잔칫집에 갈 입성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또한 아홉 간 집의 재를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 등의 난제가 부과될 때에는 원조자의 도움 없이 콩쥐가 직접 해내고 있기도 하며, 밭갈기 다음에 배짜기 내기가 부과될 때에도 콩쥐의 지혜로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난제와 원조자가 소설에서는 보다 정연하게 설정되고 있는 것이다.

소설에서는 콩쥐의 배우자 신분도 설화에서 많은 비중으로 나타났던 감사로 설

81) <각편 15>는 그런 점에서 소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여러 각편 중에 <각편 15>만 ‘옛날에 절라도 전주에 최 아무개라는 사램이 있었는데 이 사램이 콩쥐라 카는 딸 하나로 두고 상처로 해서 콩쥐라 카는 딸로 키우느라꼬 오랫동안 호부래비로 살았다.’로 시작하고 있다. 다른 각편은 특별한 지명에 대한 언급이나 콩쥐의 아버지에게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다. 또한 난제의 종류와 이에 따라 등장하는 원조자도 소설처럼 정리되어 있다. 즉 검은 소가 밭을 갈아주고 두꺼비가 밭 빠진 독을 막아주며, 선녀가 나타나 배짜기를 도와주고 있는 등 소설과 매우 유사하다.

정되어 있고, 신발을 발견하여 임자를 찾는 과정 또한 보다 자세하게 표현되었다. 또한 콩쥐가 감사의 재취로 들어갔다고 하여, 퇴리 집안의 딸이 감사와 혼인하는 것에 합당한 양상을 취하고 있다.

후반부의 전개는 설화와 일치하는 면이 더욱 많다. 팔쥐가 콩쥐를 연못으로 유인하여 빠뜨려 죽이고 콩쥐의 행세를 하며, 콩쥐가 연꽃과 구슬로 환생하였다가 이웃 노파의 도움으로 짝이 맞지 않는 젓가락을 통하여 감사와 재회하는 부분 등은 동일하다. 다만 죽은 콩쥐의 시신을 연못에서 찾아내니 재생하였다는 대목은 설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계모와 팔쥐에 대한 징치는 설화에서보다 더욱 자세하게 표현되면서 일면 잔인함을 드러내고 있다. 팔쥐를 수레로 찢어 젓을 담가 계모에게 먹이고, 또 계모와 팔쥐가 죽어 지옥에 떨어졌다고 함으로써 다른 어느 작품보다 철저하게 응징하고 있다.

<콩쥐팍쥐전>은 이렇게 설화와 같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달라진 면모를 드러낸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연당전> 및 <황월선전>과 비교하였을 때 주목되는 점이 있다. 두 작품은 천상계를 설정하여 이원적 세계관을 드러내면서, 천상계의 원리에 따라 연당과 월선의 삶이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 연당과 월선의 태몽에서부터 천상계의 원리가 드러나며, 월선의 경우 그 배우자 또한 예정되어 있었다. 또한 <연당전>에서는 죽은 친모가 천상계에 존재하면서 연당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월선 또한 친모의 원조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즉 <연당전>과 <황월선전>에 드러나는 천상계는 설화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서, 소설에 와서는 천상계와 죽은 친모의 존재가 연계되어 있으면서 서사전개에 인과성을 부여하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콩쥐팍쥐전>에서는 검은 암소가 죽은 친모의 현신이라는 점이 언급되고 있으나 일회성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콩쥐팍쥐> 설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설화와 소설 간에 커다란 차이가 없다. 따라서 다른 계모형 고소설 작품과 비교한다면 <콩쥐팍쥐전>은 설화의 면모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

그러나 설화와 소설 간에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여 그것이 <콩쥐팍쥐전>의 작

품성을 폄하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서사를 지닌 것들이 보다 설화로 서 많이 향유되기도 하고, 설화보다는 소설의 형태로 많이 향유되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콩쥐팥쥐>는 다른 계모설화에 비해 각편 수가 풍부하고 소설과 유사한 각편이 대부분이다. 즉 완결된 서사를 갖춘 각편이 많으면서 향유층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인데, 소설로는 필사본이나 방각본이 없고 활자본만 2종이 있을 뿐이나 설화로서는 생명력이 있다고 하겠다. 이는 <장화홍련전>이 설화로서는 드물지만, 소설로서는 많은 이본을 생성하면서 향유층에게 인기를 얻었던 것과 비견된다.

4.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와 <조생원전(필사본)>

1)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의 각편별 특징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는 계모와 전실아들의 갈등을 표면에 두고, 계모가 신방에 든 전실아들의 목을 잘라 살해하는 것을 서사의 발단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신방의 아들 살해 모티프는 이 유형의 가장 특징적 장면을 이룬다.

이 설화의 또 다른 특징은 가장의 모습이 사명당이라는 역사적 인물로 나타나면서 <사명당 출가유래담>으로 전설화하는 각편이 다수 존재하여, 계모와 전실아들의 기본갈등에서 비롯된 계모와 가장의 심각한 관계 훼손이 부각된다는 것이다. 계모 이야기에서는 보편적으로 가장이 계모와 그 소생까지를 징치하더라도, 전실자식과 다시금 온전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다. 그러나 이 설화의 일부 각편들은 <사명당 출가유래담>이라는 전설화의 과정 속에서 가장이 계모와 그 소생을 징치하고서도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출가를 하고야 마는 비극으로 치닫기 때문에, 계모와 가장의 갈등이 더욱 심각한 파장을 보인다.

또한 계모가 전실아들 살해의 누명을 며느리에게 씌움으로써, 계모와 전실아들의 갈등축이 계모와 며느리의 갈등축으로 전이된다. 때문에 ‘계모의 악행을 밝히는 며느리’ 중심의 서사로 변이를 보일 여지를 남긴다.

이처럼 이 설화 유형이 사명당과 결부된 관계로 사명당을 서사의 주체로 삼은 다양한 설화⁸²⁾ 중의 하나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는데, 본 설화의 절반 이상의 각편이 사명당의 출가 이유를 밝히는 것으로 서사의 끝을 맺는다 하더라도 계모설화의 외피를 쓰고 있는 만큼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로서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사명당이나 며느리로 서사 주체의 이동이 일어나는 양상은,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계모설화가 가장이나 며느리 등으로 그 갈등관계를 전이시켰을 때의 다양한 의미를 고찰하는데 의의가 있다.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와 기타의 설화집에 수록된 자료들을 놓고 볼 때 모두 23편이 발견된다. 그 중 14편은 <사명당 출가 유래담>의 양상으로, 9편은 특별한 인물과의 결부 없이 나타난다.⁸³⁾ 두 경향의 설

82) 임진왜란 때 승병장으로 활약한 사명당 유정에 관한 설화는 크게 구비설화와 문헌설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여러 가지로 그의 출가(出家) 동인을 말하는 후처 응징 설화와 왜왕의 항복, 서산대사와 사명당의 재주시합, 사명당의 전리품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왜왕의 항복만 역사적 사실에 근접한 것이고, 나머지 설화는 허구적인 요소가 강하다. 문헌설화는 임진왜란 시에 사명당의 활약상을 담은 것으로, 허구화의 정도가 약하고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다. 사명당의 왜장 퇴치, 사명당과 청정의 보배 문답, 사명당과 왜왕의 대결 등이 주를 이룬다. (임철호, 『설화와 민중의 역사의식』, 집문당, 1989 참조.)

- 83) <각편 1> - <사명당>, 『대계』 1-1, 627-639쪽.
 <각편 2> - <서산대사와 사명당>, 『대계』 1-7, 962-967쪽.
 <각편 3> - <사명당>, 『대계』 2-7, 154-163쪽.
 <각편 4> - <사명당의 출가>, 『대계』 2-9, 800-804쪽.
 <각편 5> - <사명당의 복수>, 『대계』 4-3, 500-506쪽.
 <각편 6> - <사명당의 입산과정>, 『대계』 5-1, 568-574쪽.
 <각편 7> - <사명당은 임진사>, 『대계』 6-2, 143-146쪽.
 <각편 8> - <사명당의 후처와 누명 쓴 며느리>, 『대계』 7-9, 899-907쪽.
 <각편 9> - <사명당의 출가 사연과 표충사의 유래>, 『대계』 8-7, 333-340쪽.
 <각편 10> - <임대장과 한을 푼 며느리>, 『대계』 8-8, 176-182쪽.
 <각편 11> - <사명당>, 『대계』 8-8, 627-639쪽.
 <각편 12> - <전실 아들 죽인 계모>, 『대계』 8-14, 495-500쪽.
 <각편 13> - <사명당의 출가 동기>, 『대계』 8-14, 523-527쪽.
 <각편 14> - <사명당>, 『한국구전설화』 10, 67-71쪽.
 <각편 15> - 김광순, 『경북민담』, 형설출판사, 1978, 267-272쪽.
 <각편 16> - <진사의 악독한 후처>, 『대계』 1-1, 569-580쪽.
 <각편 17> - <계모 흥계 밝혀낸 며느리>, 『대계』 3-4, 866-878쪽.
 <각편 18> - <서모에게 죽은 아들>, 『대계』 6-4, 295-297쪽.
 <각편 19> - <본처 자식 죽인 서모>, 『대계』 6-8, 416-419쪽.
 <각편 20> - <계모의 악행>, 『대계』 7-6, 94-98쪽.
 <각편 21> - <누명 벗은 며느리>, 『대계』 7-6, 363-374쪽.

화 각편들은 서사전개 및 서사구조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각편 1>의 서사전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임진사가 아들 하나를 두고 상처하다.
2. 계모가 들어와 하수인을 시켜 신방에 든 전실아들의 목을 잘라 살해하다.
3. 그로 인해 며느리가 간부(姦夫)와 사통했다는 누명을 쓰다.
4. 며느리가 방물장사를 하며 돌아다니며 노파집에 머물다가, 계모의 악행을 알아내다.
5.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사실을 고하여 누명을 벗고 자결하자, 임진사가 계모와 그 소생을 불태워 죽이다.
6. 임진사가 출가하여 중이 되어 금강산에 들어가다.

위에 제시한 <각편 1>을 비롯하여 <각편 14>까지는 가장이 계모와 전실아들의 갈등으로 인해 결국은 출가하여 중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특징이 있다. 계모와 전실아들의 갈등이 있고 며느리 또한 계모로 인해 누명을 쓰는 등 갈등양상이 단순하지 않지만, 결국은 가정의 비극으로 가장이 출가하여 중이 되는 결말에 초점이 있다. 그리고 <각편 15>를 제외하고는 가장이 사명당으로 나타남으로써, <사명당 출가유래담>으로 전설화한다.

이에 가장인 사명당에 초점을 두고 변이를 일으킨 것으로 <각편 2, 7>을 들 수 있다. <각편 2, 7>은 며느리의 존재를 약화시키고 사명당에게 서사의 초점이 가도록 하여, 사명당의 출가유래를 서사화하는데 더욱 주력하고 있다. 즉 <각편 7>에서는 계모의 악행을 며느리가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사명당이 직접 밝혀내고 있으며, <각편 2>는 계모가 전실아들을 살해하는 시점이 신방에 든 혼인 첫날밤이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가 애초에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모가 하수인을 시켜 신방에 든 전실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에게 간부부정의 누명을 씌우는 장면이

<각편 22> - <조생원>, 『대계』 8-14, 73-80쪽.

<각편 23> -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최운식, 『한국의 민담』, 시인사, 1987, 282-286쪽.

나타나지 않고, 다만 계모가 전실아들을 미워해서 직접 살해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도 사명당이 직접 계모의 악행을 알아내어 징치하고 출가한다는 서사전개를 보인다.

한편 <각편 3, 9>에서는 사명당의 출가 이후 행적을 덧붙이고 있는데, 각각 임진왜란에서의 활약상 및 표충사의 유래를 삽입하고 있다. 사명당이라는 존재에 의미를 두고 변이를 일으켰다는 점에서는 <각편 2, 7>과 같은 양상이겠으나, <각편 2, 7>이 사명당의 출가 유래에 집중하였다면, <각편 3, 9>는 사명당이라는 역사적 실제 인물에 초점을 둔 변이라고 하겠다.

한편 <각편 15>⁸⁴⁾는 가장이 사명당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계모와 전실아들의 갈등 때문에 가장이 계모를 죽이고 출가하여 중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나 전실아들이 첫날밤에 살해되는 모티프는 사라지고 며느리가 간부부정의 누명을 쓰는 것만 나타나면서, 며느리가 그 누명을 벗는 것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각편 2>에서 며느리가 나타나지 않고 동시에 며느리의 누명 모티프와 전실아들의 신방 살해 모티프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가장인 사명당 중심으로 서사가 이루어졌던 것과 대비된다.

이상과 같은 <각편 1-15>와 달리 <각편 16-23>은 가장이 특정한 인물이 아닌 ‘최참판’, ‘이참판’, 혹은 ‘조생원’ 등으로 나타나면서, <각편 1-15>의 후반부에 서사가 덧붙는 양상을 보인다. <각편 16>의 서사전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최참판이 아들 하나를 두고 상처하다.
2. 계모가 들어와 아들과 딸 몇 남매를 낳다.

84) <각편 15>의 서사전개는 다음과 같다.

1. 전실아들의 첫날밤에 한 남자가 신방에 들어와 전실아들의 옷을 가져가고, 이에 며느리가 간부부정의 누명을 쓰고 소박을 맞다.
2. 남장을 하고 시댁에 들어간 며느리가 전실아들과 함께 지내다.
3. 계모의 어린 아들이 병이 나자, 며느리는 병곳을 핑계로 계모에게서 절 받은 무색천을 받아내어 그것을 시아버지 방에 넣어두고는 친정으로 돌아가다.
4. 사건의 전말을 짐작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맞아들여 전실아들 내외를 분가시키다.
5. 그 후로도 계모가 계속 전실아들 내외를 괴롭히자, 시아버지가 계모를 죽이고 집을 나가 중이 되었다.

3. 전실아들이 열 여섯이 되어 장가를 가는데, 첫날밤에 목이 잘려 죽다.
4. 그로 인해 며느리가 간부(姦夫)와 사통했다는 누명을 쓰다.
5. 며느리가 유복자를 낳고 삼년을 지내다.
6. 며느리가 계모의 행동을 살피던 중 종놈 쇠돌이와 사통하는 것을 목격하고, 남편 살해의 경위도 알아내다.
7.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사실을 고하자, 시아버지가 계모와 쇠돌이를 잡아 자백을 받아내다.
8. 연못에서 아들의 목을 찾은 최참판은 계모와 쇠돌이를 연못에 넣고 메워버리다.
9. 며느리와 손자를 남겨두고 최참판이 집을 떠나다.
10. 손자가 열 다섯이 되자 며느리가 조부를 찾아오도록 하다.
11. 최참판은 해인사에서 학장선생을 하다가 아들 하나 있는 과부와 함께 살다.
12. 손자가 조부와 해인사에서 상봉하고, 손자가 홀로 돌아와 모자가 함께 살다가 조부가 죽자 선산에 장사지내다.

<각편 16>에서는 며느리가 누명을 벗기 전에 이미 유복자를 낳았으며, 손자가 조부를 찾아 모셔와 가족이 함께 사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점이 특징적이다. <각편 16> 이하의 대부분의 각편에서는 며느리가 누명을 벗고 나서 유복자를 낳고, 손자가 조부를 모셔와 함께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서사가 종결된다.

<각편 16-23>에서도 비록 가장이 사명당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각편 20>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모 정치 후 방랑의 길을 떠나는 가장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으며, 동시에 계모와 며느리의 갈등 또한 형성되므로 <각편 1-15>와 갈등의 양상은 동일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계모의 악행을 밝히는 며느리에게 더욱 주안점이 있으며, 특히 서사의 확장이 며느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즉 첫날밤 잉태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시아버지를 찾아 온전한 가정을 다시금 이룬다는 후

반부의 서사는 며느리를 서사의 주체로 한 부분이다.

다만 <각편 20>은 가장이 사명당으로 나타나지 않는데도 위에 제시한 서사단락 6 - 8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계모를 징치한 가장이 집을 떠나 방랑하지 않고, 계모와 그 소생을 불태워 죽인 후 가정의 비극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명당 출가유래담>에서 중요한 모티프라 할 수 있는 ‘가장의 출가’와 그로 인한 비극적 결말이 없고, 계모와 전실아들의 갈등으로 인한 가정의 비극을 며느리가 해결하고 가장과 함께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각편 16> 이하의 각편과 의미는 동일하다고 하겠다.

한편 <각편 17, 23>에서는 죽은 줄 알았던 전실아들이 하인의 도움으로 살아있어서, 며느리가 낳아 키운 아들이 조부뿐 아니라 아버지와도 상봉한다는 결말로 나타난다.⁸⁵⁾

이상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 각편의 두 가지 흐름을 살펴보았거니와, 주요 모티프의 출입양상에 따라 23편의 각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⁸⁶⁾

85) <각편 16, 22>의 이러한 양상은 신소설 <구의산>과 비견된다. <구의산>에서도 계모의 사주를 받은 하수인이 전실아들 대신 다른 사람의 목 없는 시신을 넣어놓고 전실아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전실아들 가족이 재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각편 16, 22>와 <구의산> 중 어느 것이 선행하는 것인지는 면밀히 고찰해야 하겠지만, 이 설화 유형과 신소설 <구의산>이 영향을 주고받는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

86) 표에서 ‘(○)’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즉 <각편 1>에서는 계모가 전실아들을 살해하되 신방에 든 첫날밤에 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 넣어 처리한 것이며, <각편 16, 22>의 경우 계모가 하수인에게 신방에 든 전실아들 살해를 사주했으나 하수인이 전실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에 넣었다. 반면 <각편 6>에서 며느리의 누명 벗기를 ()에 넣어 처리한 이유는 며느리가 직접 계모의 악행을 밝혀내어 누명을 벗은 것이 아니라, 가장인 사명당에 의해 계모의 흉계가 밝혀져 며느리의 누명이 벗겨지기 때문이다.

<표 6 -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의 모티프 출현양상>

설화 각편	각편별 모티프 출현양상									
	계모영입	신방의 아들살해	며느리의 간부부정 누명	며느리의 누명 벗기	계모징치	가장의		손자의 조부탐색 및		가정의 복원
						출 가	방 랑	조부 상봉	부친 상봉	
<각편 1>	○	○	○	○	○	○				
<각편 2>	○	(○)	×	×	○	○	×	×	×	×
<각편 3>	○	○	○	○	○	○	×	×	×	×
<각편 4>	○	○	○	○	○	○	×	×	×	×
<각편 5>	○	○	○	○	○	○	×	×	×	×
<각편 6>	○	○	○	○	○	○	×	×	×	×
<각편 7>	○	○	○	(○)	○	○	×	×	×	×
<각편 8>	○	○	○	○	○	○	×	×	×	×
<각편 9>	○	○	○	○	○	○	×	×	×	×
<각편 10>	○	○	○	○	○	○	×	×	×	×
<각편 11>	○	○	○	○	○	○	×	×	×	×
<각편 12>	○	○	○	○	○	○	×	×	×	×
<각편 13>	○	○	○	○	○	○	×	×	×	×
<각편 14>	○	○	○	○	○	○	×	×	×	×
<각편 15>	○	×	○	○	○	○	×	×	×	×
<각편 16>	○	○	○	○	○	×	○	○	×	○
<각편 17>	○	(○)	○	○	○	×	○	○	○	○
<각편 18>	○	○	○	○	○	×	○	○	×	○
<각편 19>	○	○	○	○	○	×	○	○	×	○
<각편 20>	○	○	○	○	○	×	×	×	×	×
<각편 21>	○	○	○	○	○	×	○	○	×	○
<각편 22>	○	○	○	○	○	×	○	○	×	○
<각편 23>	○	(○)	○	○	○	×	○	○	○	○

이상 23편에 이르는 각편의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각편 간의 차이는 있으나 긴요한 몇몇 모티프들이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의 독자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가 <각편 1-15>와 <각편 16-23>의 두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차이를 드러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계모와 전실아들의 갈등을 표면에 내세우면서도 서사의 중심은 그 갈등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가장이나 며느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즉 계모와 전실아들의 갈등과 그 파탄적 해결 - 계모의 전실아들 살해 - 이라는 명제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러한 가정비극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주체로 가장과 며느리가 등장하여 각각 같으면서도 다른 양상으로 서사를 전개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의 서사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겠다.

가. 친모가 죽고 계모가 들어오다.

나. 계모가 전실아들을 학대하다.

다. 계모가 신방에 든 전실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에게 간부부정의 누명을 씌우다.

라. 며느리가 남복하고 시댁 근처에 머물며 계모의 흉계를 알아내다.

마. 가장인 시아버지가 계모를 징치하고 가산을 며느리에게 맡긴 후, 출가하여 중이 되다.

마'. 가장인 시아버지가 계모를 징치하고 가산을 며느리에게 맡긴 후, 방랑하다.

(며느리가 유복자를 낳아 키워 조부를 찾아 모셔오게 하고, 가족이 재회하여 온전한 가정을 이루다.)

이처럼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는 서사구조 '가 - 마'로 이루어지는 <사명당 출가유래담>과 '가 - 마'에 후반부 서사가 덧붙는 양상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가장이 사명당으로 나타나는 <각편 1-15>의 경우 <사명당 출가유래담>과 <신방

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 간의 선후·영향관계를 살피는 일도 중요하겠지만,⁸⁷⁾ 가장이 사명당이라는 역사적 인물로 구체화되면서 그의 출가담으로 전설화했을 때의 의미를 계모설화 속에서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각편 16-23>이 ‘계모의 악행을 밝힌 지혜로운 며느리’ 중심의 이야기로 이해될 가능성이 많더라도, 그것이 계모와 전설아들 갈등의 파탄적 결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의 또 다른 의의는, 위와 같은 가족갈등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서사문학의 흐름 속에서 면면히 이어지고 재현되면서 다양한 작품을 생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명당 출가유래담>으로 전설화 양상을 보이는 <각편 1-15>는 <사명당전>의 전반부와 서사를 이루고 있으며, <각편 16-23>은 필사본 <조생원전>과 동일하다. 특히 <각편 16-23>에서 주목되었던 며느리의 열행은 <성부인전>을 비롯하여 <김씨열행록> 등의 이본을 생성해 내고 있다. 나아가 개화기 소설 <구의산>과 같은 작품 생성도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의 서사문학적 전통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2) <조생원전>의 존재양상과 전개

앞선 고찰을 통해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는 두 가지 양상으로 대별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소설에서도 이어지는데 <사명당 출가유래담>은 <사명당전>의 전반부를 이루면서 사명당의 이인적 행위들과 결합하여 하나의 작품세계를 형성한다.⁸⁸⁾ <사명당전>은 사명당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였다

87) <사명당 출가유래담>과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 및 이 설화들과 관련된 소설의 선후영향관계에 대해, 임철호(앞의 책 참조)는 <사명당 출가유래담>을 구연한 대부분의 화자들이 책에서 읽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이러한 설화 유형이 소설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반면 민족의 구원자나 영웅으로 인식되는 사명당의 출가 동기에 극적인 모티브를 갖게 하는 것이 일반 민중들의 기호와 맞아서 고소설에서 계모설화를 수용하고, 고소설의 독자층이 설화 담당층으로 확대되면서 사명당사 출가 동기로서의 <계모 전처소생 살인담>이 민간에 전승되었다는 논의도 있다.(孫貞嬉, 「四溟堂說話 研究 - 慶南地方을 中心으로 -」, 『韓國文學論叢』 13, 韓國文學會, 1992.) 즉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설화를 고소설에서 수용하여 사명당을 주인공으로 설정하는 서사물이 형성된 뒤에, 다시 설화로 유포되는 과정에서 <사명당 출가유래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기보다는 그의 이인적인 면모를 크게 부각시키고, 출가 이유를 극적으로 형상화한다는 목적의식과 맞물려 허구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후반부에 사명당의 임진왜란에서의 활약상이 펼쳐지는데, 그것보다는 전반부의 출가 유래를 서사화하는데 더욱 초점이 있다 하겠다. 앞서 살펴 본 <각편 3>의 후반부에 사명당의 임진왜란에서의 활약상이 덧붙여 있어, <각편 3>과 <사명당전>의 상관성이 주목된다 하겠다. 따라서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 중 <사명당 출가유래담>으로 귀결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각편들, 그리고 <사명당전> 및 <조생원전>은 다양한 경로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장이 사명당으로 나타나지 않는 각편과 맞물려 있는 것은 <조생원전>이다. 그런데 <사명당전>에서의 며느리는 서사의 중심에 서지 못하였지만, <조생원전>에서는 가장과 며느리의 존재가 동시에 부각된다. <조생원전>과 온전하게 서사를 공유하는 각편들에서도 그러한 양상은 동일하였으며, <조생원전>의 이본인 <성부인전>, <김씨열행록> 등에서는 며느리가 서사의 주체가 되는 변모를 보인다. 전자가 며느리 중심의 서사로 이행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후자는 며느리라는 인물에 맞추어 그 열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작품세계의 변모가 일어나, 새

88) <사명당전>은 세창서관본과 영화출판사본의 국문활자본으로 존재하는데, 서사전개는 다음과 같다.

1. 조선 밀양 땅에 임유정(任惟政)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부친은 벼슬이 승지에 올랐으나 낙향하여 뒤늦게 얻은 아들 교육에만 전념하다.
2. 신동 유정은 17세에 이참관의 큰딸과 혼인했으며 향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이어서 경성 태평과에 응했으나 낙방하여 그 해 옥동자를 낳다.
3. 그때 조정은 문란해져서 일본 도적이 자주 침범하니, 유정은 벼슬의 뜻을 버리고 어린 아들만 돌보며 지낼 때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
4. 유정은 다시 김부인을 맞아 아들을 얻다.
5. 전실아들이 장성하여 한명선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된 첫날밤 목잘린 변사체로 발견되어 신부가 누명을 쓰게 되다.
6. 신부는 억울하여 자결하려다가 원수 갚을 결심을 하고 집을 나가 한 노인 집안의 수양딸로 들어가 살다.
7. 노인의 도움으로 남편이 김부인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시아버지에게 고하여 김부인 묘자를 처단하도록 하다.
8. 이에 유정은 세상사에 뜻을 잃고 재산을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금강산에 들어가 서산대사의 제자가 되다.
9. 임진란이 일어나 왜군의 침략을 받게 되자, 유정은 승병을 일으켜 적을 물리치고, 강화사로 일본에 건너가 풍신수길과 불력으로 겨루어 이기고 포로로 잡혀간 조선사람 오천명을 데리고 나온다.
10. 선조는 그를 가상히 여기어 사명당이라는 시호를 하사하다.

(〈四溟堂傳〉, 『舊活字本 古小說全集 21』, 仁川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3.)

롭게 후반부의 서사를 확장시키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설화에서 드러났던 다양한 가족갈등의 면모가 소설에서도 나타나면서 이본을 형성해내고 작품세계의 변주를 이루어내는데, 이러한 양상의 구체적 고찰을 위해 우선 <조생원전>의 서사전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⁹⁾

1. 조선시대 강릉에 사는 조기순은 벼슬에 뜻이 없고 소탈하나 가난하였는데, 아내 이씨의 설득으로 농업에 힘써 가산이 일어나고 아들 영이 태어나다.
2. 이씨가 우연 득병하여 죽자 배씨를 후처로 맞아들였으나, 영을 심히 구박하여 금강산의 설암당에게 맡기다.
3. 배씨가 영의 혼수 물품을 탐내자 전처 이씨가 조생원의 꿈에 현몽하여 영의 혼사를 서두르라 말하다.
4. 설암당은 전생 적원(積怨)으로 영이 일찍 혼례하면 단명할 것을 말하나, 조생원은 영의 혼인을 강행하다.
5. 첫날밤 영이 머리 없는 시체로 발견되자, 신부 장부인이 간부부정의 누명을 쓰다.
6. 장부인은 영의 빈소에서 주야로 축원하여 영의 현몽을 통해 그 머리가 있는 곳을 알아내다.
7. 장부인이 조생원에게 사실을 고하자, 조생원은 하인 쇠작지를 문초하여 계모 배씨의 흉계를 밝혀내다.
8. 조생원은 배씨와 그 소생 및 쇠작지를 처단하고, 장부인에게 개

89) <조생원전>은 계모형 고소설의 양상을 띠는 필사본과쟁총형 가정소설로 진행되는 활자본 두 가지가 있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전자의 경우로, 20여 종이 넘는 이본이 있다. 그러나 이본 간의 커다란 차이가 없으며, 글자 크기의 차이에 따라 이본 간 면수가 다를 뿐 내용은 대부분 유사하다. 본고에서는 서사가 가장 다양하게 부연되어 있는 자료와 비교적 선본이라고 추정되는 자료 등 2종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박순호본,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90』, 오성사, 1986, 139-272쪽. (국문필사본, 134면)

박태상본, 『국문학연습 - 조선조 가정소설 연구』, 방송통신대 출판부, 1991, 140-193쪽. (국문필사본, 54면.)

가를 권유하며 방랑길에 오르다.

9. 장부인이 아들 천향을 낳아 10세 되던 해에 조부를 찾아 모셔오도록 떠나보내다.

10. 천향이 갖은 고생 끝에 조부를 만나 모셔와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천향은 부귀영화와 높은 벼슬을 얻다.

<조생원전> 이본 간의 서사전개 차이는 근소하며 대체로 위와 같다. 계모와 전실아들의 갈등과 그 파탄적 해결을 서사의 발단으로 삼고 있지만, 표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품의 전반적인 양상은 가장인 조생원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서사가 계모의 영입으로 인한 전실아들의 고난과 그 극복으로 진행되지 않고, 계모와 전실아들 관계의 파탄에서 비롯한 가정의 와해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가정을 이끌어 가는 실제적이고도 상징적인 존재가 가장이기 때문에, 계모 영입으로 인한 가정의 와해는 곧 가장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⁹⁰⁾

한편 <성부인전>과 <김씨열행록>에서는 며느리 중심의 서사로 재구성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며느리의 면모가 강조되는 이본인 <성부인전>⁹¹⁾을 통해,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의 일부 각편에서 며느리가 서사의 주체로 강조되었던 양상이 소설에서도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소설에서는 <성부인전>이라는 표제 하에 며느리의 면모를 더욱 강조하는 부분적인 변모가 보인다. <조생원전>에서 남편의 빈소에서 밤낮으로 정성을 들여 죽은 남편의 현몽으로 진상을 밝혔던 것과는 달리, <성부인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계모의 흉계를 밝혀내는 며느리의 모습이 나타난다. 즉 누명을 벗고 떳떳이 죽으리라는 다짐 속에 시댁 근처의 노파집에 유숙하며 사건의 진상을 알아내게 되는데,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에서도 각편에 따라 며느리가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 앞

90) 이러한 비극성은 <사명당 출가유래담>과 <조생원전>의 전반부(며느리가 후사를 낳고 시아버지를 모셔와 가정을 온전히 복원하기 전까지의 서사)가 공유하는 것이다. 다만 전자가 그러한 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 출가로 마무리되었다면, 후자는 며느리를 통해 손자를 얻어 다시금 온전한 가정 이루기를 완성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91) <성부인전>, 여승구, 『고서통신』 15, 1999, 9.

(국문 필사본 1권 1책, 29.5×24cm, 25면./<김연단전>의 뒷부분에 합철되어 있음.)

서 제시한 <조생원전>의 서사전개에서처럼 남편의 현몽으로 잘린 머리가 있는 곳을 알아내는 각편이 있는가 하면, 며느리가 남장을 하고 시댁 근처에 유숙하며 진상을 알아내는 각편이 있다. 이러한 양상은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며느리가 진상을 밝히는 부분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성부인전>에서는 며느리가 사건 해결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아버지에게 남편의 잘린 머리가 있는 곳을 안내하는 장면이 있어서나 방랑길을 떠난 시아버지를 찾아 모셔오는 장면이 있어서도 그 적극성이 강조된다.

며느리 성부인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시댁을 찾아가 집구경을 핑계로 남편의 머리가 있는 고방으로 시아버지 강진사를 안내하고, 진상을 밝힌 후에는 친정으로 떠난다. 또한 유복자 업을 낳은 후 용인사의 중이 된 시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아들과 함께 찾아 나서는데, 그 과정에서 주막의 무뢰배들에게 희롱을 당하는 등의 고난을 겪는 모습이 형상화되기도 하면서 성부인의 담대한 성정이 부각된다.

또한 표제의 변화와 며느리 성부인의 적극적 면모에 대한 부각 외에도, 서사구조나 사건을 기술하는 방법상의 차이를 통해 며느리 중심으로 작품세계를 변모시키고 있다. <조생원전>에서는 조생원이 혼인하여 아들 영을 낳고 부인이 죽어 후처로 배씨를 들이는 상황 및 배씨가 영과 갈등하는 것과 더불어, 그러한 갈등에 대응하는 조생원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설암당의 경고를 통해 영의 죽음이 암시되는 등, 조생원 집안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성부인전>에서는 가장인 강진사 집안에서 일어나는 가족갈등 상황이 생략된 채, 성부인의 혼인과 그 첫날밤의 비극적 사건을 자세히 기술한다.

성부인의 혼인과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 및 억울한 누명을 서사의 발단으로 삼아, 성부인이 남편의 죽음에 얽힌 의문을 풀고 자신에게 씌워진 간부부정의 누명을 벗는 과정에 서사의 중심을 둔다. 또한 추리적인 기법으로 호기심을 자극함과 동시에, <조생원전>에서 자주 드러나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소거되면서 보다 사실적으로 서사를 이끌어 간다. <조생원전>에서는 조생원의 전처가 현몽하여 계모 배씨가 아들 영의 혼수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조속히 영의 혼인을 성

사시킬 것을 종용한다. 또한 며느리 장씨부인이 남편 영의 빈소에서 밤낮으로 정성을 들이자, 영이 현몽하여 자신의 잘린 머리가 있는 곳을 알려주어 계모의 흉계가 드러나게 된다. 장씨부인이 유복자를 가졌음도 영의 현몽으로 알게 되는 등, <조생원전>은 전체적으로 비현실적 논리에 의해 서사진행의 계기를 이루고 있다.

반면 <성부인전>에서는 성부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기술하는 양상을 띠면서, 남편의 계모에 대한 언급이 자세하지 않다가 성부인의 노력과 지혜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사실적이고도 추리적인 기법으로 전개된다. 남편 강도령이 현몽하는 부분은 유복자의 성명을 ‘업’이라고 지어주도록 하는 부분뿐이며, 성부인이 유복자를 가졌음을 안 것도 스스로 깨달은 바이다. 또한 성부인이 간부부정의 누명을 쓰고 창졸간에 과부가 된 상황에서 누명이나 벗고 죽으리라는 결심을 하거나, 유복자를 낳아 후사를 잇겠다는 의지를 언급하는 등의 장면을 통해서 그 적극성이 부각되며, 그러한 적극성이 보다 사실적인 서사전개의 맥락과 맞물려 드러난다.

<김씨열행록>⁹²⁾ 또한 <성부인전>에서 드러난 부분적인 변모의 양상과 흡사하게 서사를 재구성하고 있는 이본이다. 표제의 변화라든가, 남편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과 가정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며느리 김부인의 적극적 행위 등이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김씨열행록>은 <성부인전>보다 더욱 사실적으로 사건을 기술하고 있으며,⁹³⁾ 특히 후반부의 서사 확장을 통해 김부인 중심의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김씨열행록>에서는 관동땅의 장계천이 부인 연씨와 혼인하여 아들 갑준을 낳고, 연씨가 죽자 후처 유씨를 맞아들이는 과정 및 유씨가 아들 병준을 낳아 갑준을 미워하게 되나 겉으로는 갑준을 위하는 척하는 것 등이 서사의 초반에 제시된다. <성부인전>에서 계모와 진실아들의 갈등 부분이 생략되고 바로 혼인 과정으

92) <김씨열행록>, 김기동 편, 『활자본고전소설전집 2』, 아세아문화사, 1976. (국문활자본 1권 1책, 세창서관판.)

93) <김씨열행록>의 서술표현이나 전체적인 성격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근거를 들어, <김씨열행록>이 <조생원전>보다 후대의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안미을, “<조생원전>의 후대적 변모 : <김씨열행록><구의산>과의 비교”, 경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참조.) 서술표현이나 전체적인 성격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성부인전> 역시 마찬가지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로 넘어가던 것과는 달리, 살해 사건의 단초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조생원전>과 유사하다.

남편 살해에 얽힌 전말을 밝히는 과정 및 시아버지를 찾는 과정은 <성부인전>과 동일하나, 김부인이 남장을 하는 남장 모티프가 나타난다는 점과 시아버지 장계천을 찾는 과정에서 시비 옥매와 함께 동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 때 시비 옥매와의 동행은 후반부 서사를 고려할 때, 논리적 인과성을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김씨열행록>의 전반부는 위와 같이 <성부인전>과 유사하며, 두 이본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 또한 동일하다. <성부인전>과 <김씨열행록>은 며느리로서 한 가정에 들어간 여성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억울한 누명으로 고난을 겪다가, 그러한 고난을 열행으로 극복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룬다는 서사로 재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생원전>이 가정의 상징적 존재인 가장을 중심으로 계모 영입으로 인한 가정비극과 그 해결과정을 서사화하고 있다면, <성부인전>과 <김씨열행록>은 며느리 중심의 서사화를 통해 ‘아내’ 혹은 ‘며느리’라는 존재의 가치를 열행으로서 표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성부인전>이 <조생원전>과 동일한 서사전개 속에서 부분의 변화를 통해 작품세계의 의미 변화를 꾀했다면, <김씨열행록>은 ‘열행’이라는 용어를 표제로 표면화시키면서 새로운 사건을 덧붙여 서사의 확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김씨열행록>의 후반부는 다음과 같다.

1. 김부인이 자신의 친구 화씨를 시아버지 계천의 첩으로 맞아들이게 하다.
2. 화씨가 유태수(죽은 계모의 남동생)와 내통하고, 김부인의 간부부정을 꾸며 모함하다.
3. 시비 옥매가 화씨의 행위를 괘씸히 여겨 화씨를 독살하려하다가 실수로 계천이 죽다.
4. 김부인이 시아버지 계천을 독살했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다.
5. 시비 옥매가 김부인의 무죄를 밝히려다가 옥에 갇히자, 동생 금

매를 대신 옥에 있게 하고 경성으로 올라가 승문고를 올려 임금에게 사실을 고하다.

6. 전모가 밝혀져 화씨가 처형되고 유태수는 파직되다.

7. 임금이 김부인의 열행을 치하하고 아들 해룡을 부마로 삼아, 김부인과 해룡이 화락을 누리다.

<김씨열행록>의 위와 같은 후반부의 서사전개는 전반부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라는 가족갈등으로 김부인의 고난이 다시 반복된다는 점, 그러한 고난의 단초가 간부부정의 모해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더구나 시어머니 화씨와 결탁하여 김부인을 모해하는 인물이 죽은 계모의 남동생이라는 점은, 전반부에서 김부인에게 고난을 주었던 적대자가 계모였다는 것과 맞물려 논리성을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부에서 드러났던 김부인의 적극적인 면모가 오히려 희석되고 시비 옥매의 존재가 부각됨으로써, 김부인의 열행이 설득력 있게 형상화되었던 전반부 서사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 후반부에서 김부인에게 가해진 고난은 김부인의 열행을 드러내기보다는 시비 옥매의 충직함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조생원전>이 계모의 영입과 그로 인한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을 가장을 내세워 뒤흔들게 형상화하고 있다면, <김씨열행록>에서는 계모로 인해 야기되는 가족갈등의 의미가 희석되는 경향이 있다. <김씨열행록>에서는 며느리에게 고난을 주는 남편의 계모나 시아버지의 첩(시어머니)은 특별히 변별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다. 계모와 시아버지의 첩이 주는 고난은 간부부정이라는 양상으로 동일하며, 그러한 고난을 스스로 극복하든 원조자의 도움으로 극복하든 전체적인 의미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조생원전>의 이본으로서 <김씨열행록>의 의의는, 후반부의 서사 확대를 통해 며느리 중심의 서사로 재구성하면서 ‘계모와 전실아들의 갈등 - 계모와 며느리의 갈등 -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라는 다양한 가족갈등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가족갈등 속에서 며느리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

어, 한 여성의 혼인 이후의 삶을 고난과 그 극복의 반복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조생원전>이 가정 이루기에 대한 계모와 가장의 갈등을 주축으로 가정 와해의 비극과 그 극복을 보여주고 있다면, <성부인전>과 <김씨열행록>은 한 여성이 혼인을 하고 열행이라는 가치를 수난극복을 통해 실현함으로써 ‘머느리’로 거듭나는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계모형 고소설의 판도에서 <조생원전>과 <성부인전> 및 <김씨열행록>은 나름의 의의를 지닌다.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 중 <사명당 출가 유래담>으로 귀결되던 각편들이 가장이라는 존재에 주목하여 가정비극을 형상화하고 계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듯이, <조생원전>에서도 그러한 문제의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가장이 사명당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설화 각편의 의미 역시 <조생원전>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데, 소설에서는 <성부인전>과 <김씨열행록>이라는 이본 생성을 통해 작품세계를 변모시키면서 <조생원전>이 제기하는 문제의식과는 또 다른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설화와 소설을 비교하였을 때 서사전개는 유사하나, 표현면에 있어서 <조생원전>은 판소리적 문체를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조생원전>의 문체적 특질이 논의되었는데, 4·4조의 운문으로 되어 있으며, 삽입가요와 노정기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소리계 소설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또한 생활용어와 비어가 많이 구사되어 있고 등장인물이 평범한 일상인이라는 점에서 서민적인 풍모를 지니고 있다고도 하였다.⁹⁴⁾ <조생원전>은 조선후기 서사문학사에서 가사와 판소리 및 소설의 장르교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사체의 율문 양식이 주를 이루며, 판소리 문체적인 특성이 다분하다는 논의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의 지적이라 하겠다.⁹⁵⁾ 여기서 주목할 것은 <조생원전>의 이러한 문체적 특질이 조선후기 국문소설의 현실주의적 경향과 맞물려 있다는 논의이다. <조생원전>은 다른 계모형 고소설에 비해 서민적인 경향이 두드러지며 사

94) 권영철, 「<조생원전>에 대하여, 守愚齋 崔正錫 박사 회갑기념 논총」, 『한국문학연구』, 효성여대출판부, 1984.

95) 서인석, 「<조생원전>(필사본)의 문학사적 성격」, 『국어국문학연구』 제 19집, 85-113쪽 참조.

실주의적 성격 또한 강하다. 이러한 작품의 성격이 그 문체적인 특질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⁹⁶⁾ 즉 설화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울문적이고 판소리적인 문체로 인해, <조생원전>은 계모를 들며 갈등을 겪는 서민가정의 모습이 더욱 여실히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다.

96) 이처럼 이 작품은 가사체로 되어 있으면서 아울러 판소리적 문체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 보았듯 이 작품은 비교적 서민적인 가정을 무대로 하여 애정 갈등보다 재산상의 갈등을 부각시키면서 현실주의적인 성격을 보여주었다. 가사가 조선후기에 들어 서민가사를 통해 현실주의적 경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이 고전소설 중 그 현실주의적 형상화에 서나 민중적 경향에서 압도적이라는 것 역시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이 이러한 문체적 특질을 갖는 것이 위와 같은 경향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서인석, 위의 글, 105쪽.)

IV. 계모설화와와의 비교를 통한 계모형 고소설 작품

세계의 다면적 의미

앞 장에서는 계모설화와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계모형 고소설의 작품별 서사 전개를 살펴보았다면, 이 장에서는 <연당전>, <황월선전>, <콩쥐팥쥐전>, <조생원전>의 작품세계 고찰에 중점을 두었다.

이들 작품은 설화와 서사를 공유하면서 동일한 의미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 의미를 좀더 강화하거나 약화시키기도 한다. 또한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것은 모티프, 등장인물, 서사구조 등의 차이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설화 각편마다 차별적으로 실현되던 모티프를 소설에 와서는 종합적으로 구현한다거나, 중요한 모티프를 다른 모티프로 대체하여 의미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설화에서는 잘 부각되지 않던 인물을 강화하여 작품이 지향하는 의미를 변모시키며, 천상계의 설정을 통한 이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적강구조를 드러내기도 한다.

<연당전>, <황월선전>, <콩쥐팥쥐전>, <조생원전>은 계모형 고소설의 범주에 속에서 계모의 영입으로 인한 가정갈등을 다루면서도, 각 작품이 지향하는 의미는 다양하다.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을 드러내는 양상을 비롯하여,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또한 같으면서도 다르다. 더불어 계모와 가정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이 작품마다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연당전>은 전실딸의 이니시에이션 과정을 형상화하는데 보다 주목하고 있으며, <황월선전>은 이례적으로 계모를 용서하고 어머니로서 받아들이는 가족화합의 면모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콩쥐팥쥐전>은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을 계모딸과 전실딸의 갈등으로 전이시키면서 서사의 후반부를 확장함으로써, 가정 내 여성갈등을 드러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한편 <조생원전>은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을 서사의 출발로 삼지만, 서사의 주체는 가장과 며느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작품의 의미 또한 가장이나 며느리를 중심으로 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하여, 계모형 고소설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들 작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전실딸의 어머니 되기와 가정 이루기의 상징적 형상화 : <연당전>

1) 손목 절단 및 재생 모티프와 모성성의 획득

<손 없는 색시> 설화와 <연당전>의 핵심적인 모티프는 전실딸의 손목절단과 재생이라고 할 수 있다. 손목절단과 재생은 인과적으로 맞물려 작품의 의미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설화 각편 중 손목 재생 부분이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다른 모티프와 혼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손 없는 색시> 설화의 본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전실딸의 손목재생은 자식의 존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전실딸이 자식을 낳지 않는 <황화일엽> 설화와 착종된 각편들에서 손목 재생 모티프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양상은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연당전>과 <황월선전>의 중간적인 서사전개를 보이는 <순금전>의 경우 손목재생 부분이 자식의 존재와 상관없이 나타나면서 다른 모티프들과 섞여 있다.

따라서 <손 없는 색시> 설화와 <연당전>에서 손목절단과 재생 모티프는 자식의 존재와 밀접하게 맞물려 작품의 의미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설화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죽은 친모가 소설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실딸의 손목절단과 재생 역시 친모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손 없는 색시>를 비롯한 <연당전>은 ‘전실딸 - 자식 - 친모’의 관계와 ‘손목절단 - 손목재생’ 모티프가 긴밀한 연계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전실딸의 모성성 획득이라는 의미와 맞물린다.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을 다룬 설화나 소설에서는 전실딸의 혼인 과정이 시련 극복 단계에서 나타난다. 계모와의 갈등으로 가정에서 소외된 전실딸은 배우자를 만나고 혼인하여 시

련을 극복하며,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친정 가족(특히 아버지)과 재회함과 동시에 계모를 징치한다.

이러한 일련의 서사전개는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 즉 계모영입으로 인한 가족갈등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으면서 이면적으로는 전실딸의 이니시에이션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실딸의 이니시에이션 과정의 형상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은 보다 상징적인 차원에서 해석된다.

가부장적 가족구조와 가족로망스⁹⁷⁾라는 프로이트식의 어법과 베텔하임의 주장에 의하면, 계모는 자애로운 어머니상의 보존을 위한 환상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베텔하임은 가족로망스는 전래동화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며, 예컨대 <신데렐라>의 사악한 계모와 이복자매를 비롯하여 동화에 등장하는 부정적 이미지의 인물들은 부모나 조부모 혹은 경쟁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분신이라고 하였다. 아이들이 가족들의 좋은 이미지를 보존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모순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낸 환상의 산물 중의 하나가 계모라는 베텔하임의 가설은, 전래동화가 생성되고 전승된 역사적 맥락을 도외시켰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나름의 의의를 지닌다.

<빨간모자>나 <신데렐라> 같은 민담이 생성된 근세초 프랑스 사회에서는 질병과 가난으로 인해 부모 중 한쪽을 일찍 잃는 경우가 흔했으며 이로 인해 계모가 급증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화 속 계모의 존재는 현실의 반영일 가능성이 더욱 크다.⁹⁸⁾ 하지만 동화를 비롯한 계모 이야기에 나타난 악한 계모의 형상은 단순한 현실반영을 넘어서서, 나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베텔하임이 지적한, 자애로운 어머니상의 보존을 위한 악한 어머니의 표상으로서의 계모는 아이들의 사회적 성장을 위한 수단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가 애초에

97) 강상순(「조선후기 장편소설과 가족 로망스」,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7집, 월인, 2003.)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일정 부분이 고전소설 연구의 한 방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조선후기 장편소설(특히 가문소설)에 적용하여 작품의 의미를 가부장적 가족구조와 가족로망스로 풀어냈다. 그에 따르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가족로망스 같은 이론들은 비록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아버지에게 금지와 법의 상징적 역할을 부여하고 어머니에게 자애로운 양육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가부장적 가족 질서 속에서 일반적인 설명력을 갖는다.

98) 로버트 단턴, 『고양이 대학살』, 조한욱 역, 문학과 지성사, 1996 참조.

노이로제와 같은 신경증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부모나 형제자매에 대한 특정한 환상을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족로망스는, 가부장적 가족구조 속에서 분리와 거세를 경험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는 환상이다. 가부장적 가족구조 속에서 자녀들이(혹은 가족구성원 누구라도) 겪게 되는 분리와 거세는 아버지에 의해 행해지지만, 어머니 또한 일정한 시기가 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 그 때 자애로운 양육자로서의 어머니의 이미지 보존을 위해 등장하는 것이 계모이며, 따라서 계모는 아이들의 사회적 성장, 즉 입사식을 돕는 원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계모로 인해 가정에서 분리된 전실자식은 배우자를 만나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거나, 사회적 인정을 받는 행위를 통해 외면적이고 내면적인 성장을 겪는다. 그리고 다시 가정으로 회귀하여 모든 누명을 벗고 가족의 일원으로 재인정을 받는다.

전실자식이 서사전개 속에서 이니시에이션의 과정을 겪는다는 증좌는, 전실자식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시점이 주로 성년 즈음(14-15세)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즉 혼인이 논의되거나 가장의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나이에 이르러, 계모의 모해가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또한 전실자식이 대부분 가정 밖에서 혼인을 하여 돌아온다는 점도 좋은 증좌라 하겠다.

전실자식의 이니시에이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어머니의 상징으로서의 계모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계모 이야기의 결말에 계모가 응징되어 그 존재가 철저하게 사라지는 것⁹⁹⁾과 그래도 어머니인 계모를 가장과 전실자식이 처참하게 응징한다는 것은, 계모의 애초의 역할 기능이 무엇이었는지를 암시한다.

<황월선전>이나 <콩쥐팍쥐전> 또한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니시에이션을 통하여 전실딸이 획득하는 자질은 작품마다 다르다. 특히 <연당전>은 다른 작품에서는 볼 수 없는 자식의 존재가 부각되면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

이니시에이션의 과정에 놓인 신입자들은 죽은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신입자들은

99) 특히 계모설화에서 더욱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니시에이션을 행하는 기간 동안 산 자의 공간이 아닌 죽은 자의 공간으로 여겨지는 격리된 공간에서 머물며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 수련을 거친다.¹⁰⁰⁾ 계모 이야기의 대부분에서 전실자식은 혼인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 그러나 <손 없는 색시>와 <연당전>에서는 특별히 자식이 등장한다. 따라서 자식이 등장하지 않는 다른 계모 이야기와 달리, <손 없는 색시>와 <연당전>에서는 자식의 존재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즉 전실딸의 혼인 이후에도 손목이 재생되지 않고, 자식을 낳아 그 자식에 대한 자연스러운 모성애의 발로로 손목이 재생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전실딸이 손목을 잘린 것은 낙태를 했다는 계모의 무고(誣告) 때문이다. 전실딸은 죽음의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 손목만을 잘린 채 쫓겨난다. 따라서 손목 절단은 순결성 훼손의 표징이며, 전실딸이 계모에게 낙태모함을 당했다는 것은 전실딸이 남녀의 관계를 통해 임신을 할 수 있는 나이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혼기에 찬 전실딸은 성적 긴장감이 내재된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 가정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전실딸은 손목이 잘린 채 배우자와 만나고 있는데, 설화에서는 나무를 매개로 만나고 소설에서는 몽조나 지인지감을 통해 만나고 있다. 전실딸은 배우자를 만나 혼인을 이루었지만 절단된 손목은 그대로이다. 이는 전실딸이 혼인만으로는 진정한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편이 과거를 보러 떠남으로서 부부의 일시적인 분리가 일어나는데, 이때 계모의 편지조작으로 전실딸 가정이 위기를 맞는다. 계모는 낙태모해를 통하여 전실딸의 순결성을 훼손하였듯이, 정상적이지 않은 아들을 낳았다는 편지조작을 통하여 전실딸의 생산성을 훼손한다. 편지조작에는 시부모에게 불효한다는 내용도 덧붙여 있는데, 보다 핵심적인 것은 온전치 못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라고 하겠다.

전실딸의 손목 재생은 시댁에서도 쫓겨난 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다가, 샘에 빠지는 아이를 무심결에 붙잡으려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이때 모성성의 획득이 물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면, 물이 표상하는 이미지가 ‘생생력 상징’, ‘영원

100) A. van Gennepe, 전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85, 6장 입사의례 참조.

한 생명력 상징', '여성 상징' 그리고 '풍요로움의 상징' 입을 볼 때¹⁰¹⁾ 전실딸이 한 어머니로 거듭나는 대목과 물의 상징성이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떠한 의도도 없는 자연스러운 모성의 발로로 비로소 손목이 재생되고, 전실딸은 한 어머니로서 거듭난다.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이 전실딸을 온전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점은, <손 없는 색시>와 <연단전>만의 특별한 면모이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은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후술하겠지만 전실딸의 배우자가 과거급제의 영화를 모두 뒤로 하고 아내와 자식을 찾아 떠나는 대목과, 아버지로서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자식과 상봉하는 대목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된 인간으로 거듭나는 하나의 길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전실딸의 모성성 획득과 한 어머니로서의 거듭남이라는 이니시에이션 과정은, 손이 재생되고 모친을 만남으로써 일단락을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전실딸은 계모를 용서하고 있었고,¹⁰²⁾ 또 친모의 말을 통해 전실딸의 모든 시련과 운명의 역정이 다 끝났음을 알 수 있다.

부인이 위로왈 네 팔자 그러한이 뉘을 한하리요 (중략) 부인왈 인저난 너의 익운이 다 지나쓰이 여기서 세월을 보너면 김학사을 만나 웬슈을 갑고 영화를 극진이 누리라 하더라 (조동일 소장본, 185-186쪽.)

부인 눈물을 나리며 가로디 이왕의 지닌 일은 도곰도 혼탄말고 무비전죄라 엇지 피할이요 어적기 니가 옥경의 올라가 너의 말삼을 쉼달하고 너을 이고 디다려다가 십연을 날과 혼가지로 잇사가 도로 인간의 나려가 평싱을 질기게하라 하시기너난 아즉 별궁의 잇써 세월을 보너라하니 (홍윤표 소장본, <연단전>)

101) 김열규, 『한국무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1, 295쪽 참조.

102) 쇼계 칭각하되 계모의 환이 안이명 이런 비필을 웃지 맞나리요. 웬슈간이 은인이 된다 말이 니게 두고 리은 말이로다. 세월을 티평으로 지너더니 (홍윤표 소장본 <연단전>)

‘액운이 다 끝났으니 천상계에서 세월을 보내면 남편이 찾아와 원수를 갚아줄 것’이며, ‘모친과 함께 세월을 보내면 다시 인간세상에 내려가 평생을 즐길 수 있다’는 말 등을 통해 계모에 대한 징치와는 상관없이 이미 전실딸의 시련은 끝나고 그 운명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니시에이션 과정의 형상화에서 설화와 소설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친모의 존재이다. 설화에서는 친모의 존재가 미약하게나마 나타나는 각편이 있는가 하면, 전혀 친모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각편도 있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친모의 존재가 부각되고 있으며, 친모는 천상계의 설정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나타난다.

설화나 소설에서 모두 전실딸의 공간 이동이 이니시에이션 과정과 맞물려 있다. 설화에서는 가정(친정)에서부터 출발하여 혼인을 통하여 이룬 가정(시댁)으로 옮겨가고, 다시금 가정 밖으로 나가 일정한 장소에 기식한다. 그리고 남편과 재회한 뒤에는 친정으로 돌아가 계모를 징치한다. 즉 설화에서는 전실딸이 혼인 전에 속했던 가정과 혼인 후에 이룬 가정이 중요한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전실딸의 기식 장소가 또 다른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천상계가 설정되어 이원적인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전실딸 연당이 기식하는 장소가 친모가 있는 천상계로 나타나며, 연당의 일생은 적강구조와 연계되어 천상계와 지상계를 오가는 순환구조를 보인다. 즉 연당의 태몽을 통하여 연당이 천상계에서 온 인물임이 암시되며, 지상계에서 계모로 인해 시련을 겪은 연당은 친모가 있는 천상계에서 머물다가 다시금 지상계로 내려온다. 그리고 계모를 징치한 후에는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천상계로 복귀하고 있다. 이렇게 소설에서는 더욱 복잡한 공간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실딸 중심의 통과제의적 구조가 적강구조와 맞물리고 있는 것이다.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계모의 환이 안이명 이런 비필을 웃지 맛나리요. 웬슈간 이 은인이 된다 말이 니게 두고 리은 말이로다.’라는 연당의 말처럼, 계모는 전실 딸에게 시련을 줌으로써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런데 소설의 경우 연당에게 시련을 주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은 계모이지만, 그러한 시련을 극복하여 한 어머니로 거듭나게 만드는 역할은 친모가 하고 있다. 친모의 구체적인 역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데, 때문에 설화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계모와 친모의 대립적 관계가 소설에서는 분명하게 성립되고 있다. 특히 친모는 계모를 응징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즉 천상계에서 친모가 준 석함에서 범이 나와 계모를 죽인다거나, 친모가 있는 천상계의 선관이나 옥황상제가 계모의 징치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 그 증좌이다.

낭주 요지궁의셔 다려온 종을 불너 초리로 니눈의 죽겨본니라 하시니 그 종이 변신히야 큰 버미되여 먼저 그 계모을 무려 죽기고 들치난 그 의술놈을 무려 죽이고 셋치난 종놈을 무려 죽게 원수을 다 갑툼 후의 판셔도 연당의 계모 죽근 일을 추호도 설월 아니하시다가 (홍윤표 소장본, 93쪽.)

부인이 보시다가 가로되 웃지 이거시 계모의 죄리요 이거시 다 니 죄로소이다 만단이결한디 선관이 듯지 안이히시고 양씨 죄을 낫낫치 이르고 만인중의 벼락치거날 으사 모다가 심각히리 요지의 김부인이 석함을 쥘며 활 만일 무삼 변을 만나거던 석함을 열어보라 히여거날 보리라히고 여려보이 불근 안기 자속히며 큰봄이 니다라 벼락친 신체을 물고 가거날 (조동일 소장본, 47쪽.)

이처럼 소설에서는 계모와 친모의 대립적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가정 내 여성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즉 설화에서는 전실딸과 계모가 각각 입사식을 수행하는 당사자와 입사 주도자라는 상징적 관계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면, 소설에서는 친모와 계모의 대립적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다분히 가정갈등적 성격이 드러난다 하겠다. 그러나 설화와 소설 모두 전실딸의 이니시에이션을 중요한 의미로 삼

고 있으며, 더불어 소설에서는 친모가 자신의 모성으로서 딸이 모성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있어서 모성이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손 없는 색시>와 <연당전>은 전실딸의 이니시에이션 과정을 형상화하는 가운데 전실딸의 손목 절단과 재생 모티프가 작품의 의미해석에 중요한 열쇠로 기능하면서, 모성성의 획득으로 한 어머니로 거듭나는 전실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2) 아내 탐색담과 전실딸 가정의 복원

손목이 재생되어 일정한 장소에 기식하고 있는 전실딸이나 친모와 함께 천상계에 머물러 있는 연당은 이미 모든 시련을 극복하였다. 따라서 남편과 재회하고 계모를 징치하여 다시금 가정을 온전히 이루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부부의 재회와 계모를 징치하기 위한 친정으로의 귀환은 남편의 몫으로 돌려진다. 소설에서는 남편이 모든 것을 마무리할 것임을 문면에 명시하고 있다.

남편이 아내 탐색담을 통해 전실딸 가정을 복원하는 것은 <손 없는 색시>와 <연당전>만의 특별한 면모이다. <황월선전>이나 <콩쥐팍쥐전>에서도 전실딸의 배우자가 등장하지만, 진정한 남주인공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이 작품들의 의미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두 작품에서는 전실딸인 월선이나 콩쥐에게 서사의 초점이 있다. 반면 <손 없는 색시>와 <연당전>에서는 부부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가정의 형상화에 주안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남편의 아내 탐색담으로 구체화된다.

계모의 편지조작으로 전실딸 가정은 위기를 맞이한다. 그러나 남편은 온전치 못한 자식을 낳았다는 편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전실딸과 그 자식을 내쫓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를 쓴다. 또한 과거급제 후 아내와 자식이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는 주저함도 없이 아내와 자식을 찾아 나선다. 설화에서는 옛장수나 방물장수가 되어 오랜 세월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표현되며, 소설의 경우 원조자의 도움을 받아 천상계로의 여행을 떠난다.

그래마 북 바대 그놈을 인자 좀 띠이 가주고 어니 어데가 살아도 안 처백
 히가 안 사나, 안 살겠나 싶어. 인자 함 만나나 보고 죽을라고 카민서 결
 심을 딱 하고 인자 북 바대 그놈을 인자 사가주고 짚어지고 참 골골마징 다
 찾아 댕겼어. [청중 : 과거를 모했던가?] 과거를 해가주고 와도 그 처녀 때미
 래 아무 거도 몬 해 묵어. 그래 그 놈을 지고 인자 골골마징 다 찾아 댕겼
 다. (<각편 3>)

권형니 밤을 게오 지내고 직시 기을 더나가니 맛츰 혼고되 다다르니 돌북
 쳐 완연니 안즈거날 말게 내려 곡제고 추구흔되 스르되 영금호신 부쳐님 덕
 분의 안히을 초즈 보게 인도호게 호압소셔 하며 빌거날 마지 아니호거날 분
 득 불북쳐 강독하야 같오되 이시며 무슴일노 안히을 일어다가 주시 이러라
 호거날 권형니 다시 지비호고 엿자오되 권승서의 아달 권형니압더니 천원을
 집스와 할님 벼슬호압드가 집으로 도르오니 엿초엿초호온 일노 낙사드호오
 니 초즈드니압나니드 호니 돌북쳐 이욕고 심각호시드가 이로되 정성니 지극
 호드 호고 이러며 이리가라 호여 칠를찰석의 견우직여 궁이 이슬거시니 무
 어면 네 안히 간 곳을 알아라 호거날 권형니 스러호고 오칙을 초즈가더니
 (중략)

혼곳되 다다러니 인적은 업고 크 바다 압피가러난지라 바리보니 기러기난
 날빛츰 희호고 물결은 쉼난듯 일광은 명낭호고 물결은 뒤난지라 권형은
 의오을 일코 갈곳을 모라 슬픔을 이기지 못호야 물의 안즈 바중니더니 호련
 그 바드혼 안기 주옥호며 그 가온되로써 간치소리나더니 안기 거더치며 혼
 선여 권현을 무러거날 권형니 놀니여 눈을 드러보니 바드의 전의 업던 다리
 노히거날 이난 오죽고로도 권형 세오되 진실노 호날님이 안히을 만니게 호
 고 그 드리을 건너여 정쳐업시 가더니 혼곳되 다다러니 손수와 풍경니 거룩
 호고 소목은 텅텅흔되 바람길의 혼 흥니을 짜루 가더니 압의여 호 궁니시되
 뵈옥지주의 황금지와을 이어거날 식면으로 도라보니 봉황난직이며 빅혹청학
 니 념노난지라 진실로 선성일네라. (홍윤표 소장본, 70-73쪽.)

<각편 3>처럼 설화에서는 과거급제의 영화를 뒤로 하고 ‘북 바대’ 등을 가지고
 방물장수가 되어 고을마다 아내와 자식을 찾아다닌다. 그러한 세월이 한 두 해가

아니라 아들이 꽤 장성할 때까지, 각편마다 차이는 있지만 10여 년에 이르는 세월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설에서는 돌부처나 선관 선녀 등의 도움을 받아 아내가 있는 선계로 들어가지만, 그러한 신이한 원조자들의 도움이 아내탐색의 여정을 고난 없는 쉬운 길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남편 권형은 연당과 자식을 찾아 정처 없이 떠도는데 이는 설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다.

전실딸이나 연당에게는 신이한 일이 일어나고 일상적이지 않은 원조자가 등장한다. 그에 비해 남편의 아내탐색 과정은 신이성이 약화되어 있으며, 특히 설화에서는 더욱 남편의 눈물겨운 노력이 부각된다. 따라서 전실딸이나 연당이 모성성을 획득하는 과정이 신화적 상징의 차원으로 형상화되고 있다면, 남편이 아내와 자식을 찾아 재회하여 가정을 복원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사실적이며 꼭진하다.

남편이 아내를 만나기 전에 한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자식과 먼저 만난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핏줄의 끌림으로 서로를 알아본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에 이어, 부부의 재회가 이루어진다. 설화 각편이나 소설 이본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지만 아내와의 상봉 이전에 자식과의 만남이 먼저 이루어진다. 이때 부자상봉의 과정에 특별한 신물이나 징표가 사용되지 않고, 본능적인 지각이나 자식이 아버지를 불러 상봉하는 것이 주목된다. 특별한 신물이나 징표 없이 부자상봉이나 부부재회가 이루어지는 장면은 서사의 극적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남편의 의지가 부각되면서 탐색과정이 보다 사실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과 연계하였을 때에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설정이다. <연당전>에서는 권형이 아들의 호부를 세 차례나 부인하고 있으며 연당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비로소 부자상봉과 부부재회가 성사되지만, 부부의 재회에 자식의 존재가 중요하게 부각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하겠다.

설화나 소설에서 모두 부부재회에 자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과 아버지가 이미 커버린 자식을 한 눈에 알아보는 것은, 전실딸이 아들을 살리려 무심결에 없는 손을 내민 것과 상통한다. 즉 자식에 대한 모성애나 부성애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의 발로이자 인지상정임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전실

성숙을 이루었고, 또한 진정한 아버지로 거듭나기 위한 정신적인 성숙을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내와 자식을 찾아나서는 탐색의 길로 들어섰던 것이다. 따라서 설화와 소설의 이야기 속에는 여주인공의 모성성 획득을 위한 통과제의뿐만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가 되기 위한 남편의 통과제의가 함께 나타남으로써 조화로운 면모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순금전>이 <손 없는 색시> 설화의 온전한 소설화가 될 수 없는 것도 남편인 목선의 역할 비중이 줄어들고 오히려 이복 남동생인 황생의 역할이 더 부연됨으로 해서, 남편의 이니시에이션 과정이 제대로 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바보 천치인 목선이 천하의 명문장이 되고 과거에 급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순금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오히려 순금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능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남편의 아내 탐색담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순금전>은 <손 없는 색시>와 <연당전>의 중요한 의미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실딸이나 연당에게는 자식의 존재가 중요한데, <순금전>에서는 자식의 존재가 소거됨으로 해서 본질적인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김연단전> 역시 마찬가지이다.

<손 없는 색시>나 <연당전>에서는 전실딸의 혼인이나 그 배우자의 과거급제 등이 커다란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혼인보다도 자식의 존재가, 과거급제보다도 아내와 자식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형성한다. 반면 <순금전>에서는 순금의 혼인이나 남편의 과거급제가 많은 의미를 지닌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진정한 남주인공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전실딸 순금이 서사의 주체로서, 혼인을 통하여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남편을 과거급제시키는 순금의 개인적인 성숙에 초점이 있다. 이는 <황월선전>과 관련이 있는 <황화일엽>과 맞는 점이다. <순금전>은 <손 없는 색시>와 <황화일엽>이 착종된 설화 및 <연당전>, <황월선전>과 복잡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서사전개는 <손 없는 색시>나 <연당전>에 더욱 가깝다. 그러나 자식의 존재와 탐색담이 결여되어 있어서, 작품의 지향하는 의미는 <황화일엽>에 맞닿아 있는 것이다.

<김연단전> 역시 자식의 존재가 소거되어 있고 남편의 탐색담이 나타나지 않으며, 전실딸 연단의 개인적인 능력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순금전>과 유사하다. 그런데 자식의 존재 대신 이복남동생 칠선의 부각되어 있으며, 남편의 아내 탐색담 대신 칠선을 살리기 위한 연단의 약물 탐색담이 나타난다. 선한 이복남동생의 존재가 부각된다는 점은 <황월선전>과 상통한다. 그러나 <황월선전>의 선한 이복남동생이 가정화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김연단전>에서는 연단과 칠선의 우애만이 강조될 뿐 계모를 용서하거나 어머니로서 받아들이는 가정화합에 칠선이 어떠한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

칠선을 살리기 위한 약물 탐색담은, 혼인을 통하여 시련을 극복하고 남편을 가르쳐 과거급제 시키는 등 연단의 개인적인 능력을 표출하는 과정에 부가되는 또 하나의 설정으로 보인다. 즉 혼인 및 남편 과거급제 시키기와 약물로써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능력까지, 모두 연단의 이니시에이션 과정에서 획득되는 성숙의 표징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실딸의 손목 재생 및 절단 모티프와 연계된 자식의 존재와 남편의 아내 탐색담은 <손 없는 색시> 설화와 <연당전>의 본질적 의미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손 없는 색시> 설화 각편 중 <황화일엽>과 착종되어 아내 탐색담이 결락되어 나타나는 각편들은, 전실딸의 모성성 획득에만 집중함으로써 전실딸 중심의 이니시에이션 과정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순금전>이나 <김연단전>은 자식의 존재가 소거되고 아내 탐색담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서사적인 외형은 <손 없는 색시>나 <연당전>과 유사하지만 지향하는 의미는 달라진다. <순금전>은 혼인과 남편을 과거급제 시키는 순금의 능력을 통해서, <김연단전>은 여기에 약물 탐색을 통해 칠선을 되살리는 과정이 부가되면서, 두 작품 모두 전실딸 중심의 이니시에이션 과정과 그에 수반되는 성숙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2. 전실딸의 주체적 삶의 획득과 가정갈등에 대한 모색 : <황월선전>

1) 부녀갈등과 전실딸의 주체적 자기인식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에 집중하는 계모 이야기에서 서사의 주체는 전실자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실자식을 서사의 주체로 보았을 때, 계모 이야기는 전실자식의 이니시에이션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고찰한 <손 없는 색시> 및 <연당전> 역시 전실딸의 모성성 획득이 이니시에이션의 결과 얻어진 자질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황화일엽>과 <황월선전>에서도 전실딸이 혼인을 통하여 시련을 극복하고 있으며, 서사전개에 있어 전실딸의 혼인은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실딸의 혼인을 통한 시련 극복과정의 구체적인 면면은 <손 없는 색시>나 <연당전>과 사뭇 다르다. 때문에 전실딸이 이니시에이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자질도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황화일엽>과 <황월선전>은 전체적인 서사를 공유하지만, 다른 작품들에 비해 설화와 소설 간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특히 전실딸의 면모에 있어서 설화와 소설의 간극이 보인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황화일엽>과 <황월선전>이 지향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설화와 소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실딸의 이니시에이션 과정이 서사 전체에 걸쳐 형상화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전실딸이 얻게 되는 자질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하게 나타난다.

계모는 전실딸을 낙태모해하거나 간부부정을 꾸며, 가장과 전실딸 사이에 갈등을 형성시킨다. 아버지와 딸 사이의 성적 긴장감이 딸의 이니시에이션 과정의 첫 단계로 나타나는 것은, 전실딸이 배우자를 만나 혼인에 이르러 그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다. 혼인 적령기에 이른 딸이 아버지와 성적 긴장감이 수반된 갈등을 형성하고 가정 밖으로 나가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여 돌아오는 일련의 서사는, 전실딸이 등장하는 계모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니시에이션 과정이다.

<황화일엽>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전실딸의 남북개착과 도주 - 정혼자와의 만남과 동문수학 - 혼인 - 배우자의 과거급제 - 시를 통한 아버지와의 재회 - 계

모 정치'로 전개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실딸이 획득하게 되는 자질은 주체적인 자기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버지의 딸'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정을 일군 아버지와 재회를 적극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전실딸은 보다 주체적인 삶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황화일엽>의 전실딸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적극적인 면모는 서사전개를 통하여 잘 드러나고 있다. 남북을 개척하고 스스로 정혼자를 찾아가 혼인하고 있다는 점과, 한 가정을 이루어 '아버지의 딸'이 아닌 '한 남성의 아내'가 되었지만 새롭게 일군 가정을 주도하는 것은 전실딸이라는 점이 그렇다.

한편 <황화일엽> 설화에서 나타난 전실딸의 행보는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 설화의 전실아들의 것과 유사하다.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 설화에서 전실아들은 계모의 흉계로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를 맞는데, 하인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긴다. 그리고 하인이나 대감집의 도움을 받아 혼인을 하고 과거급제를 이루어 시련을 극복한다. 그리고 가정으로 귀환하여 아버지와 재회하고 계모를 징치하여 계모로 인한 가정갈등을 종식시킨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에는 성적 긴장감은 없으나, 계모로 인해 부자갈등이 촉발되고 그로 인해 시련을 맞은 전실아들이 시련극복 후 보다 성숙하게 거듭난다는 점은 <황화일엽>의 전실딸과 상통한다. 특히 혼인과 과거급제를 통해 주체적인 삶을 획득한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황화일엽>의 전실딸은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 설화처럼 스스로 과거급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과거급제를 도와주는 차원에 머무른다. 그러나 배우자보다 우월한 능력으로 배우자의 학문적 자질을 키워주고 있으며, 과거를 보러 동행해서는 과거 시지를 바꾸어 배우자의 급제를 돕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곧 전실딸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자갈등으로 인해 가정 밖으로 나간 전실아들이 혼인을 하고 과거급제를 이루어 다시 가정으로 귀환하는 과정은 전실아들의 이니시에이션 과정의 형상화이면서, 이때 전실아들은 과거급제로 상징되는 개인적인 성취를 통해 가권계승을 위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즉 혼인이 성숙의 표지라면 과거급제는 능력의 발현

인 것이다.

<황화일엽>의 전실딸 역시 혼인을 통하여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존재임을 증명하였고, 동시에 배우자의 과거급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배우자의 과거급제는 전실딸의 개인적인 성취에 다름 아니다.

<황화일엽>이 전실딸의 이니시에이션 과정을 형상화하되,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획득하는 자질이 주체적인 자기인식으로 나타나며 또한 부녀갈등이 보다 부각되어 있다는 점은 이 이야기가 <온달> 설화를 비롯한 <내 복에 산다> 설화¹⁰³⁾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지하다시피 <온달>과 <내 복에 산다> 설화는 부녀갈등으로 축출된 딸이 미천한 인물을 배우자로 만나 혼인하고, 배우자의 능력을 키우거나 부를 획득하여 아버지와 화해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표 7 - '온달' · '내 복에 산다' · '황화일엽'의 비교>

	부녀갈등 구성	부녀 이별	딸의 고난	고난극복 계기	고난극복	부녀 재회	부녀갈등 해소
온달	부왕의 허언(虛言)	부왕의 딸 축출	온달을 찾아감	온달과 혼인	온달을 가르쳐 공을 세우게 함	부왕이 공을 세운 온달을 부름	부왕이 딸과 온달을 정식으로 혼인시킴
내복에 산다	부친의 잘못된 물음	부친의 딸 축출	정처 없이 떠돌	숫구이 총각과 혼인	남편의 일터에서 생금장 발견	거지가 된 부친이 찾아옴	부친이 딸의 복을 인정함

103) 이 설화 유형에서는 딸이 '누구 덕에 먹고 사느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내 복으로 먹고 삽니다'라고 대답하여 그것이 부녀갈등을 유발하고, 결국 딸의 대답이 옳았음이 증명되는 것이 서사전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숙(「여인발복설화의 연구」, 『한국설화문학연구』, 집문당, 1994, 9-127쪽 참조.)은 <온달>, <무왕> 설화 및 <숫구이 총각의 생금장>, <내 복에 산다> 등을 <쫓겨난 여인 발복담>으로 함께 다루고 있기도 하다.

황화 일엽	계모의 모해	부친의 딸 살해 지시와 딸의 도주	정혼자를 찾아감	정혼자와 동문수학 및 혼인	남편을 과거금제 시킴	친정에 들러 시를 남김	계모를 장치하고 부녀가 상봉함
----------	-----------	-----------------------------	-------------	----------------------	-------------------	--------------------	---------------------------

<온달> 및 <무왕> 설화와 <내 복에 산다> 설화 등이 같은 유형으로 묶일 수 있음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논의된 바 있다. 모두 부녀갈등과 그 해소를 다루고 있으며, 그러한 부녀갈등과 해소의 과정 속에 딸이 주체적인 삶을 획득하는 것 등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황화일엽> 역시 부녀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다만 부녀갈등에 계모가 개입되어 삼각갈등 구조가 형성되며, 따라서 부녀갈등의 해소에 계모에 대한 응징 과정이 수반된다.

<온달>과 <내 복에 산다>가 직접적인 부녀갈등을 다루고 있다면, <무왕>과 <황화일엽>은 의도는 다르지만 각각 서동과 계모의 모해가 부녀갈등을 유발한다. 또한 <온달>과 <내 복에 산다>는 부친의 부당한 권위주의에 딸이 반발함으로써 갈등이 유발되며, <무왕>과 <황화일엽>은 제3자에 의한 딸의 정조 모해로 부녀갈등이 형성된다.

이렇게 부녀갈등의 형성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해소의 과정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서도 각 설화간 유사성 때문에 착종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서사의 주체를 딸로 보았을 때 각 설화들이 드러내는 의미 또한 유사하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 딸의 주체적인 삶의 획득이라고 하겠다.

딸이 아버지와 갈등을 이루게 되는 것은 아버지가 딸을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체적인 존재인 딸은 <온달>에서는 부왕의 허언(虛言)을 질타하는 것으로, <내 복에 산다> 설화에서는 아버지의 덕이 아닌 자신의 복으로 먹고 산다는 말로 자신의 자아를 표출한다. <무왕>과 <황화일엽>에서는 부녀간의 믿음이 제3자에 의해 깨어지는데, 아버지가 딸의 결백함을 믿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잘못이 부각된다.

딸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는 딸을 쫓아내거나 죽이는 것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딸은 미천한 배우자를 만나서도 자신의 능력으로 부와 명예를 획득한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화해를 이루는데, 부녀간의 화해는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온달>이나 <내 복에 산다>에서는 아버지가 딸의 주체적인 결단과 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무왕>과 <황화일엽>의 경우 딸의 결백이 드러나면서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 <황화일엽>은

계모를 응징하고 딸을 찾아감으로써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설화의 구체적인 면면은 차이가 있지만, 부녀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딸을 서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딸의 자아인식과 주체적인 삶의 획득을 중요한 의미로 삼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다. 그리고 혼인의 과정이 수반된다는 것 또한 동일한데, <무왕> 설화를 제외한 <온달>이나 <내 복에 산다> 설화에 등장하는 딸의 배우자는 진정한 남주인공이라기보다는 딸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적 인물이다.¹⁰⁴⁾ 마찬가지로 <황화일엽>에서도 전실딸의 배우자는 그 존재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 설화들이 지향하는 의미는 부녀갈등을 통한 딸의 주체적 자기인식에 있기 때문에, 딸의 혼인이나 배우자 또한 그러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자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적 전통 속에서 <황화일엽>이 전실딸의 주체적 삶과 자기인식을 이니시에이션 과정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황월선전>의 월선은 전실딸과 비슷한 행보를 통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의 가정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개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황화일엽>의 전실딸과 비교하였을 때, 그 적극적인 면모와 개인적인 성취의 정도는 반감되고 있다.

<황월선전>에서도 월선은 계모의 모해로 아버지와 갈등을 빚고 죽음의 위기를 맞는다. 이복남동생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한 월선은 장위를 만나 혼인한 후, 장위의 양주목사 부임지에 동행하는 길에 친정에 들러 그간의 사연을 적은 글을 남겨 가족과 재회한다. 그런데 월선의 이러한 고난극복의 과정은 <황화일엽>의 전실딸과 다소 다르다. 남장을 하고 스스로 정혼자를 찾아갔던 전실딸과 달리, 월선은 천상계의 원리에 의해 정해진 운명을 따라 원조자의 도움으로 안내되고 있다.

104) 임재해(「온달형 설화의 유형적 성격과 부녀갈등」,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박이정, 2000, 135-136쪽 참조.)는 <내 복에 산다>와 같은 설화를 숯구이 총각과 딸을 남녀주인공으로 하여 그 둘의 갈등문제나 사랑을 다룬 이야기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딸의 배우자는 부녀갈등에 부수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보았다. 이야기는 자아와 세계의 대립으로 존재하고 구조로서 표현되는데, 이때 자아는 의식과 행위의 주체가 되는 딸이며, 자아의 주체적인 삶이 세계에 의해 부정되는 양상이 부녀갈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자아의 의지는 대립관계에 있던 세계에 의해 인정받고 지지를 얻음으로써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이며, <내 복에 산다>와 같은 설화에서 부녀갈등이 해소되는 과정도 이와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장위 또한 전실딸의 배우자처럼 우둔한 인물이 아니라, 관상점을 통해 월선의 인물됨을 알아보며 또한 스스로 과거급제를 이루고 있는 비범한 인물이다. 더불어 월선의 사연을 듣고 월선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월선의 태몽에서부터 월선의 삶이 운명론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점이 월선의 적극적인 면모를 반감시킨다. 즉 선한 이복남동생 월생, 운명적으로 정해진 배우자 장위, 천상계의 원리와 그에 따른 신이한 원조자 등이 월선의 시련극복에 개입하면서 월선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면모가 희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월선이 <황화일엽>의 전실딸에 비해 적극적인 면모가 덜 한 것은, 설화에서 소설로 오면서 전실딸의 개인적인 성취보다는 가정의 문제에 집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는 계모와 가정갈등에 보다 초점을 맞추면서, 설화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선한 이복남동생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계모의 악행을 알면서도 가정의 평안을 위해 어찌지 못하는 가장의 번민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월선은 계모를 징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행을 용서하고 화해를 청하면서, 가정갈등을 원만히 봉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황화일엽> 설화에서는 계모가 용서되는 경우가 없으며, 모두 가장에 의해 징치되고 있다. 전실딸은 계모의 존재를 특별히 염두에 두지 않으며, 아버지와의 재회를 희망할 뿐이다.

이렇게 <황월선전>에서는 가정갈등의 봉합을 위한 모색이 보다 부각되면서 월선의 적극성과 더불어 주체적인 자기인식의 면모가 희석되는 경향이 있지만, 계모와의 관계 속에서 월선의 적극적인 자기인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즉 <황화일엽>에서는 전실딸의 개인적인 성취에 초점을 두고 전실딸의 주체적인 자기인식을 드러내고 있었다면, <황월선전>에서는 개인적인 성취보다는 가정갈등에 보다 주목하면서 월선의 주체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월선은 계모에게 모함을 받을 당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계모에게 애원하고 슬피 울 뿐이다. 가정 밖으로 나간 뒤에는 자살을 결심하기도 하는 등 매우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혼인을 하고 시련을 극복한 뒤에는 친정에 들러 글을 남겨 가족과의 재회를 꾀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특히 계모에게 별주를 주며 그간의 잘못을

들취냄과 동시에 용서와 화해를 청하는 장면을 통해, 월선이 가정갈등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사의 초반에 계모와의 갈등에 무력한 모습을 드러냈던 것과 대조를 이루면서, <황화일엽>과는 또 다른 각도에서 전실딸월선의 주체적인 자기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양소저전>에서는 <황화일엽>에서 나타났던 전실딸과 유사한 양상으로 전실딸 일점의 주체적인 삶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황화일엽>에서 나타났던 남장 모티프를 비롯하여, 과거 시지 바꾸기 및 한시 남기기 모티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더불어 여성영웅소설과의 교섭을 통하여 군담 모티프를 삽입하고 후반부 서사를 확장함으로써, 전실딸 일점의 개인적인 능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일점의 영웅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계모 허연선으로 인한 가정갈등은 서사의 초점에서 비껴가는데, 계모 허연선은 일점과 상관없이 서사의 전반부에서 응징되고 다만 그 공모자인 몽랑과 김철만이 일점의 노력으로 처단될 뿐이다. 즉 일점의 개인적인 성취에 서사의 초점이 옮겨가면서 계모로 인한 가정갈등이라는 주제의식은 희석되고, 일점의 영웅적인 삶을 형상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황화일엽>, <황월선전>, <양소저전> 등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부녀갈등으로 가정에서 소외된 전실딸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체적인 자기인식과 개인적인 성취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화일엽>에서는 그것이 혼인과 과거급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황월선전>에서는 가정갈등의 면모가 부각되면서 월선의 개인적인 성취는 반감되지만 오히려 가정갈등에 대응하는 월선의 태도를 통해 월선의 주체적인 자기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양소저전>에서는 혼인과 과거급제 외에 전란에서의 활약 등을 통하여 전실딸 일점의 영웅적인 삶을 강조함으로써, 일점의 주체적인 자기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 선한 계모소생의 등장과 가정갈등에 대한 인식의 변모

<황월선전>에서 전실딸 월선의 적극적인 자기성취가 설화에서보다 희석된 것은, 계모로 인한 가정갈등의 문제에 보다 집중하였기 때문이라고 앞서 밝힌 바 있다. 설화에서는 전실딸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는 원조자가 대부분 하인으로 나

타나며 선한 이복남동생이 원조자로 등장하는 것은 한 편밖에 없다. 그런데 소설에 와서는 선한 이복남동생의 존재가 고정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정갈등으로 인해 빈민하는 가장이 모습이 그려지고 있으며, 계모에 대한 무조건적 응징이 아닌 용서와 화해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설화와 소설의 이러한 차이는 작품세계의 의미를 달라지게 한다. 또한 <황월선전>에 드러나는 계모에 대한 인식은 다른 계모형 고소설과도 차이가 있다. 이본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듯이 <황월선전>은 이본 간 결말부의 차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계모형 서사의 전체적인 판도 안에서도 독자적인 결말을 보인다. 즉 계모와 전설자식 간의 화해와 그로 인한 계모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온전한 편입이 드러남으로써, 계모와 전설자식의 관계가 훼손되는 계모형 서사의 보편성에서 이례적인 변모를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말 부분의 변모는 선한 계모소생의 존재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황화일엽> 설화에서는 선한 이복동생의 존재가 드러나는 각편이 1편 있을 뿐이고, 나머지 각편에서는 하인의 도움으로 전설딸이 목숨을 구하여 남장을 하고 길을 떠난다. 소설에서는 예외 없이 선한 이복남동생이 있어서 월선의 죽음을 막고, 전체서사에서 큰 존재감을 획득한다. 따라서 <황월선전>의 선한 계모소생은 계모형 서사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이례적이고 새로운 존재이다.¹⁰⁵⁾

계모소생 월생은 월선과 돈독한 우애를 나누며, 오히려 자신의 친모인 박씨와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거시 외연일고 박씨을 원망하니 박씨 월성을 디척하여 왈 나무자식 힘
실 엿서한줄 엿지 자시 아냐 너난 경거한 마암미 에미 원망말나하고 낮빛치
불그며 푸르며 도로히 척망하니 월성이 하일업서 월선의 방의 드러가니 (김
광순 소장본, 187쪽.)

105) <연당전>에서도 선한 이복남동생이 등장하여 전설딸 연당과 돈독한 우애를 쌓으며, 연당이 계모의 흥계로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돕는다. <김연단전>에서는 연단이 이복남동생 칠선을 살리기 위해 탐색여행을 떠나고 있기까지 하다. 그러나 선한 이복남동생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연당전>에서 계모는 철저히 응징되고 있으며, 계모의 정치에 천상계에 있는 친모를 비롯하여 신이한 원조자들이 가담하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소생이 전실딸 월선의 편을 들자 ‘낮빛치 불그며 푸르며’ 분을 삭이지 못한다. 그러나 월선에게는 죄가 없으며 박씨의 흥계로 위기에 빠진 것임을 알고 있는 월생은, 자신의 친모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월선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때문에 <황월선전>에는 가족관계의 미묘함과 가족갈등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이 드러난다. 계모와 전실딸이 갈등을 맺는 것은 동일하지만, 선한 계모소생이 이들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단순한 갈등관계를 넘어선다. 월생은 그 어미(계모)의 악행을 타하며 월선의 편에 선다는 점에서 월선의 조력자이다. 그러나 월생의 존재는 단순히 월선의 조력자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황공이 월생 때문에 계모 박씨의 악행을 알고도 응징하지 못하는 것과, 월선에 대한 월생의 우애 있는 행동 및 자신의 어미 때문에 희생당한 월선을 찾아 갖은 고생을 마다않는 월생의 모습을 주목해야 한다. 즉 월생은 가족갈등 사이에서 가장 번뇌하는 인물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박씨가 월생이라는 자신의 소생을 낳았기에 그 악행을 별주지 못하고 번뇌하는 황공의 모습도 의미가 있다.

황공이 듯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박씨을 죽기여 분을 풀고저 하되 심을 보와 죽기들 못하고 원망한이 박씨 낮빛치 없어 죽을 스람 갖더라. (박순호 본 소장본, 682쪽.)

더불어 계모 박씨의 인물형상 또한 무조건적인 악인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를 갖춘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인물은 절색이나 성품이 혹독하다고 표현되어 있는 2종의 이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물이 좋고 덕행을 갖춘 여성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황공의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월선에 대한 모해를 계획하게 되며, 그러한 불만은 자신 소생의 월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전답 문서을 너여 녹코 왓 이길노 도라오기 어려우니 쏘 스라 도솔지라도 분집하리라하고 월선은 빅 말낙을 주고 월싱도 빅 말낙을 주고 그 나문 거 난 부인을 댁기고 노비등을 각각 지명하며 부인을 모시고 월선 월싱을 전티

안치고 눈물을 먹임고 써나려 하거날 부인이 실허하여 왈 평한이 다녀오소서 하고 이별하더이 월선을 제 방의 드러가 실피 운난지라 잇씨의 박씨 황공 써나가신 후의 전답을 팔과 아덜고 차등업시 주멸 시기하여 (박순호 소장본, 617쪽.)

재산분배에만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자신 소생의 자식에 대한 황공의 홀대에 불만을 품은 것이라는 점에서, 계모 박씨의 월선에 대한 시기심은 월생의 어머니라는 측면에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다.¹⁰⁶⁾

이렇게 <황월선전>에는 주된 갈등을 겪는 계모 박씨와 월선 못지않게, 박씨와 황생 및 월선의 관계와 가장인 황공과 박씨의 관계까지 가족갈등의 미묘함이 드러나며, 계모 박씨의 인물형상 또한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리(情理)를 지닌 존재로 나타난다. 단순히 계모를 징치하여 가족구성원에서 소외시킴으로써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던 <황화일엽>과 달리, <황월선전>에는 가족간의 다양한 갈등과 애증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가족갈등의 해법 또한 계모 응징이라는 단순한 국면이 아닌, 계모소생과 전실자식의 우애를 비롯하여 계모와 전실자식의 화해라는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즉 대부분의 계모 이야기에서 가장이 계모를 징치할 때 특별히 계모의 악행에 동참하지 아니한 그 소생까지 처참하게 응징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선한 계모소생 때문에 계모까지 가장 및 전실딸과 화해를 이루는 것은 <황월선전>의 독자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겠다.

<황월선전>은 귀환한 월선을 통해 가장이 계모의 악행을 알고 직접 응징하는 것은 2종의 이본에서만 나타나며, 월선이 별주를 통해¹⁰⁷⁾ 혹은 위로를 통해 계모

106) 정하영(「고소설에 나타난 모성상」, 『구비문학연구』 제4집, 한국구비문학회, 월인, 2002, 221-247쪽.)은 신화에서는 ‘낳는 일’에 중점을 둔 ‘어머니 되기’를 중시하고, 설화는 ‘기르고 돌보는 일’에 중점을 둔 ‘어머니노릇 하기’가 주로 나타나며, 소설은 이 두 가지를 아우르며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고소설은 ‘성스럽고 고귀한 존재’로 어머니를 인식하면서도 문제적 인물을 등장시켜 바람직한 어머니상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모가 자신의 소생을 위해 악행을 마다않는 것도 적극적인 어머니 노릇하기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계모와 같은 악인형 인물을 긍정적 모성상의 탐색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07) 월선이 계모에게 별주를 내려 망신을 주는 것도 일종의 징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계모를 처참하게 죽여 응징하고 철저히 가정에서 배격하는 계모 이야기의 일반적 결말에 비하면 이것은 화해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와 화해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술을 부어 들고 박씨을 권하여 월 계모님은 날을 심각하여 며물묵 주던
은혜온이 자부시오 박씨 낮밧치 변하여며 바다 먹거날 또 한잔을 부어 들고
이 존은 나을 어도온 방의 뉘피고 흥악흔 일을 흐려 흐고 씩이든 은혜온니
자부소서 박씨 또 바다 먹거날 또 혼잔을 부어들고 이난 나을 낙티하였다
흐고 모흠흔든 은혜온이 주부소서 혼니 박씨 으러나 여러 잔을 먹으니 술이
디취하여 염치를 모르거날 또 한잔을 부어 들고 이거난 오늘날 이별주온이
주부소서 한니 박씨 박거날 선이 이러나며 흐직흐고 계모님은 니니 무양흐
흡소서 나난 지성으로 가온이 일후의 반가이 보옵소서 흐고 나온니 (박순호
소장본, 700쪽.)

월선이 별주를 통하여 화해를 청한 이후에도 계모 박씨가 가장인 황공의 생일 잔치에서 천벌을 받아 죽음으로써 응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계모 박씨와 월선의 관계가 훼손된 것은 아니다. 비록 계모 박씨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천벌을 받아 죽었지만, 죽은 계모를 월선과 월생이 선산에 안장하는 장면을 통해 박씨가 가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가족구성원으로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계모가 천벌을 받아 죽는 장면은, 가정 갈등을 일으킨 계모에 대한 징치의 의미 보다는 천상계 설정과 인과적으로 맞물린 것으로 보여진다.¹⁰⁸⁾ 계모가 천상계의 양화를 받아 죽었지만, 월선과 월생이 계모를 선산에 안장한다는 것은 이미 계모를 가족구성원으로, 어머니로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계모가 천벌을 받아 죽는 것이 가족갈등의 소산이었다면, <연당전>과 같은 결말로써 충분했을 것이다. 즉 <연당전>에서도 천상계의 원리가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계모의 징치에 천상계 인물들이 합세하는 양상을 보인다. <연당전>에서는 <황월선전>처럼 시차를

108) 김민조(앞의 글 참조)는 별주단락과 천벌단락의 차이에 대해, 전자는 악행을 저지른 계모에 대한 징치와 계모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화해와 화합의 의미라고 하였다. 반면 천벌단락에 대해서는, 적강소설의 구조를 따르는 과정에서 월선에게 부과된 고난의 실체가 계모와의 갈등이며 계모가 천벌을 받은 것은 천상계 인물을 확대한 죄값으로서 악에 대한 응징의 의미라고 하였다.

두고 천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연당이 귀환하여 계모의 모해가 밝혀지는 순간 천상계의 응징이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계모가 천벌을 받아 죽는 것은, 천상계 설정으로 인한 인과적 결과이지 계모를 가족갈등의 원흉으로 인식하고 응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화해의 국면이 선한 계모소생의 등장이라는 한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 향유층의 계모에 대한 인식, 혹은 계모형 서사 전반의 결말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¹⁰⁹⁾ 하지만 선한 계모소생이 등장하여 전실자식과 돈독한 우애를 나누고, 그것이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관계 봉합에도 영향을 미쳐서 가정의 화합을 이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계모 영입으로 인한 가정갈등이 관계과탄으로 치닫지 않고 전실자식의 계모에 대한 지극한 효로써 갈등이 봉합되는 몇몇의 설화를 찾아볼 수 있으며, 또한 전실자식과 계모소생의 돈독한 우애로 인해 계모가 개과천선하여 계모와 전실자식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설화도 있다. 이러한 설화는 전실자식의 지극한 효성 및 전실자식과 계모소생의 우애가 가족갈등을 해결하는 한 방안이 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는 <황월선전>과 맞닿는 면이 있다.

<넙적다리 베어 서모 병 고친 효녀>, <효도로 계모의 마음을 돌린 아들>, <손병사가 계모 장사 지낸 전설>, <전실아들의 효도>¹¹⁰⁾ 등은 전실자식의 지극한 효성으로 계모가 자신의 악행을 뉘우쳐 가정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109) 김민조(앞의 글 참조)는 <황월선전>의 이본 고찰을 통해, ‘<황월선전>은 선한 계모소생, 악하다고만 할 수 없는 계모, 선하다고만 할 수 없는 전실딸을 등장시켜 계모와 전실소생의 갈등과 화해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담론의 가능성이 계모는 악하며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독자의 통념이 개입되면서, 활자본 <황월선전>에서와 같이 계모형 고소설의 유형에 고착되는 방향으로 변개되었다고 보았다. 이보다 앞서 김상진(앞의 책 참조) 역시 <황월선전>은 초기의 계모형 고소설에서 보이는 계모의 비극적 말로에 대한 작가의 회의와 고민에서 창작되었으며, 그 결과 계모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가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작품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110) <넙적다리 베어 서모 병 고친 효녀>, 『한국구비문학대계』 3-4, 691-692쪽.
 <효도로 계모의 병 고친 아들>, 『대계』 6-4, 711-712쪽.
 <손병사가 계모 장사 지낸 전설>, 『대계』 8-9, 993-995쪽.
 <전실아들의 효도>, 『대계』 8-14, 454쪽.

설화의 면면을 차례로 살펴보면 전실딸이 계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드린다거나, 전실아들을 죽이려고 계절에 맞지 않는 음식을 요구하는 계모에게 전실아들이 지성으로 대하여 결국 계모가 전실아들을 죽이지 못했다거나, 전실아들인 손병사가 당시 예법에 어긋나는데도 머리를 풀고 계모의 장사를 지내주었다는 이야기들이다. <전실아들의 효도> 또한 전실아들이 계모의 학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모를 모시고, 아버지가 계모의 행실을 보다 못해 쫓아내려 하자 전실아들이 만류하여 계모를 끝까지 효성으로 모셨다는 이야기다.

이 설화들은 효행설화의 한 양상으로도 볼 수 있으며, 특히 넓적다리를 베어 계모의 약으로 쓴다든지, 계절에 맞지 않는 음식물을 구해 계모를 모신다든지 하는 것은 분명 효행설화의 관습적 장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설화들을 효행설화로만 이해한다면, 단순히 모친 대신 계모로 대체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 물론 모친이 아닌 계모까지 극진히 모시는 효자로서의 면모가 더욱 부각될 수는 있다. 그러나 계모설화의 외피를 쓴 이 설화들을 계모설화의 측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효행설화가 효를 행한 자식에 대한 보상에 보다 집중한다고 할 때¹¹¹⁾, 계모설화의 경우 계모에게 극진한 효를 행한 전실자식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가정의 평온이다. 이것이 순수한 효행설화의 효와 계모설화에 나타나는 효의 의미가 달라지는 이유이다. 즉 계모설화에서 전실자식이 보여주는 계모에 대한 극진한 효행은 가족갈등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위에 제시한 설화들은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을 적대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로써 도리를 다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전실자식의 효 윤리로 가정갈등을 극복하고 있다고 하겠다.¹¹²⁾

111) ‘효행설화는 이야기의 배경이 가정 내부이고 가족관계라는 인물구도를 바탕으로 가족간의 역할과 기능이 가족관계 형성에 결정적인 요건이 되며, 바로 그 가족의 관계망이 이야기의 핵심이 되고 있다. 또한 보상이라는 마지막 단락이 여타 다른 이야기에 비해 매우 두드러진다.’ (강진옥, 구비효행설화의 거시적 조망, 『구비문학연구 제3집』, 한국구비문학회, 1996 참조.)

112) 한편 우쾌제(앞의 논문 참조)는 계모형 고소설의 형성요인으로 <열녀전>의 수입 등을 들고 있다. 중국에서 전래된 <열녀전>은 각종 교훈서에 수용되면서 효행이나 여성의 정절을 강요하는 가정윤리 실천의 지침서가 되었는데, 이러한 교훈서의 내용이 문학작품에까지 수용되면서 가정소설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열녀전>에서는 계모와 전실자식이 조화로운 관계, 즉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

<황월선전>에 등장하는 선한 계모소생의 의의는 이와 같은 것이며, <황화일엽>과 <황월선전>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 또한 인물간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황화일엽>에서는 계모소생이 부각되지 않으면서, 부녀관계가 강화되고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관계는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전실딸이 남긴 시는 그간의 자신의 일들을 부친께 고하면서 부친과의 만남을 희망하는 내용이며, 부친과의 만남을 통해 부녀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황월선전>에서 월선이 남기는 글에는 계모의 모함에 대한 것과 더불어 그 후의 고난과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부녀관계에만 집중하지 않고 계모로 인한 가족갈등을 전부 언급하고 있다. 계모의 악행을 언급하지 않는 5종의 이본에서도 <황화일엽>처럼 계모를 소외시키고 부녀관계만을 강화하고자 한 의도가 아니라, 월선이 계모에게 양육의 은혜를 말하며 효 윤리로써 화해를 청하는 결말부와 맞물려 생각하면 계모에 대한 효심 때문에 그 악행을 언급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는 양상이 보다 우세하다. 또한 계모가 전실자식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모를 전실자식이 박대하나, 계모가 자신의 소생보다 전실자식에게 정성을 쏟으니 전실자식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이야기도 나타난다.

‘계쳐리씨 … 목강이 더욱 자익하고 온인호야 무흠함을 넘치게 하고 음식지절을 직피나흔 9달보다 멧 빅느더호니 … 전실장주 흥이 병이 드러 중호거늘 목강이 친히 약과 음식을 만들고 신척호야 온정을 두텁게 호더니 … 어미의 자익호심과 어지심이 하날로 좃츠 나섯거늘 우리 멧 형태가 온정을 아지 못 하고 금슈의 마음을 품엇스니 죄악이 태심호도다 호고,’ (『烈女傳』, 太華書館本 66話, 50장본, 15-16쪽 참조.)

앞에 제시한 계모설화들은 계모와 전실자식의 조화로운 관계가 잘 드러나고 있어서, <열녀전>이 지향하는 바와 맞는 면이 있다. 마찬가지로 <황월선전> 또한 선한 계모소생이 등장하고 계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전실자식과 화해하여 조화로운 가정을 이룬다는 점에서, <열녀전>에 실린 이야기들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한편 <황월선전> 외에도 <김취경전> 등에서도 선한 계모소생이 등장하며 전실자식이 계모의 악행을 용서하고, 계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화해로운 가정을 이루는 결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황월선전>이 계모로 인한 가정갈등을 중심에 두고 서사를 전개해가면서 가정갈등을 통합하고 조화로운 가족관계를 이루는 양상을 꾀진하게 보여주고 있다면, <김취경전>은 전실자식 중심의 영웅적 삶에 많은 비중을 두면서 가정갈등의 문제가 희석되는 면모를 보인다. <김취경전>은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당나라와 고구려 및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을 서사화하고 있으며 실제 역사상의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다. 그 가운데 취경의 군담적 활약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계모와 전실자식의 대립이라는 가정갈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취경이 계모로 인해 맞이한 고난을 전란에서의 영웅적 활약을 통하여 극복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또한 계모 안씨의 공모자인 윤도익의 비중이 부각되면서 취경 집안의 흥사를 바로잡으려는 어사 서윤택과 윤도익의 대립이 나타나는 등, 가정 외적인 문제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황월선전>과 <김취경전>은 선한 계모소생이 등장하고 계모와 전실자식이 화해를 이룬다는 양상은 유사하지만, 본질적인 면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황화일엽>과 <황월선전>이 서사를 공유하면서도 부분적 차이, 특히 인물관계 설정의 차이로 인해 작품세계의 의미가 변모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전실딸의 혼인담과 여성갈등의 상징적 형상화 : <콩쥐팥쥐전>

1) 난제부과 및 신발 모티프와 혼인담

계모설화와 기본적인 서사를 공유하는 계모형 고소설 중에서 <콩쥐팥쥐전>은 설화와와의 관련성이 특별하다. 설화와 소설 간의 커다란 차이가 없어서, 기존 논의에서는 설화를 단순하게 답습한 작품으로 평가되곤 하였다. 또한 전실딸이 계모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고 신원하는 과정이 <장화홍련전>과 유사하여, <장화홍련전>과 함께 계모형 고소설의 초기작으로 언급되었다.

<콩쥐팥쥐전>이 시대적으로, 혹은 서사구조 상 초기적인 양상에 속하는 작품으로 인식된 것은 <장화홍련전>의 비교에서 나온 결과이다. <장화홍련전>은 창작 시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작품이자, 다른 계모형 고소설에 비해 시대적으로 이른 시기의 작품임이 선행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다른 계모형 고소설은 여러 면에서 <장화홍련전>을 모방하면서 출현하였을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콩쥐팥쥐전>이 <장화홍련전>과 서사구조가 유사하고, 설화와 변별성이 거의 없는 점으로 보아 초기적인 형태의 계모형 고소설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장에서 계모 이야기의 보편적인 서사구조를 살펴보았듯이 <장화홍련전>은 전실자식의 시련극복 단계에 송사구조가 개입된 것으로, 전실딸이 혼인을 통하여 시련을 극복하는 다른 계모 이야기들과 달라진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즉 전실딸이 등장하는 계모설화나 계모형 고소설에서는 전실딸이 배우자를 만나 혼인을 하여 시련을 극복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장화홍련전>은 전실딸 자매의 혼인보다도 송사를 통한 억울한 죽음의 신원에 더욱 초점이 있는 것이다. 전실자식이 송사를 통하여 신원하는 이야기들은 구비 전승되는 계모설화보다는 문헌설화

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으며, 또 그 이야기 수가 구비 전승되는 계모설화보다 현저하게 적다. 따라서 <장화홍련전>은 그 연원에서부터 다른 계모 이야기들과 다르며, 서사구조 또한 송사구조가 개입되어 다른 계모 이야기들과 비교했을 때 보편적인 양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콩쥐팥쥐전>은 계모설화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면서 전설딸이 서사의 주체로 등장하는 <연당전>, <황월선전> 등과 비교했을 때 더욱 상통한다. 특히 <연당전>과 비교했을 때 구조적 유사성이 두드러진다.¹¹³⁾ 따라서 <콩쥐팥쥐전>은 <장화홍련전>과의 비교 고찰보다도 <연당전>이나 <황월선전>과의 연계 속에 논의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또한 <콩쥐팥쥐전>이 <장화홍련전>과 더불어 초기적인 양상의 계모형 고소설이며, 설화를 단순히 답습한 차원의 작품이라는 평가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콩쥐팥쥐전>은 <연당전>, <황월선전>처럼 계모 학대담 속에 전설딸의 혼인담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것은 이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설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혼인담은 전설딸의 이니시에이션 과정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콩쥐팥쥐전>에서는 그것이 계모의 난제부과 및 잃어버린 신발 모티프로 상징화되어 나타난다.

세계적인 보편성에 견주어 볼 때, <콩쥐팥쥐> 설화의 보다 원형적인 모습은 '계모의 학대를 원조자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여 행복해지는 전설딸의 이야기'이다. <콩쥐팥쥐(전)>¹¹⁴⁾의 전반부가 그러한 원형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후반부는 우리나라 <콩쥐팥쥐(전)> 유형만의 특징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다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서사가 전설딸 콩쥐의 이니시에이션 과정을 상징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113) 조희웅(『한국구전설화의 유형』, 일조각, 1996, 279-327쪽 참조.)은 <연당전> 및 <콩쥐팥쥐전>과 영향관계에 있는 <손 없는 색시>와 <콩쥐팥쥐>가 모두 '계모의 학대 - 행운의 결혼 - 계모에 의한 이별 - 재회 - 계모처벌'이라는 같은 플롯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동계의 설화라고 보았다.

114) <콩쥐팥쥐> 설화와 소설 <콩쥐팥쥐전>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콩쥐팥쥐(전)>으로 표기한다. 설화와 소설 간의 변별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작품세계의 의미 또한 상통하는 면이 많다.

<콩쥐팥쥐(전)>은 다른 이야기들과 비교했을 때 계모의 학대담이 상당히 부연되어 있다. 계모가 전실딸에게 난제를 부과하여 학대하는 것으로는 <연이와 버들도령> 설화가 있다. <콩쥐팥쥐(전)>이 <연이와 버들도령>과 변별되는 것은 난제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후자에서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평범한 인물이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해오는 난제가 부과되며, 따라서 전실딸은 일상적인 공간이 아닌 곳에서 신이한 인물을 만나 난제를 해결한다.¹¹⁵⁾

반면 <콩쥐팥쥐(전)>에서는 콩쥐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부과되지만, 그것이 일상성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설화에서는 밭갈기, 베짜기, 물길기, 벼짚기, 재를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 등의 다양한 난제들이 등장하고, 소설에서는 이것이 정리되어 ‘밭갈기 - 물길기 - 베짜기 - 벼짚기’로 순서화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부과된 난제들의 면면을 볼 때, 콩쥐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이기는 하지만 일상성을 벗어나거나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노동성이 강조되고 있는 일들이다. 즉 꼭 신이한 원조자가 등장하지 않아도 일상적인 인물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난제들이다. 난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등장하는 원조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검은 소, 말하는 두꺼비, 하늘에서 내려온 직녀, 참새떼 등으로 대부분 일상성을 벗어나는 신이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 몇몇의 설화 각편에서는 콩쥐가 자신의 지혜와 부지런함으로 스스로 난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계모가 콩쥐를 학대하기 위해 제시한 일들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시간과 콩쥐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된 일이라는 점 때문에 난제로 인식되는 것이지, <연이와 버들도령>처럼 일상성을 벗어나기 때문에 난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성을 지닌 난제들은 서민가정의 여성이라면 능숙히 할 수 있어야 하는 일들이며, 혼인을 위해 배워야 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즉 계모가 부과하는 난제는 전실딸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나온 학대의 의미만을 지닌 것이 아

115) 이 설화에서의 핵심 난제는 겨울에 싱싱한 채소를 구해오는 것이다. 겨울에 새파란 미나리나 상추 등을 구할 수 있는 곳이며 또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꽃이 피어 있는 곳은 초월적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일상세계의 인물인 전실딸이 초월적 세계와 접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연이와 버들도령>의 경우 ‘주문’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에 정도령아 문열어라 문열어라’, ‘복아 복아 양산복아 수양대 내 왔네’, ‘병벽이 잦은 골에 있으시면 문 열어주소’, ‘김해 김도령, 남해 남도령 문열어라’, ‘돌순아 돌순아 문열어다고’, ‘정에 정도령 월레왔다 문열어라’ 등으로 나타나는 주문은 신성한 존재인 상대방을 인식하거나 그러한 상대와 자신의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다.

니다. 계모가 콩쥐와 더불어 팔쥐에게도 동일한 일을 시키고 있다는 점이 그 증좌라고 하겠는데, 조건의 차이만 있을 뿐 계모는 콩쥐와 팔쥐에게 발갈기를 시키고 있다. 설화 각편에 따라서는 발갈기와 더불어 역시 조건의 차이를 두고 베짜기 내기를 시키는 장면이 나타나기도 한다.¹¹⁶⁾ 그러면서 어떤 일을 시켜도 콩쥐가 팔쥐보다 더 일을 잘하여, 계모가 콩쥐를 더욱 미워했다는 표현이 문면에 드러난다. 따라서 계모가 콩쥐에게 부과하는 난제는 단순한 학대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공(女工)을 익히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학대의 의미는 나무호미와 쇠호미, 자갈밭과 모래밭 등 콩쥐와 팔쥐에게 조건의 차등을 두는데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전실딸이 등장하는 다른 계모설화 유형과 달리 가장의 존재가 거의 소거된 상황에서, 계모가 전실딸에게 수없는 난제를 부과하여 혼인을 앞둔 여성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점¹¹⁷⁾이 <콩쥐팍쥐(전)>의 특징적인 면이라 하겠다.

따라서 계모가 부과하는 난제는 표면적으로는 콩쥐에 대한 학대의 의미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콩쥐의 혼인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계모는 입사주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설화 유형(신데렐라 유형)의 가장 고행이 중국의 것이라고 볼 때, 중국 이야기인 <섭한(葉限)>에서 전실딸의 혼처가 정해지자 계모와 이복동생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뒷날 마을사람들에 의해 ‘결혼의 신’으로 숭배되었다는 점을 주목한다면,¹¹⁸⁾ 계모가 전실딸의 성공적인 혼인을 위한 입사주도자로서 기능함이 확연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모가 부과한 난제를 다 해결한 콩쥐는 잔치에 갈 수 있게 되는데, 이 때의 잔치는 혼인 잔치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난제를 해결하여 혼인

116) <각편 8, 9, 11>에서는 발갈기와 베짜기 내기를 통하여 콩쥐와 팔쥐의 대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각편 15> 역시 서사는 단순하지만 콩쥐가 친모의 도움으로 팔쥐보다 물 걷기, 삼 삼기 등을 잘 하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117) 난제를 부과하고 그것의 해결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획득하도록 하는 양상은 설화 속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칠성풀이>의 전반부에서 일곱 아들이 부친 탐색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며, <바리공주>에서 주인공인 바리공주가 수행해야 하는 난제 역시 같은 의미이다.

118) 殷成式, 『酉陽雜俎』, 續集 卷一. 이 작품에는 원래 제목이 없지만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섭한>이라고 부른다. (이원수, 앞의 글 참조)

할 여성으로서의 자격을 다 갖춘 콩쥐는 혼인 잔치에 참석하러 가는 것이며, 잃어버린 신발을 매개로 배우자를 만나 혼인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서 콩쥐의 신발을 주운 배우자가 ‘잃어버린 신발’의 임자를 찾는다는 것은, 자기와 한 짝을 이룰 배우자로서의 여성을 찾는다는 의미이다.

잃어버린 신발의 임자를 찾음으로써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후반부에서 짝이 맞지 않는 젓가락을 통해 콩쥐 부부의 재회가 성사되는 것과 맞닿아 있다. 즉 <콩쥐팥쥐(전)>은 ‘짝을 찾고 짝을 맞춘다’는 의미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콩쥐의 배우자가 감사나 원님 등 높은 신분의 인물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소설에서는 감사의 재취로 들어가는 것으로 설정하였지만, 여공을 능숙히 익힌 처녀가 좋은 배우자의 짝이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당전>이나 <황월선전>에서는 전실딸의 혼인 이후에, 그 배우자가 과거에 급제하여 비로소 관직에 나아간다. 전실딸의 배우자도 혼인을 하고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비로소 한 가정을 온전히 이끌 가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콩쥐팥쥐전>에서는 애초에 배우자가 감사나 원님 등의 신분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혼인을 통한 콩쥐의 성장에 더욱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한편 <콩쥐팥쥐전>은 전실딸의 혼인담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연당전>이나 <황월선전>과 비교했을 때, 전실딸의 이니시에이션 과정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콩쥐팥쥐전>은 설화적 상징성이 소설에서도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데, 설화적 상징성은 지금까지 고찰한 바 전실딸 콩쥐 중심의 통과제의적 구조를 통해 드러난다. 그리고 통과제의적 구조 속에서 난제 부과 모티프와 잃어버린 신발 모티프가 중요한 상징적 요소로 기능하는 것이다.

<콩쥐팥쥐전>이 설화적 상징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설화와 커다란 차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황월선전>의 경우 <황화일엽> 설화와 서사를 공유하면서도, 계모로 인한 가정갈등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계모형 고소설이 향유되던 시대적,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었다. 때문에 설화와 달라진 면이 비교적 많았고, 특히 인물의 설정 - 선한 계모소생의 부각, 전실딸의 적극적인 면모의 희

석 등 - 에 있어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그러면서 전실딸이 통과제의적 구조 속에서 부녀갈등을 통해 주체적인 자기인식을 하는 상징적 의미가 소설에 와서는 약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연당전>은 천상계 설정으로 이원적 세계관을 드러내면서, 설화에서 나타난 통과제의적 구조를 적강구조로 대체하고 있었다. 즉 설화와 소설이 주요 모티프는 고스란히 공유하면서, 구조와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는 소설이 합리성을 추구하여, 설화적인 상징이 보다 논리적으로 해석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콩쥐팥쥐전>은 설화적 상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전실딸 콩쥐의 이니시에이션 과정으로서의 혼인담이 보다 부각되어 있다고 하겠다.

2) 뒤바뀐 아내 모티프와 계모담에 내재된 여성갈등

<콩쥐팥쥐(전)>이 신데렐라 유형이라는 세계적인 보편성에 맞닿아 있으면서도, 우리만의 것으로 의미가 있는 이유는 후반부 서사 때문이다. 후반부는 팥쥐가 콩쥐를 죽이고 그 행세를 함으로써 콩쥐 부부의 분리를 야기함과 동시에 콩쥐 가정을 와해시키나, 콩쥐가 환생과 재생을 통하여 짝이 맞지 않는 짓가락으로 남편을 일깨워 다시금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다.

<콩쥐팥쥐(전)>은 전실딸 콩쥐의 이니시에이션 과정을 난제부과 모티프와 잃어버린 신발 모티프로 상징되는 콩쥐의 혼인 과정으로 형상화하여 보여줌과 동시에, 계모와 전실딸 및 계모소생과 전실딸의 갈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콩쥐팥쥐(전)>이 계모 이야기의 외피를 쓰고 있는 만큼, 계모 이야기로서 드러내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콩쥐팥쥐(전)>이 계모 이야기로서 드러내는 의미는 그 갈등관계가 계모소생과 전실딸의 것으로 전이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계모 이야기의 전체적인 판도를 놓고 볼 때 전실딸과 계모의 갈등을 다룬 것이 보다 많은데, 이는 계모 이야기가 가정내적인 갈등을 다루되 특히 여성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갈등은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으로 표출되는 것이 보편적인데, <콩쥐팥쥐(전)>에서는 계모소생과 전실딸의 갈등으로 전이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보다는 계모소생과 전실딸의 갈등이 더욱 여성갈등의 측면에서 합당하다. 전자는 부모와 자식의 갈등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후자는 자매갈등으로 나타나면서 여성끼리의 갈등을 드러내는데 더욱 합당한 양상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콩쥐팥쥐(전)>에서는 콩쥐와 팥쥐를 내세워 여성끼리의 경쟁의식을 드러내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반부에서는 발갈기 모티프를 통해 여성간의 경쟁적 관계가 표면화된다. 설화의 몇몇 각편에서는 여성끼리의 경쟁적 갈등관계에 주목하여, 발갈기 외에 베짜기 내기 등을 덧붙이고 있음도 앞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의 중심에는 혼인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콩쥐팥쥐(전)>에서는 혼인의 중요한 요소인 짝 찾기를 신발 모티프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신발을 두고 팥쥐와 계모가 자신의 것이라고 탐을 내며 신어보는 장면이 나타난다.

평양감사는 가다가 질갓이에 이쁜 갓신이 한 짝 벅게져 있던 것을 보고 이 갓신 임자는 이쁘게 생겼일 거라고 그 신발 임자를 찾이로 동네에 들어갔다. 동네 잔칫집에 가서 거그 모여 있는 처재랑 각시헌티 내빚서 이게 누구 갓신인가 신어 보라고 히다. 그렇게 풀쥐가 썩 나서서 그 신은 내 신이요 험서 신어 봤다. 발이 너머 커서 안 들어강께 풀쥐 어매는 풀쥐 발구락을 끊어각고 억지로 신겼다. 그러니 발에서 피가 나고 걸음을 걷자니 발이 아퍼서 발을 절룩거렸다. 감사가 이것을 보고 지 신도 아닌 것을지 신이라고 발구락 꺼지 끊고 관장을 식일라고 드니 이런 못쓸 지집년이 어디 있냐고 사람을 불러서 곤장 멧 대를 치라고 호령했다. 풀쥐 어매는 이번에는 그 신은 지 신이라고 허고 신을라고 신어 보넌디 발이 너머 넘적히서 발 양쪽을 깎어내각고 신었다. 감사는 이것을 보고 저 지집도 못쓸 지집이다, 지 신도 아닌디도 지 신이라고 관장을 식이려든다, 이럼서 사령보고 곤장을 멧 대 때리라고 호령했다. (<각편 8>, 267쪽.)

팥쥐와 계모가 차례로 신어보았지만 결국 맞지 않고, 콩쥐가 신자 꼭 들어맞는

다. 짝 찾기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신발을 두고 계모 및 팔쥐와 콩쥐가 대결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계모가 자신의 딸과 전실딸을 바꿔치기 하여 신방에 들여보내는 설화¹¹⁹⁾는, 혼인을 사이에 두고 경쟁하는 계모소생과 전실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어여쁜 전실딸에게는 혼처 주선이 많이 들어오고 못생긴 계모딸에게는 혼처가 전혀 나타나지 않자, 계모가 전실딸의 혼인 전날 밤에 전실딸을 바늘로 찌르며 신랑이 이렇게 아프게 할 것이라고 겁을 준다. 그러면서 혼례를 자신의 딸과 바꿔 치르라고 협박하고, 전실딸에게 시루를 씌워 장독대에 놓아둔다. 계모딸이 대신 혼례를 치르고, 전실딸은 신방이 궁금하여 시루에서 목을 빼고 신방을 바라본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바늘로 찌르지 않고 어루만지는 것을 보고는, 그제야 속은 줄을 알고 기가 막혀 기절했다가 그대로 죽어 달팽이가 되었다.’는 이 설화는 <콩쥐팍쥐(전)>의 이해에 여러 면에서 단초를 제공한다. 혼인을 쟁점으로 계모와 그 딸이 전실딸과 갈등관계를 빚는다는 점이 핵심으로서, 이 설화에서는 전실딸이 계모의 속임수로 경쟁에서 지고 그 억울함에 달팽이가 되었다는 점이 색다르다.

여성끼리의 경쟁적인 면모는 <콩쥐팍쥐(전)>의 후반부 서사에서 더욱 본격화된다. 전반부에서는 계모딸과 전실딸의 경쟁에 계모가 개입되어 있었다면, 후반부에서는 자매갈등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는 혼인이 아닌 한 남성을 사이에 둔 경쟁으로 나타난다. 또한 한 가정에 다른 여성이 투입하여 부부의 분리를 야기하고 가정을 와해시킨다는 점에서 일면 <문전본풀이> 및 <연당전>과 비교된다.

<문전본풀이>에서는 가난 때문에 남선비가 무곡장사를 떠나면서 부부의 분리가 야기된다. 여산부인은 노일저대귀일의 꾀임에 빠져 집으로 돌아올 줄 모르는 남선비를 찾아 떠나고 비로소 부부가 재회를 한다. 그러나 노일저대귀일이 여산부인을 목욕하러 가자고 꾀어 연못에 빠뜨려 죽이고는, 여산부인의 옷을 입고 거짓 행세를 한다. 남선비는 뒤바뀐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며, 일곱 아들이 시험을 통

119) <달팽이가 된 처녀>, 최래옥, 『전북민담』, 형설출판사, 1979, 17-32쪽.

해 노일저대귀일이 친모가 아님을 알아차린다. 노일저대귀일의 딸은 피병을 앓고 일곱 아들의 간을 요구하는데, 일곱 아들들은 막내 녹디생인의 지혜와 죽은 친모의 도움으로 죽음을 모면한다. 노일저대귀일과 남선비는 징치되고, 아들들은 친모를 살려내고 각기 신으로 좌정하는 것이 <문전본풀이>의 서사전개이다.

이때 <콩쥐팥쥐(전)>과 <문전본풀이>가 비교될 수 있는 근거는, 한 가정에 다른 여성이 투입하여 진짜 아내 행세를 한다는 점이다. 즉 남편을 사이에 두고 두 여성이 경쟁하는데, 한 여성이 속임수로 다른 여성을 죽이고 그 행세를 한다는 점이 상통한다. <문전본풀이>에서는 본처와 후처의 경쟁이고, <콩쥐팥쥐(전)>에서는 이복자매 간의 경쟁이라는 것이 다르다. 그러면서 <문전본풀이>에서는 후처(계모)와 본처 아들들의 갈등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반면, <콩쥐팥쥐(전)>에서는 이복자매 간의 경쟁에 집중하여 가정 내 여성갈등에 중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문전본풀이>는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과 그 해결로 서사를 마무리 짓고 있지만, <콩쥐팥쥐(전)>은 콩쥐 부부의 재회와 콩쥐 가정의 복원으로 서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전본풀이>와 <콩쥐팥쥐(전)>의 유사성이 드러내는 의미는 상통한다. <콩쥐팥쥐(전)>의 전반부를 볼 것 같으면, 계모는 새로운 가족구성원이고 콩쥐는 기존 가정의 구성원이다. 계모는 자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려는 욕망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전실딸인 콩쥐와는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한 갈등이 콩쥐와 팥쥐의 것으로 전이되면서, 후반부에서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는 콩쥐와 그 가정을 와해시키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려는 팥쥐의 대결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기존 가정을 상징하는 콩쥐의 가정 - 혼인 전의 가정과 혼인 후의 가정 - 을 각각 계모와 그 소생이 와해시키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려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전본풀이>와 <콩쥐팥쥐(전)>이 상통하는 것도, 두 이야기가 이러한 맥락의 의미를 유사한 양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전본풀이>나 <콩쥐팥쥐(전)>에서 남편은 모두 뒤바뀐 아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때문에 진정한 부부관계가 어그러지고 마는데, 전자는 본처의 아들이 시험을 통하여 가짜의 정체를 알아차리나¹²⁰⁾ 후자에서는 아내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부부관계의 회복을 꾀하고 있다. 특히 후자에서는 ‘젓가락의 짝이 맞지 않는 것은 알면서 아내가 바뀐 것은 왜 모르느냐’는 말로 아내가 남편을 일깨우고 있다.

감사가 와서 음식상을 받고 보니 저까락이 짝짝이고 또 거꾸로 놓여 있었다. 감사는 어째서 저까락이 짝짝이고 거꾸로 났느냐고 물었다. 그때 농안에서 콩쥐가 나와서, “감사님은 저까락이 짝짝이고 거꾸로 놓여 있는 것은 아
르시면서 마누라가 바뀌고 제대로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모르십니
까?” 하고 말했다. (<각편 9>, 255쪽.)

이처럼 짝 잃은 신발을 통하여 혼인에 이르고, 짝이 맞지 않는 젓가락을 통하여 진정한 부부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콩쥐팥쥐(전)>만의 특별한 면모다.

한편 <콩쥐팥쥐(전)>의 전체적인 구조는 <연당전>과 상통하는데, 계모와 전실 딸의 갈등이 두 가정(전실딸의 친정과 혼인 후에 이룬 가정)을 배경으로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렇다. 즉 계모는 끊임없이 전실딸이 속한 가정을 와해시키려는 욕망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연당전>에서는 계모가 편지조작을 통하여 전실 딸 부부의 분리를 유발한다. 그런데 <콩쥐팥쥐(전)>에서 아내의 깨우침으로 부부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과는 달리, <연당전>의 경우 아내탐색이라는 남편의 노력으로 부부의 재회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콩쥐팥쥐(전)>에서는

120) <문전본풀이>에서는 막내 녹디생인과 여섯 형제가 직감적으로 아버지는 맞으나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님을 알아차린다. 일곱 아들들은 집안에서 하는 행실을 살펴 어머니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데, 노일 저대귀일의 딸은 집을 찾아오는 길과 열쇠가 있는 곳, 쌀이 있는 장소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또한 상을 차렸는데 남선비와 일곱 아들들의 식기 및 기물이 모두 뒤섞여 있다. 일곱 아들들은 어머니가 아님을 확신하며, 이에 노일저대귀일의 딸은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리에 눕고는 일곱 아들들을 없앨 궁리를 하는 것이다.

<콩쥐팥쥐> 설화에서도 콩쥐의 옷을 차려입은 팥쥐를 보고 감사가 의심을 하는 부분이 나온다. 팥쥐의 얼굴이 검고 얇은 데다가 목도 길었는데, 감사가 그러한 점을 차례로 지적한다. 이에 팥쥐는 ‘감사님이 안 계셔서 세수를 안 해서 얼굴이 검어졌고, 감사님을 마중 나가다가 콩명석에 넘어져서 얼굴이 얇았으며, 감사님이 오시는 것을 보려고 담장 밖을 내다보느라 목이 길어졌다’고 말한다. 이러한 팥쥐의 천연덕스러운 대답에 감사는 아내가 뒤바뀐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문전본풀이>에서는 집안일에 익숙하지 못함을 통하여 가짜임이 판명 나고, <콩쥐팥쥐>에서는 그 외 모로 인해 의심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남선비가 전혀 아내가 뒤바뀐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감사가 팥쥐의 말을 믿고 아내가 뒤바뀐 것을 눈치 채지 못하는 양상은 동일한 것이라 하겠다.

가정을 수호하려는 여성의 의지가 부각된 반면, <연당전>에서는 남성의 노력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전자에서는 우둔한 남편을 일깨우는 아내의 모습이 나타나고, 후자에서는 아내를 찾아 떠나는 남편의 곡진한 애정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기존 가정을 상징하는 전실딸과 새로운 가정을 이루려는 계모의 갈등은 계모 이야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계모녀 갈등으로 나타나지만, 그러한 갈등의 이면에는 죽은 친모와 계모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기존 가정을 대표하는 여성인 친모와 새로운 가정을 대표하는 여성인 계모의 대립을 이면에 깔고, 그러한 대립을 전실딸과 계모의 갈등으로 표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설화와 소설에서 죽은 친모가 전실딸의 원조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인데, 작품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친모의 존재가 모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콩쥐팍쥐(전)>에서는 밭갈기를 도와준 검은 소가 죽은 어머니의 녀이라는 언급이 나온다. <연당전>이나 <황월선전>에서도 죽은 친모는 항상 원조자로 나타난다.

<콩쥐팍쥐(전)>은 기존 가정과 새로운 가정을 주도하는 여성간의 경쟁이라는 본질을, 죽은 친모와 계모의 대립을 이면에 두고 그것을 전실딸과 계모의 갈등으로 표면화하되, 다시금 전실딸과 계모딸의 경쟁으로 전이함으로써 다양한 양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계모 영입으로 인한 가정갈등의 비극적 인식과 가정복원의 의지

: <조생원전(필사본)>

1)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정갈등의 비극적 인식

계모 이야기들은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을 발단으로 삼되, 전실자식을 주체로 하여 서사를 이끌어 가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조생원전>은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을 발단으로 삼았지만, 서사전개는 가장과 며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조생원전>은 가장을 서사의 주체로 인식하느냐, 며느리를 서사의 주체로 보느냐에 따라 작품이 지향하는 의미의 차이가 드러난다.

계모의 영입으로 인한 가정갈등은 서민가정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고, 그러한 갈등은 계모와 전실자식 사이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다른 작품들이 계모와 전실자식의 직접적인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조생원전>은 한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서사를 전개함으로써 계모의 영입으로 인한 문제적 가정사의 발생과 그로 인한 가정의 비극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조생원전>이라는 표제에서도 드러나듯이 한 가정의 가장을 서사의 주체로 내세웠다는 것은, 문제적 가정사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모 이야기들은 계모를 들여 겪는 가정갈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 가정사를 서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전실자식이 서사의 주체가 되면서, 문제적 가정사 외에 전실자식의 시련 극복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조생원전>은 한 가정을 상징적·실질적으로 대표하는 가장을 서사의 주체로 내세우면서, 전실자식의 시련 극복 과정보다는 가장이 상처하고 후처를 들여 가정갈등을 겪는 가운데, 전실자식을 비극적 사건으로 잃는 과정을 꺾진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즉 <조생원전>은 계모를 들여 갈등을 겪는 서민가정의 세태를 서사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전실자식을 서사의 주체로 내세웠을 때보다 가장을 서사의 주체로 삼았을 때 그러한 세태묘사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조생원전>의 이러한 성격은 <양기손전>¹²¹⁾과 비교할 때 더욱 잘 드러난다.

121) <양기손전>의 서사전개는 다음과 같다.

1. 조선국에 양기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과 출신으로 첨정 벼슬을 하고, 집안이 유복하다.
2. 양기손은 현숙한 아내 이씨를 두고도 채란이라는 예쁜 기생을 첩으로 삼아 총애하며, 이부인을 전혀 돌보지 않다.
3. 하루는 양첨정이 채란을 데리고 봄놀이를 나갔다가 오랜만에 본집으로 가보니, 서른 살이 넘었어도 혼례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아들이 나와 맞이하다.
4. 집은 다 쓰러져가고, 방안의 자리도 다 헐었으며 창문도 다 떨어져 나갔는데, 노치녀로 있는 딸은 옷이 헤어져 살이 나오고 누더기옷을 입고 있는 아내의 얼굴에는 때가 끼어 차마 볼 수 없었으며, 안질이 생겨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다.
5. 양첨정이 하도 심란하여 말을 못하고 앉아 있는데, 이부인이 과년한 아들과 딸의 혼사를 어찌하느

두 작품 모두 문체적 가정사를 주제로 삼고 있는데, 전자가 계모의 영입으로 인한 가정갈등에 주목하였다면 후자는 첩을 들여 겪게 되는 갈등을 다루고 있다. 즉 <조생원전>이 계모형 고소설에 속한다면 <양기손전>은 처첩갈등을 다룬 쟁쟁형 고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작품은 계모와 첩으로 인한 가정갈등을 다루되, 계모와 전실자식 및 처와 첩의 갈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가장을 서사의 표면에 내세우고 있다.

특히 <양기손전>에서는 간교한 첩으로 인해 본처와 그 소생들이 고난을 겪는 것으로 서사가 전개되지 않으며, 첩의 형상이 극히 선하게 나타나고 있다. 처첩의 갈등보다는 첩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는 가장으로 인해 본처와 그 자식들이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양기손전>은 처첩갈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첩을 들여 한 가정이 와해되는 세태 및 처가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장에 대한 풍자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조생원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을 서사의 출발로 삼되, 전실자식의 행보를 따라 진행되는 계모형 고소설의 보편적인 양상과 달리 가장을 내세워 계모의 영입으로 인한 가정갈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만 <양기손전>이 첩에 빠져 처가의 도리를 제대로 못하는 가장

나고 걱정을 하다.

6. 한편 채란은 집에 돌아와 생각 끝에 이부인집으로 음식을 보내나, 이부인은 크게 노하며 음식을 던져 버리다.
7. 이에 첩정은 어이없어 다시 채란에게로 돌아가고, 남편을 보낸 이부인이 분함과 외로움과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다.
8. 이 때 병조판서 한기연이 상치를 하고 자녀를 생각하여 후처로 노처녀를 구하던 끝에 양첩정의 딸을 취하려고 하자, 청혼을 받은 이부인이 위로 오빠가 있어 역혼할 수 없다고 하다.
9. 한판서는 자신이 중매쟁이가 되어 남방절도사 남관의 딸과 양첩정의 아들을 먼저 혼인시켜 주고 나서, 양첩정의 딸과 재혼하다.
10. 채란은 양첩정과 상의하여 이부인과 자녀들을 자기집으로 데려오도록 하고 이부인을 극진히 섬기니, 종들이 전부 이부인을 따르다.
11. 이부인이 채란의 살림을 차지하고 위엄을 부리니, 채란은 본부인에게 살림을 빼앗기고 발붙일 곳이 없어지다.
12. 채란은 이부인이 살던 옛집에 가서 지내면서 본부인에게 사정하여 첩정의 막내아들을 데려다가 기르면서 의지하여 살아가다.

(『筆寫本古小說全集』 6, 亞細亞文化社, 1980.)

의 모습을 풍자하는데 주목하고 있다면, <조생원전>은 가정갈등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가정의 무력한 모습이 언급되기도 하나 계모로 인해 촉발되는 문제적 가정사 자체를 퓌진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조생원전>이 가정을 중심으로 한 문제적 가정사 자체에 주목하고 있음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생원은 후처 배씨를 들이기 전까지는 현명한 이씨부인의 딸대로 농업에 힘써 부유하게 살면서 아들 영까지 낳아 평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씨부인이 영의 나이 6세 때 득병하여 죽게 되자, 홀로 자탄하며 지내다가 주위의 권고로 후처 배씨를 들이게 된다. 곧 안정을 찾은 것 같은 조생원의 가정은 배씨가 자신의 소생을 낳고부터 갈등이 싹트기 시작한다.

비가연 횡사 보소 외면은 천연호되 중심은 흥참호다 허망한 도씨 양반 더
강은 짐작호되 도석 변덕 저 심술을 조상이 어니 알니 전처의 어린 조식 횡
여나 설움 불가 원근간 출립할 제 조심이 격별호다 (박태상 소장본, 143쪽.)

조생원은 배씨의 흥참한 마음을 짐작하나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못하고, 마음만으로 진실자식 영의 안위를 걱정한다.

도생원 호로밤은 영을 불러 무릅 후에 안쳐노코 글조도 가르치며 고슴소
도 의논타가 조야밤 한 밤중에 영이다려 호는 말이 네니 얼굴 슈척호야 병
이 나게 되여시니 배기 곱파 그러호야 오시 차셔 그러호야 무거호네의 계
모 구박이 혹 있셔야 추오도 괴망 말고 자세이 알외라 (박태상 소장본,
144-145쪽.)

영을 앓혀놓고 그 안위를 걱정하는 조생원의 위와 같은 언행은, 계모를 들여 가정갈등을 겪는 가정의 심란한 심사를 잘 드러낸다고 하겠다. 그러나 계모 배씨와 영의 갈등이 깊어지자, 글공부를 핑계로 영을 금강산의 설암당에게 맡기게 된다. 조생원과 영이 이별하는 장면은 비장하기까지 하며, 조생원은 영과 이별하고 오면서 자신의 재혼을 후회한다.

암당뵈게 썩 나셔니 눈물이 소스나고 갈 길이 아득하야 야슬죄우하것쉬나
 영아 영아 우지 말고 어셔 밧비 드러가셔 아비 심각 부디 말고 글공부 심썩
 하라 영의 거동 불작시면 낙낙장송 비게 셔셔 두 귀 밧티 흐른 눈물 이리
 닥고 저리 닥고 아부 우지 말고 행츠나 편이 하옵쇼셔 언제나 다시 오실나
 요 멧밤이나 지너거든 오실나요 (중략) 상처하느 세상 스람 본쳐으게 조식
 두고 지취를 조심하소 오늘날 이 정상이 이비 허물 이 안인가 (박태상 소장
 본, 146-147쪽.)

영을 보호하기 위해 배씨를 내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영의 안위와 가정의 평안
 을 위해 조생원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영을 설암당에게 맡기는 일이었다.

하지만 조생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들 영이 첫날밤 목 없는 시체로 발견되
 고, 그것이 계모 배씨의 소행임을 알았을 때 조생원의 분노는 계모와 그 소생에
 대한 잔인한 응징으로 표출된다.

네 이년 비가년아 불척하고 휴찰흔 년아 죽어도 한을 마라 살를 이리 짝
 고 저리 싹아니니 장씨부인 달여들어 그 칼을 바다들고 작지 놈의 비를 질
 너 간봉을 손에 들고 창수를 목에 걸고 취흔 듯 실성흔 듯 웃다가 춤추다가
 통곡하니 좌우에 보는 스람 뉘 안이 낙누하리 (박태상 소장본, 174쪽.)

계모와 그 소생 및 공모자인 최작지에 대한 잔인한 징치는, 계모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가정갈등으로 인한 비극의 강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
 한 조생원이 계모를 응징하고도 며느리와 가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방랑길에
 오른 것은, 가정갈등의 심각성과 그 비극성을 방랑하는 가장의 모습을 통해 드러
 내려 한 것이다. 이는 <사명당 출가유래담>이 지향하는 바와 맞닿아 있는데, 가
 장이 가정을 버리고 출가하거나 방랑할 정도로 계모로 인한 가정갈등이 심각한
 것임을 환기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조생원전>이 가장을 서사의 주체로 내세워 드러내려 한 위와 같은 의미들은,

작품의 현실적 성격과 맞물려 더욱 배가된다. 전처 이씨가 조생원에게 현몽하여 계모 배씨가 영의 혼수물품을 바꿔치기 해놓은 사실을 알려주면서 영의 혼사를 서두르도록 당부하는 대목이나, 영이 현몽하여 장씨부인에게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는 대목을 제외하고는 <조생원전>의 전반적인 성격은 사실적이다.

계모를 들여 가정갈등을 겪는 조생원의 심사를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만큼, 주변인물들에 대한 형상화 및 상황설정 역시 현실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서민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정갈등을 바탕으로 하되, 계모 배씨의 욕망이 물질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및 계모의 하수인인 쇠작지의 인간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계모가 전실자식과 갈등을 빚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계모를 어머니로 인정해 주지 않는 가장과 전실소생에 대한 서운함과 소외감, 가정의 주도권에 대한 욕망 및 재산에 대한 욕심 등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조생원전>의 배씨는 영의 혼수물품에 대한 욕심을 보이면서 재산에 대한 세속적 욕망을 강하게 드러낸다. 더불어 영이 장자이므로 훗날 재산을 비롯한 가권을 영이 차지하게 되면, 자신과 자식의 처지가 어렵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장주라 칭하고 가스 주장할 거시오, 정녕 이 녀 주식이 불상키 흐릴 업고
가공흔 녀 신세도 엇지 될 줄 안단말가 (박태상 소장본, 170쪽.)

서민가정에 후처로 들어간 여인이 목적하는 바는 재산이 가장 큰 것이고, 따라서 배씨의 욕망은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현실적인 것이다.

한편 쇠작지가 계모의 흥계에 가담한 것은 속량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조생원이 쇠작지에게 계모 소생의 아들들을 죽이라 하자, 그들의 죄 없음을 주장하다가 결국 조생원의 명을 따르고는 자신도 자결하고 있다. 즉 쇠작지는 맹목적인 악인이 아니라, 나름대로 악행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며 또한 인간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는 인물인 것이다. 따라서 계모와 쇠작지는 자신의 죄과에 따라 처참하게 응징당하고 있지만, 맹목적인 악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개연성 있는 욕망을

드러내는 인물들임을 알 수 있다. <조생원전>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실적인 면모들은 가장인 조생원이 겪는 가정의 비극을 꺾진하게 드러내는데 일조하고 있다.

2) 며느리의 열 윤리를 통한 가정의 복원

조생원은 며느리에게 개가를 권유하고 가산을 처리한 후 모든 것을 버리고 방랑길에 오르는데, 가정갈등으로 와해된 조생원의 가정은 며느리에 의해 복원된다. <조생원전>의 전반부가 계모의 영입으로 인한 가정갈등의 비극을 가장의 입장에서 형상화하였다면, 후반부는 보다 며느리 중심의 서사로 전개되면서 며느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한 가정이 다시 온전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조생원전>의 후반부는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계모 이야기의 보편적 서사구조에서 확장되어 덧붙은 부분이다.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가 <사명당 출가유래담>으로 귀결되는 각편들과 나머지 각편들로 대별되었던 이유도 후반부 서사 때문이었으며, 후반부 서사는 며느리의 존재 때문에 의미를 지니는 부분이기도 하다.

<조생원전>을 며느리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 서사를 연계하여 이해할 때, 며느리 장씨부인의 행위는 열녀의 삶과 맞닿아 있다. 첫날밤 비명횡사한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유복자를 낳아 길러 시아버지를 모셔와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장씨부인의 행위는 열녀의 행위에 다름 아니다.

장씨부인은 자신보다 나이 어린 남편에게 시집와 첫날밤에 남편을 잃고 간부부정의 누명까지 쓴다. 주위 친척들에게서 자결할 것을 종용받은 장씨부인은 수모를 무릅쓰고 시댁으로 들어와 계모 배씨의 학대 속에서도 꺾지지 않으며, 누명을 벗고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려 애쓴다.

장씨부인이 계모의 흉계를 밝혀내어 누명을 벗는 과정은 소설에서보다 설화에서 더욱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소설에서는 장씨부인의 꿈에 남편 영이 현몽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 장씨부인은 남편의 머리가 있는 사당으로 조생원을 안내하고, 조생원은 사건의 전말을 짐작하고는 죄작지를 문초하여 계모의 소행임을 알아낸다. 그러나 설화에서는 대부분 며느리가 남북을 하고는 시댁 근처 노파

집에 머물다가 사건의 전말을 알아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설화에서 드러났던 며느리의 적극적인 면모는 <조생원전>에서는 희석되지만, <조생원전>의 이본인 <성부인전> 및 <김씨열행록>에서는 설화와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또한 <조생원전>에서는 장씨부인이 유복자 천향을 낳아 키운 후 천향으로 하여금 조생원을 찾아 모셔오도록 하고 있다면, <성부인전>과 <김씨열행록>에서는 며느리가 직접 시아버지를 찾아 길을 떠나고 있다. 따라서 <성부인전>과 <김씨열행록>에서는 며느리를 서사의 주체로 내세워 부분적인 변모를 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며느리의 적극적인 면모에 다소간 차이는 있을지라도, <조생원전>이나 <성부인전> 및 <김씨열행록>에 나타난 며느리의 삶이 열녀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점은 상통한다고 하겠다.

장씨부인은 유복자 천향을 낳아 키우다가 천향이 10살이 되자 조부를 찾아오도록 떠나보내는데, 노자 한 푼 없이 호적 한 장만 품에 넣어주며 10년 기한으로 조부를 찾아오라 한다. <성부인전>이나 <김씨열행록>처럼 직접 시아버지를 찾아 길을 나서지는 않지만, 장씨부인의 담대한 성정이 잘 드러난다 하겠다.

장씨부인의 노력으로 조생원의 가정은 다시금 복원되기에 이르며, <조생원전>의 다른 이본에서는 장씨부인이 임금에게서 열녀라는 칭송과 함께 정렬부인의 칭호를 하사받기도 한다.

전(傳)과 문헌설화를 참조하였을 때 양반사대부 계층에서 가장 이상적인 열녀로 삼은 전형은, 젊어 상부하였으나 자결하지 않고 목숨을 이어 남편의 상을 치르고,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하다가 양자를 얻어 대를 잇게 하고는 시부모 사후 삼 년 상을 치른 뒤에 자결하는 여인상이라고 하였다.¹²²⁾ 양자를 얻어서라도 대를 잇고 시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열행의 극점이라 할 때, <조생원전>의 장씨부인은 열녀의 전형적인 삶을 실천한 것이다.

계모라는 새로운 가족구성원과 기존의 가족구성원 사이에 일어난 갈등으로 가정의 위기를 맞았을 때, 그것을 봉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전설자식의 지극한 효성, 전설자식과 계모소생 간의 돈독한 우애 등을 통하여 계모가 개과천

122) 김대숙, 『한국설화문학과 여성』, 월인, 2002, 114-116쪽 참조.

선함으로써 가정갈등이 해소되는 양상을 계모설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와 <조생원전>에 나타난 며느리의 행위는 가정갈등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장씨부인의 열 윤리는 계모와의 관계가 아닌 남편 영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계모와는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가정갈등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장씨부인의 열 윤리는 남편의 죽음을 초래한 계모를 처단하는 것으로부터 표출된다. 그러나 계모의 처단 이후에도 와해된 가정은 복원되지 않는다. 가장인 조생원이 가정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다. 장씨부인은 시아버지를 모셔와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인데, 그 매개는 유복자인 천향이다. 천향이 있음으로 해서 시아버지를 모셔올 명분이 생기는 것이며, 만약 천향이 없다면 양자를 들여서 가문의 대를 잇고 시아버지를 봉양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장씨부인의 열 윤리는 앞서 예시한 설화들에서 나타난 효 윤리처럼, 가정갈등을 봉합하고 온전한 가정을 영위하는 한 방편으로서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효 윤리를 통하여 계모를 개과천선시켜 조화로운 가정을 이루는 몇 편의 계모설화나 <황월선전>과 달리, <조생원전>에서는 며느리의 열행을 통하여 와해된 가정을 복원하되 계모는 철저히 응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며느리 장씨나 계모는 모두 한 가정의 신입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계모가 자신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며느리 장씨의 가정을 와해시킴으로써, 계모와 며느리의 대결 양상이 나타난다. 진실아들인 영의 입장에서 보면 계모의 악행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진실자식이 자신의 배우자를 통해 신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계모와 며느리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몇 편의 계모설화를 통해서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에 부각되어 나타나는 며느리의 애초의 모습은 진실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계모가 진실딸의 혼인을 방해하는 계모설화를 살펴보면, 우선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와 흡사한 서사전개 속에서 계모가 진실딸의 첫날밤 사위 목을 자르는 것으로 대체된 설화가 있다.¹²³⁾ 따라서 진실딸이 간부부정의 누명을 쓰고, 그것의 해결은 사

위가 자신의 아버지 꿈에 현신하여 목이 있는 곳을 알려주며 그것을 자신의 몸에 붙이면 재생할 것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 다른 예는 전실딸의 첫날밤에 계모가 간부부정의 누명을 씌우고, 그 때문에 전실딸을 오해한 남편(사위)이 신방을 떠나자 전실딸이 자결을 하는 설화가 있다.¹²⁴⁾ 이 설화는 소설 <정을선전>의 전반부와 동일한 서사전개를 보이는 것으로, 후에 어사가 된 남편이 전실딸의 억울함을 알게 되고 다시 재생시켜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이와 흡사한 또 하나의 설화에서는 누명을 쓴 전실딸이 첫날밤 아이를 잉태하였기에 아버지가 죽이는 것을 미룬다. 전실딸은 아이를 낳아 첫날밤 남편이 준 족보와 함께 아이를 목함에 넣어 물에 띄워 보내고, 마침 어사가 되어 그 고을을 지나던 남편이 목함을 발견하여 계모의 흉계가 밝혀진다.

계모가 전실딸의 첫날밤에 흉계를 꾸며 사위가 전실딸을 오해하고 소박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설화에서는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 외에, 오해로 인한 전실딸과 남편(사위)의 갈등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초례청에서 사위에게 독주를 먹이려는 계모의 흉계를 전실딸이 알아차리고, 노래를 불러 남편에게 계모의 흉계를 암시하는 설화도 있다.¹²⁵⁾

이렇게 전실딸의 첫날밤에 해코지를 하는 계모 이야기 속에서, 원래는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관계였던 것이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처럼 계모와 며느리로 대체되었음을 암시받을 수 있다. 즉 동일한 서사전개 속에서 ‘전실아들 - 사위’, ‘전실딸 - 며느리’가 자유롭게 대체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계모 이야기의 일반적인 양상을 감안할 때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이 보편적이라는 점과 ‘간부부정 꾸미기’ 모티프가 주로 전실딸에게 행해지는 계모의 흉계라는 점에서 계모와 며느리 갈등은 계모와 전실딸 갈등을 교묘하게 비튼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처럼 계모와 갈등을 빚는 대상이 전실딸이 아닌 며느리로 나타남으로써, 전실딸이었을 때와는 달리 ‘열행’ 모티프가 동

123) <마음씨 나쁜 후처>, 『한국구전설화』 7, 61-62쪽.

124) <계모와 전실딸>, 『한국구전설화』 8, 54-56쪽.

125) <계모 심술 노래>, 『대계』 8-3, 416-417쪽.

원되어 후반부의 서사가 덧붙을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인물이 대체됨으로써 새로운 모티프가 동원되고, 후반부 서사를 형성하는 단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계모는 진실자식을 죽이고 자신의 소생을 그 자리에 대체함으로써 ‘가장 - 계모 - 계모소생’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이루려고 한다. 반면 며느리는 계모에 의해 와해된 자신의 가정을 복원하여 ‘가장 - 며느리 - 손자’로 이루어지는 가족양태를 이루고자 한다. 그런데 며느리는 새로운 가족구성원이지만, 며느리가 이루려고 하는 가족양태는 계모가 영입되기 이전의 구가정의 모습이다. 따라서 계모와 며느리의 대립은 진실자식을 매개로 했지만, 결국 계모와 진실딸의 대립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단 진실딸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던 열 윤리가 며느리에게는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계모와 가정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이 가부장제와 더욱 공고하게 맞물리게 된다. 즉 <조생원전>은 한편으로는 가장을 서사의 주체로 내세워 가정갈등으로 인한 가정와해의 비극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면서도, 가정의 복원에 있어서는 여성의 열 윤리를 강조하고 계모를 철저히 응징함으로써 보다 가부장적인 질서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연당전>이나 <콩쥐팥쥐전>은 진실딸의 이니시에이션 과정을 의미 있게 형상화하면서 신화적 구조를 드러내고 있었다. <황월선전>의 경우 설화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가정갈등에 대한 모색이 꺾진하게 형상화되고 있었지만, 설화와 소설 모두 진실딸의 혼인담이 부각되면서 그에 따른 이니시에이션 과정을 구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생원전>은 서사 주체가 진실아들이 아닌 가장과 며느리로 설정되면서, 가장을 통해서만 가정갈등의 비극을 꺾진하게 형상화하고 며느리를 통해서만 열 윤리를 통한 가정의 복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비현실적인 요소가 대폭 소거되고, 계모를 들여 갈등을 겪는 서민가정의 모습을 보다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열행을 통한 가정의 복원이라는 여성의 감계적인 삶을 강조함으로써, 가장을 서사의 중심에 내세워 강조하였던 가정갈등과 그로 인한 비극이 여성의 열행

이라는 희생적 행위로 봉합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빈소문 반만 열고 멀니서서 디리치니 혼두 슬 다문 밥니 반치나 흘너진다.
짐치간장 엄는 밥에 속구락도 아니주이 장씨의 구든 마음 꾸티이 사라누서 가
장 원수 갑자호고 그 밥을 딩계늑코 손으로 쥐여 머그니 줄기로 흐를 눈물 가
득하다. (박순호 소장본, 789-790쪽.)

설화에서는 며느리가 시댁 근처 노파집에 머물며 계모의 흉계를 알아내고, 시아버지에게 알려 계모를 응징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며느리가 간부부정의 누명을 쓴 채 시댁에 들어와 계모에게 갖은 학대를 당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조생원전>에서는 위의 예시문처럼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와 계모의 학대를 받는 장면이 부각된다. 그러면서 며느리 장씨는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해원하기 위해 지성으로 빌고 또 빌어, 결국 남편의 현몽으로 계모의 악행을 밝혀낸다.

<성부인전>이나 <김씨열행록>은 설화처럼 며느리가 남장을 하고 계모의 악행을 밝혀내며, 또한 시아버지를 직접 찾아 나서고 있다는 점이 <조생원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이 경우 며느리가 계모와 직접 대면하여 <조생원전>처럼 계모에게 학대를 받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유복자인 아들로 하여금 조부를 찾아 모셔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직접 시아버지를 찾아 나서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의 고난이 강조되고 있어서 가정을 복원하려는 열부의 희생적인 삶이 시아버지 탐색의 여정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즉 <조생원전>에서는 손자의 조부 탐색 과정에서의 고난이 강조되고 있다면, <성부인전> 등에서는 며느리가 탐색의 주체로 나서면서 여성의 몸으로 먼 길을 떠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조생원전>은 이비전설을 통해 며느리의 열부로서의 삶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며느리 장씨는 신행 첫날밤 꿈 속에서 아황와 여영을 만나 열부로서의 고행적 삶을 살아갈 것이며, 후에 만고의 열녀로 칭송받을 것임을 암시받는다.

황능의 차자가서 좌우를 두려부이 아황 여여 두 부인이 용상의 늪피 안자
나을 불너 손을 잡고 혼숨지며 하난마리 귀경도 요컨이와 한고힘비비하야
열여의 구든 절이 만고의 유전하고 빅연후에 나을 차자 이 고지로 도라오라
호거날 (박순호 소장본, 782쪽.)

주지하다시피 이비는 열녀의 대표적인 형상이다. 순임금의 두 부인인 아황과 여영은 천자의 딸들이었으나 순임금에게 출가하여 천한 일을 하며 박대를 받으면서도, 남편을 따라 동정산 소상강가 대숲에서 피눈물을 뿌리며 죽었던 열녀이다. 이러한 전설 속의 열녀가 며느리 장씨의 꿈에 나타나 앞으로의 삶을 예고하고 있어서, 며느리 장씨의 삶은 열녀로서의 삶에 다름 아님이 명확해진다.

또한 <조생원전>에서는 가정을 영위하는데 여성의 헌신적인 삶이 중요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조생원은 전처 이씨의 조언으로 농업에 힘써 부를 이루고 아들 영까지 낳아 평안한 삶을 이루었는데, 전처 이씨가 병으로 죽자 가정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조생원은 실의에 빠져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갈지 몰라 한다. 이때 계모가 들어와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지만, 며느리 장씨의 열행으로 조생원은 다시금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즉 <조생원전>에서 전처 이씨와 며느리 장씨는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여성의 모범적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생원전>에서는 계모와 그 소생에 대한 징치가 유독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콩쥐팥쥐전>에서도 계모와 그 소생인 팥쥐에 대한 응징이 엽기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조생원전> 역시 그에 못지않은 잔인함으로 계모를 응징하고 있다.

비가의 두 자식을 쑥의 마조 동처노코 벼락갓치 호령하야 싹지놈 칼을 쥘
어 전연의 자식 두 형제를 칼노 목을 베히라 ... 싹지놈 할일업서 ... 비수금
늪피 드러 혼 칼노 베인 후에 그 칼노 제 목을 질너 조결치사 호는지라 조
싱원이 통곡하야 여광여취 달여드러 비가연 머리 가닥을 손으로 시으냐야
마조씨의 달고 칼을 들어 전쥬면서 네 이년 비가년아 불척호고 휴찰혼 년아

죽어도 한을 마라 살를 이리 삭고 저리 삭아니니 장씨부인 달여들어 그 칼
을 바다들고 작지 놈의 비를 질녀 간봉을 손에 들고 창소를 목에 걸고 취흔
듯 실성한 듯 웃다가 춤추다가 통곡하니 좌우에 보는 사람 뉘 안이 낙누하
리 (박순호 소장본, 812쪽.)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에서는 계모와 그 소생을 방에 가두고 불을
질러 응징하며, <조생원전>에서는 위의 예시문처럼 계모의 살을 깎고 공모자인
쇠작지의 창자를 꺼내어 한풀이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계모에 대한 철저한 응징은
가정갈등의 책임을 계모에게 전가시키는데 일조를 한다. 그러면서 현신적 태도로
가정을 이끄는 여성과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어 악행을 일삼는 여성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 계모 배씨의 처참한 응징 및 며느리 장씨가 계모의 공모자인 쇠
작지의 창자를 꺼내어 목에 걸고 실성한 듯 웃다가 춤을 추는 장면 등을 통해, 며
느리 장씨의 그 동안의 고난이 더욱 부각되며 동시에 계모와 며느리 장씨의 대비
적인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조생원전>에서 가장인 조생원을 내세워 가정갈등의 비극을 보다
사실적이고 참담하게 형상화하고, 계모를 비롯하여 별다른 악행을 저지르지 않은
그 소생까지 처참하게 처단하며, 며느리의 열행을 강조하는 것 등은 모두 계모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가장이 온몸으로 겪는 가
정의 위기와 비극은 모두 계모의 악행에서 연유한 것이며, 그러한 가정의 비극이
여성의 열행을 통하여 극복될 수 있다는 의식의 근거에는 가장권을 공고히 하여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시각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V. 계모 존재의 부정적 전형화와 계모형 고소설의 문학적 본질

II장에서는 계모 이야기의 서사구조와 갈등구도를 고찰하면서, 이 둘의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다양한 하위유형의 이야기가 형성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 서사의 방향이 달라지며, 갈등의 맺힘과 풀림은 긴밀한 인과관계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드러낸다. 그러한 의미는 작품마다 다르게 구현되어 독자성을 드러내면서도, 계모 이야기라는 범주에서는 단일한 의미망을 이루며 계모 이야기의 본질을 내포한다.

계모 이야기에서 일반적으로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은 관계의 훼손으로 귀결된다. 즉 계모(혹은 그의 소생까지도)를 응징함으로써 계모를 가족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인데, 이와 같은 관계 훼손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계모를 들어서 겪게 되는 갈등이 계모와 전실자식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은, 가족갈등의 삼각구도와 갈등의 전이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다. 하지만 계모와 전실자식의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갈등관계들은 긍정적인 해결을 통해 회복됨에 비해, 계모와 전실자식의 관계는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다. 더구나 계모 이야기의 대부분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부정적으로 해결한 모든 책임을 계모에게 전가하고 있다.

한편 계모를 들어서 가족갈등을 겪는다는 동일한 서사의 출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계모 이야기가 존재한다. 계모 이야기의 전체적인 판도 속에서 일부에 불과하지만, 계모와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계모를 온전한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과정을 형상화한 이야기들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 계모설화의 일부 각편에서는 효로써 계모를 모셔 가정의 평온을 이루고 있었고, 소설의 경우 <황월선전>에서는 새로운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계모 존

재에 대한 모색 속에 계모를 어머니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설화나 소설에서는 계모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실자식의 효심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효행의 대상을 계모로 설정한 이유에 의문을 갖는다면, 그것은 계모까지도 정성을 다해 효도하는 주인공의 지극한 효심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지만,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단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계모를 극진히 모셔 가정의 화락을 이룬 인물들에 대한 국가적 장려의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으니, 계모를 옹정하는 것만이 가족갈등의 근본적 해결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선행 논의에서 선한 계모 이야기는 드물다는 이유로 계모 이야기의 고찰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은 계모와 전실자식 간의 갈등을 계모 입장에서 노력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계모 이야기에서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을 파탄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큰 흐름 외에, 그러한 갈등을 계모는 자애와 덕으로써, 전실자식은 지극한 효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흐름 또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계모 이야기의 일반적인 갈등해결 양상이 계모와 전실자식의 관계 훼손으로 나타나며, 다른 가족구성원들 간에는 관계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계모로 인해 촉발되는 부녀갈등이나 부자갈등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된다. 물론 일부 파탄적 관계는 전설화하여 가정비극의 심각성을 증거하고 있기도 하지만, 전실자식들이 배우자를 만나 혼인을 하거나 대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에도 다른 인물들과는 갈등관계를 형성하지 않거나 갈등을 겪는다 해도 항상 관계의 회복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유독 계모만이 전실자식을 비롯하여 가장과 그 밖의 인물들과 배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지 그 근저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결국 계모 이야기 속에서 계모가 악인으로 전형화된 이유와 맞물리는 문제이다. 즉 계모라는 존재로 인해 독자성을 지니는 계모 이야기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계모가 가정갈등과 비극을 일으키는 문제적 인물로 서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고 악인의 한 전형으로 고착화되어 온 이면에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는 계모 이야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의 지향점과 더불어 작자층과 독자층을 아우른 향유층의 의식 및 그들의 의식형성에 투입해 간 제반 요소들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 문제이다.

계모가 악인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앞서 신화적 상징의 측면에서 밝힌 바 있다. 즉 계모는 자애로운 어머니상의 보존을 위한 대체적 인물로서, 전실자식의 이니시에이션 과정에서 입사주도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설화나 소설에서도 통과제의적 구조 속에 전실자식(특히 전실딸)의 이니시에이션 과정이 의미 있게 드러나면서, 전실자식과 계모의 관계를 입사의례 당사자와 입사주도자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상징적 관계 외에 보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을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계모의 악인 형상에 대한 의미 역시 사회적인 맥락에서 고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계모형 고소설에서는 설화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가정갈등이 부각되고 있어서, 계모와 전실자식의 가정갈등적인 측면에 의미를 두어야 하며 그러한 맥락에서 계모의 부정적 전형화의 원인을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1. 가족형태의 변화와 가장권의 위기에 대한 우려의 표출

계모 이야기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적 인물은 계모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계모를 들일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가정갈등을 불러오는 것이다. 계모를 영입하게 되는 상황은 다름 아닌 친모의 죽음이며, 이로 인해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에 결핍이 생긴다. 가장은 가권을 지닌 상징적 존재이지만, 실질적인 가정사를 이끌어 가는 존재는 어머니이다.¹²⁶⁾ 따라서 어머니가 결핍된 상황에서 가정

126) 가장은 제사권이나 재산권을 포함하는 가권을 지니고 있는데 제사의 수행이나 재산의 관리와 분배 등은 가장이 맡고 있지만, 자녀 양육 등의 실질적인 생활을 위한 일들은 여성에 의해 영위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설화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소설에서는 계모를 들이는 원인이 대부분 가정사를 인의로 돌볼 수 있는 여성이 필요해서이다. 주위 사람들이나 자녀들의 권유로 가장이 마지못해 계모를 들이고 있는 것은 자녀의 양육을 비롯한 가정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생원전>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아내의 권유로 요부(饒富)하게 된 조생원은 실질적인 가정사의 많은 부분을 아내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내가 득병하여 죽자 실의에 빠져 어찌할 줄을 모른다. 그러다가 주위의 권유로 계모를 들이게 되는데, 덕이 있어 가정사를 원만히 돌볼 여성을 맞아들임으로써 비로소 가정의 결핍을 해소하고 온전한 가정사를 영위하게 된다. 본래 품성이 악하고 외모 또한 추물로 표현되는 <장화홍련전>이나 <콩쥐팍쥐전>의 계모는, 이러한 계모 영입의 필요성에 비추어보면 타당하지 않은 언술임을 알 수 있다. 성품이 간악하고 외모 또한 추물을 넘어 공포스러운 형상을 한 여성을 계모로 들이는 것은 모순 되는 일인 것이다. 이는 다른 요소가 투입해간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계모를 들이는 원인이 위와 같기에, 선행연구에서는 조혼의 풍습과 그로 인한 여성의 요절이 잦았던 시대적 상황을 계모형 고소설 등의 출현원인으로 보기도 한다.¹²⁷⁾ 여성들의 요절이 잦으니 계모를 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이 가정갈등을 유발하여 계모형 고소설과 같은 서사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있으나, 일면만을 지적한 것이라 보여진다.

계모로 인한 가정갈등은 계모가 자신의 소생을 낳거나 재산에 대한 욕심, 가정적 주도권에 대한 욕망 등을 표출하면서 본격화된다.¹²⁸⁾ 작품에 따라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는데, <황월선전>이나 <조생원전>에서는 재산에 대한 다툼이 표면에 나타난다. 다툼이라기보다는 계모의 욕심이라고 할 수 있으니, 두 작품에서는 각

127) 이원수, 앞의 논문, 26쪽.

128) 김재용(앞의 책, 210쪽.)은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에 나타나는 재산다툼의 성격에 주목하여, 계모형 고소설을 가정의 공동사회적 성격이 쇠퇴하면서 이익사회로 전환하는 시대의 서사적 산물로 보기도 하였다.

각 가장이 재산분배한 것에 불만을 품거나 전실소생 몫의 재산을 탐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장화홍련전>에서도 이본에 따라 전실딸 자매에게 재산이 갈 것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가장과 전실딸 자매가 자신을 진정한 가족으로 대하지 않고 소외시키는 것에 대한 계모의 불만이 토로되기도 한다. 또한 <콩쥐팥쥐전>처럼 전실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미워하고 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은 모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어느 한 가지 이유만이 가정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재산이나 주도권 다툼 같은 실질적인 이유나, 선천적으로 품성에 결함이 있는 계모가 심정적으로 전실자식을 미워하는 것 때문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서사의 표면만을 읽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가족구성원 간에, 그것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계모와 전실자식이 가족형태의 변화 지점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가정갈등이 계모를 영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친모의 부재로부터 촉발된다는 것과 맞물리는 문제이자, 계모가 자신의 소생을 낳은 후 태도가 돌변하였다는 것에도 상통한다.

친모의 부재는 기존 가족구성원의 결핍으로서, 그 자리에 새로운 가족구성원을 채워넣어야 온전한 가정이 유지된다. 따라서 친모의 자리를 대신할 계모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리하여 ‘가장 - 계모 - 전실자식’으로 구성된 가정은 ‘아버지 - 어머니 - 자식’으로 융화되어야 할 것인데, 융화는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하다. 변화의 과정에는 갈등이 수반되게 마련이고, 따라서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으로 표면화되는 가정갈등은 새로운 가족형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계모소생이 태어남으로 인해 기존 가족구성원인 가장과 전실자식, 새로이 영입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계모, 기존 가족구성원과 새로운 구성원 사이에서 태어난 계모소생이라는 복잡한 양상이 드러나는 것이다. 계모가 애초에 자신의 소생을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는 보다 단순화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이다. 그러나 계모

소생이 태어남으로써 가족구성원 간의 융화는 더욱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되며, 특히 <황월선전>은 이러한 복잡미묘한 가정상황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계모를 들여 쥐는 가정갈등은 이렇게 가족형태의 변화 지점에서 만난 기존 가족구성원과 새로운 구성원 사이의 융화과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조혼의 풍습과 그로 인한 여성의 요절이 많았던 시대상황과 가족제도의 변화라는 흐름과 맞물려 이러한 갈등이 더욱 빈번할 수 있었고, 그것이 조선후기라는 특정시대와 만나 계모형 고소설의 양산을 촉발하였다는 선행논의들은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특정한 시대상황이나 제도의 변화와 상관없이, 가족형태의 변화 지점에서는 크건 작건 항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가족형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친모가 부재하여 계모를 들임으로써 가족형태의 변화가 일어나 가정갈등을 겪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계모형 고소설을 비롯한 계모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형태의 변화 속에 계모와 전실자식 및 가장이 갈등을 겪는 것은, 이들이 지향하는 가정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을 사이에 두고, 전실자식 및 전처의 잔영으로 이루어지는 구가정의 양태와 계모를 위시한 신가정의 양태가 대립하는 것이다. 즉 가족양태의 변화 앞에서 ‘가장 - 계모 - 전실자식’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을 지향하기보다는 각기 다른 것을 욕망함으로써 가정의 와해가 야기된다.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족양태를 두고도, 기존 가족구성원과 새로운 구성원이 대척점에 자리하면서 서로 다른 가족형태를 욕망하는 것이다.

가장을 사이에 둔 이러한 대립은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으로 표면화되는 것이 보편적인데, 죽은 친모의 잔영이 전실자식의 원조자로 빈번하게 등장하면서 이면적으로는 전처와 후처의 대립이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나 계모형 고소설을 비롯한 계모 이야기의 본질이 전처와 후처의 갈등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다면 처첩갈등을 다룬 이야기들과의 변별성이 없다. 처첩 간의 갈등은 제도의 모순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축첩이라는 제도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며 그러한 비판을 본처의 고난을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내려 한 것이다. 그러나 본처의 죽음으로 가정이 온전히 영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후처(계모)를 들이는 것 자체는 비판의 대상이 아

니며, 계모를 영입하는 것은 어떠한 제도라도 상관없는 일이다.

가장을 중간에 두었을 때, 기존 가족구성원은 전실자식이며 새로운 가족구성원은 계모이다. 가정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존재는 가장이지만 실질적인 가정사의 주체는 여성이다. 따라서 상징적인 존재인 가장이 중간에 자리한 상황에서 구가정과 신가정의 실질적인 가정사의 주체인 여성끼리의 대립이 전개되는 것이 계모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전실딸과 계모의 갈등이 보다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도 이런 이유이며, 죽은 친모가 전실딸의 원조자로 등장하면서 전처와 후처의 갈등이 밑바닥에 깔리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한편 가족형태의 변화 속에서 야기되는 기존 가족구성원과 신참자 사이의 갈등을 수습하고 융화된 가족양태로 이끌 책임은 가장에게 있다. 가장은 기존 가족구성원과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중간에 위치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또한 가장을 중심으로 가정이 성립되기 때문에, ‘가장 - 계모 - 전실자식 - (계모소생)’으로 구성되는 융화된 가족형태로의 변화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역할은 가장에게 있는 것이다.

계모를 들인 상황에서 가정갈등의 파장이 커진다는 것은, 가장이 기존 가족구성원과 신참자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변화의 과정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갈등은 위기를 유발한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전실자식과 계모가 갈등하고 전실자식이 위기를 맞이하지만, 이면적으로는 가정의 위기이자 가정의 상징적 존재인 가장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가장의 부재 시에 전실자식의 위기가 초래되는데, 가장의 부재는 일시적으로 가정을 떠나 있는 것과 가장이 치가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가장권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가 핵심으로서 계모의 흥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실자식의 위기를 초래하여, 가정 와해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가정의 와해는 가장의 존립근거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사명당 출가유래담>이나, <조생원전>에서 가장이 계모와 그 소생까지 징치하고 출가하거나 방랑길에 오르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가정 와해의 책임은 악행을 저지른 계모에게로 전가

되기 일쑤지만, 가정 와해의 책임을 몰어 계모를 응징한 후에도 가정이 온전히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은 계모의 악행이나 그에 대한 응징 외에 다른 무엇이 있다는 의미이다.

즉 가족형태의 변화 지점에서 야기되는 가권의 약화가 또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권은 가부장제의 제도 속에서 공고히 보호되는 것이므로 이는 가부장제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다. 처첩갈등에서 문제 삼는 것은 가부장제 아래에서 행해지는 축첩의 불합리함이다. 그러나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형태의 변화 지점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가정이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가정의 와해를 초래한다는 것, 즉 가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가부장제의 위기가 초래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처첩갈등을 다룬 이야기와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는 같으면서도 다른 면을 드러낸다. 전자는 가부장제 자체를 문제 삼거나 혹은 가부장제 아래서 행해지는 축첩제를 비판한다. 그러나 후자는 가부장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라기보다는, 가족양태의 변화 지점에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가장권의 위기를 우려하는 것이다.

축첩제의 모순을 본처의 고난으로 보여주고 가장권의 약화로 인한 폐해를 전실자식의 시련으로 보여준다는 점, 첩과 계모를 악녀로 형상화하여 모두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는 점 등에서 둘은 상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부장제를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다르다. 처첩갈등을 다룬 이야기에서는 축첩제를 용인하는 가부장제의 폐해를 비판하고 있는 반면,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에서는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을 통해 가부장제가 비판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부장제의 약화라고 할 수 있다.

가부장제의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후실 장가를 가지 말라’는 설화 속의 한탄이나 소설 속 가장들이 계모를 들인 것을 후회하는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가부장제의 위기가 초래된 것에 대한 우려의 표출이다. 계모를 들여 가족양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가장권의 약화가 초래되니, 그럴 바에는 아예 계모를 들이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

이다. 또한 ‘가장 - 계모 - 전실자식 - (계모소생)’으로 이루어지는 융화된 가정을 지향하는 것이 응당 마땅할 텐데도, 계모와 그 소생을 가정으로부터 소외시키고 구가정을 수호하는 결말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이 외에도 가장이 부재한 틈을 타거나 가장이 제대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가운데 계모가 흥계를 일삼는다는 설정 역시 가장권이 약화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통한 위기의 불식과 계모 존재의 부정적 전형화

지금까지의 논의의 맥락을 짚어보면 가족양태의 변화 지점에서 기존 가족구성원과 신참자가 만나 융화된 가족양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계모형 고소설의 핵심갈등인데, 그것은 여성을 중심으로 한 구가정과 신가정의 대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대립의 이면에는 가족양태의 변화 속에서 가부장제의 위기가 초래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어있다.

그런데 기존 가족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구가정이 긍정되고, 새로운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신가정이나 기존 가족구성원과 신참자가 융화된 가족양태가 부정되는 결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말은 가부장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과도 긴밀하게 연관된 것인데, 이는 계모를 들여 쥐게 되는 가정갈등의 본질을 비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계모를 들인 애초의 목적에 충실하게 계모를 어머니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황월선전> 뿐이다.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황월선전>에서는 비록 계모가 천벌을 받아 죽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가정내적으로는 어머니로서 인정되고 죽은 후 선산에 안장되어 엄연한 가족으로서 대우받고 있다. 또한 계모소생은 그 어미처럼 악한 인물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그 어미의 허물을 닦고 가정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계모소생이 등장하여, 가장과 계모를 부모로 삼고 전실딸과 계모소생이 그

들의 자식으로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연당전>, <콩쥐팥쥐전>, <조생원전>에서는 모두 계모를 가족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가정에서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다. 전실자식이 계모를 용서할 것을 말하여도 계모는 가장이나 전실자식의 원조자들에 의해 응징된다. 이때 전실자식이 계모를 용서할 것을 말하는 대목은, 계모의 악행에 대비되는 전실자식의 선함만을 부각시킬 뿐이다. 특히 <콩쥐팥쥐전>과 <조생원전>의 계모는 잔인하게 징치되고 있는데, 전자에서는 계모소생을 죽여 그 신체로 짓을 담가 계모에게 먹이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계모의 살을 깎아 죽이고 공모자의 창자를 꺼내어 목에 걸고 춤을 추기도 한다. 또한 특별히 죄가 없는 계모소생까지 방에 넣고 불에 태워 죽이는 등 계모에 대한 과장적 적대감을 엿볼 수 있다.

계모를 처단하고 이루어지는 가족양태는 전실자식이 혼인을 통하여 이룬 가정에 가장이 함께 살거나, <조생원전>처럼 전실자식의 배우자와 그 소생 및 가장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계모와 그 소생을 가족구성원으로 하는 가정은 볼 수 없으며, 철저히 구가정의 양태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장과 전실자식을 중심으로 한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계모를 필요에 의해 영입하였으면서도 끝내 가정에서 소외시키고 있다. 또 다른 계모를 들여 이번에는 가정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결말도 있으나, 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구가정 양태를 완강하게 고수하려는 이면에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계모를 들여 가족양태의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정갈등과 그로 인한 가장권의 위기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

<황월선전>처럼 자식으로서의 부모에 대한 효 윤리를 통하여 가정갈등을 해소하고 융화된 가족양태를 지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며, 이는 실제로 <열녀전> 등을 통하여 장려해온 바다. 그런데도 계모를 처참하게 응징하여 구가정 양태만을 완강하게 고수하는 것은, 가장권의 보호라는 의식이 앞선 결과이다.

계모를 들여 가정갈등을 겪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갈등이 없는 것보다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신참자가

들어와 새로운 질서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어느 때나 일어날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런데 충분히 개연성 있는 일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투입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장권의 위기를 초래하느니 신참자를 제거함으로써 가정갈등을 해소하고 가장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경직된 사고방식이 작용한 결과이다.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의 권위가 무너질 때 가정 또한 와해된다는 사고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한 단면이다. 따라서 가장권의 위기를 초래하는 모든 요건들은 소거되어야만 하며, 가장권의 위기가 가장이 치가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 또한 다른 것에 돌려져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 책임 전가의 대상은 계모인데, 계모는 신참자로서 주도권을 지니지 못한 존재이며 때문에 희생양으로 삼기에 적절한 대상이다. 사회적 약자인 계모에게 가정 와해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울만한 결정적인 약점이 필요하다. 그 결정적인 약점이란 선천적인 인성의 결함 내지는 개인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악행이 될 것이다. 선천적인 인성의 결함이 있는 경우 그것을 외모로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대표적으로 <장화홍련전>의 계모를 들 수 있다. 평범한 인간의 형상을 벗어난 계모의 외양에 대한 묘사는, 처음부터 모든 가정 와해의 원인을 계모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공감할만한 면이 있다. 이때에 계모는 외모도 평범하거나 혹은 미색이며, 처음부터 요악한 마음이었던 것은 아니다. 자신의 소생을 낳고부터 그 태도가 돌변했다는 언급이 자주 나오는데, 계모의 어미된 노릇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또한 계모가 표출하는 욕망 역시 인지상정적인 측면이 있으니, 가정의 어머니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을 품거나 재산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용납 못할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자식을 모해하고 그 목숨을 앗아가려 한다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지만, 계모가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동기는 공감할만한 면이 있다. 특히 가장이 계모를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모의 소외감은 더욱 커져만 갔던 것이며, 계모가 진실자식에게 악행을 저

지르게 된 이면에는 가장이 치가의 도리를 제대로 못한 탓도 크다.

<콩쥐팥쥐전>에서는 가장의 존재가 미미하며 이는 그만큼 무력한 가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조생원전>의 가장은 가정의 갈등과 비극 앞에 나약한 모습을 보이며, <황월선전>에서도 가장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변민한다. 치가의 도리를 제대로 못하는 무력한 가장의 모습과 맞물려 생각할 때, 서사의 결말에서 계모만이 철저하게 가정에서 소외되는 것은 일면 납득하기 힘든 점이 있다. 더구나 계모의 악행에 가담하지 않은 계모소생까지 응징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계모에게 가정 와해의 책임을 전가하여 잔인하게 응징하면서, 동시에 구가정의 여성인 전실딸 및 신참자이지만 구가정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지닌 며느리에 의해 가정이 복원되는 서사의 결말은 모두 가장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와 연계되어 있다. 전실딸이나 며느리에 의해 복원되는 가정은 새로운 가정이 아니라, 계모가 들어오기 이전의 가족양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계모를 응징하는 것은 계모를 가족구성원으로 하는 새로운 가족양태를 부정하는 것이다.

구가정으로의 끊임없는 회귀는 계모라는 신참자로 인해 새로운 가족양태로의 변화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거부감의 근저에는 변화 속에 야기되는 가장권의 약화와 가부장제의 위기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경직성,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상실한 경직성으로 인해 계모는 가정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다.

계모형 고소설이 ‘가장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담고 있는 것’¹²⁹⁾이라는 관점과 ‘가부장권의 강화에 따라 혈연주의에 입각한 가족 내 단결을 강조하고 계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¹³⁰⁾이라는 견해는 일면 상반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 가지 관점은 계모형 고소설에 나타난 갈등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의 결과를 보여준다. 계모를 들여 가정갈등을 겪게 된 데에는 가장의 치가

129) 이승복, 「계모형 가정소설의 갈등 양상과 의미」, 『관악어문연구』 20, 1995, 290쪽.

130) 이기대, “장화홍련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참조.

능력의 부재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계모의 악행이 가정갈등과 가정 와해의 주 원인이지만, 이면적으로는 가족형태의 변화 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가장이 제대로 대처하고 수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품에 따라 그러한 가장의 치가 능력 부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치가의 도리를 제대로 못한 가장을 비판하는 정도도 다르게 나타난다. <장화홍련전>처럼 가장의 무능함을 직접적으로 질타하는 언술이 드러나는가 하면, <황월선전>이나 <조생원전>처럼 가장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부각되기도 한다. <콩쥐팍쥐전>에서는 가장의 존재가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가장이 치가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은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가장권의 약화를 비판하는 이면에는 가장권이 약화된 것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으며, 그러한 우려는 가장권을 강화를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계모를 악인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가장의 치가 능력 부재로 인해 야기된 가정의 와해 및 전실자식의 희생이 계모에게 전가됨으로써, 가장은 비판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게 되며 전실자식은 자신의 희생에 대한 분풀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계모를 가정에서 소외시켜 가장권도 위기를 겪지 않고 전실자식도 희생당하지 않는, 계모가 영입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계모형 고소설은 가장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드러내면서도 그것을 진정한 비판으로 이끌지 못하고, 도리어 가장권을 강화하는 쪽을 택함으로써 비판의 시선을 무마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가장권의 강화, 즉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대상은 신참자인 계모이다. 또한 전실자식 특히 전실딸이다. 계모형 고소설에서 대립의 주체는 계모와 전실딸이다. 여기에 죽은 친모가 전실딸의 원조자로 등장하면서 계모와 친모의 갈등이 간접적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또한 <콩쥐팍쥐전>처럼 전실딸과 계모소생 딸의 대결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 둘의 대결에서 승자는 전실딸로 나타난다. 서사의 전반부에서는 계모가 승자인 것처럼 보이고, 후반부에서는 전실딸

이 승자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상황이 역전된다.

승자의 자리를 번갈아 차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사의 전반부에서는 전실딸이 가정 내에서 희생당하고 후반부에서는 계모가 희생양이 된다. 전실딸은 계모의 악행으로 희생되고, 계모는 전실딸이 그 악행을 들추어내어 응징된다. 이렇게 계모와 전실딸은 가정 내에서 서로를 희생시키고 또한 희생당한다.

계모와 전실딸의 희생이 의미 있게 드러나는 것은 <황월선전>이라고 할 수 있다. 신참자인 계모와 그 소생이 기존 가족구성원인 가장 및 전실딸과 조화로운 가정을 이룸으로써, 가족형태의 변화 속에서 빚어진 갈등이 의미 있게 봉합되고 있다. 그러나 <콩쥐팥쥐전>, <연당전>, <조생원전> 등에서는 한 여성에게만 희생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 보상은 대립관계에 있던 계모를 응징하여 가정에서 소외시키고 전실딸을 다시금 가정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 전실딸(<조생원전>에서는 며느리)이 편입되는 가정은 계모가 영입되기 이전의 구가정이다. 전실딸은 혼인을 통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지만, 전실딸이 죽은 친모의 도움으로 배우자를 만나 이룬 가정은 계모가 영입되기 이전의 구가정과 다를 바가 없다. 계모를 소외시켜 끊임없이 구가정의 가족형태로 회귀하려는 이면에는, 가정갈등의 원인을 계모에게 전가하여 원인 제공자인 계모를 가정에서 소외시키면 모든 갈등이 해소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갈등이 해소되면 가장권의 위기 또한 불식될 수 있으니, 전실딸과 계모의 희생 및 전실딸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모두 가장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식과 맞물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권의 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계모와 전실딸이라는 가정 내 여성이 모두 그 희생양임을 알 수 있다.¹³¹⁾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한 여성은 선인으로, 또 다른 여성은 악인으로 형상화

131) 이기대(앞의 논문, 50쪽.)는 <장화홍련전>에 대해 ‘당시의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가장권 강화라는 현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격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조현설(「남성 지배와 <장화홍련전>의 여성 형상」,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59-70쪽 참조.)은 <장화홍련전>을 비롯한 계모형 가정소설에서 계모가 악녀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남성지배의 위기와 관련이 있다는 전제 아래,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모를 희생양으로 선택한 것이라 보았다. 즉 17-18세기는 조선초기부터 제도화되어 가던 종법제적 질서가 경제적 기반의 변화와 맞물린 적장자 우위의 상속제도로의 전환을 통해 강화되는 시기로 이해되지만, 강화의 이면에는 위기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면서 가부장제의 위기를 계모라는 희생양을 내세워

되어 나타났을 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하겠다. 이처럼 가장의 치가 능력에 대한 비판은 계모와 전실딸이라는 악인과 선인의 대결 구도에 가려지게 되고, 이후 점차 가정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소거된 채 선악 대결에서 드러나는 흥미성만이 통속적으로 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³²⁾

무마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원귀로 나타나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장화와 홍련의 형상은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권의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 132) 그리하여 무능한 가장, 사악한 계모, 그 가운데서 희생당하는 선한 주인공으로서의 전실딸(혹은 전실아들)의 모습은 이후의 서사문학에서 전형화되어 등장한다. 특히 신소설에서는 전대의 계모 이야기를 수용하되, 가정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뒤로 하고 전형화된 인물 형상만을 충실히 답습하고 있다. 즉 신교육 사상의 고취를 비롯한 개화사조 및 계몽성에 작품의 주제를 두고 있으면서도, 인물의 형상과 갈등상황은 여전히 계모형 고소설에서 전형화된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에 따른 가정의 위기에 대한 철저한 인식도 드러나지 않는다.

VI. 결 론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계모형 고소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계모설화와 계모형 고소설의 영향관계에 주목하였다. 계모설화의 관련성 아래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계모형 고소설인 <연당전>, <황월선전>, <콩쥐팥쥐전>, <조생원전(필사본)>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을 통해 <장화홍련전> 등 일부 작품에 집중되었던 논의의 편향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위에 열거한 작품들은 계모설화와 영향관계 속에서 장르를 달리하면서도 변모되지 않는 본질적인 의미를 드러내는가 하면, 소설적 변모를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계모설화와 서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서사 엮어가기를 통해 새로운 작품을 형성하여 작품세계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웅소설이나 가문소설과 같은 다른 고소설 유형과의 횡적인 영향관계를 통해 계모형 고소설 작품세계의 변모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연당전>, <황월선전>, <콩쥐팥쥐전>, <조생원전(필사본)> 등을 대상으로 계모형 고소설을 논의하는 것은, 계모형 고소설이 계모설화와 종적인 영향관계 및 다른 고소설 유형과의 횡적인 영향관계를 통하여 작품세계의 지평을 넓혀가는 과정과 그 의미의 변모를 살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II장에서는 계모 이야기의 보편적인 서사구조 및 갈등구도의 전개와 계모 이야기의 전반적인 존재양상을 전제적인 조건으로 살폈다. 계모 이야기는 설화(민담), 서사무가, 고소설, 신소설 등의 다양한 장르로 존재하면서 서로 영향관계를 맺고 있다. 계모 이야기가 장르와 하위유형을 넘나들며 상호 관련을 맺는 양상을 통해 계모 이야기의 지형도를 그려볼 수 있는데, 이는 계모설화와 계모형 고소설의 상관성에 대한 이해 및 계모 이야기의 서사문학적 존재감을 가늠하는데 유효하다.

계모 이야기에는 다양한 장르와 하위유형을 가로지르는 공통적 틀로서의 서사구조가 존재하며, 그것은 친모의 죽음으로 인한 계모의 영입과 그로 인한 가족구

성원 - 특히 전실자식 - 과의 갈등으로부터 출발한다. 계모와 주로 갈등을 빚는 것은 전실자식으로서, 계모는 끊임없이 전실자식을 가정으로부터 소외시키려 한다. 죽음을 맞이하거나 가정으로부터 축출된 전실자식은 원조자나 배우자를 만나 시련을 극복하고 가정으로 귀환한다. 전실자식의 귀환으로 계모는 그 악행이 드러나 응징되고, 서두에서 제시되었던 가정의 갈등은 마무리된다.

계모 이야기의 위와 같은 서사구조는 각 단계마다 경우의 수로서 동원되는 모티프의 실현으로 구체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그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계모 이야기의 하위유형이 갈라지는데, 하위유형의 독자성을 드러내주는 특정 모티프는 인물갈등 구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물 간의 갈등구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동원되는 모티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동일한 서사구조 안에서도 하위유형마다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계모 이야기의 인물갈등 구도는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을 기본으로 하되 가장이 중개자적인 갈등을 겪는 삼각구도를 이룬다. 이 삼각구도가 전이되어 또 하나의 갈등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데, 전실자식의 배우자나 계모소생 등이 등장하게 되면 계모와 전실자식 및 가장의 갈등구도가 이들에게 전이됨으로써 또 다른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중의 삼각구도를 형성하는 계모 이야기의 갈등구도는 하위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삼각구도가 온전히 유지되기도 하고 유지되지 못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서사구조와 갈등구도를 바탕으로 계모 이야기의 존재양상과 그 상호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때, 계모설화는 여덟 가지의 하위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손 없는 색시>, <황화일엽(黃花一葉)>, <콩쥐팥쥐>, <연이와 벼들도령>, <접동새>,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 <우목낭상(寓目囊箱)>이 그것이다. 전자의 다섯 유형은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으로 기본으로 하며, 후자의 세 유형은 계모와 전실아들의 갈등을 문제 삼는다.

특히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는 서사무가 <칠성풀이>, <문전본풀이>, <성신굿>, <살풀이>와 일정 부분의 서사를 공유한다. <칠성풀이>와 <문전본풀이>는 전반부에 다른 서사가 덧붙여 있고, 후반부에서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와 유사

한 서사전개를 보인다. <성신굿>과 <살풀이>는 다른 서사와의 결합 없이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와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성신굿>은 더욱 설화와 밀접하여 <성신굿>이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를 서사무가로 수용하였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한편 <허웅애기본풀이>는 <콩쥐팥쥐> 및 <콩쥐팥쥐전>과 서사를 공유한다. <허웅애기본풀이>에서는 허웅애기가 계모로, 콩애기가 전실딸로 나타나면서 후반부에 다른 서사가 덧붙는다. 후반부 서사는 민담 <허웅아기>와 유사한데, 콩애기가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살림을 하다가 이웃할미의 의심을 사고, 결국 저승차사에게 넋을 빼앗긴다는 전개를 보인다.

계모형 고소설은 세 가지의 양상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계모설화와 밀접한 관련 속에 작품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바다. <연당전>, <황월선전>, <콩쥐팥쥐전>, <조생원전(필사본)>가 그것으로, 각각 <손 없는 색시>, <황화일엽>, <콩쥐팥쥐>,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와 영향관계를 맺는다.

<장화홍련전>은 계모형 고소설의 초기적 양상을 보이는 작품으로 논의되었으며, 많은 연구성과가 있었다. 계모설화에서도 2편 정도 <장화홍련전>과 유사한 것이 보이나, <장화홍련전>은 전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원형 송사설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룡전>이나 <효열지> 등은 계모형 고소설이 영웅소설이나 가문소설과의 영향 아래 형성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실자식이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군담 모티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크게 변모된 모습이다. 작품세계의 의미 또한 계모와 가정갈등보다는, 전실자식 중심의 영웅적 삶과 그로 인한 가문의 존속과 영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변모되었다.

신소설은 <구의산>처럼 전대의 계모 이야기 -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를 비롯한 <조생원전(필사본)> 및 <김씨열행록> 등 - 를 수용하여 형성된 것과, <치악산>과 같이 계모 이야기의 보편적인 서사구조와 인물형상 등을 수용한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Ⅲ장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장르와 유형으로 존재하면서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는 계모 이야기들 중, 계모설화와 계모형 고소설의 관계에 주목하여 그 존재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당전>은 <손 없는 색시>와의 영향관계 속에서 형성된 작품으로, <손 없는 색시> 설화 각편에 나타나는 모티프들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 작품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손 없는 색시>의 각편 일부는 <황화일엽>과 착종되어 있는데, <연당전>의 이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순금전>은 그러한 착종 속에서 형성된 소설이다.

<황월선전>은 <황화일엽>과 관련이 있다. <황화일엽>과 <황월선전>의 영향관계에 주목한 논의가 없었기에, <장화홍련전>이나 <콩쥐팍쥐전>을 설화적 전통과 관련된 계모형 고소설의 초기적인 형태로 간주하면서 <황월선전>은 후기 유형구조의 작품으로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황월선전>은 <황화일엽>과 영향관계 속에 있으면서 <선연전>, <양소저전> 같은 여성영웅소설과 교섭한 작품까지 형성해내고 있어, 계모형 고소설의 판도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작품이다. 즉 <황월선전>만으로도 계모형 고소설의 종적이고 횡적인 전개와 변모를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콩쥐팍쥐전>은 주지하다시피 <콩쥐팍쥐>라는 설화적 전통과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동화화의 과정을 거쳐 계모 이야기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조생원전>은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와 서사전개가 유사하다. 이 설화 각편 중에는 가장이 사명당으로 나타나면서, <사명당 출가유래담>으로도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나머지 각편은 <조생원전>의 서사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사명당 출가유래담>으로 귀결된 각편들은 <사명당전>의 전반부와 관련을 맺는다.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의 큰 특징은 계모와 전실아들의 갈등을 내세웠지만, 초점은 가장과 전실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에게 있다는 점이다. 가장에게 보다 주목한 것이 <사명당 출가유래담>이고, 며느리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나머지 각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생원전>은 며느리 중심의 각편과 서사가 동일하지만, 가장과 며느리가 서사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본인 <성부인전>과 변이작인 <김씨열행록>을 통해서 보다 며느리 중심의 서사로 이행해 가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특히 <김씨열행록>은 후반부의 서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김씨열행록>과 개화기 소설 <구의산>의 영향관계를 고찰하였거니와, 정확하게 말하면 <구의산>은 <조생원전>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상의 계모형 고소설들은 계모와 가족갈등이라는 동일한 주제 속에서도 작품마다 그 주제를 구현하는 방식 및 계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낸다. 작품간의 변별성을 밝혀주는 것은 동시에 작품별 독자성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또한 이들 작품을 통해 계모형 고소설의 다채로운 작품세계를 살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IV장에서는 <연당전> 등의 계모형 고소설에 대한 의미 고찰과 더불어 계모형 고소설의 구체적 작품들이 드러내는 독자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연당전>은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을 주축으로 삼으면서, 전실딸의 혼인담을 통해 전실딸의 어머니 되기와 가정 이루기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전실딸의 손목 절단과 재생 모티프는 전실딸의 모성성 획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전실딸 배우자의 아내와 자식 탐색은 온전한 가정 이루기라는 의미를 지닌다.

<황월선전>에서는 선한 계모 소생(이복남동생)이 등장하여 중요한 의미를 형성한다. <황월선전>에서 서사의 전면에 부각되는 선한 계모 소생은, 계모로 인해 와해된 가정의 복원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 계모와 그 소생까지 치참하게 응징되는 일반적 결말과 달리, <황월선전>에서는 대부분 계모가 용서되고 어머니로서 인정된다. 비록 천상계의 벌을 받아 계모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가족과의 화합은 이미 이룬 상태이며 또한 가족에 의해 선산에 안장된다. 따라서 <황월선전>의 의의는 계모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인식과 가족화합에 대한 모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콩쥐팥쥐전>은 전실딸의 혼인담과 더불어 가정 내 여성갈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계모와 전실딸의 갈등이 계모딸과 전실딸의 대립으로 전이되면서,

계모와 전실딸 갈등이 본래는 처-처 갈등이라는 가정 내 여성갈등의 변형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죽은 친모와 계모의 암시적 대립이 계모와 전실딸로 변형되었다가, 계모딸과 전실딸의 대립으로 다시 전이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콩쥐팍쥐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조생원전>은 계모와 전실아들의 갈등을 표면에 내세웠으나, 가장과 며느리를 서사의 주체로 삼는다. 며느리의 노력으로 아들의 비극적 죽음이 계모의 흥계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된 가장은, 계모와 그 소생까지 불태워 죽인 후 가산을 며느리에게 맡기고 방랑길에 나선다. 이는 가정의 상징적 존재인 가장을 통해 계모 영입으로 인한 가정의 비극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며느리가 유복자를 낳아 시아버지를 모셔오고 와해된 가정을 복원한다는 것에는 열 윤리가 개입되어 있다.

V장에서는 계모형 고소설을 비롯한 계모 이야기에서 대부분 계모와 기존 가족구성원들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으로 끝나고 계모가 악인으로 전형화된 것에 대한 의미 고찰을 통해, 계모형 고소설 및 계모 이야기의 문학적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늠하였다.

계모를 들여 겪는 가정갈등은 기존 가족구성원과 새로운 구성원이 만나 융화된 가족양태를 이루는 과정의 부산물이며, 계모 이야기에서 핵심이 되는 갈등은 가족구성원 간의 서로 다른 가족양태에 대한 욕망의 대립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대립의 이면에는 갈등을 조율하고 융화된 가족양태를 지향해야 할 가장이 처가의 도리를 제대로 못하여, 가장권의 약화 및 나아가 가부장제의 위기를 초래한 것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계모 이야기에서는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가부장제가 약화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부장제의 약화라는 위기를 계모에게 전가하여 봉합하고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고 있는데, 계모를 가정에서 소외시키는 결말과 계모를 악인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으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 인해 악인으로 전형화된 계모는 계모형 고소설을 비롯한 계모 이야기의 문학적 통속화를 통해 그 악인형상에 공고해져 갔다.

계모형 고소설을 고찰함에 있어 <장화홍련전>을 비롯한 일부 작품에 집중된 논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계모형 고소설의 실상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계모형 고소설의 또 다른 작품세계를 <연당전>, <황월선전>, <콩쥐팥쥐전>, <조생원전> 등을 통하여 밝혀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들은 계모설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장르를 달리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향유된 계모 이야기를 살필 수 있다는 의의가 있었다. 본고의 논의를 통하여 계모형 고소설 작품세계의 지평이 보다 온전히 드러날 수 있었기를 바라며, 미처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다양한 계모 이야기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과제로 남긴다.

참 고 문 헌

자료

- <김씨열행록>, 김기동 편, 『활자본고전소설전집』 2, 아세아문화사, 1976.
- <김연단전>, 여승구 소장본, 『고서통신』 15, 1999, 9.
- <도성원전>, 박태상 소장본, 『국문학연습 - 조선조 가정소설 연구』, 방송통신
대 출판부, 1991.
- <매화전>, 정병욱 해제, 『韓國學報』 5, 일지사, 1976.
- <四溟堂傳>, 『舊活字本 古小說全集』 21, 仁川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3.
- <석대룡전>,朴晟義, 「未發表古代小說考」, 『文理論集』 제7집, 고려대학교 문리
과대학, 1963.
- <선연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고소설목록』, 1983.
- <성부인전>, 여승구 소장본, 『고서통신』 15, 1999, 9.
- <순금전>, 김광순 소장본, 『김광순 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32, 경인문화
사, 1995.
- <양소저전>, 단국대울곡기념도서관 소장, 『漢籍目錄』, 1994.
- <어룡전>, 김광순 소장본, 『김광순소장 한글고소설 전집』 8, 박이정, 1998.
- <어룡전>, 박문서관본,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4,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아세아문화사, 1976.
- <어룡전>, 박순호 소장본, 『박순호 소장 한글필사본 고소설자료 총서』 29, 월촌
문헌연구소편, 보경문화사, 1986.
- <연당전>, 조동일 소장본, 『조동일 소장 국문학연구자료』 16, 박이정, 1999.
- <조생원전>, 월촌문헌연구소 편,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오성사, 1986.
- <콩쥐팍쥐전>, 太華書館, 1928.
- <황연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본.

- <황월선전>, 김광순 소장본, 『김광순 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37, 경인문화사, 1993.
- <황월선전>, 월촌문헌연구소 편, 『박순호 소장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51, 오성사, 1986.
- <효열지>, 서울대학교도서관 소장본, 『일반고도서목록』, 1973.
- 강릉대학교국어국문학과, 『강릉어문학』 제9집.
- 김광순, 『경북민담』, 형설출판사, 1978.
- 김태곤, 『한국무가집』 1, 집문당, 1970.
- , 『한국무가집』 2, 집문당, 1976.
- , 『한국무가집』 3, 집문당, 1978
- 도서문화연구회, 『신안지역의 설화와 민요』, 도서문화 3집, 목포대학교도서문화연구소, 1996.
- 박순호, 『국어교육연구』 3, 1983.
- 박현국, 『한국공간설화연구』, 국학자료원, 1995.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1~12, 평민사. 1990~1997.
- 임석재·장주근, 『관서지방무가』, 1966.
- 임석재·장주근, 『줄포무악』, 1970.
- 赤松智城 · 秋葉隆, 『韓國巫俗の研究』 上, 1937.
- 진성기, 『남국의 무가』, 1960.
- 최길성, 『전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971.
- 최래옥, 『전북민담』, 형설출판사, 1979.
- 최운식, 『한국의 민담』, 시인사, 198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어문연구실,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9.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 , 『제주도민담』, 제주문화, 1996.
- 홍나래, “<칠성풀이> 연구”(부록자료),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단행본

- 김광순, 『순금전 연구』, 국학자료원, 1999.
-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1.
- 김대숙, 『한국설화문학과 여성』, 월인, 2002.
-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1.
- 김재용,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 집문당, 1991.
-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 로버트 단턴, 『고양이 대학살』, 조한욱 역, 문학과 지성사, 1996.
- 박태상, 『조선조애정소설연구』, 태학사, 1996.
- 시몬느 비에른느, 『통과제의와 문학』, 이재실 역, 문학동네, 1996.
- 安廓,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 엘리아데, 『신화와 현실』, 이은봉 역, 성균관대출판부, 1985.
- 정종대, 『염정소설구조연구』, 계명문화사, 1990.
- 정주동, 『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70.
- 조운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79.
- 崔雲植, 『韓國說話研究』, 집문당, 199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15, 17권, 1990.

논문

- 강상순, 「조선후기 장편소설과 가족 로맨스」,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7집, 월인, 2003.
- 강은경, “<손 없는 색시>담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강진옥, 「구비효행설화의 거시적 조망」, 『구비문학연구 제3집』, 한국구비문학회, 1996.
- 권순궁, 「<콩쥐팥쥐전>과 고소설의 동화화 경향」 『성대문학』 25, 성균관대 출

- 관부, 1987.
- 권영철, 「<조생원전>에 대하여, 守愚齋 崔正錫 박사 회갑기념 논총」, 『한국문학연구』, 효성여대출판부, 1984.
- 김대숙, 「여인발복설화연구」, 『한국설화문학의 연구』, 집문당, 1994.
- 김민조, 「<황월선전> 이본 연구」, 『고소설연구제1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6.
- 김영희, 「아기장수이야기의 신화적 주제 탐색」, 『구비문학연구 제10집』, 한국구비문학회, 2000.
- 김일렬, 「고전소설에 나타난 가족의식」, 『동양문화연구』 제1집, 경북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1974.
- 김종균, 「<콩쥐팥쥐전>의 서사구조 연구」, 『한국학보』 87, 일지사, 1997.
- 김진명,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성립에 대한 일고찰 - 민족지적 제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학』 제21집, 한국문화인류학회.
- 김혜정, “<손 없는 색시> 설화의 유형체계 - 유형, 하위유형, 상위유형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노영근, “이야기문학에 나타난 ‘가족탐색’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박광수, 「민화전의 이본에 대하여」, 『고소설연구』 제3집, 한국고소설학회, 1997.
- 박광수, “<유화양미록> 연구”, 『어문연구 25』, 1994.
- 박연미, “<황월선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종성, 「‘바리공주’와 ‘칠성풀이’의 同異性」, 『한국서사문학의 연구』 5, 중앙문화사, 1995.
- 서대석, 「칠성풀이 연구 - 신화적 성격과 서사시적 서술구조」, 『진단학보』 제65집, 진단학회, 1988.
- 서인석, 「<조생원전>(필사본)의 문학사적 성격」, 『국어국문학연구』 제19집,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1.
- 孫貞嬉, 「四溟堂說話 研究 - 慶南地方을 中心으로 -」, 『韓國文學論叢』 13, 韓

- 國文學會, 1992.
- 손혜옥, “통과제의 시각으로 본 계모설화 속 계모 악인 형상의 의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송성욱, “가문의식을 통해 본 한국고전소설의 구조와 창작의식”,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0.
- 송희영, “페미니즘시각에서 본 그림(Grimm)동화 - 양극적 여성이미지와 가부장적 시민사회 -”, 한국여성학회 2002년 춘계학술발표회 발표 요지, 2002.
- 신상운, “계모설화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신연우, <손 없는 색시> 설화와 여성 성의식의 성장»,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제 5차 학술대회발표요지, 이화여대, 2001. 4.
- 안미울, “<조생원전>의 후대적 변모 : <김씨열행록>·<구의산>과의 비교”,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우쾌제, “계모형 소설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6.
- 우쾌제, “조선시대 가정소설의 형성요인 연구 - 열녀전의 전래와 수용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 유시순, “계모형 소설에 나타난 갈등의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84.
- 이기대, “<장화홍련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성권, 「계모형 고소설의 갈등과 그 성격 - ‘계모형 고소설’과 ‘가문소설’ ‘효열지’를 중심으로 -」 『고소설연구』 제9집, 한국고소설학회.
- 이원수, 「<콩쥐팍쥐>와 <신데렐라>의 비교연구 - 북미 인디언 <신데렐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어문학』 77, 한국어문학회, 2000.
- 이원수, “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이원수, 「<콩쥐팍쥐>연구의 성과와 전망」, 『어문학』 61, 한국어문학회, 1997.
- 이윤경,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형>설화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
- 이윤경, 「<손 없는 색시> 설화의 소설화와 그 의미」, 『돈암어문학 14집』, 돈

- 암 어문학회, 박이정, 2001.9.
- 이인경, 「<손 없는 색시> 설화의 신화적 성격과 심리학적 접근」, 『구비문학과 인접학문(2)』, 한국구비문학회, 2001. 11.
- 이현홍, 「송사소설의 소설사적 의의와 맥락」, 『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1993.
- 임성래, 「어룡전의 구성고」, 『연세어문학』 14·15 합병호,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1982.
- 임재해, 「온달형 설화의 유형적 성격과 부녀갈등」,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박이정, 2000.
- 임철호, 『설화와 민중의 역사의식』, 집문당, 1989.
- 전성탁, “<장화홍련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 전용신, 「韓國繼母說話研究」,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정경자, 「고대소설에 나타난 계모형 소설연구」, 『국어국문학연구』 제12집, 부산대학교, 1962.
- 鄭相珍, 「계모형 가정소설의 후대적 변모와 <황월선전>」, 『한국고전소설연구』, 삼지원, 2000.
- 정좌경, “<어룡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주혜, “<칠성풀이>와 <문전본풀이>의 대비 연구 - 가족관을 중심으로 -”,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정지영, “조선후기 과부와 그 아들의 관계 변화 - □□단성호적□□에서 찾은 호주승 계관행의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여성학회 2002년 춘계학술 발표회 요지.
- 정하영, 「고소설에 나타난 모성상」, 『구비문학연구』 제4집, 한국구비문학회, 월인, 2002.
- 정혜심, “계모계 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조현설, 「남성 지배와 <장화홍련전>의 여성 형상」,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시각』, 소명출판, 2003.

- 조희용, 「<손 없는 색시>(AT706)고」, 『수여 성기열 박사 환갑기념논총』, 동
간행위원회, 1989.
- 주종연, 「민담의 장르적 특성」, 『국민대어문논총』 19, 2000.
- 주종연, 「<손 없는 색시>와 <Das Mädchen ohne Hände>」, 『한독민담비교
연구』, 집문당, 1999.
- 최운식, 「繼母說話의 研究」, 『한국의 민속』 제3호, 경희대민속학연구소, 1986.
- 홍나래, “<칠성풀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황영옥, 「정을선전 연구」, 『국어국문학』 24, 부산대학교, 1987.

ABSTRACT

The study of Stepmother type korean old novels

- In connection with a stepmother tale -

Lee, Yun - Gyeong

Doctor's Course

Dept. of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d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is manuscript, the connection between a stepmother tale and a stepmother type korean old novels is worthy of notice to overcome a limit of existing discussion and to understand deeply about a stepmother type korean old novels. In connection with a stepmother tale, there are many stories which strike out a path of their own, for example, <Yeondang-Jeon>, <Hwangwolseon-Jeon>, <konggipotgi-Jeon>, <Josangwon-Jeon(copy text)>, <Janghwahonglyun-Jeon> and so on. These are not relatively more remarkable than the story of <Janghwahonglyun-Jeon>, therefore we would like to overcome the propensity of the discussion which is focused on some works through complete consideration.

Likewise discussing about an such as <Yeondang-Jeon>, <Hwangwolseon-Jeon>, <konggipotgi-Jeon>, <Josangwon-Jeon>, <Janghwahonglyun-Jeon> has a significance to take a good look at the transfiguration of the meaning

and a course to enlarge the horizon of the work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a stepmother tale and a stepmother type korean old novels.

As previously stated, we look about the development of the complications composition and universal description structure about a stepmother story as well as an versal existence aspect following II chapter. In a stepmother story, there is a description structure as the common tool which are crossed a subordinate type and a varied genres, and that kind of stories begin with complications of family members - especially a child by her former wife- according to the death of a mother and an appearance of a stepmother. A stepmother constantly tends to alienate a child by her former wife who makes complications with a stepmother. A child by her former wife who is treated distantly by family go back to home after meeting a spouse and overcoming ordeals. After a child by her former wife returns home, a stepmother is chastised by revealing an evil conduct and then complications of a home is finished.

The description structure of a stepmother story assume an concrete aspect by realizing of the motive. The story of a stepmother is up to an concrete aspect and a specific motive which reveals the personality of a subordinate type is related with a composition of the character complications.

A composition of the character complications about a stepmother story is based on the complications between a stepmother and a child by her former wife and accomplish a triangle composition which the head of a family undergoes.

After a triangle composition changes ,it makes any other complications composition and after a child's spouse appears it can make another composition.

If a triangle composition changes and makes another complications

composition,

By appearing differently according to a subordinate type ,the complications composition about a stepmother story maintain a triangle composition or not.

Like this description structure and complications composition, when looking into a mutual relation and an existence aspect, there are 8 subordinate types, for example, <*Bride without hands*>, <*Hwanghwailyeop*>, <*konggipotgi*>, <*Yeone & Burdledoryung*>, <*Jupdongsae*>, <*A step mother who killed the son in the bridal room*>, <*A stepmother who eats her son's liver*>, <*Woomocnangsang*>. 5 types of the former are based on complications between a stepmother and a daughter by her former wife and 3 types of the other are based on complications between a stepmother and a son by her former wife.

Particularly <*A stepmother who eats her son's liver* > shares some parts of a description with <*chilsungpulee*>, <*moonjunbonpulee*>, <*sungsingood*>, <*salpulee*>.

<*chilsungpulee*> & <*moonjunbonpulee*> have other description in the first half and some similar description development in the latter half . <*sungsingood*> & <*salpulee*> have a similar aspect without any combination of other description like <*A stepmother who eats her son's liver* >. Since <*sungsingood*> is closely connected with a story, it can be possible to think that <*sungsingood*> takes in <*A stepmother who eats her son's liver*>.

Meanwhile <*Herwoongaegibonpulee*> shares the description with <*konggipotgi*> & <*konggipotgi-Jeon*>. In the story of <*Herwoongaegibonpulee*> , there is other description in latter half as Herwoong is a stepmother and Kong gi is a daughter by her former wife. The description of the latter half is similar to <*Herwoongaegi*>.

A stepmother type korean old novels classifies into three aspects. First of

all, it is the work in connection with a stepmother tale, in other words, this is the target of this manuscript. <Yeondang-Jeon>, <Hwangwolseon-Jeon> , <konggipot gi-Jeon>, <Josangwon-Jeon> are related to <Bride without hands>, <Hwanghwailyeop>, <konggipotgi>, <a step mother who killed the son in the bridal room>.

<Janghwahongryun-Jeon> is discussed as the work which displays early aspects of a stepmother type korean old novels and there are many study results. In a stepmother tale, there are about two works such as <Janghwahongryun-Jeon> , but <Janghwahongryun-Jeon> is based on the memorial story.

<Aryung-Jeon> & <Hyoryul-ji> are made by influences of a heroic story and one's family's story. When a child by her former wife overcomes ordeals, there is the big change that the motive of an army story is prominent. The meaning of the work is also changed from complications between a stepmother and a child by her former wife to a child's heroic life and the continuance of one's family.

The new-style fiction classifies the work which takes in a special step mother story like <Goouisan> and the work which takes in general description composition and character configuration of a stepmother story like <Chiacsan>.

The chapter III preponderantly studied existential aspect and observed relation between stepmother tale and the Stepmother and the Stepmother type korean old novels in stepmother stories which existed various genres, forms, and mutual relations.

As <Yeondang-Jeon> is made in influence-connection with <Bride without hands>, it is synthetically made each book of <Bride without hands> tale indicated motifs. Moreover, some parts of each book get complicated with

<Hwanghwailyeop>, by the way, <Soonkem-Jeon> which could be an alternative version of <Yeondang-Jeon> was made in such intricacies.

<Hwangwolseon-Jeon> was related to <Hwanghwailyeop>. Because <Hwangwolseon-Jeon> was in influence-connection with <Hwanghwailyeop> and was also related to Heroine novels like <Sunyun-Jeon> and <Yangsojeo-Jeon>, it was important meanings in dominions of stepmother type korean old novels. Exactly, <Hwangwolseon-Jeon> was enough to find out vertical and cross unfolding and transfiguration in stepmother type old novels.

<Konggipotgi-Jeon> has generally exchanged tale's tradition and influence. Up to day, it has been fairy tale's process and has shown vitality of stepmother story.

<Josangwon-Jeon> is similar to narration development of <A step mother who killed the son in the bridal room>. In this tale, beyond a half is that the head of the family show Samyoungdang and it become a folk tale as <Samyungdang chulgayuradam>. Related each part with <Samyungdang chulgayuradam> connect with the first half <Samyungdang-Jeon>. The last of each part is similar to <Josangwon-Jeon>'s narration, but it can discover that change the focus of daughter-in-law through an alternative version's <Sungbuin-Jeon> and <Kimssiyulghang-rok>.

The chapter IV indicate meaning consideration and what is peculiar meaning of concrete writings about stepmother type old novels like <Yeondang-Jeon>.

<Yeondang-Jeon> determined troubles between the stepmother and the daughter of former wife as the main story, and it symbolically shaped that they became real mother and accomplished family through the daughter's marriage talk. The wrist amputation and rebirth motif of the daughter of former wife symbolically show maternity acquirement of the daughter, and

wife and children search of partner of the daughter mean intact family accomplish.

<*Hwangwolseon-Jeon*> show independent self-recognition of the daughter of former wife in conflict between mother and daughter. And besides stepmother's children, who was embossed in the whole narration of <*Hwangwolseon-Jeon*>, plays an important part for collapse d family restoration because of stepmother. Therefore, the significance of <*Hwangwolseon-Jeon*> is that it shows groper about stepmother's recognition and a harmonious family.

<*Konggipotgi-Jeon*> symbolically show marriage talk of the daughter of former wife and women conflict in family. The conflict between the stepmother and the daughter of former wife changes their confrontation, and besides the conflict between the stepmother and the daughter of former wife is originally the transformation of women conflict that it is reputed the wife-wife conflict.

<*Josengwon-Jeon*> express conflict between the stepmother and the daughter of former wife on the face, but it consider the head of a family and a daughter-in-law as mail body. After the head of a family, who was known the fact because of a daughter-in-law that stepmother killed son, has killed stepmother and her children, he give family property into a daughter-in-law keeping custody and leave to wander. This contents showed a domestic tragedy because of stepmother through the head of a family. On the other hand, it is that the daughter-in-law bore a posthumous child, attend on a woman's father-in-law, and revert collapsed family, is intervened in the chaste moral.

The chapter V studied the literary significance of stepmother type old novels about rehabilitation of human relations and damage phase that is

caused by family conflict.

The stepmother stories, inclusive of Stepmother type old novels, are relatively many about conflict between the stepmother and the daughter of former wife. At this time, the conflict of mother and daughter is made that is caused by stepmother, and the relation rehabilitation of mother and daughter is accomplished through stepmother's correction. The daughter of former wife accomplishes self-recognition through the conflict with the head of family and the process of solution. The independent self-rehabilitation is accomplished through the marriage. However, the process which the daughter accomplishes the independent self-rehabilitation in father and daughter's conflict can be found to type noble of <*Ondal tale*>, <*Seodong tale*>, and <*live on my fortune*>.

On the other hands, the responsibility of family troubles is shifted on stepmother in the stepmother stories, inclusive of Stepmother type old novels, but inside facts include critical standpoint about the head of family who doesn't keep truth of home management. After the stepmother became family member, the head of family cause complications with family members. The head of family, who doesn't know a wicked plan of stepmother and estranges the daughter of former wife from family, was foolish and inefficient. If <*Janghwahonglyun-Jeon*> directly has such critical standpoint, literary works in dispute is shown other methods in this manuscript.

A stepmother usually make complications with a child by her former wife and exercise continuous her influence over a dissolution and a restoration of home. However she keeps bad company with a child by her former wife and family, after all she dies from an alienation.

At this time a stepmother is figured as a bad woman and relation damages and alienation are rationalized. In an aspect that a stepmother is figured as a

bad woman, there are a paterfamilias ideology and a reflection of an actuality. When a stepmother story is understood as an initiation, a stepmother represents not only the mother who can stand for an affectionate mother but also the function of an incident leader. In other words, the course that a stepmother is a bad woman is considered not only an literary symbol but a tough-minded principal.

We searched the varied meaning from real facts in connection with a stepmother tale and a stepmother type korean old novels. Many-sided stepmother stories which are not considered in this manuscript will be a problem awaiting solution.

Key Word : A stepmother tale, A stepmother type korean old novels, The relationship, The description structure, The complications composition, <*Bride whout hands*>, <*Yeondang-Jeon*>, <*Hwanghwailyeop*>, <*Hwangwolseon-Jeon*>, <*konggipotgi*>, <*konggipotgi- Jeon*>, <*A stepmother who killed the son in the bridal room*>, <*Josangwon -Jeon(copy text)*>, A pather - familias ideology, *A septmother*, *Figured as a bad woman*.

감사의 글

계절의 순환은 어김이 없어서, 여름의 끝자락에 가을의 공기가 느껴집니다.

돌이켜보니, 성신인으로 배움의 길에 들어서서 많은 은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지난 10여 년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또한 배움의 여정에서 좋은 벗들을 만나 앎과 삶을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족한 논문을 좋은 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이상택 선생님, 정하영 선생님, 김현선 선생님, 강혜선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한 저를 자애롭게 이끌어 주신 심치열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항상 받기만 하는 자식처럼, 많은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께 제자로서 보답해 드린 것이 없는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이 논문이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한 보답이자, 또 다른 공부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학부 때부터 석사, 박사과정에 이르는 10여 년을 함께 공부하며 지혜로운 조언을 주었던 나영이, 가정주부로서 딸아이 키우며 공부를 병행하는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고마웠던 희경씨, 그리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던 부지런한 후배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모임이 항상 기다려지는 우리 스터디 팀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임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노영근 선생님, 공부의 여정에서 만나 살아가는 힘겨움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벗이 되었던 혜정씨와 명숙씨, 모임의 막내이자 든직함으로 뒤를 받쳐주는 자운씨. 공부과 삶에 있어 진실됨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이 모임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말없이 도와주었던 남편 인주씨에게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딸아이를 밝고 건강하게 키워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죄송스러움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곁에 있어주시 못했는데도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서 건강하고 명랑하게 자라준 규민아. 엄마가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지금까지의 공부가 모두 고마운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참 공부를 통해 좋은 글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감사의 글을 맺습니다.

2004년 여름의 끝자락에서.

이 윤 경 올림.